

# 읽기 쉬운 신약성경

Korean: Easy-to-Read Version

Language:  
Country:  
Publisher: © Bible League International  
Copyright: © Bible League International  
Last Updated: 2023-10-20  
ID: a198fd56-83db-4b56-9afb-be235813724e  
ISO: kor  
ISBN:

마태복음.....	4
마가복음.....	33
누가복음.....	52
요한복음.....	83
사도행전.....	105
로마서.....	131
고린도전서.....	144
고린도후서.....	156
갈라디아서.....	164
에베소서.....	169
빌립보서.....	173
골로새서.....	177
데살로니가전서.....	180
데살로니가후서.....	183
디모데전서.....	185
디모데후서.....	188
디도서.....	191
빌레몬서.....	193
히브리서.....	194
야고보서.....	204
베드로전서.....	208
베드로후서.....	212
요한1서.....	214
요한2서.....	218
요한3서.....	219
유다서.....	220
요한계시록.....	222

# 마태복음

## 예수의 족보 (눅 3:23-38)

-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았다.
- 6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다.
-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았다.
-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 11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다.)
- 12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았다.  
16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17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십사 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잡혀 갈 때까지가 십사 대,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 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가 십사 대이다.

## 예수의 탄생 (눅 2:1-7)

18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19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22 이 일은 모두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다.

23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24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24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 동쪽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다

2 예수께서는 헤롯왕 2 때에,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동쪽에서 박사들 3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2 그들은 “유대 사람의 새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와 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예수 ‘구원’ 이라는 뜻의 이름. †† 처녀가... 할 것이다 사 7:14. †† 헤롯 헤롯대왕을 가리킨다. 그는 기원전 40-4년 동안 유대 지방의 영주였다. ††† 박사들 또는 ‘현자들’ ‘점성가들’. 아마도 미래를 점치기 위해 별들을 관찰하던 이방 종교의 학자들을 뜻할 것이다.

† 여고냐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 실제로 요시야는 여고냐의 할아버지였고, 여고냐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다 (왕하 23:28-24:20).

3 유대 사람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왕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와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4 헤롯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다. 5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지방의 베텔레헴 마을입니다.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6 ‘유대 땅의 베텔레헴아,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코 하찮은 고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

7 그리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났다. 그는 그들이 언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알아냈다. 8 헤롯은 박사들을 베텔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 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보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9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텔레헴으로 떠났다. 그때 마침 동쪽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 별은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10 박사들은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몹시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11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기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풀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 卍을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다.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알려 줄 때까지 이집트에 있어라.”

14 요셉은 서둘러 일어나서 그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몸을 피하였다. 15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다**

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베텔레헴과 그 둘레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17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그들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

**요셉과 마리아, 이집트에서 돌아오다**

19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일

† 미 5:2. †† 유향과 몰약 값비싼 향료. †† 내가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호 11:1. †† 렘 31:15.

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21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22 그러나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卍 지방으로 갔다. 23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 卍卍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卍卍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준비하다**

(마 1:1-8; 눅 3:1-9, 15-17; 요 1:19-28)

3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 卍이 나타났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2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였다. 3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卍

4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5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卍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6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7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무리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8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속으로 우쭐거리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그분이 손에 키 卍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다**

(막 1:9-11; 눅 3:21-22)

13 그대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 강 卍으로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주려 하지 않았다.

卍 갈릴리 유대의 북쪽에 있는 지역. 卍卍 나사렛 갈릴리의 저지대에 있는 한적한 골짜기에 있고, 그 골짜기는 에스드래론 평야에서 약간 북쪽에 있다. 卍卍 그들... 부를 것이다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구절이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마태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 사람’ 인 삼손(삿 13:5-7)과 ‘나사렛 사람’ 인 예수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을 비교하여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卍 세례자 요한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 과는 다른 사람. 卍 사 40:3. 卍卍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卍 키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그릇. 卍卍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6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앉는 것을 보셨다. 17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다**

(막 1:12-13; 눅 4:1-13)

4 그 뒤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악마의 시험을 받게 되셨다. 2 예수께서는 밤낮 사십 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프셨다. 3 그러자 악마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4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6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렇게도 쓰여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너를 돌보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리라.’” ‡

7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

8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예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보여 주며 말하였다. 9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고 나를 받들어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10 그러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주 네 하나님을 받들고, 그분만을 섬겨라.’” †

11 그러자 악마는 예수께로부터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모셨다.

**갈릴리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다**

(막 1:14-15; 눅 4:14-15)

12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13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었다. 14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5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 ††의 갈릴리!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 악마 또는 ‘시험하는 자’. †† 신 8:3. ‡ 시 91:11-12. †† 신 6:16. †† 신 6:13. †††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믿고, 다른 민족은(이방인)죄인으로 여겼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

17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몇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다**

(막 1:16-20; 눅 5:1-11)

18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20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 다른 두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도 부르셨다. 22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시다**

(눅 6:17-19)

23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또한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24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온갖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간질병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해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눅 6:20-23)

5 예수께서 무리 지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2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 받을 것이다.

5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을 것이다.

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10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 †††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사 9:1-2. § 그들이...받을 것이다 시 37:11. §†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11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온갖 험담을 듣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12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 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막 9:50; 4:21 눅 14:34-35; 8:16)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14 너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15 것처럼 등불을 켜서 향아리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16 이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와 구약성경**

17 내가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 율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화내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21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 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룬 말을 들어 알고 있다. 22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서 재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니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에, 네게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25 네가 잘못된 일이 있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라도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내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26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죄 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살인하지...것이다 출 20:13; 신 5:17. ††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형제나 자매에게 ‘라가’ 라고 말하는”. 아람어 ‘라가’ 는 멸시를 나타내는 욕.

**성적 죄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27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으면, 그는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29 그러니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 던져 버려라. 네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 버려라. 네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마 19:9; 막 10:11-12; 눅 16:18)

31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라고 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 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맹세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33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주께 한 맹세를 다 지켜라.’ 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룬 말씀을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35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36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니,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37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원수 갚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눅 6:29-30)

38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라는 말을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 대 주어라. 40 누가 너를 고발하여 네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41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 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눅 6:27-28, 32-36)

43 ‘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47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 간음하지 말아라 출 20:14; 신 5:18. †† 누구든지...써 주어라 신 24:1. †† 거짓...다 지켜라 레 19:12; 민 30:2; 신 23:21. ††† 눈에는...이 출 21:24; 레 24:20; 신 19:21. ††† 네 이웃은...미워하라 레 19:18.

지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48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돕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6 “너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옳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아라. † 위선자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남을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4 그렇게 네 자선행위를 비밀로 해 두어라. 그러면 은밀하게 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눅 11:2-4)

5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희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7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튼소리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8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9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10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1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14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금식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16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일부러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얼굴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도 하여라. 18 그렇게 하여, 네

† 떠들썩하게... 말아라 글자 그대로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 악한 자에게서 또는 ‘악에서’. 어떤 그리스어 번역에는 이 부분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덧붙여 있다.

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서만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한 일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

(눅 12:33-34; 11:34-36; 16:13)

19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려 하지 말아라. 이 땅의 재물은 벌레 먹고 녹이 슬어 없어지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20 그러나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재물이 벌레 먹거나 녹이 슬어 없어지지도 않으며,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을 밝게 해 주는 등불이다. 눈이 건강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23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네 안의 빛이 꺼지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24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눅 12:22-34)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귀중하지 않느냐? 26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곳간에 채워 넣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늘일 수 있느냐?

28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피는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 †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렸어도 이 들꽃들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30 믿음의 약한 사람들아, 오늘은 살아 있어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31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32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34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늘만의 걱정거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남을 판단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눅 6:37-38, 41-42)

7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가 인색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3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의 눈에 들어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4 자기

† 솔로몬 다윗의 아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알려져 있다.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친구에게는 ‘네 눈에 들어 있는 티끌을 빼 주겠다.’ 고 하느냐? <sup>5</sup> 너희 위선자들이야,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밝아져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sup>6</sup>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를 해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

(눅 11:9-13)

<sup>7</sup>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sup>8</sup>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sup>9</sup> 너희 가운데 자기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sup>10</sup>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sup>11</sup>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매우 중요한 규칙**

<sup>12</sup>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의 요점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눅 13:24)

<sup>13</sup>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sup>14</sup>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의 됴됨이다**

(눅 6:43-44; 13:25-27)

<sup>15</sup> 거짓 예언자 <sup>†</sup>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순한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sup>16</sup> 너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sup>17</sup>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sup>18</sup>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sup>19</sup>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에 던져 버린다. <sup>20</sup> 이렇듯 나무나 사람이든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sup>21</sup>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sup>22</sup>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sup>23</sup>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sup>†</sup>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눅 6:47-49)

<sup>24</sup>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sup>25</sup>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으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sup>26</sup>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sup>27</sup>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sup>28</sup>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sup>29</sup>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피부병 환자를 고쳐 주시다**

(막 1:40-45; 눅 5:12-16)

**8**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sup>2</sup> 그 가운데 나병 <sup>†</sup>에 걸린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sup>3</sup>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래, 너를 고쳐 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 <sup>4</sup>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sup>‡</sup>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 주시다**

(눅 7:1-10; 요 4:43-54)

<sup>5</sup> 예수께서 가버나움 <sup>‡</sup>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대장 <sup>‡</sup>이 다가와서 예수께 도와 달라고 청하였다. <sup>6</sup> 그는 “주님, 제 종이 증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sup>7</sup> 예수께서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의 병을 고쳐 주겠다.”

<sup>8</sup>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sup>9</sup> 제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압니다.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인은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해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sup>10</sup>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토록 깊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sup>11</sup> 많은 사람이 동서 여러 곳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sup>12</sup>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 받았던 백성들은 캄캄한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sup>13</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백인대

<sup>†</sup> 나병 악성 피부병.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킬 수 있다. <sup>‡</sup> 제사장에게...제물을 드려라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오면,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예물을 바쳐야 했다 (레 14:2-32). <sup>‡‡</sup>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sup>‡‡‡</sup>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장에게 말씀하셨다.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백인대장의 종이 나왔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다**  
(막 1:29-34; 눅 4:38-41)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부인에게서 떠났다. 그러자 부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시종을 들기 시작하였다.

16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도 모두 낫게 해주셨다. 17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 †

**예수를 따르는 것**  
(눅 9:57-62)

18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둘러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19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20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에게는 머리를 둘 곳조차 없구나.”

21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지금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폭풍을 잠재우시다**  
(막 4:35-41; 눅 8:22-25)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배에 올랐다. 24 갑자기 호수에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 25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2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27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다**  
(막 5:1-20; 눅 8:26-39)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였다. 귀신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29 그들은 예수께 소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해진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벌하러 오셨습니까?”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사 53:4. ††† 가다라 지방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

30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31 귀신들이 예수께 빌었다. “우리를 이 사람들의 몸에서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의 몸속으로 보내 주십시오.”

32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가거라!”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몸속으로 들어갔다.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 달려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34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 고장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시다**  
(막 2:1-12; 눅 5:17-26)

9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살고 계시던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 2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이.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3 그때 율법 선생 몇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4 예수께서는 율법 선생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느냐? 5 ‘네 죄가 용서되었다’ 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6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7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8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태(레위)를 부르시다**  
(막 2:13-17; 눅 5:27-32)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 #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무원 #들과 죄인 ##들이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님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하고 물었다.

1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13 그러니 가서 성경에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신 예수**  
(막 2:18-22; 눅 5:33-39)

14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 세관 세금을 거두는 관청. ##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으로는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 내가...자비이다 호 6:6.

1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 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16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어 깎는 사람은 없다. 새로 댄 천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고 가죽 부대도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쓸 수 있다.”

**죽은 소녀를 살리고, 병든 여인을 고치시다**

(막 5:21-43; 눅 8:40-56)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회당장 이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

20 마침 그때 열두 해 동안 심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다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21 그 여자는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그 순간 여자의 병이 나았다.

23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24 “물러가라! 이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였다. 25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신 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다. 26 이 소문이 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다**

27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 이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의 눈을 밝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30 그러자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이르셨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31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32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 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33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3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였다.

†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장소인 회당의 책임자. ††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35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36 예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적다. 38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께 당신의 추수 밭으로 일꾼들을 더 보내 달라고 기도하여라.”

**사도들을 전도여행에 보내시다**

(막 3:13-19; 6:7-13; 눅 6:12-16; 9:1-6)

10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아픔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2 열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무원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열심쟁이 †시몬과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5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 †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 †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지 말아라. 6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가거라. 7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 알려라. 8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 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 주어라. 나병 † 환자를 낫게 해 주고, 귀신을 내쫓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능력을 거저 준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거저 도와주어라. 9 돈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10 여행 가방이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11 너희가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12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 댁에 평화가 깃들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고 들어가거라. 13 그 집 사람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14 어디서든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15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고난에 대해 경고하시다**

(막 13:9-13; 눅 21:12-17)

16 조심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때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

‡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때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열심쟁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가나나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아마도 ‘질투심이 많은’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온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특별히 열심이었던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기원후 67-68년 겨울까지는 ‘열심당’ 이라고 알려진 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열심당원’ 이란 이름은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여 싸운 유대 사람의 단체에 속했던 사람에게 훨씬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믿고, 다른 민족은(이방인) 죄인으로 여겼다. †††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나병 약성 피부병.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킬 수 있다.

수하여야. 17 사람들을 조심하여야.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길 것이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18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19 그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할 말을 받게 될 것이다. 20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거슬러 들고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22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3 어떤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 하면 다른 마을로 가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도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것이다.

24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25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은 자기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나쁜 이름으로 부르겠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눅 12:2-7)

26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것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이르는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크게 외쳐라. 28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29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30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까지도 낱알이 세시는 분이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너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눅 12:8-9)

32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눅 12:51-53; 14:26-27)

34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왔다.

35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36 ‘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

†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것. ††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에서는 ‘악령’ ‘귀신’ ‘마귀’의 뜻으로 쓰인다. ‡ 미 7:6.

37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39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막 9:41)

40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41 예언자를 보고,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는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하여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 세례자 요한**  
(눅 7:18-35)

**1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2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3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5 눈 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나병 患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어라. 6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7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患를 보러 갔더냐? 8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9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10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

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12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 왔다. ††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13 요한이 오기까지 모든 예언서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

†† 나병 악성 피부병.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킬 수 있다. ††† 갈대 예수께서는 요한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말 3:1. ††††† 폭행을 당해 왔다 또는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며 쓰였다. <sup>14</sup>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는다면, 요한이 이미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 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sup>15</sup>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sup>16</sup>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sup>17</sup>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sup>18</sup>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sup>19</sup>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 <sup>†</sup>과 죄인 <sup>‡</sup>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써 그 옳음이 증명된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다**

(눅 10:13-15)

<sup>20</sup>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sup>21</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신 <sup>‡</sup>아,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새다 <sup>‡</sup>야,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 <sup>‡</sup>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죄를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썼을 것이다. <sup>22</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sup>23</sup> 가버나움 <sup>§</sup>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성실이나?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네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sup>24</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다**

(눅 10:21-22)

<sup>25</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 주셨습니다. <sup>26</sup>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sup>27</sup>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 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sup>28</sup>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sup>29</sup> 내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의 영혼이 편안히 쉬 수 있을 것이다. <sup>30</sup>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 엘리야 말 4:5-6을 볼 것. ††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이나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 고라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마을. ††††† 벳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마을. †††††† 두로와 시돈 매우 악한 사람들이 살던 레바논의 성읍들. ††††††† 베옷을... 썼을 것이다 사람들이 때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썼다. §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막 2:23-28; 눅 6:1-5)

**12**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sup>2</sup>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sup>3</sup>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 <sup>‡</sup>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한 일에 대해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sup>4</sup>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sup>5</sup>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일 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sup>6</sup>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sup>7</sup>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 <sup>‡†</sup>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진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sup>8</sup>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한 남자를 고치시다**

(막 3:1-6; 눅 6:6-11)

<sup>9</sup>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sup>10</sup> 거기에는 한 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sup>11</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sup>12</sup>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sup>13</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 <sup>14</sup>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

<sup>15</sup>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 주셨다. <sup>16</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sup>17</sup>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sup>18</sup> “보아라! 내가 뽑은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sup>19</sup> 그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sup>20</sup>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기까지,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내가... 아니 다 호 6:6.

꺾어진 갈대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꺼져 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21 모든 민족이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막 3:20-30; 눅 11:14-23; 12:10)

22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는 귀신이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 주시자, 그가 말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23 그러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 ††이란 말인가?”

24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 †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25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고을이나 집안도 갈라져 싸우면 오래 갈 수 없다. 26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버텨 낼 수 있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28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9 또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야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30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는 사람이다.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모독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 받을 수 없다. 32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를 알 수 있다**  
 (눅 6:43-45)

33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가 가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4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의 마음이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35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3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함부로 지껄인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37 너는 네가 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 있다고 선고 받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막 8:11-12; 눅 11:29-32)

38 그때 율법 선생과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39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40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1 심판 날에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 여기에 있다. 42 심판 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 ††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땅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악하다**  
 (눅 11:24-26)

43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쉼 곳을 찾아 물 없는 광야를 헤맨다. 그러다가 쉼 곳을 찾지 못하면 44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옛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악한 영은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 있지 않으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45 그러면 악한 영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그 집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은 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된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이다**  
 (막 3:31-35; 눅 8:19-21)

46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47 그때 누군가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나?” 49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50 그렇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씨 뿌리는 비유**  
 (막 4:1-9; 눅 8:4-8)

**13**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가서 앉으셨다. 2 많은 사람이 예수의 돌레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 †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농부가 씨를 뿌릴

†† 요나가... 것처럼 온 1:11-17을 볼 것. †† 니스웨 사람들은... 때문이냐 온 3:5-9을 볼 것. ††† 이가 또는 ‘것이’. ††† 남쪽 나라의 여왕 시바의 여왕을 가리킨다.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왔었다(왕상 10:1-13). § 이가 또는 ‘것이’.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사 42:1-4. ††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성경에서는 ‘악령’ ‘귀신’ ‘마귀’ 의 뜻으로 쓰인다.

때에, 그 가운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 버렸다. <sup>5</sup>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으나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았다. <sup>6</sup>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곧 말라 버렸다. <sup>7</sup>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자라 올라 숨을 막아 버렸다. <sup>8</sup>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린 씨의 백 배, 육십 배 또는 삼십 배의 열매를 맺었다. <sup>9</sup>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까닭**  
(막 4:10-12; 눅 8:9-10)

<sup>10</sup>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여쭙었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sup>11</sup>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sup>12</sup>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sup>13</sup>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sup>14</sup> 그러니 이사가야 저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리라.

<sup>15</sup>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눈은 아예 감아 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 줄 것이다.’ †

<sup>16</sup>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다. <sup>17</sup>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선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풀어 말씀해 주시다**  
(막 4:13-20; 눅 8:11-15)

<sup>18</sup> 지금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터이니 잘 들어라. <sup>19</sup>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악한 자 <sup>†</sup>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냉큼 가져가 버린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sup>20</sup>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sup>21</sup>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잠시 견딜 뿐이다.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거나 박해 <sup>‡</sup>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sup>22</sup>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온갖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sup>23</sup>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 사 6:9-10. †† 악한 자 또는 ‘악마’. ‡ 박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밀과 가라지의 비유**

<sup>24</sup>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 <sup>‡</sup>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sup>25</sup>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밭주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 <sup>‡</sup>를 뿌려 놓고 가 버렸다. <sup>26</sup> 그 뒤에 밀이 자라 이삭이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sup>27</sup> 그래서 밭주인의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sup>28</sup> 주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원수들이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다 뽑아 버릴까요?’

<sup>29</sup>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된다. <sup>30</sup>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뽑아 묶어 태워 버려라. 그리고 나서 밀을 거두어 내 곳간에 넣어라.’ 라고 이를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비유들**  
(막 4:30-34; 눅 13:18-21)

<sup>31</sup>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sup>‡</sup>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렸다. <sup>32</sup>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푸성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sup>33</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3말에 누룩 <sup>‡</sup>을 섞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다.”

<sup>34</sup>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sup>35</sup>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리라.

나는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말하리라.” §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풀이해 주시다**

<sup>36</sup> 그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sup>37</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비유에서,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sup>38</sup>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말하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백성을 말한다. <sup>39</sup>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

<sup>40</sup> 그러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sup>41</sup>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죄 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일을 한 자들을 모두 그의 나라에서 뽑아 낼 것이다. <sup>42</sup> 천사들은 이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이들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가라지 잡초 가운데 하나. 밀과 비슷하게 생겨 구별하기 어렵다. †††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 누룩 술을 빚거나 가루반죽을 부릴 때 넣는 효소. § 시 78:2.

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 한편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보물과 진주의 비유**

44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46 장사꾼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그물의 비유**

47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물고기를 끌어 올리는 것과 같다. 48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 버린다. 49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럴 것이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 낼 것이다. 50 그런 다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다 알 아듣겠느냐?”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 선생은, 자기 집 공간에서 낡은 보물은 물론 새 보물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고향으로 가시다**

(막 6:1-6; 눅 4:16-30)

53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었을까? 55 저 사람은 목수 †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56 그리고 저 사람의 누이들도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57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58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 주지 않으셨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다**

(막 6:14-29; 눅 9:7-9)

**14** 그때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2 헤롯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3 헤롯은 오래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4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여러 번 말하였기 때문이다. 5 그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6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 주었다. 7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8 그러자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이 자리로 가져다주세요.” 9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여러 손님들 앞에서 약속하였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명령하였다. 10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어 오게 하였다. 11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주검을 거두어다가 묻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다**

(막 6:30-44; 눅 9:10-17; 요 6:1-14)

13 예수께서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1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모여든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낫게 해 주셨다.

15 저녁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7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빵과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19 그리고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0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긴 것을 모아 담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21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막 6:45-52; 요 6:16-21)

22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을 헤쳐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르셨다. 23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난 뒤에 조용히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께서는 그곳에 혼자 계셨다. 24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물에서 멀리 나가 있었는데, 거슬러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맞아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25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 26 예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 목수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킨다. ††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영주였다.



27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정말로 선생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서 선생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 다가갔다. 30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 그러자 그는 물 속으로 빠져들면서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32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33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에게 경배하며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다**  
(막 6:53-56)

34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sup>†</sup>에 닿았다. 35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가까운 여러 마을에 두루 알렸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다.

36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규칙**  
(막 7:1-23)

**15**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2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3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4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sup>††</sup>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sup>‡</sup>라고도 하셨다. 5 그런데 너희는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6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 버렸다. 7 위선자들이! 이사야<sup>‡‡</sup>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다.

8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9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다.’<sup>‡‡‡</sup>

10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11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12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14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 †† 네...공경하라 출 20:12. †‡ 누구든지...것이다 신 5:16. †‡‡ 이사야 기원전 742-701에 유대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사 29:13.

눈먼 사람들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된다.”

15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그 뜻을 모르느냐? 17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18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짓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험뜯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20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여인을 도와주시다**  
(막 7:24-30)

21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2 그러자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sup>‡‡‡</sup>이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23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청했다. “저 여자가 줄곧 소리치며 따라오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2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사람들<sup>‡‡‡</sup>을 찾으라고 보내셨다.”

2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2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7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참 장하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다**

29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30 많은 사람이 무리 지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못 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데리고 온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눕혀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31 말 못 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성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sup>§</sup>을 찬양하였다

**사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다**  
(막 8:1-10)

32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 몹시 가엾구나.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는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다. †‡‡‡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양들’임. §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유대 사람의 하나님.

33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3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35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36 그리고 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그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모아 광주리에 담아 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38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천 명이나 되었다. 39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sup>†</sup>으로 가셨다.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험하다**

(막 8:11-13; 눅 12:54-56)

**16**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2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해질 무렵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구나.’ 하고 말한다. 3 또 동틀 때에는 ‘하늘이 붉고 구름이 많이 낀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굿겠구나.’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는구나. 4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하지만 너희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sup>‡</sup> 말고는 아무 표적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다**

(막 8:14-21)

5 예수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6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sup>‡</sup>와 사두개파의 누룩<sup>‡</sup>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7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8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9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일을 벌써 잊었느냐?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여러 광주리에 모아 담지 않았느냐? 10 또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과, 그러고도 남은 것을 주워 모은 것이 여러 광주리였던 것을 잊었느냐? 11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의 뜻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12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에 쓰이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마가단 지역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다. †† 요나의 표적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것이,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을 지내신 것과 같다(은). ‡ 바리새파 유대 사람의 율법과 전통을 가장 충실히 지킨다고 믿었던 유대교의 한 종파. †† 누룩 술을 빚거나 가루반죽을 부풀게 할 때 넣는 효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다**

(막 8:27-30; 눅 9:18-21)

13 예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라<sup>‡</sup>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sup>‡</sup>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예레미야<sup>‡</sup>이거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17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네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18 너는 베드로<sup>§</sup>다. 나는 이 바위<sup>‡</sup>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죽음의 힘<sup>‡</sup>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나는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20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

(막 8:31-9:1; 눅 9:22-27)

21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으셔야 할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sup>‡</sup>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했다.

23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4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의 어떤 것도 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27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올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릴 것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 있다.”

‡ 빌립보의 가이사라 갈릴리 호수와 요단 강이 흘러나오는 지역에 있다. ††† 엘리야 기원전 850년 즈음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예언자. †††† 예레미야 기원전 600년 즈음에 살았던 예언자. § 베드로 이 이름은 ‘바위’라는 뜻. §† 바위 베드로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 §†† 죽음의 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저승의 문’. §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

(막 9:2-13; 눅 9:28-36)

**17** 옛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sup>2</sup>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바뀌셨다. 예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게 변하였다. <sup>3</sup>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sup>4</sup>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sup>†</sup>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sup>5</sup>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밝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

<sup>6</sup> 예수의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sup>7</sup>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sup>8</sup>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sup>9</sup>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sup>10</sup>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sup>11</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는 말은 맞다. <sup>12</sup>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야는 벌써 왔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sup>13</sup> 이 말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한 소년의 병을 낫게 하시다**

(막 9:14-29; 눅 9:37-43)

<sup>14</sup>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 <sup>15</sup> 그리고는 말하였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이가 간질병 <sup>‡</sup>에 걸려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이나 물 속에 곧잘 뛰어든곤 합니다. <sup>16</sup> 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sup>17</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고 견뎌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sup>18</sup> 예수께서 아이에게 들어 있는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갔다. 그 순간 아이의 병이 나았다.

<sup>19</sup> 예수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악령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sup>20</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sup>††</sup> 한 알만한 믿음만

†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 초막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간단한 집. ‡ 간질병 때로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하는 병. †††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sup>21</sup> ††

**자신이 죽으실 것에 관해 말씀하시다**

(막 9:30-32; 눅 9:43-45)

<sup>22</sup>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sup>23</sup>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세금 내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sup>24</sup>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전세 <sup>‡‡</sup>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냅니까?” <sup>25</sup> “예, 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 <sup>‡‡‡</sup>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어둘 때, 그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느냐? 자기 자녀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냐?”

<sup>26</sup>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sup>27</sup>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거기에 은돈 한 닢 <sup>§</sup>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뒤통의 성전세로 주어라.”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막 9:33-37; 눅 9:46-48)

**18**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sup>2</sup>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

<sup>3</sup>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sup>4</sup>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sup>5</sup>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지 말아라**

(막 9:42-48; 눅 17:1-2)

<sup>6</sup>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sup>7</sup>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죄 짓게 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다. <sup>8</sup> 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 버려라. 성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낫다. <sup>9</sup> 그러니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

‡‡ 21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런 종류의 악령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다. ‡‡‡ 성전세 모든 유대 남자들이 성전 관리를 위해 해마다 3월에 내던 두 드라크마의 세금. ‡‡‡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 § 은돈 한 닢 그리스어로는 ‘스타테르’. 한 스타테르는 두 디드라크마, 곧 네 드라크마에 해당한다.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낫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눅 15:3-7)

10 너희는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11 †

12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은 언덕에 그대로 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13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14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했을 때**  
(눅 17:3)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잘못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 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하나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 사람이 네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17 그래도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무원처럼 여겨라.

18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

19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용서에 관한 비유**

21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 여쭙었다. “주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22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이라도 † 용서해 주어라!”

23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빛진 종들에게서 빛을 돌려받기로 한 어떤 임금에 비유 †할 수 있다. 24 임금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자, 일만 달란트 ‡를 빛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 왔다. 25 종은 빛을 값을 돈

이 없었다. 임금은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26 그러자 종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것을 다 갚겠습니다.’ 27 임금은 종이 하여워서 그가 진 빚을 면제해 주고, 그를 풀어 주었다.

28 종은 풀려난 뒤 자기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 †를 빚진 다른 종을 만났다.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의 멍살을 잡고 말하였다. ‘네가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아라!’

29 그러자 멍살을 잡힌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빚은 꼭 갚겠습니다.’

30 그러나 첫번째 종은 그 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31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이 일을 다 일렸다.

32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내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하도 간청하기에 내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33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34 화가 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다. 35 너희가 너희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막 10:1-12)

1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2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3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를 떠 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성경 §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6 라는 말씀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쳐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7 §6 그러므로 이제 두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 주셨으니, 아무도 그 둘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7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모세 8 라는 이혼 증서를 써 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9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 ¶하는 사람이다. 남자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했을 때뿐이다.”

10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것이라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 성경 구약성경. §† 남자와...만드셨다 창 1:27; 5:2. §†† 그러므로...될 것이다 창 2:24. §‡ 모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인물. 그가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책을 썼다고 여겨진다.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서약을 깨는 것을 말한다.

† 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다. ††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너희가 무엇이든...용서하실 것이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일흔일곱 번이라도 또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창 4:24).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달란트 한 달란트가 일꾼 한 사람의 15년 품삯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12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아이들을 반기시다**

(막 10:13-16; 눅 18:15-17)

13 그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1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5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어느 부자가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다**

(막 10:17-31; 눅 18:18-30)

16 그런데 한 남자가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1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18 그 사람이 여쭙었다.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20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물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네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4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예수께 여쭙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26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27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선생님을 좇아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2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의 열두 가문 卍을 심판할 것이다. 29 집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 계명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을 뜻한다.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을 말한다. ††† 네...공경하여라 출 20:12-16; 신

논발을 버리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0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쫓겨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卍

**포도밭 일꾼 이야기**

20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밭 주인에게 비길 수 있다. 이 포도밭 주인은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2 그는 일꾼들에게 그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8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밭주인은 일꾼들을 받으러 내보냈다.

3 아침 아홉 시쯤 되었을 때 밭주인은 장터에 나갔다. 그는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4 밭주인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내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5 그리하여 사람들은 밭으로 일하러 갔다.

밭주인은 열두 시와 세 시쯤에 또 장터로 나갔다. 이번에도 그는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자기 밭의 일꾼으로 데려왔다. 6 저녁 다섯 시쯤 되었을 때 밭주인은 장터로 다시 나갔다. 그는 장터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밭주인은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서 서 있소?’ 하고 물었다.

7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밭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8 날이 저물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렀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일한 삯을 주게. 내가 가장 나중에 부른 일꾼들부터 삯을 주게. 그리고 맨 먼저 부른 일꾼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삯을 주게.’

9 저녁 다섯 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았다. 모두 한 데나리온 을 받았다. 10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다른 일꾼들보다 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각각 한 데나리온만 돌아갔다. 11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뒤에 밭주인에게 가서 따졌다. 12 그들은 밭주인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맨 나중에 일하러 와서 겨우 한 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종일 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습니까?’

13 그러나 밭주인은 이들 가운데 한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네. 자네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내 밭에 와서 일한 것이 아닌가? 14 그러니 자네 품삯이나 받아 가게. 나는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자네와 똑같은 품삯을 주겠네. 15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내게 없단 말인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서 샘이 나는가?’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5:16-20. †† 네가...사랑하여라 레 19:18. ††† 이스라엘 먼저 유대 나라를 뜻하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 †††† 열두 가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룬 가문. †††† 가장 높은...많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8 데나리온은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다**

(막 10:32-34; 눅 18:31-34)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18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19 그리고 이방 사람 †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비웃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어머니가 예수께 특혜를 요청하다**

(막 10:35-45)

20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을 한 뒤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2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시면, 제 두 아들을 각각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22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실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지 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내 아버지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

24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화를 냈다. 25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그들의 고관들은 권력을 휘두른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27 그리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 †하기 위해서 왔다.”

**눈먼 사람 둘을 고치시다**

(막 10:46-52; 눅 18:35-43)

29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 †를 떠나려고 할 때에 큰 무리가 예수의 뒤를 따랐다. 30 그 길에 눈먼 사람 둘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이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31 무리가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 둘은 계속 “다윗의 아들인 주여,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32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33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여,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 내가 마셔야...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곤 하셨다.  
†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 여리고 요단강 남쪽 가까이에 있는 마을. ††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었다.

34 예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21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이 올리브산 †† 기슭에 있는 벳바게 ††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셨다. 2 예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가거라. 마을에 들어서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나귀 옆에는 새끼도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3 혹시 너희에게 나귀들을 왜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 나귀들을 쓰시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어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4 이 일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일어났다.

5 시온 §성에 알려라.

‘보아라, 너희 임금께서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

6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8 큰 무리가 겹옷을 벗어 길에 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다. 9 예수를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아들 §†† 을 찬양하라! ††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통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11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대답하였다. “이분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

(막 11:15-19; 눅 19:45-48; 요 2:13-22)

12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다. 13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 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 로 ††† 만들고 있구나.”

14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이들을 낫게 해 주셨다. 15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도 보았다. 아이들은 “다윗의 아들을 찬양

††† 올리브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 벳바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을. §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 속 9:9. §††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 찬양하라 글자 그대로는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 시 118:26. §† 찬양하라 글자 그대로는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 내 집은...것이다 사 56:7. §†† 도둑의 소굴 렘 7:11.

하라!” 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화가 났다.

16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듣는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리라.’ †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17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 ‡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날 밤을 묵으셨다.

**예수께서 믿음의 능력을 보이시다**

(막 11:12-14, 20-24)

18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다. 예수께서는 배가 매우 고프셨다. 19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쪽으로 가셨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는 잎만 있을 뿐 열매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죽었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께 여쭙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갑자기 말라죽을 수 있습니까?”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저 나무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희는 저 산에게 ‘산아,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막 11:27-33; 눅 20:1-8)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보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2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하나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25 요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그들은 예수의 물음을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는 ‘그러면 당신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오. 26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준 것이다.’ 라고 하자니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고 있으니 말이오.”

27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요한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

28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 사람이 만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 주께서...하리라 시편(그리스어 판) 8:2 †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마을. ‡ 요한 예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마 3:15).

29 만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들은 마음을 바꿔 포도밭으로 갔다.

30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이 대답하였다. ‘예,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끝내 가지 않았다.

31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만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세무원 †이나 창녀 ‡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32 요한이 너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보여주려고 왔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원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며 요한을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막 12:1-12; 눅 20:9-19)

33 비유 †를 하나 더 들어 보아라. 어떤 땅 주인이 밭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밭에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 밭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확 ‡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는 농부 몇 사람에게 밭을 세로 내어 주고 여행을 떠났다. 34 포도를 거두어둘 일 때가 되었다. 포도밭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 오게 하였다.

35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이고, 나머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다. 36 밭주인은 다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처음 왔던 종들에게 한 것처럼 하였다. 37 그래서 밭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밭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8 그러나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밭은 그의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밭은 우리 차지이 될 것이다.’ 39 그래서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40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그 나쁜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이오. 그리고 추수 때에 자기 몫을 줄 농부들에게 밭을 세놓을 것이오.”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 §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되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놀랍기만 하구나.’ ††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44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또한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

†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창녀 몸 파는 여자.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돌확 돌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확. § 성경 구약성경. ¶ 머릿돌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 †† 시 118:22-23. †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44절이 없음.

45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 1들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46 그들은 예수를 잡아 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믿기 때문이었다.

**잔치에 초대 받은 사람들에 관한 비유**

(눅 14:15-24)

22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임금은 종들을 시켜 혼인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여라. 가장 좋은 소와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5 그러나 초대 받은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저마다 자기 일을 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갔다. 6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매우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불태웠다.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다. 내가 앞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9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청해 내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10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눈에 띄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았다. 종들은 이 사람들을 잔치가 차려져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잔칫집은 사람들로 북적대었다.

11 임금이 사람들을 둘러보러 들어왔다. 임금은 잔치 자리에 걸맞지 않은 차림새를 한 사람을 보았다. 12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나? 자네는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밖으로 내던져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괴로워 이를 갈 것이다.’

14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막 12:13-17; 눅 20:20-26)

15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틀린 말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트집잡아 예수를 잡기로 하였다. 16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 11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17 선생님께 여쭙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8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어찌하여 내 속을 떠 보려고 하느냐? 19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 다오.” 그들은 예수께 데나리온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헤롯 당 당시 세력이 컸던 유대의 정치 단체.

† 하나를 보여 드렸다. 20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21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막 12:18-27; 눅 20:27-40)

22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23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24 “선생님, 모세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5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26 그 동생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차례로 형수와 결혼을 했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27 맏형의 아내였던 여자가 맨 나중에 죽었습니다. 28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 1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30 부활한 뒤에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31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32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2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33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막 12:28-34; 눅 10:25-28)

34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다. 35 그들 가운데 한 율법 선생이 이런 물음으로 예수를 시험하였다. 36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3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 마음 3을 다하고, 네 영혼 4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5 하는 것이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6 한 것이다. 40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담겨 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다**

(막 12:35-37; 눅 20:41-44)

41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물으셨다.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7입니다.”

†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 성경 구약성경. ††† 나는...하나님이다 출 3:6. †††† 마음 일반적으로 ‘지성’ ‘의지’를 상징한다. ††††† 영혼 일반적으로 ‘정서’ ‘감정’을 상징한다. § 네 마음을...사랑하여라 신 6:5. §† 네 이웃을...사랑하여라 레 19:18. §††



43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성령의 감화 1를 받아 그리스도를 ‘주’ 라고 불렀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44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리라.’ 11

45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냐?” 46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을 꾸중하시다**

(막 12:38-40; 눅 11:37-52; 20:45-47)

**23** 예수께서 무리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3 그러나 너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는다. 4 그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성경 주머니 1를 크게 만들고, 옷에 다는 술을 길게 하여 늘어뜨리고 다닌다. 6 그들은 잔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는다. 7 또 그들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8 그러나 너희는 ‘선생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다. 9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10 너희는 ‘선생님’ 이라는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11 너희 가운데서 으뜸인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12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3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14 11

15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나라 땅을 두루 돌며, 너희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희와 같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16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제 앞도 잘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

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17 너희 눈멀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 금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전이 더 중요하다. 18 또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단 1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19 너희는 눈뜯장님들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나 아니면 제단이나? 제단의 제물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제단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단이 더 중요하다. 20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1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2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기르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분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11,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 물론 가진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실천하여야 했다. 24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너희가 바로 눈뜯장님이다. 자기 잔에 빠진 하루살이는 건져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25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26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눈뜯장님들이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27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하얀 회를 칠한 무덤들과 같다. 이 무덤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다. 28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 차 있다.

29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롭게 산 사람들의 기념비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30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31 너희는 너희 자신이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2 그러니 너희 조상이 시작한 죄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33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 하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며, 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35 그리하여 땅에서 흠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의인 아벨 11에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1 사이에서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에 11 이르기까지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너희는

11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칠 때 쓰기 위해 돌로 만든 탁자 모양의 단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다. 1111 박하, 회향, 근채...드리면서 밭에서 키우는 작은 채소로 음식의 양념으로 쓰인다. 모세의 법에 보면 발작물과 가축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레 27:30-32; 신 26:12). 이러한 채소들은 바쳐야 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채소들까지 바치는 것이 모세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1111 아

다윗의 자손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쓰여 있다. 1 감화 밖에서 오는 영향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 111 시 110:1. 1 성경 주머니 성경 가운데 중요한 네 권의 책을 담은 작은 가죽 주머니. 어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주머니를 이마와 왼쪽 팔에 달고 다녔다. 111 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훌러미의 집을 삼키고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는 길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덧붙여 있다.

반드시 그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sup>36</sup>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의 책임과 벌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다**  
(눅 13:34-35)

<sup>37</sup>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는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네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구나.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더니! 그러나 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sup>38</sup> 이제 네 집은 텅 비게 될 것이다. <sup>39</sup>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 라고 말할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성전의 파괴**  
(막 13:1-31; 눅 21:5-33)

**24** 예수께서 성전을 나서서 얼마쯤 가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예수께 보시라고 하였다. <sup>2</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건물들을 잘 보아 두어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건물의 모든 돌이 무너져 내려, 저 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 자리에 그대로 있지 못할 것이다.”

<sup>3</sup> 그 뒤 예수께서 올리브 산 ††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와서 여쭙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sup>4</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sup>5</sup>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속일 것이다. <sup>6</sup>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sup>7</sup>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 굶주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sup>8</sup>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sup>9</sup>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희를 통치자들에게 넘겨 갖은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sup>10</sup>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sup>11</sup> 많은 거짓 예언자 ††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sup>12</sup> 세상은 더욱 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sup>13</sup> 그러나 끝까지 굳세게 견디는 사람은 구원 †를 받을 것이다. <sup>14</sup>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sup>15</sup>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를 일으키는 가장스러운 것’ †††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sup>16</sup>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살해당한 사람. § 제단 이 제단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곳. † 사가랴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역대기하로 끝난다. † 복되시다... 분이시여 시 118:26. †† 올리브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여기서 성전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 세상 끝자 그대로의 뜻은 ‘세기’ 또는 ‘때’. †††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 사람. †††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 황폐를 일으키는 가장스러운 것 단 9:27; 11:31; 12:11을 볼 것.

은 산으로 피해야 한다. <sup>17</sup>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sup>18</sup> 들에 있는 사람은 걸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sup>19</sup> 이런 때 야기 밴 여자들이나 젓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sup>20</sup> 너희는 거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을 당해 피난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sup>21</sup>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sup>22</sup>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생하는 기간을 줄여 주지 않으시면, 살아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sup>23</sup>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sup>24</sup>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들과 기적 †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리려 할 것이다. <sup>25</sup>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것이다.

**인자 예수가 다시 올 때**  
(막 13:24-31; 눅 17:24-37)

<sup>26</sup>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저기 광야 ††에 있다!’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리스도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sup>27</sup>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어디서든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sup>28</sup>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sup>29</sup>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

<sup>30</sup> 그때가 되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 있는 온 민족이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올 것이다. <sup>31</sup>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어, 그가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sup>32</sup>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33</sup>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너희의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sup>34</sup>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모든 일은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 일어날 것이다. <sup>35</sup>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마지막 때를 아신다**  
(막 13:32-37; 눅 17:26-30, 34-36)

<sup>36</sup>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 <sup>37</sup>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sup>38</sup> 홍수가 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sup>39</sup>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홍수를 만나 휩쓸려 갔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이와 같

†††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 사람. § 기적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사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말한다. † 사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 사 13:10; 34:4.

을 것이다. <sup>40</sup> 그때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sup>41</sup>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 둘 것이다.

<sup>42</sup>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sup>43</sup> 이것을 알아두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sup>44</sup>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다.

**선한 종과 악한 종**  
(눅 12:41-48)

<sup>45</sup>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며,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믿을 만한 종이겠느냐? <sup>46</sup>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는 종이 아니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sup>47</sup>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sup>48</sup> 그러나 그 종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우리 주인이 오래 떠나 계시네.’ 라고 생각하고, <sup>49</sup> 자기가 맡은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것이다. <sup>50</sup>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돌아와서 그의 모든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sup>51</sup> 주인은 그 종을 때리고, 위선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내쫓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열 처녀 이야기**

**25** 그때에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들은 등을 들고 나갔다. <sup>2</sup> 그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 <sup>3</sup>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들고 갔으나, 기름 항아리는 들고 가지 않았다. <sup>4</sup>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지고 가고, 기름을 담은 항아리도 들고 갔다. <sup>5</sup> 늦도록 기다렸으나 신랑은 오지 않고 처녀들은 모두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었다.

<sup>6</sup> 그런데 밤이 깊었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신랑이 오신다! 모두들 나가서 그분을 맞아라!’

<sup>7</sup>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제각기 등불을 준비했다. <sup>8</sup>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가 갖고 있는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하고 말하였다.

<sup>9</sup>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안 되겠어! 너희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또 너희에게도 모두 모자랄지 몰라. 그러니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는 게 좋겠다.’

<sup>10</sup>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sup>11</sup> 그 뒤에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왔다. 이 처녀들은 ‘주님, 주님, 문 좀 열어 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sup>12</sup>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sup>13</sup>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 종의 비유**  
(눅 19:11-27)

<sup>14</sup>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종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일렀다. <sup>15</sup>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첫째 종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둘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셋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났다. <sup>16</sup>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은 서둘러 돈을 불리러 갔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로 늘어났다. <sup>17</sup> 두 달란트를 맡은 종도 첫째 종과 똑같이 하였다. 그가 맡은 두 달란트가 이제 네 달란트로 늘었다. <sup>18</sup> 그러나 한 달란트를 맡은 셋째 종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에 묻었다.

<sup>19</sup>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sup>20</sup> 먼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기가 따로 모은 다섯 달란트를 함께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르신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sup>21</sup>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sup>22</sup> 그 다음 두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sup>23</sup>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너는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sup>24</sup> 그리고 나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아주 얍한 분이십니다. 어른께서는 심지어 않은 곳에서도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십니다. <sup>25</sup> 저는 그 돈을 잃지나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어른의 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어른께서 주신 한 달란트입니다.’

<sup>26</sup> 주인이 대답하였다.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너는 내가 심지어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은다고 말하였다. <sup>27</sup> 그렇다면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다시 찾고 또 내 돈에서 불어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sup>28</sup>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sup>29</sup>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쓰는 사람은 더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쓰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모두 빼앗길 것이다. <sup>30</sup> 이 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이다.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sup>31</sup>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둘러싸여서 천사들과 더불어 올 때에, 그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sup>32</sup>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두 무리로 갈라놓을 것이다. <sup>33</sup> 그는 양들은 자기의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으로 세울 것이다.

<sup>34</sup> 그때에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 와서, 하나님께서

†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는 일꾼 한 사람의 15년 품삯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약속하신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 나라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하여 둔 것이다. <sup>35</sup>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집을 떠나 홀로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너희 집으로 초대하였다. <sup>36</sup>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에 너희는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sup>37</sup> 그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저희가 주께서 배고픈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sup>38</sup> 언제 주께서 집을 떠나 홀로 계신 것을 보고 저희 집으로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주께서 입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sup>39</sup>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주를 찾아보았습니까?’

<sup>40</sup> 임금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자매 †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내게 베푸는 것이다.’

<sup>41</sup>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 받은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마련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sup>42</sup>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sup>43</sup> 너희는 내가 집을 떠나 홀로 있을 때에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하지 않았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아플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않았다.’

<sup>44</sup> 그때에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께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신 것을 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집을 떠나 홀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께서 입을 것이 없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를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sup>45</sup> 그때에 임금이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sup>46</sup>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다**

(막 14:1-2; 눅 22:1-2; 요 11:45-53)

**26**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up>2</sup>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날 사람의 아들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sup>3</sup> 그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 가야바의 집에 모였다. <sup>4</sup> 그들은 예수를 잡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꾸미기로 하였다. <sup>5</sup>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지 마시다.”

**어떤 여자가 예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다**

(막 14:3-9; 요 12:1-8)

<sup>6</sup> 그때에 예수께서는 베다니 †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sup>7</sup>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께 왔다. 이 여자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 †를 가지고 왔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숫고 계실 때 이 여자는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 형제자매 글자 그대로는 ‘형제들’. ††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베다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을. †† 옥합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

<sup>8</sup>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여자에게 화를 냈다. 제자들이 여자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향유를 그렇게 낭비합니까? <sup>9</sup>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sup>10</sup>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나무라느냐? 이 여자는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sup>11</sup>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sup>12</sup>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해 준 것이다. <sup>13</sup>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질 터인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그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다**

(막 14:10-11; 눅 22:3-6)

<sup>14</sup> 그때에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 <sup>15</sup>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소. 그러면 당신들은 그 대가로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개를 주었다. <sup>16</sup>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적당한 때를 엿보았다.

**사도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다**

(막 14:12-21; 눅 22:7-14, 21-23; 요 13:21-30)

<sup>17</sup>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sup>18</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 하십니다.’” <sup>19</sup>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sup>20</sup> 저녁때가 되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상에 앉으셨다. <sup>21</sup>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sup>22</sup>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분명히 저는 아니지요?” 하고 여쭙었다.

<sup>23</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sup>24</sup>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sup>25</sup> 그때에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말하였다. “선생님, 틀림없이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 너다.”

**주의 마지막 저녁식사**

(막 14:22-26; 눅 22:15-20; 고전 11:23-25)

<sup>26</sup> 그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 가난한...것이다 신 15:11.

27 그리고 나서 포도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가 흘리는 새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로 빚은 술은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 제자들은 유월절 노래를 부른 뒤에, 올리브 산 1으로 갔다.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다**

(막 14:27-31; 눅 22:31-34; 요 13:36-38)

3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 11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모두 흩어지리라.’ 12

32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13로 가겠다.”

33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35 베드로가 말하였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

(막 14:32-42; 눅 22:39-46)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하시고는,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큰 슬픔과 괴로움에 잠기셨다. 38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39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0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41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 하여라.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42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가서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고통의 잔이 거두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3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 눈을 뜰 수도 없었다. 44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다시 가서서 기도 드렸다.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 드렸다.

4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가까이 왔다. 46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여기 오고 있구나!”

1 올리브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11 성경 구약성경. 12 속 13:7. 13 갈릴리 유대의 북쪽 지역.

**예수께서 잡히시다**

(막 14:43-50; 눅 22:47-53; 요 18:3-12)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제사장들과 장로 1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몰려왔다. 48 유다 11는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미리 알려 주었었다.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것이니,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시오.” 49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예수께 입을 맞췄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하려고 한 일이나 어서 하여라.”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 11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

52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에 열두 사단 12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 주시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55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나?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혼자 두고 달아났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신 예수**

(막 14:53-65; 눅 22:54-55, 63-71; 요 18:13-14, 19-24)

57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율법 선생들과 장로 11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마당까지 따라 들어가, 종들 곁에 앉았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싶었다.

59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들을 찾으려 애썼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해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그 때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61 “이 사람 11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62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소? 그대를 고발하여 증언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요?”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6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하는 대로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오.”

11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 111 유다 글자 그대로는 ‘그분을 배신한 자’. 1111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12 사단 글자 그대로는 ‘레기온’.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한 사단. 13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14 이 사람 곧 예수. 그분의 적들은 그분의 이름을 직접 말하기를 꺼려하였다.

65 대제사장 †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쥐어뜯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셨습니다. 66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67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68 그들은 “당신이 예언자 그리스도라면, 당신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시오.” 라고 놀렸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다**

(막 14:66-72; 눅 22:56-62; 요 18:15-18, 25-27)

69 그때에 베드로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70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며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71 베드로가 대문게로 나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예요.”

72 이번에도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73 조금 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오.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

74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75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시다**

(막 15:1; 눅 23:1-2; 요 18:28-32)

**27** 새벽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2 그들은 예수를 묶어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다**

(행 1:18-19)

3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돈 서른 개를 다시 돌려주었다. 4 그러고는 “내가 죄를 지었소. 나는 당신들에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주었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그것은 당신 책임이오.” 라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6 제사장들은 성전에 떨어진 은돈을 주워 들고, “이 돈은 사람을 죽게 한 피 값이오. 성전의 헌금 궤에 넣을 수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7 그들은 의논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이라 불리는 땅을 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8 그래서 이 밭을 아직도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9 이렇게 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목숨 값으로 준 돈으로, 10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이다.” ††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다**

(막 15:2-5; 눅 23:3-5; 요 18:33-38)

11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12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께서는 조용히 계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이 증언이 들리지 않소?”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말에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 주려 하나 실패하다**

(막 15:6-15; 눅 23:13-25; 요 18:39-19:16)

15 해마다 유월절 기간에는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그때에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라바 †였다. 17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18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겐 넘긴 것을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쪽지를 보내왔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의 일에 얽혀 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20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라바는 풀어 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21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가 있소. 당신들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22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23 빌라도가 물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다. † 그리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소. 그의 죽음은 당신들의 책임이오!”

25 사람들이 모두 대답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26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 주고,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군인들에게 넘겼다.

†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그들은...그대로이다 속 11:12-13; 렘 32:6-9을 볼 것. † 바라바 어떤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 라고 되어 있다. †† 손을 씻었다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손을 씻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를 놀리다**

(막 15:16-20; 요 19:2-3)

27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모두 예수의 둘레에 모여 섰다. 28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다. 29 그리고 가시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예수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다. 군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놀렸다. 30 군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예수의 손에서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그들은 예수를 놀리고 나서, 예수께 입혔던 주홍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막 15:21-32; 눅 23:26-39; 요 19:17-19)

32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들은 골고다에 이르렀다. (골고다는 ‘해골터’라는 뜻이다.) 34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즙을 탄 포도주<sup>†</sup>를 마시라고 주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가질 사람을 정하였다. 36 군인들은 그곳에 앉아서 예수를 지켜보았다. 37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예수의 죄목을 적은 판을 달았다. 그 판에는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38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왼쪽에 못 박혔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40 “너는 성전을 헐어 내린 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목숨을 구해 보아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말하였다.

41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놀렸다. 42 “그가 다른 사람은 구했으면서, 막상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시지!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그를 믿을 터인데! 43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시지 않겠는가!”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막 15:33-41; 눅 23:44-49; 요 19:28-30)

45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어둠은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sup>‡</sup>라는 뜻이다.

47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sup>‡</sup>라고 말하였다.

48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서 갓숨<sup>‡</sup>을 싣 포도주에 푹 적어서 막대기에 묶어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 쓸개즙을 탄 포도주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포도주에 약을 섞은 것으로 보인다. †† 나의...버리셨습니까 시 22:1. ‡ 그가...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로이’ 또는 ‘엘리’가 사람들에게는 ‘엘리아’라는 이름처럼 들렸던 것 같다.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갓숨 해면 또는 스폰지.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가 보자.”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

51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sup>‡‡</sup>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깨어졌다. 52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 53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54 백인대장<sup>‡‡‡</sup>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말하였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55 많은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시중을 들며 여기까지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56 막달라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sup>§</sup>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예수께서 묻히시다**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57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루살렘에 왔다. 요셉은 아리마대<sup>§§</sup>라는 마을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58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주검을 가져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주검을 요셉에게 내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59 요셉은 예수의 주검을 가져다가 깨끗하고 고운 베로 썼다. 60 요셉은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주검을 모셨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굴러 무덤 어귀를 막고 돌아갔다. 61 그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

62 그날은 ‘준비하는 날’<sup>§§§</sup>이었다. 그 다음 날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63 말하였다. “총독 각하, 그 거짓말쟁이는 살아 있을 때 ‘사흘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지날 때까지 무덤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주검을 훔쳐 가고,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65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덤을 잘 지키시오.” 66 그들은 물러가서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에 도장을 찍어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소식**

(막 16:1-8; 눅 24:1-12; 요 20:1-10)

**28**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때에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는 무덤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3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이 나고, 그의 옷

‡† 숨을 거두셨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영혼을 떠나 보내셨다’. ‡‡† 성전의 휘장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 놓는 휘장.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야고보와 요한의 글자 그대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 아리마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다. §†† 준비하는 날 안식일 전 날, 곧 금요일.

은 눈처럼 희었다. 4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떨다가 정신을 잃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6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의 주검이 있던 자리를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 주어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8 여자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기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9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안녕들 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 †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다**

11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있

† 나를 따르던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내 형제들’.

었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알렸다. 12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13 그들은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 예수의 주검을 훔쳐 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14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 주겠다.” 15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막 16:14-18;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산으로 갔다. 17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19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20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마가복음

##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준비하다 (마 3:1-12; 눅 3:1-9, 15-17; 요 1:19-28)

1 이 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다. 2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시작된다.  
 “보아라! 내가 나의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4 그래서 세례자 요한 이 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 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7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조금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꿇어 엎드려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마 3:13-17; 눅 3:21-22)

9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세례자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단 강 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분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로 내려오셨다. 11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다.”

## 시험 받으러 가시다 (마 4:1-11; 눅 4:1-13)

12 그리고 곧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 에 보내셨다. 13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사탄 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다.

†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말이 없음. †† 보아라...준비 하리라. 말 3:1. † 사 40:3. †† 세례자 요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예수의 제자와 구별하여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 사탄 악마, 마귀, 귀신 등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

##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하시다 (마 4:12-17; 눅 4:14-15)

14 그 뒤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였다. 15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 네 제자를 부르시다 (마 4:18-22; 눅 5:1-11)

16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시몬 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18 시몬과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19 예수께서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0 예수께서 곧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데리고 일하던 일꾼들을 배에 남겨 두고 예수를 따랐다.

##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눅 4:31-37)

21 그 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가버나움 마을 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마을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22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 선생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23 바로 그때 회당에 있던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24 “나사렛 사람 예수여,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26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남자가 온 몸을 떨며 발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에게서 나왔다. 27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권위 있게 가르친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도 순종하지 않는가!” 28 이렇게 하여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삼시간에 퍼져 나갔다.

§†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 §†† 가버나움 마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마 8:14-17; 눅 4:38-41)

29 예수와 제자들은 곧 회당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과 함께 갔다. 30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시몬의 장모가 병난 것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부인의 몸에서 곧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다.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32 그날 저녁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33 온 마을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 그들이 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기쁜 소식 선포를 준비하시다**  
(눅 4:42-44)

35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는 매우 일찍 일어나셨다.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와 외딴 곳으로 가서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36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37 기도하고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38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여러 마을이 있다. 거기에 가서도 가르쳐야겠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 39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다**  
(마 8:1-4; 눅 5:12-16)

40 나병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간절히 청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가엾게 여기셨다. ††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그래, 너를 고쳐 주고 싶다. 깨끗하게 나아라!” 42 그러자 그의 병이 곧 나았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

4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 그렇게 하여 몸이 나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나가서 자기의 병이 나은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 더는 마음대로 마을에 드나드시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에 머무셨다. 그런데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 귀신들...때문에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가업계 여기셨다 대부분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가업계 여기셨다고 되어 있으나, 어떤 권위 있는 그리스어 사본과 라틴어 사본에 왜 화가나셨다고 되어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학자들은 오즈음 화가나셨다고 되어있는 사본이 더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종교 의식에 따라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 모세가 명한 대로...드려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오면,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제물을 바쳐야 했다(레 14:2-32).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 9:1-8; 눅 5:17-26)

2 며칠 뒤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2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은 물론 바깥에도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3 그때 몇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실어 메고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4 그래서 그들 네 사람은 메고 있던 들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방 위의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달아 내렸다. 5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좋게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6 그곳에는 율법 선생들도 몇 사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7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고는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8 예수께서 곧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9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10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11 “자, 일어나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12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섰다. 그는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그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

**레위 (마태)가 예수를 따르다**  
(마 9:9-13; 눅 5:27-32)

13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자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 뒤에 예수께서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 그는 세무원 †이였다. 그때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15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저녁을 드시게 되었다. 많은 세무원들 ††과 죄인 §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6 바리새파의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무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17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으론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신 예수**

(마 9:14-17; 눅 5:33-39)

18 요한 †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1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신랑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날에 친구들이 금식할 것이다.

21 낡은 옷에 구멍이 생겨 천을 대어 기울 때, 아직 줄지 않은 새 천을 대어 기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천이 풀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옷이 더 헤어지지 않겠느냐? 22 마찬가지로 낡은 포도주 부대 †에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부대도 모두 못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마 12:1-8; 눅 6:1-5)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24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따지기 시작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생께서는 제자들이 저런 짓을 하도록 놓아두십니까?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 ‡과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먹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다윗은 자기 일행에게도 그 빵을 나누어 주었다.”

27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28 사람의 아들은 모든 날의 주인이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

**안식일에 마비된 손을 펴 주시다**

(마 12:9-14; 눅 6:6-11)

3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와 있었다. 2 그곳에 있던 몇몇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3 예수께서 한 손을 못 쓰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

4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5 예수께서는 화나신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 요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친 세례자 요한(막 1:4-8). ††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넣어 두기 위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완전히 나왔다. 6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서 헤롯 당 †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이 떼 지어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왔다. 8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 건너편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9 예수께서 밀어닥치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밀리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10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11 더러운 영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를 보자 그분 앞에 엎드리며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다.

**열두 사도를 부르시다**

(마 10:1-4; 눅 6:12-16)

13 그 뒤에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왔다. 14 예수께서 열두 사람을 따로 뽑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5 또한 이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16 그분께서 뽑으신 열두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과 17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이 두 사람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지닌 보아너게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18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열심쟁이라고 알려진 시몬과 19 그리고 유다이다. 유다는 가리옷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다.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마 12:22-32; 눅 11:14-23; 12:10)

20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나섰다.

22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에게 바알세불 ††이 살고 있다.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23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모아 여러 가지 비유 †††로 말씀하셨다. “사탄 §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24 만약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25 한 가정도 갈라지면 제대로 버티어 나가지 못하고 망해 버린다. 26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면 그는 계속 버틸 수가 없다. 그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27 만약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털어 가려면, 그 사람은 먼저 그 힘센

†† 헤롯 당 당시 세력이 크던 유대의 정치 단체.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에서는 더러운 영, 귀신, 마귀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사탄 악마, 마귀, 귀신 등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야 그는 그 힘센 사람의 집을 털 수 있다. 28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다. 29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30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선생들이 “예수 안에 귀신 1이 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가족**

(마 12:46-50; 눅 8:19-21)

31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 11 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3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34 예수께서 옆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씀으셨다. “여기에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며 어머니이다.”

**씨 뿌리는 비유**

(마 13:1-9; 눅 8:4-8)

**4**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호수에 띄웠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머물러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신 채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주로 비유 1를 들어 말씀하셨다.

3 “자,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5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자갈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으나, 6 해가 올라오자 타 버렸다. 그 싹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 버렸던 것이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 싹을 덮어 버리자, 싹은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삼십 배 또는 육십 배가 된 것도 있었고, 백 배가 된 것도 더러 있었다.”

9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를 쓰신 까닭**

(마 13:10-17; 눅 8:9-10)

10 예수께서 혼자 게실 때에, 열두 제자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전에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여쭙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해 준다. 12 그것은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귀신 글자 그대로의 뜻은 ‘더러운 영.’ † 누이들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그들이 깨닫고 알아듣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와 용서를 받을 것이다.” 11 †

**씨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시다**

(마 13:18-23; 눅 8:11-15)

13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 11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비유인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14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 15 때로는 말씀의 씨가 길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 11이 와서 그들 속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 간다. 16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얼른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17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박해 11를 받게 되면, 그들은 재빨리 떨어져 나간다. 18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한다. 19 그러나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숨을 막아 버린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20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삼십 배 또는 육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때로는 백 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씨야 한다**

(눅 8:16-18)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등잔에 불을 켜서 곡식을 되는 말 1 아래에나 침대 밑에 놓느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22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로 감춰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23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여라.”

24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듣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시되 덤으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25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씨앗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 27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움이 터서 자라기 시작한다. 씨는 밤낮으로 자라지만, 씨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28 땅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곡식을 키워 낸다. 먼저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여물어 알곡이 된다. 29 이렇게 해서 곡식이 알맞게 익으면, 씨 뿌린 사람은 곡식을 베려고 낫을 댄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11 사 6:9-10. 11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111 사탄 악마를 일컫는 말.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한다. 1111 박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11 말 그리스어로 ‘모디오스’. 약 7.5 리터 들이의 용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마 13:31-32, 34-35; 눅 13:18-19)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무슨 비유를 들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31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1와 같다. 겨자씨는 땅에 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 32 그러나 심으면 자라서 밭에 있는 어떤 푸성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은 다 가르치셨다. 34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비유를 써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람들과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폭풍을 잠재우시다**  
(마 8:23-27; 눅 8:22-25)

35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36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타고 계시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37 그때 호수에 세찬 바람이 일어났다. 물결이 배 안으로 솟구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39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사방이 매우 조용해졌다.

4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나?”

41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 떨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람과 물결도 이분의 말씀엔 꼼짝도 못 하지 않는가!”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마 8:28-34; 눅 8:26-39)

**5**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거라사 2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 3 들린 남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3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었고,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4 여러 번 사람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보았으나, 그는 사슬을 끊고 뛰쳐나왔다. 그를 다룰 만큼 힘센 사람이 없었다. 5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제 몸에 상처를 입혔다.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7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8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제 이름은 레기온 1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10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다.

†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 거라사 어떤

11 마침 가까운 언덕에서 큰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12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애원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더러운 영들은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가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어림잡아 이천 마리 정도는 되었다.

1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읍내와 시골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나왔다. 15 그들은 예수께 왔다가,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겁이 났다. 16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남자와 돼지 떼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17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 할 때에, 귀신 들렸던 남자가 함께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19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타이르셨다. “네 가족과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말해 주어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20 그는 예수를 떠나 데가볼리 2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푼 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놀라워하였다.

**죽은 소녀를 살리고, 병든 여인을 고치시다**  
(마 9:18-26; 눅 8:40-56)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이 계시는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22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3도 예수를 찾아 그곳으로 왔다. 야이로가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간곡히 청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나아 살겠습니까?”

24 그래서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밀었다.

25 그 가운데는 열두 해 동안 고르지 못한 달거리 4로 고생하는 여자도 있었다. 26 여자는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도 다 써 버렸다. 그러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27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를 바싹 따르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28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9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31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라고 물으십니까?”

그리스어 사본에는 거다라 또는 거게스라고 되어있다. † 더러운 영 귀신. ††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한 사단. ††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라는 뜻.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한때는 그 지역에 열 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다. †††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회당의 책임자. ††† 고르지 못한 달거리 또는 ‘월경 불순’. 율법에서는 이 병을 부정하게 여겨,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손 든 사람을 찾으셨다. 33 여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여자는 두려워 떨며,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걱정 말고 가거라. 다시는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3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도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37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셨다. 39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리 울며 소란을 떠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40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41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쿨!” (이 말은 번역하면 “작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42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였다. 소녀는 열두 살이었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43 예수께서는 아이의 부모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고향에 가시다**

(마 13:53-58; 눅 4:16-30)

6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2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 그리고 저 지혜는 어디서 배웠으며,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서 났을까? 3 그는 천한 목수가 아닌가?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그의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앉아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4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고향과 친척과 자신의 집에서는 존경 받지 못하는 법이다.” 5 예수께서는 고향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오직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셨을 뿐이었다. 6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셨다.

**사도들을 전도 여행에 내보내시다**

(마 10:1, 5-15; 눅 9:1-6)

그 뒤에 예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 7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권세도 주셨다. 8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빵이나, 가방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9 신은 신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갈아 입을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10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회당의 책임자.

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묵어라. 11 만일 어느 마을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라. 이것이 심판 날에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12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귀신을 몰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 卍을 발라 고쳐 주었다.

**헤롯이 예수를 세례자 요한으로 생각하다**

(마 14:1-12; 눅 9:7-9)

14 헤롯왕 †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이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 ‡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15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는 엘리야 ‡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고 말하였다

16 그러나 헤롯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헤롯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17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었다. 그러나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19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였으나 죽이지는 못하였다.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즐겨 그의 설교를 들었다.

21 그러다가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는 정부의 고관들과 군대의 장성들과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을 초대하였다. 22 잔치가 한창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헤롯이 그 소녀를 보고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23 그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 줄 테니 어서 말해 보아라.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다.” 라고 소녀에게 약속하였다.

24 소녀는 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다. “임금님께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25 소녀는 곧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지금 곧 쟁반에 담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6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27 그래서 왕은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하였다. 경비병은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 기름 주로 올리브 기름이 약으로 사용되었다. ‡ 헤롯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영주로 있었다. †† 세례자 요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친 요한(막 1:4-8). ††† 엘리야 기원 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머리를 베어, 28 쟁반에 담아 왔다. 왕은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갔다.

29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주검을 찾아다가 무덤에 모셨다.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다**  
(마 14:13-21; 눅 9:10-17; 요 6:1-14)

30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던 열두 사도가 돌아왔다. 사도들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31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하자.” 그곳에는 오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32 그들은 조용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났다. 33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타신 배가 향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예수와 제자들보다 앞서 도착해 있었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떼 같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35 어느덧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시간도 매우 늦었습니다. 36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가까운 농가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37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빵을 사려면 이백 데나리온 1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들이 알아보고 와서 말씀드렸다.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39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 위에 무리 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셨다. 40 사람들은 오십 명 또는 백 명씩 무리 지어 앉았다. 41 예수께서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나누어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셨다. 42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제자들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모았다. 그랬더니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 44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해서 오천 명은 되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마 14:22-33; 요 6:16-21)

45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새다로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은 뒤에 남아 사람들을 헤쳐 보내셨다. 46 사람들이 흩어져 가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47 그날 밤, 배는 아직도 호수 한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48 예수께서 호수 저 멀리 배가 떠 있는 것을 보셨다. 제자들이 노를 저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 서너 시쯤에 예수께서 배 있는 곳으로 오셨다. 물 위를 걸어서, 배를 지나쳐 가시려는 것처럼 다가오셨

†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 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다. 49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다. 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보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51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 빵의 기적을 보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마 14:34-36)

53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54 그들이 배를 매어 놓고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55 그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들것에 싣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56 예수께서 읍이나 도시나 산골 마을이나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께 그 옷자락 끝이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규칙**  
(마 15:1-20)

7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 명이 예수께 물려왔다. 2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깨끗하지 않은’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른 유대 사람들은 장로 11들의 전통에 따라, 정해진 의식에 맞게 손을 씻은 뒤에야 음식을 먹었다. 4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여러 가지 전통을 지켰는데, 그 가운데에는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것도 들어 있었다. †

5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한 말이 옳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높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7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이 만든 규칙을 가르칠 뿐이다.’ †

8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규칙에만 매달려 있다.”

9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도 저버린다. 10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 하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 하고도 말하였다. 11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 이라고 한 마디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12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13 너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을 너무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

14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닫도록 하여라. 15 사람의 몸 바깥에 있는 것이 몸 안

††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 † 잔...놋그릇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긴 의자들’이 들어있다. †† 사 29:13. †† 부모를...하라 출 20:12; 신 5:16. ††† 부모를...당해야 한다 출 21:17.

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sup>16†</sup>

<sup>17</sup>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여쭙었다. <sup>18</sup> “너희들은 그렇게도 무디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sup>19</sup> 밖에서 들어온 음식물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몸 밖으로 나간다.”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sup>20</sup>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sup>21</sup>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음란한 행실, 도둑질, 살인, <sup>22</sup> 간음, <sup>23</sup>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험뜯는 말,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sup>23</sup>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외국 여인을 도우시다**

(마 15:21-28)

<sup>24</sup>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sup>25</sup>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곳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기 와 계신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sup>25</sup> 한 여자가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여자에게는 더러운 영 <sup>26</sup>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sup>26</sup> 그 여자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의 한 지방인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sup>27</sup>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의 아이들이 먹을 빵을 빼앗아 개들 <sup>28</sup>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내 집의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sup>28</sup>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sup>29</sup>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셨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이제 집으로 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났다.”

<sup>30</sup>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귀신은 이미 아이를 떠나가고 없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sup>31</sup>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지나가셨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데가볼리 <sup>32</sup>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 남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남자는 귀가 먹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다.

<sup>33</sup> 예수께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한 쪽으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그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 <sup>34</sup> 예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sup>35</sup>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새겨들여라.” 라는 16절이 있으나, 가장 오래되고 우수한 그리스어 사본에는 들어 있지 않다.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 두로 혹은 띠티로. 갈릴리 지방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지금은 레바논에 속해 있다. ††† 더러운 영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 개들 유대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종종 개로 표현하며 싫어하였다. †††††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라는 뜻.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한때는 그 지역에 열 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다.

<sup>36</sup>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리 엄히 이르셔도 사람들은 그 일을 더욱 널리 알렸다. <sup>37</sup>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훌륭하다. 듣지 못하던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 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신다!”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다**

(마 15:32-39)

**8** 그 무렵에 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sup>2</sup> “이 사람들이 가엾구나.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 <sup>3</sup>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더러 있다.” <sup>4</sup>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충분한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sup>5</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빵이 몇 덩이나 있느냐?”

“일곱 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sup>6</sup>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덩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뒤에,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다. <sup>7</sup>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어서, 예수께서 물고기에 대해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sup>8</sup> 모두들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음식을 거두어 모았더니 남은 음식이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sup>9</sup> 음식을 먹은 사람은 사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흠어 보내셨다. <sup>10</sup>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몇몇 사람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마 16:1, 4; 눅 11:16, 29)

<sup>11</sup>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그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 <sup>12</sup> 예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증거를 보고 싶어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는 <sup>13</sup> 어떤 증거도 보여 주지 않겠다.” <sup>13</sup>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다**

(마 16:5-12)

<sup>14</sup> 제자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배에는 빵이 한 덩이밖에 없었다. <sup>15</sup>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 <sup>16</sup>을 경계하여라.”

<sup>16</sup>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궁금하여 서로 수군거렸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다.”

<sup>17</sup>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sup>18</sup>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빵이 없을 때에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느냐? <sup>19</sup> 내가 빵 다섯

††††† 너희에게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이 세대에게는’. § 누룩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거나 술을 빚을 때 쓰는 효소.



덩이를 나누어 오천 명을 먹었을 때,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빵 부스러기가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열두 바구니였습니다.”

20 “빵 일곱 덩이를 나누어 사천 명을 먹었을 때, 너희가 거두어들인 빵 부스러기는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바구니였습니다.”

2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벧새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22 예수와 제자들은 벧새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23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24 그가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25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시자 그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의 눈이 나아서, 그는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26 예수께서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이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다**

(마 16:13-20; 눅 9:18-21)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9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3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

(마 16:21-28; 눅 9:22-27)

31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하며,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32 예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33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 ¶야,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34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기쁜 소식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차지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7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38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세대이다. 이런 세대에 살면서,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나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

(마 17:1-13; 눅 9:28-36)

2 그리고 옛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곳에는 그들만 있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달라지셨다. 3 그분의 옷은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보다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였다. 4 그때 엘리야와 모세 ¶가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5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 분을 위해 여기에 초막 ¶¶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6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7 그때 구름이 다가와 세 분을 가렸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8 세 제자가 돌레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이 그들과 함께 계실 뿐이었다.

9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산에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0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가를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11 그러다가 예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가 먼저 와야 한다고 ¶¶ 말합니까?”

1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13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온갖 몹쓸 짓을 다 했다. 그를 두고 성경에 쓰인 그대로였다.”

**병든 소년을 고치시다**

(마 17:14-20; 눅 9:37-43)

14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율법 선생들도 와서 제

† 세례자 요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친 요한(막 1:4-8).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사탄 악마, 마귀, 귀신 따위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사탄처럼 말했다는 뜻으로 쓰였다.

¶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또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 엘리야와 모세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두 지도자. ¶¶¶ 초막 풀이나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간단한 집(신 16:13-17).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엘리야가 ...와야 한다 말 4:5-6.

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sup>15</sup>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반가워 하며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sup>16</su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무슨 일로 그들과 다투고 있느냐?”

<sup>17</sup> 그때에 무리 속에서 한 남자가 나서며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더러운 영 <sup>†</sup>이 들려 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sup>18</sup> 더러운 영은 아이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땅바닥에 나뒹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뻘뻘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sup>19</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sup>20</sup>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더러운 영은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하였다.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나뒹굴었다.

<sup>21</sup> 예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아픈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sup>22</sup> 더러운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아이를 불이나 물 속에 던져 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sup>23</sup>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대답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못 할 일이 없다.”

<sup>24</sup> 아이의 아버지가 얼른 큰 소리로 말하였다. “믿습니다, 선생님! 의심을 버리고 더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sup>25</sup>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 <sup>‡</sup>을 꾸짖으셨다. “너 더러운 영아! 이 아이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 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내가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sup>26</sup> 더러운 영은 소리치며 아이를 다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떠나 갔다. 그 소년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고 수군거렸다. <sup>27</sup> 그러나 예수께서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소년이 일어나 섰다.

<sup>28</sup>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께 엎저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까?”

<sup>29</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더러운 영은 오직 기도로 만 <sup>‡</sup> 물리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마 17:22-23; 눅 9:43-45)

<sup>30</sup>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 <sup>31</sup> 그것은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sup>32</sup>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두려워서 예수께 무슨 뜻이냐고 여쭙지도 못하였다.

† 더러운 영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 더러운 영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 기도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라고 되어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

(마 18:1-5; 눅 9:46-48)

<sup>33</sup> 예수와 제자들은 가버나움 <sup>‡</sup>으로 갔다. 그곳의 한 집에 들어 가신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늘 길에서 너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로 그리 다투었느냐?” <sup>34</sup>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를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sup>35</sup>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열두 사도를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sup>36</sup>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제자들 앞에서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sup>37</sup>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눅 9:49-50)

<sup>38</sup>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sup>39</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를 말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쉽게 나를 욕하지 못할 것이다. <sup>40</sup>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sup>41</sup>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여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는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지 말아라**

(마 18:6-9; 눅 17:1-2)

<sup>42</sup>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나를 믿는 아이 하나를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나을 것이다. <sup>43</sup> 네 손이 너를 죄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버려라. 네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쪽이 훨씬 낫다. <sup>44</sup> <sup>‡</sup>네 발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 발도 잘라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sup>46</sup> <sup>‡‡</sup>만약 네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sup>48</sup> 지옥에서는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sup>‡‡‡</sup>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 <sup>§</sup>에 절여질 것이다. <sup>‡</sup>

<sup>50</sup>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 <sup>‡‡‡</sup>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48절과 똑같은 구절이 44절에 있다. ‡‡‡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48절과 똑같은 구절이 46절에 있다. ‡‡‡ 지옥에서는...꺼지지 않는다 사 66:24. § 불 여기서 ‘불’은 ‘심판’ 또는 ‘시험’을 뜻하는 듯하다. ‡‡‡ 구약성경을 보면 희생제물에 소금을 뿌리게 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시험을 받으며, 자신을 하나님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 소금 여기서 ‘소금’은 ‘상냥하고 친절한 성품’을 뜻하는 듯하나 분명하지는 않다.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다**

(마 19:1-12)

**10**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 강 † 건너편으로 가시니, 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sup>2</sup>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sup>3</sup>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sup>4</sup>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

<sup>5</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굳은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계명을 써 준 것이다. <sup>6</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sup>7</sup>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sup>8</sup>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sup>9</sup>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합하여 놓으신 것을 나누어 놓아서 안 된다.”

<sup>10</sup>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이 집 안에 있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여쭙었다. <sup>11</sup>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 #죄를 짓는 것이다. <sup>12</sup>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역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반기시다**

(마 19:13-15; 눅 18:15-17)

<sup>13</sup>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sup>14</sup> 예수께서 이것을 보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sup>15</sup>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sup>16</sup>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어느 부자가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다**

(마 19:16-30; 눅 18:18-30)

<sup>17</sup>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인사하며 여쭙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sup>18</sup>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sup>19</sup> 그러나 네 물음에는 대답해 주겠다. 너는 이런 계명 ††들을 다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

<sup>20</sup> 그 남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모세는...허락하였습니다 신 24:1 † 사람을 남자와...만드셨다 창 1:27. †† 이것이 남자가...하나이다 창 2:24.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죄. ††† 계명 지켜야 할 명령, 법, 율법, 법률.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 살인...공경하라 출 20:12-16; 신 5:16-20.

<sup>21</sup> 예수께서 그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sup>22</sup> 그는 예수의 말씀에 울상을 짓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sup>23</sup>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구나!”

<sup>24</sup>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 얼마나 어려운지아느냐? <sup>25</sup>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쉬운 일이다.”

<sup>26</sup> 제자들은 더욱 놀라 수군거렸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sup>27</sup>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sup>28</sup>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sup>29</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기쁜 소식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두고 온 사람은, <sup>30</sup> 그가 두고 온 것보다 백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sup>31</sup>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다**

(마 20:17-19; 눅 18:31-34)

<sup>32</sup>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놓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하였다. <sup>33</sup>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이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 ††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sup>34</sup>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비웃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다**

(마 20:20-28)

<sup>35</sup>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sup>36</sup>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바라느냐?”

<sup>37</sup>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게 될 때에, 우리 두 사람을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 들어가기에 어떤 고대 그리스어 사본에는 “재산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3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너희도 당할 수 있겠느냐? †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세례와 꼭 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

39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것과 똑같은 고통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과 똑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41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4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권력을 휘두르기를 좋아한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44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  
(마 20:29-34; 눅 18:35-43)

46 그리고 나서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 4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리고를 떠나실 때에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길가에는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이 멀어서 늘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47 그가 나사렛의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8 많은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을 꾸짖으며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에게서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말하였다. “자, 힘을 내어 일어나게. 예수께서 부르시네.” 50 눈먼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걸음을 그 자리에 남겨 둔 채 예수께 갔다.

51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예수를 따라나섰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 21:1-11; 눅 19:28-40; 요 12:12-19)

**11**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 산 †에서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2 “저기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거라. 마을

† 내가 당해야 할...있겠느냐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 꼭 같은 세례를...있겠느냐 여기서 ‘세례 받다’는 ‘고난의 세례를 받다’ 또는 ‘고난에 꼭 파묻히다’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 † 예리고 요단 강 남쪽 가까이에 있는 마을. ‡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알컺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에 들어서면 매어 놓은 어린 당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 보지 않은 당나귀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어오너라. 3 어찌하여 당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곧 돌려드릴 것입니다.’”

4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갔다. 그들은 어느 집 대문 가까운 길에 매어 있는 어린 당나귀를 발견하였다. 제자들이 당나귀를 맨 줄을 풀었다. 5 이것을 보고 그곳에서 있던 몇 사람이 물었다. “남의 당나귀를 풀어 가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6 두 제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7 그들은 제자들이 당나귀를 예수께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제자들은 당나귀 위에 그들의 겹옷을 깔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8 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겹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잘라 와서, 그 가지를 길에 깔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9 예수의 앞에서 걸어가서 사람들도 있었고, 뒤에서 걸어가서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시여!” ‡

10 “복되어라!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 §의 나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 안팎을 두루 걸어다니시며 모든 것을 둘러보시다가 날이 저물자 열두 사도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무화과나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다**  
(마 21:18-19)

12 다음 날 베다니를 떠나실 때에 예수께서는 배가 많이 고프셨다.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행여 나무에 열매라도 열려 있나 하여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찾을 수 없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14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에 가신 예수**  
(마 21:12-17; 눅 19:45-48; 요 2:13-22)

15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돈 바꾸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뒤엎으셨다. §16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17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성경 §18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 §19로 바꾸어 버렸다.”

18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 찬양하라 글자 그대로는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 복되시다...분이시여 시 118:25-26.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돈 바꾸 주는...뒤엎으셨다 로마 돈이나 그리스 돈을 유대 돈으로 바꾸어 성전에 바쳤으며, 비둘기는 제물용으로 팔고 있었다. 성전 바깥쪽인 이곳은 원래 다른 민족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나, 사기꾼들과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소란한 곳이 되어 있었다. §† 성경 구약성경. § 내 집은...불릴 것이다 사 56:7. §† 도둑의 소굴 렘 7:11.

**믿음의 힘을 보이시다**  
(마 21:20-22)

20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전날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일어나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간절히 구하여라. 기도드린 뒤에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26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마 21:23-27; 눅 20:1-8)

27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께서 성전을 뜯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왔다. 28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먼저 대답하여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30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31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물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는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32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백성이 두려웠다.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33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마 21:33-46; 눅 20:9-19)

**12**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 卍를 들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밭 둘레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확 卍를 만들고, 망대 卍도 세웠다. 그리고 포도원을 몇 사람의 농부에게 세로 주고 여행을 떠났다. 2 철이 바뀌어 포도를 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며 약속된 몫의 포도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3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매를 때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 종을 쫓아 버렸다. 4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모욕하고 머리를 때려 돌려보냈다.

† 26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26절이 덧붙여 있으나,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에는 없다.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돌확 돌을 모욕하게 파서 만든 확. †† 망대 땅을 보기 위해 높이 지은 건물.

5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많은 종을 보내어 보았다. 그러나 농부들은 번번이 그들을 죽이거나 때려서 보냈다.

6 주인에게는 농부들에게 보낼 사람이 단 한 사람 남아 있었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주인은 생각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7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닌가?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8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밭 너머로 던져 버렸다.

9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포도원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놓을 것이다. 10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그 집의 주춧돌 卍이 되었구나.

11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卍

12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예수를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15-22; 눅 20:20-26)

13 이런 일이 있던 뒤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당 卍 사람 몇을 예수께 보냈다. 14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15 예수께서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데나리온 卍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 다오.” 16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23-33; 눅 20:27-40)

18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19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결혼하여 자녀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뒤를 이을 아이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21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그도 또한 한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셋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卍 주춧돌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의 중심이 되는 돌. †† 시 118:22-23. ††† 헤롯 당 당시에 세력이 있던 유대의 정치 단체. §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22 일곱 형제 모두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모두 자녀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23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2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 †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25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26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모세가 쓴 책 가운데 불타는 가시나무 덤불 †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27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사두개파 사람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마 22:34-40; 눅 10:25-28)

28 율법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께 여쭙었다. “선생님, 모든 계명 †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30 네 마음 †을 다하고, 네 영혼 ††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 ††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31 또 둘째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33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들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주이신가?**  
(마 22:41-46; 눅 20:41-44)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그리스도가 다윗 †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36 성령의 도움으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적들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

† 성경 구약성경. †† 불타는 가시나무 덤불 출 3:1-12을 읽을 것. † 나 는...하나님이다 출 3:6. †† 계명 모세의 법. †† 마음 일반적으로 ‘지성’ ‘의지’를 상징한다. ††† 영혼 일반적으로 ‘정서’ ‘감정’을 상징한다. ††† 힘 능력과 수단(부)을 의미한다. § 이스라엘 백성아...사랑하여라 신 6:4-5. §† 네 이웃을...사랑하여라 레 19:18. §†† 이 계명들은...더 중요합니다 삼상 15:22.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시 110:1.

37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율법 선생들을 꾸짖으시다**  
(마 23:6-7; 눅 11:43; 20:45-47)

38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걸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기를 즐긴다.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칫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40 그러면서 그들은 홀어미의 재산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한 홀어미가 헌금의 의미를 보여 주다**  
(눅 21:1-4)

41 예수께서 헌금함 † 맞은쪽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 그때에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여자가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43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홀어미는 동전 두 닢 †을 바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44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살림에서 얼마를 바쳤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돈 모두를 바쳤다. 그 돈은 이 여자가 먹고 살아야 할 돈이었다.”

**앞으로 있을 성전의 파괴**  
(마 24:1-25; 눅 21:5-24)

**13**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 나오고 계셨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성전이 참으로 멋집니다! 무척 큰 돌들을 써서 지은 건물입니다!”

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놀라느냐? 두고 보아라. 돌 하나도 제 자리에 놓여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3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 산 ††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만히 여쭙었다. 4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징조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6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앞세워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떠들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7 너희는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8 한 민족이 일어나 다른 민족을 치고, 나라들도 서로 들고 일어나 싸울 것이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 헌금함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선물을 넣는 개. †† 동전 두 닢 그리스어로는 ‘두 렘돈’. 렘돈은 유대 동전으로서, 한 렘돈은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 한 고드란트의 절반에 해당된다. ††† 올리브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여기서 성전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9 정신을 바짝 차려라.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재판관에게 넘겨 줄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내게서 듣고 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10 그러나 이런 일들에 앞서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11 너희가 체포되어 법정에서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12 형제가 서로 배반하여 자신의 형제를 죽을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들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13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 너희는 '파괴를 일으키는 꿈쩍스러운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 †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5 망설이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16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17 이런 때 아기 밴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18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19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그 기간을 줄여 주셨다. 21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보아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보아라, 저기에 그분이 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해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23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다.

**인자 예수가 다시 올 때**  
(마 24:29-51; 눅 21:25-36)

24 이 고난 뒤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

26 그 뒤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에 싸여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7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한 백성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불러모을 것이다.

28 무화과나무에서 너희가 배울 교훈이 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푸르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잎이 돋기 시작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29 내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한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30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파괴를 일으키는 꿈쩍스러운 것 단 9:27; 11:31; 12:11을 볼 것. †† 그때 '중대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눅 21:31). ‡ 사 13:10 34:4.

32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33 조심하여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마치 집을 떠나 여행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와도 같다. 그는 집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집을 잘 돌보도록 각자에게 일을 맡긴다. 문지기에게는 깨어서 잘 지키라고 이른다. 35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너희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우는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너희는 모른다. 36 깨어 있지 않으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7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다**  
(마 26:1-5; 눅 22:1-2; 요 11:45-53)

14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이틀 전이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은 피하자고 하였다.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 드리다**  
(마 26:6-13; 요 12:1-8)

3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셨다. 시몬은 나병환자였던 사람이었다. 그때에 어떤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5 저런 값비싼 향유라면 일 년 치 품삷 †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다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들은 여자를 나무랐다.

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7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언제나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8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부었으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9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의 적들을 돕기로 하다**  
(마 26:14-16; 눅 22:3-6)

10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 그는 가리옷 사람 유다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11 높은 제사장들은 그의 제안을 듣고 좋아하였다. 그들은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유월절 식사**

(마 26:17-25; 눅 22:7-14, 21-23; 요 13:21-30)

12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이 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쓸 양 †을 잡는 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

†† 일 년 치 품삷 글자 그대로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을 볼 것. †† 유월절에 쓸 양 유월절 축하의 뜻으로 잡아 희생 제사로 드리는 양(출 12:3-9).

었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잔치 음식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13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거라. 14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쭙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쓸 손님방이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15 그 집 주인은 너희에게 이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그 방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아라.”

16 두 제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유월절 잔치 음식을 차려 놓았다.

17 저녁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18 모두 상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19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저마다 예수께 여쭙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2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열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나와 같은 그릇에 빵을 적서 먹는 사람이다. †<sup>1</sup> 사람의 아들은 성경 ††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 저녁 식사**

(마 26:26-30; 눅 22:15-20; 고전 11:23-25)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집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3 그런 다음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모든 제자들이 그 잔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2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려 하시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뿌려질 것이다. 25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 †<sup>2</sup>로 갔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릴 것이다**

(마 26:31-35; 눅 22:31-34; 요 13:36-38)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 ††에 그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모두 흩어지리라.’ ††

28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29 베드로가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저녁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31 그러나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였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선생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

(마 26:36-46; 눅 22:39-46)

32 예수와 제자들은 겟세마네 ††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33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조금 더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움과 걱정에서 찌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이 ††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34 너희는 여기 남아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35 예수께서 세 제자를 남겨놓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비켜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36 “아바, §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 고통의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7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가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약하구나.”

39 예수께서 한 번 더 따로 가셔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 40 그리고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자며 쉬고 있느냐? 이제 그만큼 잤으면 됐다. 시간이 다 되었다.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42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저기 나를 넘겨줄 자가 오고 있구나.”

**예수께서 잡히시다**

(마 26:47-56; 눅 22:47-53; 요 18:3-12)

43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가 가까이 왔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유다는 많은 사람과 함께 왔다. 이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44 유다는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미리 약속해 놓고 있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45 그래서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46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예수 가까이에서 있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어들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 ††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다.

4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나? 49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 그는 나와 같은 그릇에...사람이다 유대 사람들은 채소나 빵을 그릇에 담긴 국물에 적서 먹었다. †† 성경 구약성경. †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 성경 구약성경. †† 속 13:7.

††† 겟세마네 올리브 산 기슭에 있다. ††† 내 영이 또는 ‘내 영혼이’. § 아바 ‘아빠’ 라는 뜻의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정다운 말. †††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sup>†</sup>에서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sup>50</sup>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sup>51</sup> 한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몸에 흠이불만을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도 같이 잡으려고 하였다. <sup>52</sup> 그러자 그는 걸치고 있던 흠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신 예수**

(마 26:57-68; 눅 22:54-55, 63-71; 요 18:13-14, 19-24)

<sup>53</sup>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분을 대제사장<sup>††</sup>에게로 끌고 갔다. 다른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sup>54</sup>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 그곳에 있는 화톳불 곁에서 불을 쬐었다.

<sup>55</sup> 높은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의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sup>56</sup> 많은 사람이 예수께 불리한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 †

<sup>57</sup>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 이런 거짓 증거를 댔다. <sup>58</sup> “우리는 예수가 ‘나는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뒤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겠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sup>59</sup> 그러나 그들의 증거조차도 서로 엇갈렸다.

<sup>60</sup> 그러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대답할 말이 없소?” <sup>61</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sup>62</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사람의 아들이요.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요.”

<sup>63</sup>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sup>64</sup> 여러분 모두 그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짓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죄가 커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sup>65</sup>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그분의 눈을 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말하였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를 넘겨받은 경비원들도 그분을 때렸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다**

(마 26:69-75; 눅 22:56-62; 요 18:15-18, 25-27)

<sup>66</sup>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지나갔다. <sup>67</sup> 그 여종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군요.”

<sup>68</sup>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문밖으로 갔다. †

<sup>69</sup> 그 여종은 베드로가 아직도 대문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돌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예요!” <sup>70</sup> 베드로는 다시 그 말을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베드로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패거리들 가운데 하나일 거요.”

<sup>71</sup>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sup>72</sup>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뒤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정신없이 울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심문하다**

(마 27:1-2, 11-14; 눅 23:1-5; 요 18:28-38)

**15** 아침이 되자마자 높은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과 모든 의회 의원들과 더불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

<sup>2</sup>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그대로요.”

<sup>3</sup> 높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였다. <sup>4</sup>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다시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sup>5</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예수의 태도에 놀랐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 주려 하나 실패하다**

(마 27:15-31; 눅 23:13-25; 요 18:39-19:16)

<sup>6</sup> 해마다 유월절 기간에는 총독이 감옥에서 죄수 한 명을 놓아 주는 일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 주었다. <sup>7</sup> 그때 감옥에는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그는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폭동 때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었다. <sup>8</sup> 사람들이 떼를 지어 빌라도에게 가서 늘 하던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청하였다.

<sup>9</sup>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 주기를 원하시요?” <sup>10</sup>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sup>11</sup>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서, 빌라도에게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sup>12</sup> 빌라도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sup>13</sup> 무리가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sup>14</sup> 빌라도가 물었다. “무슨 까닭이요?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소?”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sup>15</sup> 빌라도는 무리의 마음을 사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는 풀어 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sup>16</sup> 군인들이 예수를 궁전, 곧 총독 관저<sup>‡</sup>로 끌고 갔다. 그들은 운부대를 불러모았다. <sup>17</sup> 군인들은 예수께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 <sup>18</sup> 그리고 큰 소리로

† 성경 구약성경. ††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그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 유대 율법에는 두 사

람 이상이 같은 증거를 대야만 사람을 고소할 수 있었다. †† 68절 몇몇 초기 사본에는 ‘그리고 닭이 울었다.’ 라는 부분이 덧붙여 있다. †† 총독 관저 그리스

예수를 놀리기 시작하였다. “유대 사람의 왕이여, 안녕하십니까?”  
 19 군인들은 막대기로 예수의 머리를 마구 쳤다. 그들은 예수께 침  
 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체하며 놀렸다. 20 이렇게 예  
 수를 괴롭힌 뒤에, 그들은 예수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  
 분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을 총독 관저에서 데리고 나와 십자  
 가에 매달려고 끌고 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 27:32-44; 눅 23:26-39; 요 19:17-19)

21 예수를 끌고 가는 길에 군인들은 시골에서 성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구레네 † 사람 시몬으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군인들은 시몬을 붙잡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끌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 (끌  
 고다는 ‘해골의 골짜기’ 라는 뜻이다.) 23 끌고다에서 군인들은 예  
 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24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  
 졌다. 그들은 누가 어떤 옷을 차지할 것인지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  
 였다.

2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각은 아침 아홉 시였다.  
 26 예수의 죄목을 쓴 팻말에는 ‘유대 사람의 왕’ 이라고 쓰여 있  
 었다. 27 군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  
 다.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그들의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  
 28 ††29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며 예수를 심한 말로 욕하였다. 그  
 들은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어이구!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던 사람 아니야? 30 어디 십자가 위에서 내려  
 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시지!”

31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괴롭혔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해 주었는데, 자신은 구할 수 없나 봅시다.  
 32 그가 진짜로 그리스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  
 려와 자신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믿을 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고 있던 두 강도들도 똑같이 예  
 수를 괴롭히는 말을 하였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마 27:45-56; 눅 23:44-49; 요 19:28-30)

33 열두 시쯤에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이 어둠은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로이, 엘  
 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찌하  
 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 라는 뜻이다.

35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들어 보  
 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갓숨 ‡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가져 왔  
 다. 그리고 그 갓숨을 막대기에 묶어 예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자! 이제 기다려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  
 서 내려 주는지 구경 한번 해 봅시다.”

어로는 ‘프라이토리온’.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서, 유대를 다스리  
 는 데 필요한 모든 로마의 기관이 이곳에 있었다. †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역(지  
 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 구레네로 가서 살던 유대 사람들이 더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 †† 28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렇게 하여 ‘그들이 그  
 를 범죄자들과 함께 놓아두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28절이  
 들어 있다. ‡ 나의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시 22:1. †† 그가...있소 ‘나의 하  
 나님’ 이란 뜻의 ‘엘로이’ 또는 ‘엘리’ 가 사람들에게는 ‘엘리아’ 라는 이름처럼 들렸  
 던 것 같다.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갓숨 해면 또는 스폰지.

37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뒤에 숨을 거두셨다.  
 38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 ††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위에서 시작해서 바닥까지 완전히 찢어졌다. 39 예수 앞에서 서 있던  
 한 백인대장 ††은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0 몇몇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켜보고 있  
 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다. 41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  
 를 따르고 돕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말고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  
 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묻히시다**

(마 27:57-61; 눅 23:50-56; 요 19:38-42)

42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  
 할 때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의 주검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요셉은 존경받는 의회 의원으로, 하  
 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44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  
 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백인대장 §을 불러서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물었다. 45 그는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이미 숨을 거두  
 었다는 말을 듣고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의 주검을 넘겨  
 주었다. 46 요셉은 고운 베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주검을 십자  
 가에서 내려 그 베로 싼 뒤에,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  
 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어귀를 막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묻힌 곳을 보아 두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

(마 28:1-8; 눅 24:1-12; 요 20:1-10)

16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몸에 바를 향료를 실다. 2 안식  
 일 다음 날, § 곧 한 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  
 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3 그들은 “누가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 줄까요?”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4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서 보니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  
 다. 5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무덤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6 그 젊은 남자가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  
 셧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들이 그분의 주검을 모셨던 자  
 리를 보아라.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  
 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전에 예  
 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8 여자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낮이 나간 채 무덤에서 나와 도망  
 하였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 성전 휘장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다른 부분을 갈라 놓는  
 휘장.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므로,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 된다. §†† 현재 남아 있는 마가복음  
 사본 가운데 두 개의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은 여기에서 끝난다. 다른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덧붙여 있다. “그들은 곧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지시 받은 대로 전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을 동쪽과 서쪽으로 보내시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몇몇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다**

(마 28:9-10; 요 20:11-18; 눅 24:13-35)

9 한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예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 †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10 마리아가 예수를 본 뒤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11 마리아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 계시며, 자기가 직접 예수를 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13 두 사람이 되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다**

(마 28:16-20;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14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꾸

†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짚으셨다.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빈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16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 †를 내쫓고,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18 맨손으로 뱀을 집어 들 것이다. 그들은 독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

(눅 24:50-53; 행 1:9-11)

19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다.

††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누가복음

## 누가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 쓰다

1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로 엮어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과 꼭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그 사건들을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3 저 또한 그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잘 정리하여 글로 써서 각하게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 그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워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 사가랴와 엘리사벳

5 헤롯왕 ††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 갈래 ††에 들어 있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아론 † 가문 출신이었다. 6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의 명령과 규율을 흠 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7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

8 아비아 갈래의 차례가 되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9 제사장들은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 향 제사 †를 드릴 제사장을 제비로 뽑았는데, 이날은 사가랴가 뽑혔다. 10 향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 많은 사람이 밖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11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을 피우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12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었다. 13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14 그 아들은 너를 무척 기쁘게 해 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15 그 아기는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결코 포도주나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16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 그는 엘리야 ††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는 부모들의 마음을 돌려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18 사가랴가 말하였다. “그 말씀이 정말인지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데도 제 아내도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 각하 말이나 글에서 왕이나 통치자에게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곤 하던 말. †† 헤롯왕 기원전 40-4년 동안에 유대를 다스린 왕으로, 헤롯대왕이라고 불렸다. ‡ 아비아 갈래 유대 사람 제사장들은 24갈래로 나뉘어 있었다(대상 24장). †† 아론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의 첫번째 제사장이었다. †† 향 제사 특별한 나무의 어린잎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바쳤다.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19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네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20 잘 들어라. 이제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말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1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 22 드디어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계속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같은 것을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23 그는 성전에서 섬기는 기간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다.

24 얼마 뒤에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다섯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하였다. 25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좋은 일을 해 주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더니, 주께서 내 부끄러움 ††을 없애 주셨구나!”

## 처녀 마리아

26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에 사는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27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 처녀는 다윗 § 가문 사람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28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말하였다. “크게 은혜를 입은 그대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그대와 함께하신다.”

29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인사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 31 잘 들어라.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32 아기는 아주 위대한 분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3 그는 야곱의 가문 †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네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힘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36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너무 늙었지만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기를 가진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다.”

††† 부끄러움 유대 사람들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였다.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킴. †††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38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다

39 마리아는 길 떠날 채비를 하여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다. 40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마구 뛰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42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대는 모든 여자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44 그대의 인사를 듣는 순간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었습니다. 45 당신은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으셨습니다.”

####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47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48 그것은

주께서 이 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 받은 여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49 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50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미칠 것입니다.

51 주께서 팔을 뻗어

당신의 힘을 보여 주셨으니,

마음속 깊이 교만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멀리 흠어 버리셨습니다.

52 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은 높여 주셨습니다.

53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54 주께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그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55 그것은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을 후손들과 맺으신

영원한 약속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 요한이 태어나다

57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왔다. 그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도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였다. 60 그러자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61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62 그리고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63 사가랴는 글 쓸 판을 달라고 하여 그 위에 이렇게 썼다. “아기 이름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64 그러자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65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 일은 유대 산골 지방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66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67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여라.

69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종 다윗 가문에서

능력 있는 구세주를 일으키셨다.

70 주께서는 오래 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71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시리라 말씀하셨다.

72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셨다.

그리고 당신이 맺은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다.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놓여나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76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77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니,  
곧 그들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78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가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우리 위에 비치게 하리니,  
79 그 빛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비치고  
또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80 아이는 자라 갔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굳세어졌다. 그는 이  
스라엘 백성들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설 때까지 광  
야에서 지냈다.

### 예수의 탄생 (마 1:18-25)

2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 1는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 등록 2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 그것  
이 첫번째 호적 등록이었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의 일이었다. 3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

4 요셉도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을 떠나, 유대 지  
방에 있는 다윗의 고향으로 갔다. 그 마을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었  
다. 요셉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다. 5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름을 등록하였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요셉과 마리아  
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7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 4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 방이 5 없었기 때문이다.

### 몇몇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다

8 가까운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밤새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쌌다. 그  
들은 겁이 났다. 10 천사가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사  
람들이 모두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려 주러 왔다. 11 오늘 다윗 마을  
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주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  
이 그분을 알아보는 표시이다.”

13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  
양하였다.

14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자, 목자들은 이야  
기를 나누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주님께서 알려 주신 이  
일을 직접 알아보자.”

16 목자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  
기를 찾아냈다. 17 그들은 아기를 본 뒤에, 이 아기에 관하여 천사  
들이 자기들에게 일러 준 말을 널리 퍼뜨렸다. 18 그 말을 들은 모  
든 사람이 놀라워하였다. 19 그러나 마리아는 들은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곰곰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

† 아우구스투스 황제 예수께서 태어나실 무렵의 로마의 황제. †† 호적 등  
록 또는 ‘인구 조사’. 사람들의 수와 그들이 가진 재산을 조사하는 것. ‡ 구유 마  
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나무 통. ††† 여관에는...들 방이 또는 ‘손님방에는 마리아  
와 요셉이 들 자리가’.

고, 자기들이 듣고 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두고 온 양 떼에게 돌  
아갔다. 그들이 듣고 본 것은 천사가 일러 준 그대로였다.

21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기 전  
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22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 6을 치러야 할 날이 되었다. 요셉  
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  
는 성전으로 갔다. 23 주의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일로 태  
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는 주님께 바쳐야 한다.” 24 그리고 주의  
법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25 그리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로 바치려고 성  
전으로 갔다.

###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었  
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  
다. 그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었다. 26 성령께서 이미 시므  
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는 죽지 않을 것이다.” 27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  
다.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법에 정해진 예식을 치르려고 아기  
를 데리고 들어왔다. 28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29 “주님, 이제 이 종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 제가 주님의 구원 8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31 당신께서는 그 구원을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32 그 구원은 이방 민족에게는  
당신의 길을 보여 주는 빛이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과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관하여 하는 말을  
듣고 놀라워하였다. 34 시므온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  
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35 그  
것은 많은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날카로운 칼처럼 당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다

36 거기에는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다. 안나는 아셀 가문  
사람 바누엘의 딸이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 여자는 결  
혼하여 남편과 칠 년을 살고 37 남편을 잃었다. 안나는 여든네 살  
이 되도록 홀어미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

‡‡ 정결 예식 모세의 법에 따르면, 유대 여자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 깨끗해져야 한다(레  
12:2-8). ††† 만일로...바쳐야 한다 출 13:2. ††† 산비둘기...바쳐야 한다  
레 12:8. 이것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었다. § 구원 ‘예수’  
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다.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sup>38</sup>안나는 아기와 부모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해방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요셉과 마리아 집으로 돌아가다**

<sup>39</sup>아기의 부모는 주의 법에 정해진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에 있는 그들의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sup>40</sup>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였다.

**소년 시절의 예수**

<sup>41</sup>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sup>42</sup>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늘 해 오던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 <sup>43</sup>명절 기간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sup>44</sup>그들은 예수가 같이 간 사람들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sup>45</sup>그러나 그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sup>46</sup>그들은 사흘 뒤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다. 예수께서는 선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sup>47</sup>그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선생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에 놀랐다. <sup>48</sup>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애야,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나는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sup>49</sup>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sup>50</sup>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sup>51</sup>예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며 살았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새겨 두었다. <sup>52</sup>예수께서는 슬기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인정을 받았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준비하다**  
(마 3:1-12; 막 1:1-8; 요 1:19-28)

**3** 로마 황제 디베료가 다스린 지 십오 번째 되던 해였다. 황제 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 본디오 빌라도: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 헤롯 †: 갈릴리 지방의 영주
- 헤롯의 동생 빌립: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영주
- 루사니아: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

<sup>2</sup>대제사장 †는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sup>3</sup>그는 요단 강 † 가까운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sup>4</sup>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기록한 책에 쓰인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하여 길을 곧게 하여라.

<sup>5</sup>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라.

굽은 길은 곧게 만들고

†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 †† 대제사장 유대 사람들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만들어라.

<sup>6</sup>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

<sup>7</sup>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앞으로 닥칠 큰 화를 피하라고 알려 주더냐? <sup>8</sup>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sup>9</sup>벌써 하나님의 도끼가 뿌리를 찍으려고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태우실 것이다.”

<sup>10</sup>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sup>11</sup>요한이 대답하였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어라.”

<sup>12</sup>세무원 †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sup>13</sup>요한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sup>14</sup>그 다음으로 몇몇 군인들이 물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남을 속이거나 헐박하여 억지로 돈을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sup>15</sup>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sup>16</sup>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sup>17</sup>그분은 키 †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 계신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고, 쟁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sup>18</sup>이렇게 요한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다. <sup>19</sup>요한은 갈릴리 지방의 영주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일과, 많은 나쁜 짓을 한 것을 꾸짖었다. <sup>20</sup>헤롯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또 나쁜 짓을 한 가지 더 하였다. 그것은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이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마 3:13-17; 막 1:9-11)

<sup>21</sup>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sup>22</sup>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께 내려오셨다. 하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예수의 족보**  
(마 1:1-17)

<sup>23</sup>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는 서른 살쯤 되셨을 때였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고,

<sup>24</sup> 엘리는 맛닷의 아들이고,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 사 40:3-5. ††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 키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그릇.

멜기는 안나의 아들이고,  
 안나는 요셉의 아들이고,  
 25 요셉은 맛다디아의 아들이고,  
 맛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고,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고,  
 에슬리는 낙개의 아들이고,  
 26 낙개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맛다디아의 아들이고,  
 맛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고,  
 서머인은 요섹의 아들이고,  
 요섹은 요다의 아들이고,  
 27 요다는 요아난의 아들이고,  
 요아난은 레사의 아들이고,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고,  
 28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앳디의 아들이고,  
 앳디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고,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이고,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29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이고,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맛닷의 아들이고,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30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이고,  
 31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멘나의 아들이고,  
 멘나는 맛다다의 아들이고,  
 맛다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32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벧의 아들이고,  
 오벧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고,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고,  
 33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이고,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고,  
 34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고,  
 35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르우의 아들이고,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헤버의 아들이고,  
 헤버는 살라의 아들이고,  
 36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이고,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레멕의 아들이고,  
 37 레멕은 므두셀라의 아들이고,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고,  
 38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 악마에게 시험당하시다

(마 4:1-11; 막 1:12-13)

4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단 강 1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2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몹시 배가 고프셨다.

3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라.”

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 11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12 †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보여 주었다. 6 그리고 말하였다. “저 나라들이 가진 힘과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저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7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네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13 †

9 악마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10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돌보게 하시리라.’ 11 †

11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12 †

1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13 †

13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해 본 뒤, 더 좋은 때를 노리며 떠나갔다.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성경 구약성경. † 신 8:3. †† 신 6:13. †† 시 91:11. ††† 시 91:12. ††† 신 6:16.



##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하시다

(마 4:12-17; 막 1:14-15)

14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15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였다.

## 고향 마을로 가시다

(마 13:53-58; 막 6:1-6)

16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다. 어느 안식일에 늘 하 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17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sup>†</sup>가 쓴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다음 말씀이 적힌 곳을 찾으셨다.

18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름 부어 나를 택하셨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리라 하신다.

19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왔다고

널리 알리라 하신다.”<sup>††</sup>

20 그리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22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2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내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 보이시오.’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줄 안다.” 24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2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 엘리야<sup>‡</sup> 때에도 이스라엘에 흠어미가 많았다. 그때 삼 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다. 26 하나님께서는 많은 흠어미 가운데서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있는 한 흠어미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27 엘리사<sup>‡‡</sup> 예언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쳐 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 주셨다.”

28 이 말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다. 29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마을 아래 벵랑 끝으로 데려가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 그곳을 떠나셨다.

##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막 1:21-28)

31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가서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32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33 그때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34 “아허! 나사렛 사람 예수 시로군! 당신이 우리를 어쩔 셈이요? 우리를 없애러 오셨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오.” 35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나갔으나,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36 사람들이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악령도 나가는구나!” 37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둘레의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갔다.

##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다

(마 8:14-17; 막 1:29-34)

38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sup>‡‡</sup>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 부인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39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부인은 곧 일어나 사람들의 시중을 듣기 시작하였다.

##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다

40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병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41 많은 사람 안에 들어 있던 귀신들도 나갔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다른 여러 마을에도 가시다

(막 1:35-39)

42 날이 밝아 예수께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지 마시라고 간청하였다. 43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44 예수께서는 계속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다

(마 4:18-22; 막 1:16-20)

5 어느 날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고, 사람들은 그분 곁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물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께서 그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sup>‡‡</sup>의 배였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대어 놓으라 하신 다음, 거기에 앉아 가르치셨다.

4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 시몬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 시몬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 이사야 기원전 742-701년에 유대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사 61:1-2.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엘리사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

5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6 그들이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였다. 7 그들은 손짓으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이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8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9 시몬과, 시몬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놀랐던 것이다. 10 세 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 두 사람은 시몬과 같이 일하는 어부들이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 피부병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시다

(마 8:1-4; 막 1:40-45)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계실 때였다. 그 마을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빌었다. “주께서 저를 고쳐 주려 하시면, 제가 깨끗이 나올 것입니다.”

13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 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사람의 피부병이 금세 나타났다. 14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쳐 네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15 그러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더 멀리 퍼져 나갔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몰려왔다.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주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시다

(마 9:1-8; 눅 2:1-12)

17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 자리에는 바리새파사람들과 율법 선생들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 주고 계셨다. 18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뉘어 데리고 왔다. 그들은 아픈 사람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누이려고 하였다. 19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아픈 사람을 들것에 누인 채, 사람들 한가운데 계신 예수 앞으로 내려 보냈다. 20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21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22 예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23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운

† 제사장에게 보이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오면,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예물을 바쳐야 했다 (레 14:2-32). †† 지붕 팔레 스티 지방의 지붕은 대개 평평하였고, 집 밖에 있는 층계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냐? 24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25 그러자 병자는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26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두려움에 차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 레위(마태)가 예수를 따르다

(마 9:9-13; 막 2:13-17)

27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무원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28 레위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따라나섰다.

29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많은 세무원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었다. 30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이것이 못마땅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요?”

3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32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 어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신 예수

(마 9:14-17; 막 2:18-22)

33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파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날마다 먹고 마십니다.”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결혼 잔치에서 신랑이 있는 동안에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35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것이다.”

36 그리고 이 비유 #를 들려주셨다. “새 옷을 찢어 내어 헌 옷에 대고 깍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버리고, 새 옷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37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 #에 부어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쓰게 되기 때문이다.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39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고 말한다.”

###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마 12:1-8; 막 2:23-28)

6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2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읽은 적이 없느냐? 4 다윗은 하나님의

‡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죄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으로는 종교적으로 모세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넣어 두려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빵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sup>5</sup>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 안식일에 오른손 마비된 사람을 고치시다

(마 12:9-14; 막 3:1-6)

<sup>6</sup>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sup>7</sup>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면, 그 일을 트집 잡아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sup>8</sup>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섰다. <sup>9</sup>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법에 맞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sup>10</sup>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손이 말짱하게 나왔다. <sup>11</sup>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마 10:1-4; 막 3:13-19)

<sup>12</sup>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sup>13</sup>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sup>14</sup> 그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sup>15</sup>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쟁이라고 불린 시몬, <sup>16</sup>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리옷 유다이다. 이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되었다.

###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다

(마 4:23-25; 5:1-12)

<sup>17</sup>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멈추셨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sup>18</sup>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람들도 병이 나았다. <sup>19</sup>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나왔기 때문이다.

<sup>20</sup>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sup>21</sup>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sup>22</sup>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따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따돌리고 모욕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sup>23</sup> 그때에 너희는 기뻐 뛰어들어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못된 짓을 했었다.

<sup>24</sup>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안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sup>25</sup> 지금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sup>26</sup>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 꾀들을 칭찬했었다.

### 원수를 사랑하라

(마 5:38-48; 7:12)

<sup>27</sup>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sup>28</sup>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너희를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sup>29</sup> 누가 한 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누가 네 겹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네 속옷을 거절하지 말아라. <sup>30</sup>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어라.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돌려 달라고 하지 말아라. <sup>31</sup>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 주어라. <sup>32</sup>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sup>33</sup> 너희에게 잘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 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그런 일은 죄인들도 한다. <sup>34</sup>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꾸어 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제 친구들에게 꾸어 준다. <sup>35</sup>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 주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sup>36</sup>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먼저 너희 자신을 보라

(마 7:1-5)

<sup>37</sup>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sup>38</sup>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담아 네 옷자락에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sup>39</sup>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사람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sup>40</sup>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sup>41</sup>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 있는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든 큰 들보<sup>†</sup>는 보지 못하느냐? <sup>42</sup> 네 눈에 들어 있는 들

†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는 사람. ‡ 들보 건물에서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큰 나무.

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여, 자네 눈에 있는 먼지를 꺼내 주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꺼내어라. 그래야네 눈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든 먼지를 꺼내 줄 수 있을 것이다.

###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마 7:17-20; 12:34-35)

43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4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짙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 둔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 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 두 종류의 사람들

(마 7:24-27)

46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47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48 그런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다. 홍수가 나고 강물이 집을 덮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49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놓지 않은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강물이 덮치면 집은 금방 무너져 완전히 부서지고 만다.”

###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 주시다

(마 8:5-13; 요 4:43-54)

7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뒤에 가버나움<sup>†</sup>으로 가셨다. 2 거기에 어떤 백인대장<sup>††</sup>이 있었다. 그 백인대장의 종 한 사람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종은 백인대장이 매우 아끼는 종이였다. 3 백인대장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 사람 장로<sup>‡</sup> 몇 사람을 보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청하려는 것이었다. 4 장로들은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였다. “백인대장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6 그래서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리게 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수고스럽게 일부러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7 그래서 저는 주님을 뵈러 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를 것입니다. 8 제 위로는 상관들이 있고 제 아래로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하에게 ‘가라!’ 고 하면 갑니다. 그리고 저 부하에게 ‘오라!’ 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고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예수께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sup>‡‡</sup>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0 그 친구들이 백인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벌써 나아 있었다.

†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대의 장교. ‡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 이스라엘 유대 나라 또는 그 백성.

###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다

11 조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예수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장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홀어미의 외아들이었다. 그 고을의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다. 13 주께서는 그 어머니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14 예수께서 상여로 다가가 손을 대시자,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죽은 젊은이를 향해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일어나거라!” 15 그러자 죽었던 젊은이가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 젊은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에게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려고 오셨다!”

17 예수에 대한 소식은 유대 지방과 그 둘레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 여쭙다

(마 11:2-19)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이야기하였다.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19 주께 가서 이렇게 여쭙어 보라고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20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선생님께 여쭙어 보라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1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 주셨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들이 낫고, 귀머슴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 23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24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sup>‡‡</sup>를 보러 갔었느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었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었느냐? 좋은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다. 26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었느냐? 예언자를 보러 갔었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27 성경에는 요한을 두고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도 요한보다 위대하다.

‡‡ 갈대 물가에 자라는 키가 큰 풀. 예수께서는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말 3:1.

29 (요한의 선포를 들은 모든 사람은, 심지어 세무원†들까지도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였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30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세워 놓으신 계 획을 거부하였다.)

31 그러니 내가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이 사람들이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32 이 세대 사람은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한 때의 아이들이 다른 때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픈 장송곡을 노래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밥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자, ‘요한은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였다. 34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무원들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라고 말한다. 35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증명된다.”

### 바리새파 사람 시몬

36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상 앞에 앉으셨다. 37 그 마을에는 죄 많은 삶을 살아온 여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된 것을 알고는 향유 ††가 담긴 옥합 †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 38 여자는 예수의 뒤로 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39 예수를 청했던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댄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40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41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 ††를 빚지고, 또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42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돈놀이꾼이 두 사람의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은 빚을 면제 받은 사람이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말이다.” 44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 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45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서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내 발에 입 맞추었다.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 주었다. 47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 여자가 이렇게 큰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 향유 상처 난 피부나 장례를 위해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던 약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기름. † 옥합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 ††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 값이었다.

48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49 그러자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기까지 하는가?”

5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

8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열두 사도들도 예수와 함께 다녔다. 2 그리고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신 여자들도 따라다녔다. 그들은 일곱 귀신에게 시달리던 막달라 여자라고 부르는 마리아와 3 헤롯 집안의 청지기인 ††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이 여자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와 그분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대주었다.

### 씨 뿌리는 비유

(마 13:1-17; 막 4:1-12)

4 많은 사람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5 “어떤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 먹히기도 하였다. 6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물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져서,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그 솜통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잘 자라서 백 배의 곡식을 맺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 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9 제자들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께 여쭙었다.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해 준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하여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다

(마 13:18-23; 막 4:13-20)

11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13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잠깐 동안은 믿지만 시련의 때가 닥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14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이 나 재산이나 인생의 즐거움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15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며 끝까지 참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청지기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이나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맡아 보고 심부름을 하던 사람. †† 사 6:9.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써라**  
(막 4:21-25)

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모두 그 빛을 볼 수 있다. 17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모두 알려지거나 밝혀질 것이다. 18 그러니 정신 차려서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다**  
(마 12:46-50; 막 3:31-35)

19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20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다**  
(마 8:23-27; 막 4:35-41)

22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23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호수 쪽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물살이 일자,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되었다. 24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바람이 멎고 호수가 잔잔해졌다. 2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가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내리시니, 바람도 물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  
(마 8:28-34; 막 5:1-20)

26 그들은 배를 몰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닿았다. 27 예수께서 물에 오르시니,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가운데서 살았다. 28 그는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29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여러 번 귀신에게 붙들려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어 버렸다. 그러고는 귀신에게 몰려서 외딴 곳을 헤매고 다녔다.)

30 예수께서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 사람이 “레기온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안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31 귀신들은 예수께 자기들을 깊은 구렁텅이로 되돌려 보내지 말아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32 마침 그 언덕 위에는 큰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 레기온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한 사단. †† 깊은 구렁텅이 또는 ‘지옥’. 악령들이 갇혀서 벌 받는 곳.

자기들을 그 돼지들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빌자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33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돼지들은 언덕 아래 호수로 달려 내려가서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3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달아나, 읍과 그 둘레의 농촌 마을로 다니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였다. 35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러 왔다.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제 정신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멀쩡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36 그 일을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37 그러자 거라사 지역의 모든 주민은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떠나시려는데, 38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자기도 함께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39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해 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온 읍내에 두루 알렸다.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고, 병든 여자를 고치시다**  
(마 9:18-26; 막 5:21-43)

40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41 아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왔다. 아이로는 회당장 이었다. 아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함께 가시자고 애원하였다. 42 아이로에게는 열두 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그분을 밀치며 쫓아갔다. 43 그 가운데에는 십이 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도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있는 돈을 다 써 버렸지만 †, 어떤 의사도 고쳐 주지 못하였다. 44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 순간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45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있지 않습니까?”

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 나간 것을 내가 안다.” 47 여자는 더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 여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까닭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예수께 손을 대자 자기의 병이 곧 나은 것도 말씀드렸다. 48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다. 평안히 가거라.”

49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서 왔다. 그는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이로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믿어라! 네 딸이 나올 것이다.”

51 예수께서 그 집에 이르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셨다. 52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울며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회당의 책임자. †† 그 여자는...돈을 다 써버렸다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53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5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얘야, 일어나거라!” 55 그러자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고, 아이는 곧 일어섰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56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는 부모에게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열두 사도를 전도 여행에 보내시다

(마 10:5-15; 막 6:7-13)

9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불러모으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2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 주라고 그들을 보내셨다. 3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보내셨다. “길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음식과 돈도 가지지 말고, 갈아입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4 한 집에 들어가면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5 그 고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 주지 않으면, 고을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려라.” †

6 그리하여 사도들은 나가서,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

### 헤롯이 예수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다

(마 14:1-12; 막 6:14-29)

7 갈릴리를 다스리는 영주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8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아 †가 나타났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날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9 헤롯이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잘라 죽였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이나?” 헤롯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다

(마 14:13-21; 막 6:30-44; 요 6:1-14)

1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따로 데리고 벳새다 ‡라는 고을로 가셨다. 11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아내어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셨다.

12 저녁 무렵에 열두 사도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흠어 보내어, 가까운 농장과 마을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찾아보라고 해야겠습니다.”

13 그러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빵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오라는 말씀이십니까?” 14 (거기에는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오십 명씩 둘러 앉혀라.”

15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다. 16 예수께서는 빵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

시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누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17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다

(마 16:13-19; 막 8:27-29)

18 한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19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20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

21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

(마 16:21-28; 막 8:31-9:1)

22 그리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괴로운 일을 많이 겪어야 한다. 유대의 장로들과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사람의 아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23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25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여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어떤 사람이 나 또는 내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다시 세상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

(마 17:1-8; 막 9:2-8)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쯤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실 정도로 희게 빛났다. 30 모세와 엘리야 † 두 사람이 31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었다. 32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 곁에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

† 발에 묻은 먼지를 털다 그들과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표시.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의 중요한 두 지도자들. †††† 초막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간단한 집 (신 16:13-17).

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sup>34</sup>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구름이 자기들을 덮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sup>35</sup> 그때 구름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sup>36</sup> 그 목소리가 그친 뒤에 그들이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예수 악령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다

(마 17:14-18; 막 9:14-27)

<sup>37</sup>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았다. <sup>38</sup>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소리쳤다. “선생님, 제발 오셔서 제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입니다. <sup>39</sup> 악령 이 그 아이에게 덮치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온몸을 떨면서 입에 거품을 뱉습니다. 악령은 계속 아이를 괴롭히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sup>40</sup>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악령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sup>41</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구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들을 데려오너라.”

<sup>42</sup> 그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동안에 귀신이 그 아이를 땅에 쓰러뜨렸다. 아이는 온몸을 떨었다. 예수께서는 악령 卍를 무섭게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이가 나왔다. 예수께서는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sup>43</sup>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다

(마 17:22-23; 막 9:30-32)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up>44</sup> “내가 너희에게 하려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sup>45</sup>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그 말의 뜻을 감히 예수께 여쭙어 보지 못하였다.

###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마 18:1-5; 막 9:33-37)

<sup>46</sup> 제자들 가운데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다툰 것이었다. <sup>47</sup>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다. <sup>48</sup>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다.”

###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와 한편이다

(막 9:38-40)

<sup>49</sup> 그러자 요한이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 악령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 악령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우리와 함께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sup>50</sup>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을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와 한편이다.”

### 어떤 사마리아 마을

<sup>51</sup>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sup>52</sup> 그리고 몇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예수께서 머무실 곳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sup>53</sup>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sup>54</sup>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라십니까?” † 라고 여쭙었다.

<sup>55</sup> 예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며 꾸짖으셨다. †† 예수와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 예수를 따르는 것

(마 8:19-22)

<sup>57</sup>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sup>58</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다.”

<sup>59</sup>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sup>60</sup>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하여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sup>61</sup>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sup>62</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발을 갈려고 쟁기에 이미 손을 대고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 일흔두 사람을 보내시다

**10**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께서 달리 일흔두 사람 卍를 뽑아, 당신이 찾아가시려고 하는 여러 고을과 고장으로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셨다. <sup>2</sup>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일을 도울 일꾼은 적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밭에서 일할 일꾼을 더 보내 달라고 기도하여라. <sup>3</sup> 자, 가거라. 이리 떼 속으로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sup>4</sup> 돈주머니나 식량 자루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가는 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멈추지도 말아라. <sup>5</sup>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sup>6</sup> 그 집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면, 너희가 비는 평화

‡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는 사람들을 싫어하였다. †† 주님...바라십니까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엘리아가 한 것과 같이 저희가...” 라고 되어 있다. †† 55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sup>56</sup>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다.” ††† 일흔두 사람 어떤 그리스어 고대 사본들에는 ‘일흔 사람’ 으로 되어 있다.



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너희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같은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8 너희가 어떤 고을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거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라. 9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와 있다.’ 고 알려 주어라. 10 그러나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11 ‘너희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우리의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까지도 떨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 두어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 사람들보다 이 고을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다**  
(마 11:20-24)

13 고라신 <sup>†</sup>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벳새다 <sup>††</sup>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그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보여 주었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거친 베옷을 입고 잣더미 가운데 앉아서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14 심판 날에 너희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15 가버나움 <sup>‡</sup>아, 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 같으나? 어렵었다. 너는 죽은 자들이 가는 저승으로 떨어질 것이다!

16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17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자, 귀신 <sup>‡‡</sup>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19 잘 들어라. 나는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 <sup>‡‡</sup>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또 원수의 모든 힘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것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20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버지께 기도하시다**  
(마 11:25-27; 13:16-17)

21 그대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 주시니,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22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 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다.”

† 고라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 벳새다 갈릴리 호숫가의 도시.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 가버나움 예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도시. ‡‡ 귀신 또는 ‘악령’.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전갈 독침을 가진 곤충.

23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 받은 눈이다. 24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25 그때 한 율법 선생이 일어서서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2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27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네 마음 <sup>‡‡</sup>을 다하고, 네 영혼 <sup>‡‡</sup>을 다하고, 네 힘 <sup>‡‡</sup>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sup>‡‡</sup>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sup>‡‡</sup> 고 쓰여 있습니다.”

2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대답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29 그 율법 선생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께 여쭙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30 예수께서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강도들이 나타나 그 사람을 덮쳤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찢고 때린 다음, 거의 죽게 된 그를 두고 그냥 가 버렸다. 31 그때 어떤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게 되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았지만 멀쩡이 피해서 가 버렸다. 32 그 다음에 어떤 레위 사람 <sup>‡‡</sup>이 다가왔다. 레위 사람도 다친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가 버렸다. 33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 <sup>‡‡</sup>이 그 길을 내려왔다. 그는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 다다랐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34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주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맨 다음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다친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 주었다. 35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데나리온 <sup>‡‡</sup> 두 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36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선생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마리아와 마르다**

38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반갑게 맞아들였다. 39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40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할 것이 많아 무척 바빴다. 그는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

‡‡ 마음 일반적으로 ‘지성’ ‘의지’를 상징한다. ‡‡ 영혼 일반적으로 ‘정서’ ‘감정’을 상징한다. § 힘 능력과 수단(부)을 의미한다. §† 네 마음을... 사랑하여라 신 6:5. §††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 레 19:18. §‡ 레위 사람 레위 가문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았다. §‡†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생이 제게 일을 떠맡기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을 하고 속상해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다**

(마 6:9-15)

**11**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3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4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끈질기게 구하여라**

(마 7:7-11)

5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 ‘여보게, 빵 세 덩이만 빌려 주게. 6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네.’ 7 그러면 그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가 보게! 문은 잠겼고 아이들과 나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빵을 줄 수가 없네.’ 8 잘 들어라.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해서 그가 일어나 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조르면, 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9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11 너희 가운데 아들을 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12 그리고 너희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1을 주겠느냐? 13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당신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 12:22-30; 막 3:20-27)

14 어느 날 예수께서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병어리이던 그 사람이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11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 전갈 독침을 가진 곤충. ††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 성경에서는 악령, 귀신, 마귀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16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예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는 나라는 모두 망한다. 가족도 서로 싸우면 흩어지고 만다. 18 이처럼 사탄이 스스로 나뉘어 자신과 싸우면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다. 19 내가 바알세불에게서 힘을 얻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나?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21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믿었던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오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비어 있는 사람**

(마 12:43-45)

24 어떤 사람에게 들어 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25 그 귀신이 돌아와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간다. 26 그러고는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을 일곱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복 있는 분이십니다.”

28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몇몇 사람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마 12:38-42; 막 8:12)

29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다. 그들은 내게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나 1의 표적 밖에는 어떤 표적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30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표적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31 심판 날에, 시바의 여왕 11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11여기에 있다! 32 심판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

‡ 요나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큰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잡혀 있다가 살아 나 왔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께서도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살아 나오셨다. †† 시바의 여왕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남쪽 여왕’.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아주 먼 길을 찾아왔었다(왕상 10:1-13). †† 이가 또는 ‘것이’.

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 여기에 있다!

###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마 5:15; 6:22-23)

33 등불을 켜서, 그것을 숨겨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34 네 눈은 몸을 밝히는 빛이다. 눈이 성하면 네게 필요한 빛을 다 받는다. 그러나 눈이 성치 못하면 모든 것이 캄캄할 것이다. 35 그러니 조심하여라! 네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간직하도록 하여라. 36 네 몸에 빛이 가득하여 몸의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추는 것처럼 네 온몸이 밝은 빛을 낼 것이다.”

###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다

(마 23:1-36; 막 12:38-40; 눅 20:45-47)

37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자기 집에서 음식을 드시자고 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상 앞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 앉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이 깜짝 놀랐다. 39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이나 접시의 겉을 깨끗이 닦는데,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40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으셨느냐? 41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할 것이다. 42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의 심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친다 †. 그러나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반드시 실천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43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로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평평한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로 걸어다닌다.” †

45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선생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율법 선생들도 함께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4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지키기 힘든 어려운 규칙들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지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도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47 너희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예언자들을 죽인 것은 바로 너희 조상이었다. 48 너희는 조상들이 한 짓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49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언자와 사도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임

† 이가 또는 ‘것이’. †† 손을 씻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 관습. † 박하, 운향...바친다 밭에서 키우는 작은 채소로 음식의 양념으로 쓰인다. 모세의 법에 보면 발작물과 가축의 심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레 27:30-32; 신 26:12). 이러한 채소들은 바쳐야 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작은 채소들까지 바치는 것이 모세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 사람들은...걸어다닌다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을 당하고 더러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50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생겼을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곧 아벨 †을 죽여 흘린 피에서부터 사가랴 ††가 제단 ††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흘린 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었다. 그러고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다.”

53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께 대들며 여러 가지 물음을 퍼부었다. 54 그분의 대답에서 트집거리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 바리새파 사람들을 닮지 말아라

12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여라. 2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모두 알려질 것이다.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속삭인 말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 하나님만 두려워하여라

(마 10:28-31)

4 나의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너희를 어찌지 못한다. 5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버릴 권한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다.

6 작은 참새 다섯 마리가 겨우 동전 두 닢에 팔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7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다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 10:32-33; 12:32; 10:19-20)

8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자기의 사람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당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높은 관리들 앞으로 끌어들일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12 그런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 아벨 구약성경에서 맨 처음 죽임을 당한 사람. ††† 사가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역대하로 끝난다. ††† 제단 이 제단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곳.

**이기심에 대하여 경고하시라**

13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제게도 나누어 주라고 제 형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4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네 아버지 재산을 너희 두 형제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늘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경계하여라. 사람의 목숨은 그가 가진 많은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6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다.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17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였다. ‘곡식을 다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18 옳지,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간들을 헐고 더 큰 곳간들을 짓자. 그리고 새 곳간에 곡식과 값나가는 것들을 다 넣어 두면 되겠구나. 19 그러고 나면 나 자신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을 값진 것들을 곳간에 가득 쌓아 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 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니 네가 쓰려고 마련해 놓은 것들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21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마 6:25-34, 19-21)

2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23 삶에는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24 까마귀들을 보아라. 까마귀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집이나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 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살펴 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25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함으로써 목숨을 단 한 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26 너희는 그렇게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27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힘써 일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이 꽃 하나만큼도 잘 차려 입지 못하였다. 28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29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30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들을 위해 애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돈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32 내 어린양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3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고,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

† 솔로몬 왕 다윗왕의 아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알려져 있다.

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다. 34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기 마련이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마 24:42-44)

35 준비하고 있어야! 옷을 갖춰 입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야. 36 마치 결혼 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어라. 그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린 문을 열어 줄 수 있다. 37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앞치마를 걸치고, 종들을 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들여 줄 것이다. 38 주인이 한밤중에 오거나 좀 더 늦게 오더라도 종들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39 이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올지 알면, 그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40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사람의 아들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믿음직한 종이나?**

(마 24:45-51)

41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42 주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믿음직한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길 만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43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44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틀림없이 그 종에게 자기 재산을 모두 맡겨 관리하게 할 것이다. 45 그러나 일을 맡긴 그 종이 ‘주인님이 그리 쉬이 돌아오시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여, 다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날을 보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자. 46 주인은 그 악한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와서, 그 종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다른 종들과 함께 내쫓을 것이다.

47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바라는 것을 해 드리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종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48 그러나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한 종은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청할 것이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마 10:34-36)

49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왔다. 그 불이 벌써 타오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50 그러나 내게는 받아야 할 세례 †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51 너희는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이 갈라져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52 이제부터 한 가족이 다섯 사람이면, 세 사람은 나를 따르고 두 사람은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니면 두 사람이 나를 따르고 세 사람이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53 그들이 모두 갈라져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설 것이다.”

† 세례 보통은 ‘물에 푹 잠기다’ 라는 뜻을 가졌으나, 여기서는 ‘어려움에 빠진다’ ‘어려움에 푹 잠기다’ 라는 특별한 뜻을 가진다.

**때를 알아라**  
(마 16:2-3)

54 그리고 예수께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서쪽에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곧 ‘폭풍우가 오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비가 내린다. 55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너희는 ‘오늘은 덥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56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 문제들을 해결하여라**  
(마 5:25-26)

57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58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하여,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재판소로 가는 길이면, 재판소에 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너를 감옥에 처넣을 것이다. 59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네가 빚진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바꾸어라**

**13** 1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 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 1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고 있던 제물의 피와 섞어 버렸다는 이야기였다. 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4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5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쓸모없는 나무**

6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과수원지기에게 말하였다.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삼 년이나 와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나무를 베어 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를 어찌하여 그대로 두겠느냐?’ 8 과수원지기가 말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일 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 내년엔 열매가 열리면 다행이고,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시지요.’”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 주시다**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11 그 회당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십팔 년 동안이나 제대로 몸을 쓰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바로 펼 수 없었다. 12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네 병에서 놓여났다!” 13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마자 그 여자가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기원후 26-3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14 그런데 그곳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한 주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날이 몇새나 있소. 그러니 그때 와서 병을 고치시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러 오지 마시오.”

15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위선자들! 너희는 안식일에도 외양간의 가축들을 끌고 나가 물을 먹인다. 16 너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자는 십팔 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얽매어 시달려 왔다. 안식일이라도 이 여자가 사탄에게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17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훌륭한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마 13:31-33; 막 4:30-32)

18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19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1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20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21 그것은 어떤 여자가 빵을 구우려고 밀가루 서 말 1에 섞어 놓은 누룩 1과 같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좁은 문**

(마 7:13-14, 21-23)

22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가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23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24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으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문 밖에서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사람은 열여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간청할 것이다. ‘주인님, 저희에게 문 좀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26 그러면 너희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 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선 우리 고을의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 셧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 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 라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자신은 밖으로 쫓겨나서 거 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 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차려진 잔칫상에 앉을 것이다. 30 지금은 꼴 찌이나 그때에는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이나 그때에는 꼴찌가 될 사람들이 있다.”

1†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 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 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 서 말 글자 그 대로는 ‘3사타스’. 약 22리터. †† 누룩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 여기서는 좋은 영향을 뜻하는 상징으로 쓰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다**  
(마 23:37-39)

31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를 떠 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 †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32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 †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오늘과 내일은 사람들에게서 귀신 †들을 쫓아 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낼 것이다.’” 33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나는 여러 번 네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게 오려 하지 않았다. 35 이제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 †라고 말할 때까지 결코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옳으나?**

**14**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드셨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2 그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 †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 3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4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붙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셨다. 5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구해 내지 않겠느냐?” 6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의 말씀에 아무런 트집도 잡지 못하였다.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7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귀한 손님을 앉히는 자리에서로 앉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8 “어떤 사람이 너를 결혼 잔치에 초대하면 뒷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9 만일 그랬다가는, 너와 그를 초대한 주인이 네게 와서 ‘이분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 것이다. 너는 창피를 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10 그러니 너는 초대를 받으면 맨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네게 와서 ‘여보게, 일어나 뒷자리로 올라앉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와 함께 음식을 먹던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1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이실 것이다.”

**너희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12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였다. †† 여우 예수께서 헤롯이 영리하고 약삭빠르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귀신 또는 ‘악령’.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주의 이름으로... 받으소서 시 118:26. †† 수종병 몸의 조직 간격이나 체강 안에 림프액 또는 장액이 괴어 몸이 붓는 병.

부자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대접한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13 그러니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네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 너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잔치 비유**  
(마 22:1-10)

15 예수와 함께 상에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16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려고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때가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는 종을 보내어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게 하였다. 18 그러나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밭을 하나 샀기 때문에 가서 둘러보아야 하겠네. 용서하게.’ 19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겨릿소 다섯 쌍 ††을 샀기 때문에 일도 시켜 보고 소들도 살펴봐야 하겠네. 미안하네.’ 20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 21 심부름을 갔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시내의 거리에도 가고, 골목길에도 가거라.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22 한참 뒤에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빈 자리가 있습니다.’ 23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성 밖으로 나가 큰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울타리 틈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라. 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불러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24 잘 들어라. 내가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결코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마 10:37-38)

25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아들딸,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27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탐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 보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탐을 다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겠느냐? 29 그가 탐의 기초를 놓고 끝낼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어 말할 것이다. 30 ‘이 사람이 탐을 세우기 시작하더니 끝을 내지는 못하였구나!’

31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는 먼저 자기 군대 만 명을 데리고 이만 명을 가진 상대편 임금을 이길 수 있을지 앉아서 따져 볼 것이다. 32 만일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상대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할 것이다. 33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겨릿소 다섯 쌍 겨릿소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인 겨리를 끄는 소. 그러므로 ‘겨릿소 다섯 쌍’은 소 열 마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가진 영향력을 잃지 말아라**

(마 5:13; 막 9:50)

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35 그 소금은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의 기쁨**

(마 18:12-14)

15 많은 세무원 †들과 죄인 †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 2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3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4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둔 채 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으면 그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8 어떤 여자가 은돈 †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 여자는 불을 켜 들고 집을 샅샅이 청소하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뒤지지 않겠느냐? 9 그러다가 잃어버린 은돈을 찾으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은돈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10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두 아들의 비유**

11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12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모두 가지고 집을 떠났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사느라고 가진 돈을 헛되게 써 버렸다. 14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써 버린 뒤에 그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은 딱 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5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 사람은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콩깍지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그 많은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죽게 되었구나. 18 여기를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 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 은돈 고대 로마의 은돈인 데나리온. 당시 하루 품삯이 보통 데나리온 한 닢이었다.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삯꾼들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마침내 아들은 그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다**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 주고 신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이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하였다.

**큰아들이 불평하다**

25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26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27 종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아버님께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우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셔서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28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29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저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30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열게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 파는 여자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써 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31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네 것이다. 32 그런데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겁게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참된 재산**

1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 일해 줄 관리인을 한 사람 두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2 부자는 관리인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자네에 관한 이 소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내 관리인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니 그 동안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적어서 가져오게.’

3 관리인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인님이 관리인 노릇을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밭을 파서 농사지를 힘도 없고 얻어 먹기도 부끄럽구나. 4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관리인 자리를 잃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 주도록 미리 손을 써야겠다.’

5 그래서 관리인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관리인은 첫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6 그 사람이 ‘올리브기름 백 말 †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 백 말 글자 그대로는 ‘백 바투’. 3킬로리터쯤 되는 양.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 문서요. 얼른 알아서 오십 말로 줄여 적으시오.’

7 관리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대답하였다. ‘밀 백 말입니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 문서요. 팔십 말이라고 줄여서 적어 넣으시오.’

8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이 일을 영리하게 처리했다고 칭찬하였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일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속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하여 네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0 누구든지 아주 적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도 맡길 수 있다. 아주 적은 것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11 그러니 너희가 세속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재산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을 만큼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13 종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쪽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 卐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없다**

(마 11:12-13)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15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과썸하고 미운 것이다.

16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이 올 때까지 선포되었다. 그러나 요한이 온 뒤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힘써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 17 율법에서 가장 작은 획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혼과 재혼**

18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 卍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19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가장 좋은 옷 卐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런데 그 집 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다. 나사로는 온 몸이 헌데투성이였다. 21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하였다.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22 얼마 뒤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卐 곁에 두었다.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23 죽음의 세계 卐에서 고통

† 백 말 글자 그대로는 ‘백 코루’. 35킬로리터쯤 되는 양. †† 돈 그리스어로는 ‘맘몬’. ‘세상의 부’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다.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 좋은 옷 글자 그대로는 ‘자주색 옷과 고운 모시 옷’. ††† 아브라함 유대 사람의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 받는 조상. †††† 죽음의 세계 글자 그대로는 그

을 당하고 있던 부자가 올려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나사로가 있었다. 24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제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26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네게로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 그러시다면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제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제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하여, 그들은 이런 고통스런 곳으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이 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30 부자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었던 사람이 가서 말을 해 주면 제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죄짓게 하지 말고, 용서는 쉽게 하라**

(마 18:6-7, 21-22; 막 9:42)

**1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2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 卐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3 그러니 조심하여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 형제를 꾸짖어라. 그러나 그 형제가 회개하거나 용서해 주거나, 4 만일 그가 하루에 일곱 번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네게 돌아와서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라고 말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5 사도들이 주께 말하였다.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

6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卐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뿔나무에게 ‘뽕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착한 종들이 되어라**

7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종에게 ‘어서 상에 앉아 밥을 먹어라.’ 하고 말할까? 8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을 들어라. 너는 나중에 먹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9 그가 시킨 일을 했다고 하여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리스어 ‘하데스’로,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곳인 ‘스올’을 뜻하는 말. 자주 ‘죽음’의 은유어로 쓰인다. ††† 맷돌 곡식을 갈기 위해 사용하는 크고 둥근 돌. §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10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명령 받은 일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하여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다.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 시다가, 나병에 걸린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서서 13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왔다. 16 그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었다.) 17 예수께서 물으셨다. “병이 나은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더냐? 다른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 사람 하나밖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나?” 19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나?**

(마 24:23-28, 37-41)

20 한번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여쭙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앞세우고 오지 않는다. 21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22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23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그가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그가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쫓아 달려가지 말아라. 24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그는 온 하늘을 비추는 번개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25 그러나 그에 앞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26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도 노아가 살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27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말았다.

28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있었다. 29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30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31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챙기러 내려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 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32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여라. 33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 가서...보여라 모세의 법에는 제사장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유대 사람이 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었다. ††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롯의 아내 창 19:15-17, 26을 볼 것.

잃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자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5 또 두 여자가 맷돌로 곡식을 갈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36 †

37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언제나 주검이 있는 곳을 알려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18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2 “어느 고을에 재판관이 있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3 같은 고을에 홀어미가 한 사람 있었다. 그 홀어미는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 말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내 원수에게서 정당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4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였으나, 한참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하지 않는다. 5 그러나 이 여자가 나를 끊임없이 귀찮게 한다. 이 여자가 바라는 대로 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러면 더는 나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겠지.’”

6 주께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의 뜻을 잘 새겨 들어라! 7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당신께 울부짖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당한 권리를 서둘러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9 자기들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10 “바리새파사람과 세무원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11 바리새파 사람은 홀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고 속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나, 이 세무원과 같이 않습니다. 12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13 그러나 세무원은 멀찍이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바리새파 사람 보다는 오히려 이 세무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 36절 몇몇 그리스어 누가복음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36절이 있다. “두 사람이 같이 들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마 19:13-15; 막 10:13-16)

15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어떤 부자가 예수께 묻다

(마 19:16-30; 막 10:17-31)

18 어떤 유대 사람 지도자가 예수께 여쭙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19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20 그렇지만 네 물음에 대답은 하겠다. 너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sup>†</sup>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1 그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22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참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3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 그는 아주 부자였기 때문이다.

24 예수께서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25 참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26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2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28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 그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배로 얻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 20:17-19; 막 10:32-34)

31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32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이방 사람 <sup>‡</sup>들에게 넘겨

† 간음하지 마라...공경하라 출 20:12-16; 신 5:16-20.

질 것이다. 그들은 그를 놀리고 모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33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린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4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실은 그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그분이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

(마 20:29-34; 막 10:46-52)

35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길가에 눈먼 사람 하나가 구걸하며 앉아 있었다. 36 그 눈먼 사람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7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고 있소.” 라고 말해 주었다.

38 그러자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sup>‡</sup>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히 나무랐다. 그러나 그는 더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41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4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낮게 하였다.”

43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삭개오

19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2 예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무서장 <sup>‡</sup>이었고 부자였다. 3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볼 수 없었다. 4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5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서 위로 올라다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6 그러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를 모셔 들었다. 7 이 일을 본 모든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저런 죄인의 손으로 그 집에 들어가시다니!”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 세무서장 ‘세무원’ 을 찾아 볼 것.

###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써라

(마 25:14-30)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임금으로 임명을 받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준비를 하였다. 13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돈을 한 므나씩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여라.’ 라고 일렀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 사람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 뒤로 사절단을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5 그러나 그 귀족은 임금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고 간 종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 돈으로 얼마씩 벌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16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돈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17 ‘잘하였다! 너는 착한 종이다.’ 그의 주인이 말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열 고을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여라.’

18 둘째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돈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19 그의 주인이 말하였다. ‘너는 다섯 고을을 맡아 다스려라!’

20 그리고 다른 종이 들어왔다. 그 종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주신 돈 한 므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형겅으로 싸서 잘 숨겨 두었습니다. 21 저는 주인님이 엄하신 분이라 무서웠습니다. 주인님은 말하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십니다.’

22 그의 주인이 대답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내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고 있었다. 23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두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24 그리고 임금은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종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번 종에게 주어라.’

25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주인님, 그 종은 벌써 열 므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26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내 원수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 21:1-11; 막 11:1-11; 요 12:12-19)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올라가셨다. 29 올리브 산<sup>†</sup>이라 불리는 산턱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시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30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 계로 끌어오너라. 31 만일 누가 ‘무슨 일로 나귀를 풀니까?’ 하고 묻거든, ‘주님께 이 나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여라.”

† 한 므나 한 므나는 노동자 한 사람의 석달 치 품삯쯤 되었다. †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32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33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 주인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 이 나귀가 필요합니다.” 35 그들은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등에 깔고 예수를 그 위에 앉으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온 제자의 무리가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38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sup>‡</sup>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39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런 말을 하지 못하게 꾸짖으십시오!”

4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시자, 그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정말로 네가, 무엇이 네게 평화를 가져다줄지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지금 그 길이 네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43 네 원수들이 네 돌레에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조여 들어올 날이 닥칠 것이다. 44 네 원수들이 너와 네 성벽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내동댕이칠 것이다. 네 성벽 안에 있는 건물 가운데 단 하나의 돌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려 오셨을 때 네가 그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성전에 가신 예수

(마 21:12-17; 막 11:15-19; 요 2:13-22)

45 예수께서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셔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46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sup>‡</sup>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sup>‡</sup>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길을 찾고 있었다. 48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서 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묻다

(마 21:23-27; 막 11:27-33)

20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2 “말해 보시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4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권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 시 118:26. † 사 56:7. † 내 집은...만들었다 렘 7:11.

5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은 이 물음을 두고 서로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을 것이다. 6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다.” 7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시다**

(마 21:33-46; 막 12:1-12)

9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농부들에게 세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10 포도를 거둬들일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쫓아 버렸다. 11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한 다음, 또다시 빈손으로 쫓아 버렸다. 12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상처를 입혀 내쫓았다.

13 그러자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14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이 사람은 포도밭을 물려받을 주인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15 그래서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 죽여 버렸다.

그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나? 16 그는 농부들을 찾아와 그들을 죽이고, 그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다.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란 말이나?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

18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으스러지고 말 것이다!”

19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를 잡아 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15-22; 막 12:13-17)

20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를 지켜보다가 정탐꾼 몇 사람을 보냈다. 정탐꾼들은 정직한 사람인 체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로마 총독에게는 그들을 다스리고 처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21 정탐꾼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22 그러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 모퉁이의 머릿돌 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돌. † 시 118:22. ‡ 시저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

23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음흉한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24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 다오. 거기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것입니다.”

25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26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23-33; 막 12:18-27)

27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28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31 그리고 셋째도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죽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32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그런데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34 예수께서 사두개파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35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저 세상에 참여하게 할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36 그리고 다시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다. 37 그리고 모세도 불타는 덩불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이야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고 있다. 38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

39 율법 선생 몇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옳습니다.” 40 그러자 누구도 감히 예수께 다시 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마 22:41-46; 막 12:35-37)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42 시편에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 †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

44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 불타는 덩불 출 3:1-12을 볼 것.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 3:6. ††† 내가...때까지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 시 110:1.

### 율법 선생들에게 하신 경고

(마 23:1-36; 막 12:38-40; 요 11:37-54)

45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6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걸치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칫집에 가서도 귀한 손님 자리에 앉고 싶어한다. 47 그러나 그들은 흠어미들을 숙여서 그들의 집을 빼앗는다. 그리고는 남들 앞에서는 좋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 참된 헌금

(막 12:41-44)

21 예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을 성전 헌금궤<sup>†</sup>에 넣는 것을 눈여겨보셨다. 2 그리고 가난한 흠어미가 작은 동전 둘을 헌금궤에 넣는 것도 눈여겨보셨다. 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흠어미는 저 부자들 모두보다 더 많이 바쳤다. 4 부자들은 자기들의 넉넉한 재산 가운데서 얼마를 바쳤지만, 이 여자는 가난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 성전의 파괴

(마 24:1-14; 막 13:1-13)

5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장 좋은 돌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하나님께 바친 저 많은 훌륭한 선물들을 보아라!”

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파괴될 때가 올 것이다. 이 건물들의 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내려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7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아서 탄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고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9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곧 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10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11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늘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12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13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 때에 무슨 말로 너희 자신을 변호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15 내가 너희에게 적절한 말을 일러 주고 지혜를 주어서, 너희 원수들이 너희에게 맞설 수도 되물어 따질 수도 없게 하겠다. 16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까지도 너희를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더러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 헌금궤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선물을 넣는 궤.

당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 예루살렘의 파괴

(마 24:15-21; 막 13:14-19)

20 너희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라.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성을 빠져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22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실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때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다. 23 그런 때에 아기를 배었거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 땅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24 그들은 칼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못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외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외국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 예수 인자가 다시 올 때

(마 24:29-31; 막 13:24-27)

25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때문에 민족들이 어쩔 줄 몰라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26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절하고 말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 자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 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큰 힘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머리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 내 말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마 24:32-35; 막 13:28-31)

29 예수께서 이런 비유<sup>††</sup>를 들려주셨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30 그 나무들에서 잎이 돋으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

32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3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34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의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날이 덧과 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닥치지 않게 하여라. 35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36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37 예수께서는는 날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sup>‡</sup>이라고 하는 산에서 밤을 지내셨다. 38 날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올리브 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동산.

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었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다**  
(마 26:1-5, 14-16; 막 14:1-2, 10-11; 요 11:45-53)

**22** 유월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다가왔다. <sup>2</sup>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조용히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계획을 세우다**  
(마 26:14-16; 막 14:10-11)

<sup>3</sup> 예수의 열두 사도 가운데 가리옷 사람 유다가 있었는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sup>4</sup> 유다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sup>5</sup> 그들은 기뻐하며, 그가 예수를 넘겨주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sup>6</sup>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마땅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유월절 식사 준비**  
(마 26:17-25; 막 14:12-21; 요 13:21-30)

<sup>7</sup>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되었다.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날이다. <sup>8</sup>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sup>9</sup>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 여쭙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sup>10</sup>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sup>11</sup>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손님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sup>12</sup> 그러면 그 사람이 이층에 있는 넓은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그 방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터이니,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차려라.”

<sup>13</sup>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그곳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마지막 저녁 식사**  
(마 26:26-30; 막 14:22-26; 고전 11:23-25)

<sup>14</sup> 유월절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상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았다. <sup>15</sup>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sup>16</sup> 잘 들어라. 유월절이 상징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sup>17</sup>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서 돌려가며 마셔라. <sup>18</sup>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sup>19</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빵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sup>20</sup> 이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잡수신 뒤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새로운 계약

의 표시이다. 이 새로운 계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시작된다.” †

**누가 예수를 배반할 것인가?**

<sup>21</sup>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곧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이 상 위에 있다. <sup>22</sup>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sup>23</sup> 그러자 사도들은 “우리 가운데 선생님께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종처럼 되어서**

<sup>24</sup> 또한 사도들 가운데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를 두고 일어난 것이었다. <sup>25</sup>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힘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돕는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바란다. <sup>26</sup>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sup>27</sup> 상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나? 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시중드는 사람으로 와 있다.

<sup>28</sup> 너희는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sup>29</sup>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나도 너희에게 같은 권한을 준다. <sup>30</sup>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각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의 열두 가문을 다스릴 것이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마 26:31-35; 막 14:27-31; 요 13:36-38)

<sup>31</sup> 시몬 야, 시몬야, 들어라! 농부가 좋은 밭과 나쁜 밭을 가려내려고 키질하듯이,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키질하겠다고 요청하였다. <sup>32</sup>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네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 네 형제들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라.”

<sup>33</sup>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sup>34</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여라**

<sup>35</sup>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나는 너희를 사람들에게로 내보내면서, 돈주머니도 식량 자루도 그리고 신발도 없이 보냈다. 그렇다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sup>36</sup>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나 식량 자루가 있으면 그것을 챙겨라. 칼이 없으면 겹옷을 팔아서라도 한 자루 사도록 하여라. <sup>37</sup>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범죄자라고 말하였다.’ †

† 20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19절 뒷부분과 20절이 없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본래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 시몬 시몬의 다른 이름이 베드로다. † 사 53:12.

라는 성경 †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나를 두고 쓰인 것이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38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면 되었다.”

**사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다**

(마 26:36-46; 막 14:32-42)

39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올리브 산 †로 가셨다.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40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41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돌을 던지면 땅을 만만 거리쯤 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42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 †를 저에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3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힘을 북돋워 드렸다. 44 예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처럼 흘러 땅에 떨어졌다. †45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다. 제자들은 슬픔에 치져 잠들어 있었다. 4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유혹을 이겨 낼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잡히시다**

(마 26:47-56; 막 14:43-50; 요 18:3-11)

47 예수께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떼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앞장서고 있었다.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다.

48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49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저희가 칼로 저들을 칠까요?” 50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51 예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고 말리시며, 그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

52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 장교들과 장로 †들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너희는 내가 강도인 줄로 아느냐? 53 나는 날마다 너희와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이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다**

(마 26:57-68, 69-75; 막 14:53-54, 66-72; 요 18:12-18, 25-27)

54 무리는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55 군인들은 안마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았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56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 성경 구약성경. †† 올리브 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 † 잔 예수께서 당신이 겪게 될 괴로운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맛이 고약한 것으로 가득 찬 잔을 마시는 것처럼 힘든 일이 될 것이다. †† 43-44절 몇몇 초기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 장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57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58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오.”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59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60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수탉이 울었다. 61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62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경비병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마 26:67-68; 막 14:65)

63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64 그러고는 예수의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65 그들은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신 예수**

(마 26:59-66; 막 14:55-64; 요 18:19-24)

66 날이 밝아 백성의 장로들 곧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모였다. 예수는 그 의회 앞으로 끌려갔다. 67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여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오. 68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69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오.”

70 그들 모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이 옳소.”

71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는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심문하다**

(마 27:1-2, 11-14; 막 15:1-5; 요 18:28-38)

23 그리고 나서 온 의회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2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가 우리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시저 †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 왔습니다.”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그대로요.”

4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을 고발할 만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소.”

†† 시저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

5 그러나 그들은 “이 자는 온 유대를 누비며, 그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부추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우겨댔다.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다**

6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다. 7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 출신인 것을 알게 되자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8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 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 왔으므로,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9 헤롯은 예수께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그 자리에는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맹렬하게 예수를 고발하였다. 11 그리고 나서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놀렸다. 그들은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2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그날로 둘은 친구가 되었다.

**예수는 죽어야 한다**

(마 27:15-26; 막 15:6-15; 요 18:39-19:16)

13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았다. 14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내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서 그를 심문하였지만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15 헤롯도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16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조금 하고 풀어 주겠습니다.” 17 †

18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외쳐 댔다. “이 자를 없애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 주시오!” 19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다.)

20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고 싶어서, 예수를 풀어 주겠노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21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소리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 빌라도가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사형시켜야 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질이나 조금 하고서 풀어 주겠습니다.”

23 그러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우겨댔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 그리하여 빌라도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 곧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 27:32-44; 막 15:21-32; 요 19:17-27)

26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들어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오게 하였다.

†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로써,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영주였다. † 17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17절이 있다. “해마다 유월절 축제 때 빌라도는 죄수 한 사람씩을 풀어 주었다.”

27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28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어라. 29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다가온다. ‘아이를 뱌 수 없는 여자들과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에게 젖을 물려 본 적이 없는 여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30 그리고 사람들은 산과 언덕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 다오! 언덕아, 우리를 덮어 다오!’ 31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

32 두 사람의 죄수가 예수와 함께 처형당하려고 끌려가고 있었다. 33 군인들은 ‘해골산’ 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와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죄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죄수는 왼쪽에 매달았다.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군인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였으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택함을 받은 분’ 이라면 자기 자신도 구해 보시라지.”

36 군인들까지도 예수를 비웃고 놀리며, 예수께 가까이 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해 보아라!” 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이다’ 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39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 주시오!”

40 그런데 다른 죄수가 그 죄수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너는 저분과 꼭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처지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너와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없다.” 42 그리고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 †††에 있을 것이다!”

**예수 숨을 거두시다**

(마 27:45-56; 막 15:33-41; 요 19:28-30)

44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 §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46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 나이다.” ††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47 일어난 일들을 지켜본 한 백인대장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48 이 굉장한 일을 구경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49 그 자리에는 예수와 가깝

† 산아...덮어 다오 호 10:8. †† 생나무가...오죽하겠느냐 이 말은 속담으로, 여기서는 “죄 없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죄 많은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떠하겠느냐?” 라는 뜻인 듯하다. †† 아버지...모릅니다 초기 누가복음 사본들에는 이런 말이 없다. †††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글자 그대로의 뜻은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 낙원 선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 성전의 휘장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놓는 휘장. †† 아버지...맡기 나이다 시 31:5. ††† 백인대장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게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 아리마대의 요셉

(마 27:57-61; 막 15:42-47; 요 19:38-42)

50 요셉이라는 의롭고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회 의원이었으나, 51 다른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지방의 아리마대라는 고을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52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주검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53 요셉은 예수의 주검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시로 싼 뒤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 무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54 때는 준비일이었고, 해가 지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의 주검을 어떻게 모셔 놓았는가도 보았다. 56 그러고 나서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주검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자들은 안식일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쉬었다.

###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마 28:1-10; 막 16:1-8; 요 20:1-10)

**24** 안식일 다음 날 卍새벽 일찍,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주검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나 있었다. 3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주검이 없었다. 4 여자들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서 있었다. 5 여자들은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6 그분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7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8 이 말을 듣고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9 여자들은 무덤을 떠나 열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10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준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인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다. 11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 말이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주검을 싼 모시 천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

###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막 16:12-13)

13 그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 卍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15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 두 사람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런데도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 그분을 보고도 예수시라는 것

† 준비일 안식일 전 날인 금요일. ‘안식일’을 찾아볼 것. 卍 안식일 다음 날 글자 그대로는 ‘한 주간의 첫 날’, 곧 일요일. †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절이 없다. † 삼십 리 글자 그대로는 ‘60스타디아’. 약 11킬로미터쯤 되는 거리.

을 몰랐다. 17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 분이 걸으면서 무슨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입니까?”

두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크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20 그런데 높은 제사장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22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그들이 그분의 주검을 모셨던 무덤에 갔으나, 23 그분의 주검을 그곳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곳에서 두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25 그러자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한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다니, 그대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마음이 무디기도 합니다. 26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자신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 卍와 모든 예언서들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쓰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28 두 사람이 가려고 하던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 들르지 않고 지나쳐 가시려는 척하셨다. 29 두 사람은 예수께 함께 묵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우리와 함께 묵으시지요. 거의 저녁 때가 다 되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사람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예수께서는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다음 그 빵을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셨다. 31 그 순간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자 예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32 두 사람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 卍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두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34 두 사람을 보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5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마 28:16-20; 막 16:14-18; 요 20:19-23; 행 1:6-8)

36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卍 모세의 율법서 구약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다섯 책. 卍卍 성경 구약 성경.

<sup>37</sup> 제자들은 놀랐으며,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 <sup>38</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속으로 의심하느냐?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내게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sup>39</sup>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유령에게는 이런 몸이 없다.”

<sup>40</sup>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sup>41</sup>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그냥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sup>42</sup> 제자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sup>43</sup>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받아 잡수셨다.

<sup>44</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sup>45</sup>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 <sup>46</sup>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쓰여 있다. <sup>47</sup> 그리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sup>48</sup>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직접 본 증인들이다. <sup>49</sup>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내가 그 선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서 오는 그 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 하늘로 돌아가시다

(막 16:19-20; 행 1:9-11)

<sup>50</sup>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다. 그분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sup>51</sup>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sup>52</sup>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sup>53</sup> 그리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다.

# 요한복음

##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다

1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 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2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4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 5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

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이었다. 7 그는 사람들에게 빛에 관한 것을 알리려고 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빛에 관하여 듣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요한 스스로가 그 빛은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으로 오고 있었다.

10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 졌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남편의 결정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14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외아드님에게 따르는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분께는 은혜 ¶와 진리 ¶가 넘쳐났다. 15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분이십니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의 흘러넘치는 은혜에서 복을 넘치게 받았다. 17 하나님께서 율법 ¶를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18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외아드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 주셨다 §.

##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다

(마 3:1-12; 막 1:2-8; 눅 3:1-9, 15-17)

19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게 하였다. 20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 ¶입니까?”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예언자’ ¶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그 예언자’ 가 아닙니다.”

22 그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물음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

23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 ¶의 말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

24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몇이 있었다. 25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 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26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27 그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28 이 일은 요단 강 ¶ 건너편 벳다니 마을 ¶에서 있었던 일이다.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29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께서 오십니다. 30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분이십니다. 31 나 자신도 누가 그분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누가 그분인가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32 그런 다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33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

§ 레위 사람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말 4:5-6). § 그 예언자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자’ 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자를 뜻하는 듯하다(신 18:15-19). §¶ 이사야 기원전 742-701년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사 40:3.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벳다니 마을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마을. §¶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다는 뜻이다.

† 말씀 그리스어로 ‘로고스’ 라고 한다. ‘로고스’ 는 모든 종류의 의사 전달을 가리키며, ‘메시지’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씀’ 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알리는 방법인 그리스도를 뜻한다. ¶¶ 알지 못하였다 또는 ‘이기지 못하였다.’ † 요한 세례자 (집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막 3장, 눅 3장). ¶¶ 모든 사람을 비추는 또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는’. ¶ 은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 진리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 율법 또는 ‘법’.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 그런데...보여주셨다 문자 그대로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단 한 분, 곧 하나님이신, 외아들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또 다른 그리스어 사본은 다음과 같다. “외아들께서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sup>34</sup>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분에게서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sup>†</sup>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 예수를 맨 먼저 따른 사람들

<sup>35</sup>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와 있었다. <sup>36</sup>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sup>‡</sup>이시다!”

<sup>37</sup>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sup>38</sup> 예수께서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sup>39</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sup>40</sup>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sup>41</sup> 안드레는 공장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sup>42</sup>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sup>‡</sup>

<sup>43</sup>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sup>44</sup>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새다<sup>‡‡</sup>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 <sup>45</sup>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모세가 어떤 분에 관하여 율법 책에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마을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sup>46</sup>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꾸하였다.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대답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sup>47</sup>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sup>48</sup>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쭙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sup>49</sup>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sup>50</sup>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sup>‡‡‡</sup> <sup>51</sup> 그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sup>‡‡‡</sup>을 볼 것이다.”

†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주 초기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라고 되어있음. ††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다는 뜻. ‡ 게바, 베드로 아람어인 ‘게바’와 그리스어인 ‘베드로’는 둘 다 ‘바위’라는 뜻이다. †† 벳새다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 †††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창 28:12을 볼 것.

### 가나의 혼인 잔치

<sup>2</sup> 이들 뒤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sup>‡‡</sup>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sup>2</sup> 그리고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아 와 있었다. <sup>3</sup>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다.

<sup>4</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머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닙니다.”

<sup>5</sup> 예수의 어머니가 그 집 종들에게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sup>6</sup> 가까이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각기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sup>‡‡‡</sup>였다. 유대 사람에게는 이런 항아리에 채워 두었던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의식<sup>§</sup>이 있었다.

<sup>7</sup> 예수께서 종들에게 이르셨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종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sup>8</sup> 예수께서 종들에게 다시 이르셨다. “이제 조금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sup>9</sup> 잔치를 맡은 사람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물을 맛보았다. 물을 떠 간 종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랑을 불러냈다. <sup>10</sup> 그리고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대접하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요. 그런데 그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sup>11</sup> 예수께서 보여 주신 많은 표적 가운데,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sup>‡‡</sup>에서 보여 주셨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당신의 능력<sup>§§</sup>을 보여 주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였다.

<sup>12</sup>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sup>‡‡‡</sup>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 성전에 가신 예수

(마 21:12-13; 막 11:15-17; 눅 19:45-46)

<sup>13</sup>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sup>14</sup>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sup>15</sup> 예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던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고 그들의 상을 엮으셨다. <sup>16</sup>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썩 나가거라! 너희가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바닥으로 만들다니!”

<sup>17</sup> 제자들은 성경<sup>§§§</sup>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다.

“당신의 집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sup>§§§</sup>

<sup>18</sup>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셈입니까?”

‡‡ 가나라는 마을 갈릴리 지방 서쪽에 있는 마을. ‡‡‡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 75리터에서 115리터쯤 들어가는 항아리. § 깨끗이 씻는 의식 음식을 먹기 전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고 그 밖의 특별한 때에 몸을 씻는 유대 사람들의 종교 의식. §† 가나라는 마을 갈릴리 지방 서쪽에 있는 마을. §†† 능력 또는 ‘영광’. §‡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다. §‡‡ 성경 구약성경. §† 시 69:9.

1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20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소!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입니까?”

21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뜻하는 것이었다. 22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23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이 보여 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2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5 그분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누구의 증언도 들을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 스스로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 예수와 니고데모

3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 의원이었다. 2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 말씀드렸다. “랍비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선생님께서 보여 주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 니고데모가 물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육체의 생명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다. 7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8 바람 †은 불고 싶은 쪽으로 분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9 니고데모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11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내가 이 땅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밖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다. ‡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그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7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 †하시려

†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또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 바람 그리스어로 ‘바람’ 과 ‘영’ 은 같은 말이다. ‡ 모세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놋으로 만든 뱀을 막대기 끝에 달아 높이 세우게 하셨다. 이 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 수 있었다(민 21:4-9). ††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는 것이다. 18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원하였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받은 것이다. 20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짓이 빛에 환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21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

### 예수와 세례자 요한

22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나 계속하여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 23 그런데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 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24 (이 일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다.)

25 요한의 몇몇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깨끗이 씻는 의식 †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다. 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요단 강 †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27 요한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오직 하늘이 주시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28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앞서 보내신 사람일 따름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29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에 넘친다.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30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31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32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35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아드님에게 주셨다. 36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드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 위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것이다.” †

††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의 말씀으로 보나,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본다. ††† 깨끗이 씻는 의식 음식을 먹기 전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고 그 밖의 특별한 때에 몸을 씻는 유대 사람들의 종교 의식.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세례자 요한의 말로 보나,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본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다

4 예수께서 요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2(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3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 4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만 하였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까웠다. 6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그곳에 있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 ‡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 좀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8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벌써 마을로 들어가고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네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만일 네가 알았더라면 내게 청했을 것이고, 나는 네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11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 우물은 매우 깊고, 선생님께서는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 생명의 물을 얻으시겠습니까? 12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한 분이십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직접 이 우물의 물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들과 모든 가족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15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6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17 여자가 대답하였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18 사실 네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19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언자이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20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이 산으로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때가 오고 있다. 22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을 써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23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벌써 여기에 와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26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27 바로 그때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또는 “어찌하여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이제껏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0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와 예수를 보러 갔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무얼 좀 드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33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35 너희는 ‘넉 달 뒤 여름이 끝날 때에야 추수가 시작되겠지.’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둘 때가 되었다. 36 지금 이 순간에도 거두는 사람이 샅을 받고 있다. 그가 거두어들이는 곡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37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38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힘들여 키우지 않은 곡식을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했고, 너희는 그들이 힘들여 키워 놓은 것을 거두었다.”

39 그 사마리아 마을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네 동네에 머무시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를 동안 그 마을에 머무셨다. 41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2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소.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관리의 아들을 고치시다

(마 8:5-13; 눅 7:1-10)

43 이를 뒤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44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다.) 45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그곳

† 요한 세례자 요한을 가리킨다. †† 사마리아 유대 지방의 북쪽에 있는 지역. ‡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유대 사람은...않는다 또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쓴 그릇은 쓰지 않는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46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다. 가나는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sup>†</sup>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었다. 47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신 예수를 찾아왔다. 그는 예수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애원하였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4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49 왕의 신하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십시오.”

5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51 그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다. 종들은 그에게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52 그가 물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왔느냐?”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한 시쯤 아드님의 열이 내렸습시다.”

53 그러자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집 안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

54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 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베드자다 못에서 한 병자를 고치시다**

5 얼마 뒤에,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 예루살렘에는 아람 말<sup>††</sup>로 베드자다<sup>‡</sup>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 못은 ‘양’의 문<sup>†</sup>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못 둘레에는 다섯 개의 행각<sup>‡‡</sup>이 서 있었다. 3 여기에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 환자 같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sup>‡‡‡</sup>. 4<sup>‡‡‡‡</sup>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삼십팔 년 동안 다리를 못 쓰고 누워 있는 남자가 있었다. 5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병이 낫기를 바라느냐?”

7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네, 선생님.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도와서 못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8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9 곧바로 그의 병이 나았다. 그는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였다. 10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오.”

†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으며, 가나에서 29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다. ††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베드자다 또는 ‘벧세다’ ‘베데사’.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는 못. †† 양의 문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문. ‘베냐민 문’ 이라고도 하며, 제물로 쓸 짐승을 이 문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였다. ‡‡ 행각 건물의 본체에 따른, 지붕이 있는 기다란 집채, 또는 회랑. 여기의 행각은 못가에 지은 것이었다. ‡‡‡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뒤 따르고 있다. ‡‡‡‡ 4절 어떤 사본에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이따금 주의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다. 천사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맨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았다.” 라는 구절이 붙어 있다.

11 그가 대답하였다. “내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요?”

13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께서 그곳에 있던 무리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14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네게 생길지도 모른다.”

15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해 준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고 계셨으므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바로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18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려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따라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 일을 한다.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 주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22 더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23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존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24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섰다. 25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27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28 너희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듣고 29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정죄받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다**

30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 내 심판은 옳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31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32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나에게 대한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34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35 요한은 밝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그의 빛을 보고 한동안 기뻐하려 하였다.

36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무게 있는 증언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수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37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몸소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38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지도 않는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39 너희는 성경 #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40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42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44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45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희망을 걸어 온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46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47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다**  
(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6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 곧 디베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2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베푸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3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4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5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당신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6 (그분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오직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이미 당신께서 하실 일을 마음속으로 정해 놓고 계셨다.)

7 빌립이 대답하였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빵을 먹이려면, 한 사람이 여덟 달을 일해서 번 돈 ††로 빵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8 그 자리에는 제자 안드레도 있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다. 안드레가 말하였다. 9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해도 오천 명쯤 되었다. 11 예

수께서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12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13 그래서 보리빵 다섯 개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14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 ††가 틀림없다.”

1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마 14:22-27; 막 6:45-52)

16 그날 저녁에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 17 날은 어두워졌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 †† 쪽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18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고 호수의 물결이 사나워졌다. 19 제자들이 십여 리쯤 †† 배를 저어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20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1 그러자 그들은 반가이 예수를 맞아 배에 오르시게 하였다. 그리고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호수 기슭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다**

22 이튿날이 되었다. 호수 저편에서는 무리가 예수를 보려고 호숫가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 전 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배가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3 그때에 디베라에서 배 몇 척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전 날 주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 가까이에 닿을 내렸다. 24 무리는 예수도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는, 디베라에서 온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25 그들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그 양식을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28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30 그들이 다시 여쭙었다. “그렇다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렵니까? 선생님께서

†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 성경 구약성경. †††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의 동쪽에 있는 호수. ††† 한 사람이 여덟 달을 일해서 번 돈 글자 그대로는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볼 것.

††† 그 예언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신 18:15-19). ††††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다. †††† 십여 리쯤 그리스어로는 ‘25에서 30스타디아쯤’. 7킬로미터쯤 되는 거리.



는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만나 卍를 먹었습니다. 성경 卍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 주어 그들이 먹게 하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3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33 무엇이 하나님의 빵이나?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가 하나님의 빵이다.”

34 그들이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이 빵을 주십시오.”

35 그러자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38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이다.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41 유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42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43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아라. 44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45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다.’ 卍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께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 46 이 말은 어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卍를 먹었으나 죽었다. 50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에 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내 살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

52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 양식이며, 내 피는 참 물이기 때문이다. 56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는 그 사람 안에 머문다. 57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9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 많은 제자가 예수를 떠나다

60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참 어려운 가르침이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61 예수께서는 자기의 가르침을 두고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2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63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 卍이다. 육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성령과 생명을 준다.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 65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6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많은 제자가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들은 그 뒤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67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물으셨다. “설마 너희도 떠나려는 것은 아니겠지?”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9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7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둘을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악마다.” 71 (이것은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었다.)

### 예수와 예수의 형제들

7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는 가시려 하지 않으셨다. 2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 卍이 가까워졌다. 3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형님의 기적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여 주십시오. 4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5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여기 와 있다. 7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8 그러니 명절에는 너희나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9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으셨다.

10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11 명절 동안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었다.

卍 卍 하나님의 영 또는 ‘영’ ‘성령’. 卍 卍 초막절 히브리어로는 ‘숙곳’. ‘수장절’ 이라고도 한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내 광야에서 지낸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천막이나 임시로 세운 숙소에서 지냈다.

†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양식. † 성경 구약성경. †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다 시 78:24. † 하나님께서... 것이다 사 54:13. †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양식.

12 그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 예수를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13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두고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다

14 예수께서는 명절이 반쯤 지나서야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15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17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것이다. 18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sup>†</sup>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악령이 들었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기적을 보였더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에 관한 법을 주었다고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다. (그러나 실제로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시작한 것이다.) 23 모세가 준 할례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아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고쳐 주었다고 하여 내게 화를 내느냐? 24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바른 판단을 내려라.”

###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궁금히 여기다

25 그러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26 그가 이렇게 드러내 놓고 말하는데도, 저들은 그에게 말 한 마디 못 하고 있다. 지도자들조차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27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28 예수께서는 아직도 성전뜰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29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30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31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 주시겠는가?”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다

32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3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겠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겠다.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35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간다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겠다는 말인가? 그곳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36 이 사람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다

37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이었다. 이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셔라. 38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sup>††</sup> 말씀대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39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40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sup>‡</sup>이다.” 라고 말하였다.

41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42 성경도 그리스도가 다윗<sup>‡‡</sup>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43 이렇게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다. 44 몇몇 사람이 예수를 잡고 싶어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 유대 지도자들이 믿기를 거부하다

45 마침내 성전 경비병들은 높은 제사장<sup>‡‡‡</sup>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46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47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나? 48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49 그러나 이 어리석은 무리는 율법<sup>‡‡‡</sup>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 니고데모<sup>‡‡‡</sup>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51 “우리 법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

† 율법 또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 성경 구약성경. ‡ 그 예언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자를 뜻하는 듯하다(신 18:15-19).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 ‡‡‡ 율법 또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 니고데모 3:1-21을 볼 것.

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sup>52</sup>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소?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 †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

### 간음 현장에서 잡혀 온 여자

<sup>53</sup>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8**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 †으로 가셨다. <sup>2</sup>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 뜰에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 둘레에 모여들자, 예수께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sup>3</sup> 그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 †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그 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 여자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세웠다. <sup>4</sup>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sup>5</sup> 모세의 법에서는 그런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sup>6</sup> 그들이 이렇게 묻은 것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sup>7</sup>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sup>8</sup> 그분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

<sup>9</sup>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씩 돌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떠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와, 예수 앞에서 서 있는 그 여자만 남았다. <sup>10</sup>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인이여,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느냐?”

<sup>11</sup>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라. 그리고 앞으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sup>12</sup>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sup>13</sup>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sup>14</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sup>15</sup>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너희처럼 심판하지 않는다. <sup>16</sup> 그러나 만약 내가 심판하더라도 그 판결은 바르다. 그것은 나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sup>17</sup> 너희의 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같으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sup>18</sup>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내게도 두 증인이 있다.”

<sup>19</sup>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sup>20</sup> 이것

† 예언자 두 개의 초기 사본에는 ‘그 예언자’ 로 되어 있다. †† 요한복음의 그리스어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으뜸가는 사본들에는 7:53-8:11이 빠져 있다. †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 † 가까이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다

<sup>21</sup> 예수께서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sup>22</sup>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sup>23</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sup>24</sup>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로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sup>25</sup>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그이다. <sup>26</sup>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잘못되었다고 심판할 것도 많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sup>27</sup>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sup>28</sup>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 뒤야,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sup>29</sup>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sup>30</sup>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말씀하시다

<sup>31</sup>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계속 따르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들이다. <sup>32</sup>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sup>33</sup>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sup>34</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sup>35</sup> 종에게는 그가 있는 집안에서 영원히 차지할 자리가 없지만, 아들은 영원한 자리를 차지한다. <sup>36</sup>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sup>37</sup>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sup>38</sup>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sup>39</sup>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 헌금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물건을 넣으려고 예배 장소에 두었던 특별한 궤. ††† 나는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말이다. 사 41:4, 43:10, 출 3:14 를 보라. 그러나 ‘내가 메시아다’ 를 의미하는 ‘내가 그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28절과 58절에서 처럼. ††† 들어 올리다 십자가에 매달아 못박아 죽인다는 뜻이다. 또한 ‘죽음’ 에서 ‘하늘’ 로 들려 올라간다는 뜻을 암시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sup>40</sup>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sup>41</sup>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항의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sup>42</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sup>43</sup>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sup>44</sup>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곧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악마인 너희의 아버지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편에서 지 않았다.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의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sup>45</sup>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sup>46</sup> 너희 가운데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sup>47</sup>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예수 자신과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하시다

<sup>48</sup>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맞습니까?”

<sup>49</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sup>50</sup>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sup>51</sup>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sup>52</sup>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소. <sup>53</sup>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요? 아브라함은 죽었소.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sup>54</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sup>55</sup>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녕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sup>56</sup>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날을 보리라 생각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또 기뻐하였다.”

<sup>57</sup>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sup>58</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sup>59</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

자, 그들은 돌을 집어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

**9**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sup>2</sup>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sup>3</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다. <sup>4</sup>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제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sup>5</sup>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sup>6</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침으로 흙을 개어 그것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sup>7</sup>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sup>†</sup>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sup>8</sup> 그의 이웃들과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sup>9</sup>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생긴 모습이 닮았을 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눈멀었던 그 남자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10</sup>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sup>11</sup>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sup>12</sup>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고쳐 주신 사람에게 묻다

<sup>13</sup>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갔다. <sup>14</sup>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였다. <sup>15</sup>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sup>16</sup>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은 이렇게 서로 나뉘었다.

<sup>17</sup>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묻는 말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sup>18</sup>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본래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오게 하였다. <sup>19</sup> 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이 사람이, 당신들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그가 지금은 보게 되었소?”

† 나는 있다 여기서 ‘나는 있다’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과 같으나, 또한 ‘나는 그(그리스도)이다.’라는 뜻도 될 수 있다.

†† 실로암 못 예루살렘 성이 있던 큰 산등성이의 남쪽 끝에 바위를 파서 만든 못. 히스기야왕이 판 주요 수로의 일부.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뿐입니다. 21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여 앞을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도 다 큰 어른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대답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도 다 큰 어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다.

24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5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26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고쳐 주었느냐?”

27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다시 내 대답을 들으려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네가 이 사람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지도 모른다.”

30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31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2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어느 누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4 이 말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네가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들은 그를 내쫓았다.

### 영적으로 눈먼 것

35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를 찾아 만나자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36 그가 “누가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선생님? 누가 그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사람의 아들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이다.”

38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까?”

4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차라리 너희의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 목자와 그의 양들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2 문으로 버젓이 들어가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이다. 3 문지기는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4 그는 자기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다음, 양들을 앞서 간다. 그러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5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도 망칠 것이다.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6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으나,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 예수는 선한 목자시다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양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그는 들어오고 나가며 넉넉한 꼴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오로지 훔치고 죽이고 부수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그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 12 그러나 삿꾼은 다르다.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늑대가 양 떼를 덮쳐서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13 그가 도망치는 것은, 삿꾼이어서 양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15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16 내게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양 떼도 하나, 목자도 하나만 있을 것이다.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 목숨을 되찾을 것이다. 18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되찾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19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나뉘었다. 20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그는 귀신 † 들러 아주 미쳐 버렸다. 무엇 하러 그의 말을 들겠는가?”

21 그러나 다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는가?”

###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

22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 † 을 거닐고

†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성전 봉헌절 히브리어로 ‘하누카’. 유대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는 12월의 한 주간.

계셨다. <sup>24</sup>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둘레에 모여들어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sup>25</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 준다. <sup>26</sup>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sup>27</sup> 내 양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sup>28</sup>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sup>29</sup>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다.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sup>30</sup>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sup>31</sup> 유대 사람들은 이번에도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sup>32</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큰 기적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기적들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sup>33</sup>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보여 준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오. 당신은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소!”

<sup>34</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서에도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 <sup>35</sup>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이다. <sup>36</sup> 아버지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sup>37</sup> 만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sup>38</sup>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sup>39</sup>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sup>40</sup> 그 뒤에 예수께서는 요단 강 <sup>‡</sup>을 건너서, 요한 <sup>‡‡</sup>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sup>41</sup>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은 표적을 단 한 번도 보여 주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sup>42</sup>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의 죽음**

**11**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베다니 마을 <sup>‡</sup>사람이었는데,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sup>2</sup> (이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린 여자이다.) 병으로 누워 있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sup>3</sup>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sup>4</sup>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 솔로몬 행각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물로, 성전 뜰의 동쪽에 있었다. † 내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직역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다.’ 로써, 초기의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는 다르게 표현된 사본들이 많이 있다. †† 너희는... 말하였다 시 82:5. ‡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요한 세례자(침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마 3장, 눅 3장). ††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을.

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sup>5</sup>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sup>6</sup>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셨다. <sup>7</sup>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sup>8</sup>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시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sup>9</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는 열두 시간 동안 해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나다니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빛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up>10</sup> 그러나 밤에 걸어나다니면, 그에게 빛이 없으므로 넘어질 것이다.”

<sup>11</sup>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sup>12</sup>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병도 낫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sup>13</sup>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다. <sup>14</sup>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sup>15</sup> 나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에게 가자.”

<sup>16</sup> 그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 베다니에 가시다**

<sup>17</sup>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sup>18</sup>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 리 <sup>‡‡‡</sup>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었다. <sup>19</sup> 나사로의 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sup>20</sup>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sup>21</sup>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sup>22</sup>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up>23</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 일어날 것이다.”

<sup>24</sup>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활 <sup>‡‡‡</sup>할 때에, 제 오빠도 다시 살아 일어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sup>25</sup>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sup>26</sup>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sup>27</sup>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다**

<sup>28</sup> 마르다는 이렇게 말한 뒤에,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여기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sup>29</sup>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재빨리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sup>30</sup>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마르다가 당신을 맞았던 곳에 계셨다. <sup>31</sup> 마리아를 위로하며 같이 집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가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리아가 울려고 나사로의 무덤 <sup>§</sup>으로 가는 줄 알고, 그 여자를 뒤따라갔다. <sup>32</sup>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는, 그분의 발

‡‡‡ 오 리 그리스어로는 ‘15스타디아’. 3킬로미터쯤 되는 거리. †††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 무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앞에 엮드려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sup>33</sup>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sup>34</sup>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sup>35</sup> 예수께서 우셨다.

<sup>36</sup>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시오!”

<sup>37</sup>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줄 수는 없었겠는가?”

<sup>38</sup>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마음이 되셨다.

###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그것은 동굴인데, 큰 돌이 무덤 어귀를 막고 있었다. <sup>39</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기라.”

죽은 사람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오빠가 거기 있는 지 나흘이 지났으니, 지금쯤은 냄새가 지독할 것입니다.”

<sup>40</sup>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sup>41</sup> 그래서 그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up>42</sup>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43</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 <sup>44</sup>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의 손과 발은 좁고 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도 천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다

(마 26:1-5; 막 14:1-2; 눅 22:1-2)

<sup>45</sup>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sup>46</sup>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였다. <sup>47</sup> 그러자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의회를 불러모으고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 주고 있소. <sup>48</sup> 그가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성전과 백성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말 것이요.”

<sup>49</sup>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 <sup>1</sup>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sup>50</sup>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sup>51</sup> 이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예수께서 온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sup>52</sup> 그리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sup>†</sup>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sup>53</sup>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sup>54</sup>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는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 <sup>†</sup>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 <sup>‡</sup>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sup>55</sup>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월절에 앞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려는 것이었다. <sup>56</sup>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서 서로에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소?” <sup>57</sup>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자기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 두고 있었다.

### 베다니에서 친구들과 같이 계신 예수

(마 26:6-13; 막 14:3-9)

**12** 유월절이 되기 몇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sup>‡</sup>에 이르셨다.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sup>2</sup> 거기에서 예수를 위한 저녁 잔치가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들 틈에 끼여 있었다. <sup>3</sup> 마리아가 순수한 나드 <sup>‡‡</sup>로 만든 값비싼 향유 한 근 <sup>‡‡‡</sup>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sup>4</sup> 가리옷 사람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였다. <sup>5</sup> “그 향유는 한 사람의 일 년 치 품삷 <sup>‡‡‡</sup>으로나 살 수 있는 값비싼 것이요. 어찌하여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sup>6</sup>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주 그 안에 든 돈을 몰래 꺼내갔다.

<sup>7</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리아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 날에 쓰려고 간직해 오던 것을 썼다. <sup>8</sup>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 나사로를 해치려는 음모

<sup>9</sup>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을 듣고, 떼를 지어 그곳으로 몰려갔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라도 보고 싶어하였다. <sup>10</sup>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은 나사라도 함께 죽일 계획을 세웠다. <sup>11</sup>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께 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sup>††</sup>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sup>‡</sup> 에브라임이라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마을. <sup>‡‡</sup> 베다니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마을. <sup>‡‡‡</sup> 나드 나드라는 식물에서 만들어진 값비싼 기름은 주로 인도에서 수입되었다. <sup>‡‡‡‡</sup> 한 근 그리스어로는 ‘리트라’. 0.5리터쯤 되는 양. <sup>‡‡‡‡‡</sup> 한 사람의 일 년 치 품삷 글자 그대로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불렀.

##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 21:1-11; 막 11:1-11; 눅 19:28-40)

12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13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14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다. 그것은 이르게 기록된 성경 †의 말씀과 같았다.

15 “시온 성 ††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님이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

16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자들도 이 일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에야, 이 말씀이 그분을 두고 쓰인 것이며, 또 성경에 쓰인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께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17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여 널리 알렸다. 18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19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이제는 다 틀렸소.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소!”

## 삶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다

20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21 그들이 빌립을 찾아갔다. 빌립은 갈릴리의 벳새다 †† 사람이었다. 그들은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하였다.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시간이 되었다. 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보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높여 주실 것이다.”

##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다

27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에 온 것은 바로 이 고난을 겪으려는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다시 또 드러낼 것이다.”

†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히브리어로는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호산나’. 여기서 하나님 또는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 복되시다...분이시여 시 118:25-26. † 성경 구약성경. †† 시온 성글자 그대로는 ‘딸 시온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 속 9:9. ††† 벳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

29 그곳에 있던 무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고 하였다.

30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31 지금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곧 사탄 †††이 쫓겨날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질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귀뜸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34 무리가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3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 곧 빛 §이 있는 동안에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나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무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셨다.

##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

37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 §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주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보았습니까?” §§†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41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43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44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6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7 나는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 §§§하

††† 사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악마의 우두머리. § 빛 1:5-9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는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 이사야 기원전 8세기 말에 유대



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48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내게 다 일러 주셨다.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다

**13** 유월절 바로 전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늘 사랑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쏟으셨다.

2 악마가 이미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꾀어서, 예수를 배반하기로 마음먹게 한 뒤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숫고 계셨다. 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4 그래서 상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5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였다.

6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 발을 씻겨 주시렵니까?”

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8 베드로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께 제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신 다음,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11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2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 옷을 입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이라고도 부르고 ‘주님’ 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정말로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14 너희의 주이고 선생인 내가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본을 보이려는 것이다. 16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7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18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 ‡ 라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19 내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말해 둔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꾀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20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

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누가 예수를 배반할지 말씀하시다

(마 26:20-25; 막 14:17-21; 눅 22:21-23)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셔서 제자들 앞에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22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23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곁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으로,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여쭙어 보라고 하였다.

25 그 제자는 예수께 더욱 바싹 기대며 여쭙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빵 조각을 적시어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에게 주셨다. 27 유다가 빵을 받아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서둘러 하여라!” 28 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유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29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절에 쓸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얼 좀 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30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다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32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33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둔다.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다

(마 26:31-35; 막 14:27-31; 눅 22:31-34)

36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뒤에는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37 베드로가 여쭙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사 53:1. ‡ 사 6:10. §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 발만 씻으면 된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길은 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의 발이 쉬이 더러워지곤 하였다. †† 나를 배반하였다 글자 그대로는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시 41:9). ‡ 내가 그이다 또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는 하나님의 이름(출 3:14). ‘내가 그이다’ 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뜻도 된다. ††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어떤 고대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제자들을 위로하시다

**14**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sup>2</sup>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려고 간다. <sup>3</sup>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sup>4</sup>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sup>5</sup>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께서 가시는 곳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sup>6</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sup>7</sup>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 너희는 그분을 이미 뵈었다.”

<sup>8</sup>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sup>9</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느냐? <sup>10</sup>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sup>11</sup>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sup>12</sup>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해 온 일을 할 것이다. 그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sup>13</sup>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sup>14</sup>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 성령에 관한 약속

<sup>15</sup>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sup>16</sup>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 †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sup>17</sup> 그분은 진리를 알려 주는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며,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sup>18</sup>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sup>19</sup>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 또한 살 것이다. <sup>20</sup>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sup>21</sup> 누구든지 내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 내 이름으로 또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 또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이시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sup>22</sup> 그때에 가리옷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주님을 나타내려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sup>23</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sup>24</sup>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sup>25</sup>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sup>26</sup>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대신으로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실 것이다.

<sup>27</sup>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sup>28</sup> 너희는 ‘내가 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라는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sup>29</sup>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sup>30</sup> 내가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오고 있다. 그에게는 나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 <sup>31</sup>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

**15**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다. <sup>2</sup>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들을 모두 잘라 버리신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들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sup>4</sup>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sup>5</sup>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sup>6</sup>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버려진 가지와 같아서 말라 버리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sup>7</sup>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sup>8</sup>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sup>9</sup>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sup>10</sup>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 †를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sup>11</sup>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

‡ 가지 예수의 제자들(5절). †† 가지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하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도 된다. †††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을 너희와 같이 나누어서 너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sup>12</sup>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sup>13</sup> 사람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sup>14</sup>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sup>15</sup>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sup>16</sup>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sup>17</sup>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 제자들에게 앞일을 미리 알려 주시다

<sup>18</sup>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sup>19</sup>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려 뽑아 낸 사람들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sup>20</sup> 내가 ‘종이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고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sup>21</sup>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sup>22</sup>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댈 수 없다. <sup>23</sup>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sup>24</sup> 나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들을 하였다.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sup>25</sup>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쓰여 있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sup>26</sup>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 †이다. 그분은 오셔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sup>27</sup>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해야 한다.

**16**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sup>2</sup>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오고 있다. <sup>3</sup>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sup>4</sup>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미리 알려둔다. 때가 되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 성령이 하시는 일

내가 이 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sup>5</sup>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지 않는다. <sup>6</sup>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온통 슬픔에 젖어 있다. <sup>7</sup>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 내 이름으로 또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 그들이...미워하였다 시 35:19 또는 69:4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 진리의 영 또는 ‘성령’. 성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신다.

않으면,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sup>8</sup> 그분은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나는 의롭다는 것과,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실 것이다. <sup>9</sup> 그분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sup>10</sup>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써, 너희가 더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실 것이다. <sup>11</sup> 또 세상을 다스리는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세상도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실 것이다.

<sup>12</sup>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없다. <sup>13</sup>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이끌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주실 것이다. <sup>14</sup> 그분은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sup>15</sup> 아버지께 속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sup>16</sup>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sup>17</sup> 몇몇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무슨 뜻일까?” <sup>18</sup> 그들은 또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sup>19</sup>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것에 관해 당신께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서로에게 묻고 있느냐? <sup>20</sup>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픔에 잠기겠지만,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sup>21</sup>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걱정이 많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은 잊어버린다. <sup>22</sup>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너희가 걱정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sup>23</sup> 그날이 되면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다. <sup>24</sup>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적이 없다. 구하여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 세상을 이기는 승리

<sup>25</sup>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 †를 써서 너희에게 말해 왔다. 그러나 더는 비유를 써서 말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버지께 관하여 말할 때가 오고 있다. <sup>26</sup> 그날이 오면 너희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sup>27</sup>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sup>28</sup> 나는 아

†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다.”

<sup>29</sup> 그때에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은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써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sup>30</sup>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누구도 선생님께 여쭙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여쭙어 보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sup>31</sup>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믿느냐? <sup>32</sup>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갈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벌써 왔다. 너희는 나 혼자만 버려 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sup>33</sup>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라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sup>2</sup>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sup>3</sup>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sup>4</sup>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침으로써,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sup>5</sup>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영광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리게 해 주십시오.

<sup>6</sup>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제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제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지켰습니다. <sup>7</sup>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up>8</sup>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sup>9</sup> 저는 이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sup>10</sup> 제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sup>11</sup> 이제 저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으로, 곧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sup>12</sup> 제가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빼놓으면, 이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었고, 그를 잃은 것은 성경 †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성경 구약 성경.

<sup>13</sup> 저는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치는 제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4</sup>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up>15</sup> 제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지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sup>16</sup>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sup>17</sup> 진리로 이들을 구별하여, 이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sup>18</sup>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sup>19</sup> 이들을 위하여 저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제 자신을 바칩니다. 그것은 이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신들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20</sup> 제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sup>21</sup> 제 기도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sup>22</sup>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23</sup> 제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24</sup>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과 저와 같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sup>25</sup>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sup>26</sup>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 주었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하고, 저 또한 이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예수께서 붙잡히시다

(마 26:47-56; 막 14:43-50; 눅 22:47-53)

**18**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골짜기 †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올리브 과수원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셨다.

<sup>2</sup>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sup>3</sup> 유다는 로마 군인 한 명과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횃불과 등불을 들고 있었다.

<sup>4</sup>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sup>5</sup>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다.) <sup>6</sup>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 기도한 골짜기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

7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는 나?”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9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10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11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 “네 칼을 치워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sup>†</sup>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시다

(마 26:57-58; 막 14:53-54; 눅 22:54)

12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어서 13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14 가야바는 유대 사람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다.

####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다

(마 26:69-70; 막 14:66-68; 눅 22:55-57)

15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16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여종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17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18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은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고, 불가에 둘러 서 있었다. 베드로도 이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다

(마 26:59-66; 마 14:55-64; 눅 22:66-71)

19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와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 2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어떤 것도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21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틀림없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까이 있던 경비병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뺨을 쳤다. 그는 “대제사장님께 그제 무슨 대답이냐?” 라고 말하였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틀린 말을 하였으면, 무엇이 틀렸는지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내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24 그 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 베드로가 다시 거짓말하다

(마 26:71-75; 막 14:69-72; 눅 22:58-62)

25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아니오.” 라고 그들의 말을 부인하였다.

26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차른 사람의 친척이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이 올리브 과수원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소.”

27 베드로가 다시 그의 말을 부인하자,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

####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다

(마 27:1-2, 11-31; 막 15:1-20; 눅 23:1-25)

28 그 뒤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sup>††</sup>로 끌고 갔다. 이미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부정을 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29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30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31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우리에게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32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귀땀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났다.

33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물음은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일러 준 말이오?”

35 빌라도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요. 당신을 내게 넘겨준 것은 당신의 동족이고, 당신네 높은 제사장들이요.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오?”

3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왕권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내 왕권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요. 그러나 내 왕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37 빌라도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로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는 당신의 말은 옳은 말이요. 사실 나는 왕이 되려고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소.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써 다스리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오.”

38 빌라도가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근거를 찾을 수 없소. 39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례가 있소. 당신들은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을 풀어 주기를 원하시오?”

†† 총독의 관저 그리스어로는 ‘프라이토리온’.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로마의 기관이 이곳에 있었다. † 부정을 타지 않고... 먹으려고 유대 사람이 외국인의 장소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서 이미 행한 몸과 마음을 씻는 특별한 의식이 소용없게 될 것이었다. 부정을 탄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요 11:55).

† 잔 고난의 상징.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쓴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40 그들이 소리쳐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바라바는 도적의 무리에 속한 자였다.

19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다. 2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3 거둑거둑 그분께 다가가 “유대 사람들의 왕, 만세!”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때렸다.

4 다시 한 번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를 당신들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그를 고소할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려는 것이오.” 5 예수께서 가시나무 왕관을 쓰고 자색 겹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그 사람이 있소!”

6 높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경비병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데려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하였소.”

7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8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더욱 두려워졌다. 9 그는 관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10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할 작정이요? 내게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요?”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오. 그러나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오.”

12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누구든지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저 ††에게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시저에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로토스 ††라는 곳에 있는 재판관 자리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아람 말 ††로 가바다인데, ‘돌을 깔아 놓은 곳’이라는 뜻이다.) 14 이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소!”

15 그러나 그들은 “그 자를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다.

빌라도가 물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높은 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왕은 시저 한 분뿐이십니다!”

16 마침내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 27:32-44; 막 15:21-32; 눅 23:26-43)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 17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아람 말 ††로는 이곳을 골고 다라고 한다.) 18 이곳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19 빌라도가 팻말을 준비하여 십자가 위에 붙였다. 거기에는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20 많은 유대 사람이 그 팻말을 읽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웠고, 팻말이 아람 말과 라틴 말 ††과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21 유대 사람의 높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이 자는 스스로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하였다.’ 라고 쓰십시오.”

22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솔기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찢은 것이었다. 24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가질 사람을 정하자.” 이것은

“그들이 내 겹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다.

25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예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거기에 서 있었다. 26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27 그리고 제자에게는 “여기 이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마 27:45-56; 막 15:33-41; 눅 23:44-49)

28 그 뒤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29 마침 그곳에 신 포도주가 가득 든 항아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갓솜 ††에 그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히습 풀 †† 대에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다.

31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인 안식일에 주검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다. 그 안식일은 특별히 엄숙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한 다음, 그들의 주검을 치우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32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33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앞에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34 그 대신 군인 하나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35 (이 일을 본 사

†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글자 그대로는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 시저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 † 시저에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시저의 친구가 아닙니다.’ †† 리토스트로토스 돌을 박아 포장한 광장이나 길. ††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라틴 말 고대 로마에서 쓰던 말. § 시 22:18.  
§ 성경 구약성경. †† 목마르다 시 22:15; 69:21. § 갓솜 ‘해면’ 또는 ‘스폰지’. †† 히습 풀 또는 ‘우슬초’.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피나 물을 뿌릴 때 쓰는 잔가지와 이파리가 많이 붙은 식물.

람이 증언한다. 그것은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sup>36</sup>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sup>37</sup>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sup>†</sup>라는 말씀도 있다.

### 예수께서 묻히시다

(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6)

<sup>38</sup>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주검을 거두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나 그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겨 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요셉이 가서 예수의 주검을 십자가에서 내렸다.<sup>39</sup> 니고데모가 요셉과 함께 갔는데, 그는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간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백 근쯤 † 가져왔다.<sup>40</sup>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주검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sup>41</sup>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과수원이 하나 있었다. 이 과수원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sup>42</sup> 그날은 유대 사람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예수의 주검을 그곳에 모셨다.

### 제자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다

(마 28:1-10; 막 16:1-8; 눅 24:1-12)

**20** 안식일 다음 날 †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의 주검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마리아는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sup>2</sup>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sup>3</sup>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sup>4</sup>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닿았다.<sup>5</sup> 그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운 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sup>6</sup>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도 고운 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sup>7</sup> 그는 예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다. 그 천은 고운 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개켜 있었다.<sup>8</sup> 그제야 먼저 그곳에 닿은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sup>9</sup>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한 성경 †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막 16:9-11)

<sup>10</sup>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sup>11</sup>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sup>12</sup>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주검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예수의 발이 놓였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sup>13</sup>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sup>14</sup>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

고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sup>15</sup>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으면, 그분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가겠습니다.”

<sup>16</sup>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 쪽으로 몸을 돌려, 아람 말 †로 “라보니.” 하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sup>17</sup>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 대신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 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돌아간다.’”

<sup>18</sup>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리이러한 말씀을 하셨노라고 말하였다.

###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마 28:16-20; 막 16:14-18; 눅 24:36-49)

<sup>19</sup>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 † 이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sup>20</sup>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sup>21</sup>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sup>22</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sup>23</sup>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도마에게 나타나시다

<sup>24</sup>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쌍둥이’ § 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sup>25</sup>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하였다. “나는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sup>26</sup> 한 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같은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sup>27</sup>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sup>28</sup>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sup>29</sup>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 그의... 것이다 출 12:46; 민 9:12; 시 34:20. †† 속 12:10. † 백 근쯤 그리스어로는 ‘10리트라이’. 34킬로그램 되는 무게. †† 안식일 다음 날 글자 그대로는 ‘주간의 첫 날’, 곧 일요일. †† 성경 구약성경.

†††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안식일 다음 날 글자 그대로는 ‘주간의 첫 날’, 곧 일요일. § 쌍둥이 그리스어로는 ‘디두모’.

## 요한이 이 책을 쓴 까닭

30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 주셨다. 31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을 통하여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 예수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21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 옆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2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 사람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 3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려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네.” 라고 말하고, 나가서 곧 배에 났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4 이튿날 날이 밝아 올 즈음에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배로 끌어올릴 수 없었다.

7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일을 하려고 벗었던 겹옷을 얼른 걸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8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물에서 백 자 †쯤 되는 가까운 곳에 들어가 있었다. 9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물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불 위에는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빵도 조금 있었다.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11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물으로 끌어올렸다. 그 물에는 큰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백십세 마리였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어 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14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15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여라.”

16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들을 돌보아라.”

17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마음이 아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18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언지시 알려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베드로는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제자는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 예수께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앉아, “주님, 누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하고 여쭙었던 사람이다.) 21 베드로가 뒤에서 따라오는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23 그리하여 믿는 이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다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따름이다.

24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25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 이것들을 낱알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 둘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 6:1을 보라. †† 가나 갈릴리 지방 서쪽에 있는 마을. † 백 자 그리스어로는 ‘200큐빗’. 약 90미터.

†† 양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실 때 자주 쓰신 말이다(요 10장).



# 사도행전

## 누가가 또 다른 책을 쓰다

1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나는 첫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2 곧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모두 적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할 일을 일러 주셨습니다. 3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십 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4 어느 날 예수께서 사도들과 음식을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그 약속에 관해 전에 너희에게 말해 준 적이 있다. 5 세례자 요한<sup>†</sup>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 예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다

6 사도들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7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날과 시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실 일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8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9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구름에 싸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 사도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사도들 곁에서 있었다. 11 그들이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 새 사도를 뽑다

12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에서 1킬로미터<sup>††</sup> 떨어진 곳에 있다.) 13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이층 방으로 갔다. 거기 모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쟁이<sup>‡</sup>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 세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였다(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 1킬로미터 글자 그대로는 ‘안식일 거리’. 곧 안식일에 가도 좋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허용된 거리. †‡ 열심쟁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가나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아마도 ‘질투심이 많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온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특별히 열심이

14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몇몇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15 며칠 뒤에 믿는 이들의 모임이 있어서 일백이십 명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16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는 본래 우리 열두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성경<sup>‡</sup>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18 (유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밭을 샀다. 그러나 유다는 거꾸러져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19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다. 아겔다마는 그 사람들의 말로 ‘피의 밭’이라는 뜻이다. ‡)

20 베드로가 계속 말하였다. “시편에 보면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땅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게 하십시오!’<sup>‡‡</sup>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sup>‡‡‡</sup>

21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sup>§</sup>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23 그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였고, 또 한 사람은 맛디아였다. 24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저희에게 보여 주십시오.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주님, 어느 사람을 사도로 뽑아 유다의 자리를 맡기려고 하시는지 저희에게 보여 주십시오!” 26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 보니 맛디아가 뽑혀서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 성령이 오시다

2 오순절이 되어 믿는 이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2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있던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기원후 67-68년 겨울까지는 ‘열심당’이라고 알려진 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열심당원’이란 이름은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여 싸운 유대 사람의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훨씬 뒤에 주어진 이름이다. †‡ 성경 구약 성경. †‡‡ 마태복음 27장 3-10절을 볼 것. †‡‡‡ 시 69:25. †‡‡‡ 시 109:8. § 요한 세례자 요한.

그들이 앉아 있는 집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찼다. <sup>3</sup> 그들은 허같이 생긴 불길을 보았다. 그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 나가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내렸다. <sup>4</sup>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sup>5</sup>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신앙 깊은 유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sup>6</sup>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다.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sup>7</sup> 그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sup>8</sup>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각기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듣고 있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 <sup>9</sup>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sup>†</sup>와, <sup>10</sup>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도,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sup>11</sup>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 <sup>††</sup>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들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소.” <sup>12</sup>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서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sup>13</sup>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오.”

**베드로, 오순절에 설교하다**

<sup>14</sup>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무리에게 말하였다. “유대 형제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sup>15</sup> 지금은 겨우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sup>16</sup>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자 요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sup>17</sup>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sup>18</sup>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 <sup>‡</sup>을 쏟아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 <sup>‡‡</sup>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나는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리라.  
<sup>19</sup> 나는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땅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리니,  
그것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sup>20</sup>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에 앞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리라.  
<sup>21</sup> 그때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sup>‡</sup>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sup>‡‡‡</sup>

†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쪽 지방. †† 개종 자기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 ‡ 내 영 또는 ‘성령’.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시다. ‡‡ 환상 하나

<sup>22</sup>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sup>23</sup>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 <sup>‡‡‡</sup>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sup>24</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sup>25</sup> 다윗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

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뵈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sup>26</sup>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한다.  
이 몸 또한 희망 속에 살리니,  
<sup>27</sup> 주께서 내 영혼을 저승 <sup>§</sup>에 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의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sup>28</sup>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며,  
주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sup>§†</sup>

<sup>29</sup>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 <sup>‡‡‡</sup>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sup>30</sup>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주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sup>31</sup> 그래서 다윗은 앞을 내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승 <sup>§</sup>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이 썩지 않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sup>32</sup>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sup>33</sup>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 성령 때문입니다. <sup>34</sup>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디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게 무릎 꿇게 할 때까지 <sup>§†</sup>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sup>§†</sup>

<sup>36</sup>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sup>37</sup>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찢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sup>38</sup>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sup>39</sup>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먼 곳

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용하시는 꿈과 같은 것. ‡‡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 율 2:28-32.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 시 16:8-11. §††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 네 원수들을...때까지 글자 그대로의 뜻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 시 110:1.

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40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벌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하였다. 41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 믿는 이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다

43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44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다. 45 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46 믿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좋아하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 베드로, 다리 못 쓰는 사람을 고치다

3 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2 ‘아름다운 문’ 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 문 옆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거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다. 3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4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5 그 사람은 돈을 주려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6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게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7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곧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8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두 사도와 함께 성전 뜰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9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10 사람들은 그가 늘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 베드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

11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걸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 †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다. 12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겨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

† 함께 빵을 떼고 이 말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념하여 먹으라고 지시하신 특별한 식사인 ‘주의 만찬’ 을 함께 먹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누가복음 22장 14-20절을 볼 것. ††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지붕을 덮은 회랑.

기로 결정하였으나,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14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분 대신 살인자 ‡를 풀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습니다. 15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16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분을 통해 오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보셨습니다.

17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예수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18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20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21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22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뽑아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서 또 한 예언자를 뽑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따라야 한다. 23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쫓겨나 멸망을 당할 것이다.’ †24 사무엘과 사무엘의 뒤를 이어 예언한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25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일에서 돌아서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베드로와 요한, 의회 앞에 서다

4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사람들이 몰려왔다. 2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오천 명으로 늘어났다.

5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6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7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 살인자 바라바를 가리킨다(눅 23:18). †† 너희 주 하나님...당할 것이 다신 18:15, 19. †† 세상...받을 것이다 창 22:18; 26:24.

8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9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10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11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 1이 되신 분’입니다. 12

12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4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나아서 두 사도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15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7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18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20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22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마흔 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 믿는 형제들에게 돌아오다**

23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 나오는 길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 1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24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25 주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만스럽게 구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헛되이 계획을 꾸미는가?

26 주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 1에게 맞서려고

1 머릿돌 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돌. 11 시 118:22. 12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13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14 기름 부으신 이 곧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모두 모였구나.’ 11

27 바로 이런 일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 1과 본 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와 맞서려고 함께 들고 일어났습니다. 28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은, 주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셨던 일일 뿐입니다. 29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0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31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믿는 이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다**

32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34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35 사도들 앞에 내어 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36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1이었다. 37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5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삽비라였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땅의 얼마를 팔았다. 2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 놓고, 나머지만 가져와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그의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당신은 사탄에게 흘려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을 팔아 생긴 돈을 떼어서 몰래 숨겼습니까? 4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5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6 젊은 사람 몇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주검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7 세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들어왔다. 8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하였다. “이 돈이 당신네 땅을 판 돈의 모두입니까?”

삽비라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이 모두입니다.”

9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떠보려 하였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장사지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입니다.”

10 그 순간 삽비라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11 시 2:1-2. 12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의 영주였다. 13 레위 사람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 가운데 하나인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

들어와 삼비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sup>11</sup>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sup>12</sup>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었다. 사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 <sup>†</sup>에 모이곤 하였다. <sup>13</sup>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여들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백성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sup>14</sup> 많은 남자와 여자가 믿게 되어, 주를 믿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sup>15</sup>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침상이나 자리에 눕어 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닿게 하려는 것이었다. <sup>16</sup> 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다.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 유대 사람들이 사도들을 방해하려 하다

<sup>17</sup>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사두개파사람들이 시새움을 냈다. <sup>18</sup>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 <sup>19</sup> 그러나 밤중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sup>20</sup> “가서, 성전 뜰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sup>21</sup> 사도들은 천사가 일러 준 대로 새벽에 성전 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의회 <sup>††</sup>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모으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sup>22</sup> 경비원들이 감옥으로 가 보니 사도들이 없었다.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sup>23</sup>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 보니 감옥은 비어 있었습니다.” <sup>24</sup> 성전 경비대장과 높은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였다. <sup>25</sup>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sup>26</sup> 그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화가 나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sup>27</sup>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다. <sup>28</sup>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 <sup>‡</sup>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렸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죄 값을 우리에게 묻기로 작정을 하였소.”

<sup>29</sup>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sup>30</sup>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sup>31</sup>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어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sup>32</sup>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십니다.”

<sup>33</sup>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하였다. <sup>34</sup> 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한 바리새파 사람이

<sup>†</sup>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지붕을 덮은 회랑. <sup>††</sup>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sup>‡</sup>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조차 싫어했다. 4:17, 18을 보라.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sup>35</sup>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sup>36</sup> 얼마 전에 드다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우자, 사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그 일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sup>37</sup>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자 몇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sup>38</sup>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 사람들의 계획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sup>39</sup>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거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sup>40</sup>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매질하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 그들을 풀어주었다. <sup>41</sup> 사도들은 의회를 떠나며, 자기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 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sup>42</sup>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 뜰과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 사도들을 돕기 위해 일곱 사람을 뽑다

**6**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믿는 이들이 아람 말을 쓰는 다른 믿는 이들을 두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식량을 나누어 받을 때, 자기네 흠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sup>2</sup> 열두 사도는 믿는 이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sup>3</sup>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들은 못사람에게서 우려를 받고,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섬기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sup>4</sup>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sup>5</sup> 모든 사람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믿음이 깊고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과 더불어, 빌립 <sup>‡‡</sup>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뽑았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sup>6</sup> 그들은 그 일곱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sup>‡‡‡</sup>

<sup>7</sup>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에 순종하였다.

### 유대 사람들이 스테반과 맞서다

<sup>8</sup>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행하였다. <sup>9</sup>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른바 ‘해방 노예의 회당’ <sup>‡‡‡</sup> 사람들로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sup>10</sup> 그러

<sup>‡‡</sup> 빌립 사도가 아닌 다른 빌립을 말한다. <sup>‡‡‡</sup> 손을 얹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sup>‡‡‡‡</sup> 해방 노예의 회당 그리스어로는 ‘리버디노 회당’. ‘리버디노’는 전에 노예였거나 부모가 노예였지만, 이제는 풀려나 자유인이 된 유대 사람들을 말한다.

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스테반이 지혜롭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스테반을 당해 낼 수 없었다.

11 그러자 그들은 은밀하게 몇 사람을 고드겨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12 그들은 이렇게 하여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을 부추겼다. 그들은 스테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13 그들은 거짓 증인 몇 사람을 만들어 냈다. 그 거짓 증인들은 스테반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였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을 계속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관습들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5 그러자 의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 스테반의 연설

7 대제사장 †이 스테반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오?” 2 스테반이 대답하였다. “여러 어른과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내가 일러 주는 땅으로 가거라.’ †4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갈대아 ‡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뼘의 땅도 유산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네 자손을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7 그러나 나는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벌을 내리겠다.’ †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네 백성은 그 나라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아들 열두에게 똑같이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나중에 열두 가문의 시조 †††가 되었습니다.

9 그런데 이 조상들이 자기네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10 요셉은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이집트와 자신의 온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11 그 뒤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크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12 야곱은 이

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13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4 이렇게 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이집트로 불러왔습니다. 15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16 나중에 그분들의 무덤은 세겜에 있는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전에 세겜에 살던 하물의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사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18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9 이 왕은 우리 조상들을 교묘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우리 조상에게 갖 태어난 사내 아기를 모두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사내 아기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키웠습니다. 21 그러나 그 뒤에 더는 여쩔 수 없어서 아기를 밖에 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22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23 모세는 마흔 살이 되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24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양값음을 하였습니다. 25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려고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26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는 거요?’ 27 형제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28 당신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오?’ †††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30 사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시내 산에서 가까운 광야 §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불타는 덩불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31 모세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 모세는 무서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33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34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 짓눌림에서 풀어 주려고 내려왔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돌려보낸다.’ §††

35 이 모세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고 말하며 배척하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덩불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통치자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36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갈대 바다에서, 그리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네 고향과...가거라 창 12:1. † 갈대아 또는 바빌론.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있는 지방. 2절을 볼 것. †† 나는 네 자손들은...벌을 내리겠다 창 15:13-14. †† 이런 일들이...예배하게 될 것이다 창 15:14; 출 3:12. ††† 시조 한 족속의 맨 위 조상.

††† 누가...죽일 셈이오 출 2:14. §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 나는...하나님이다 출 3:6. §†† 네신을 벗어라...돌려보낸다 출 3:5-10. § 출 2:14.

다. 37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 너희에게 보내 주실 것이다.’<sup>†38</sup>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39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마음으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습니다. 40 우리 조상들은 아론<sup>‡</sup>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줄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모세라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sup>‡41</sup>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가져와 그 앞에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4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거짓 신들, 곧 별과 행성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더냐?

43 너희는 몰록신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을 떠받들었다.  
너희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 너머로 쫓아 버리겠다.’<sup>‡</sup>

44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본 모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45 이 장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그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46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야곱의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sup>‡</sup>을 마련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였습니다. 47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집에도 살지 않습니다. 예언자<sup>‡‡</sup>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9 나 주가 말한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가 발을 딛는 발판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50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더냐?’<sup>‡‡</sup>

51 목이 굳은 백성이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과 꼭 같아서,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52 당신네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

은 그 의로운 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53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 준 율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 스데반, 죽임을 당하다

54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55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56 스데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57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모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58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59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60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

8 사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다.

### 믿는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크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 있었다. 2 경건한 사람 몇이 스데반을 묻고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3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믿는 이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 빌립, 사마리아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다

4 그런데 사방으로 흩어진 믿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5 빌립<sup>§</sup>은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6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7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많은 중풍병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8 그리하여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9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체하고 있었다. 10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시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큰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11 시몬이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다. 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남자나 여자나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13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서,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15 두 사람은 사마리아에 와서, 그곳에 있는 믿는 이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16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

§ 빌립 얼굴 집사 가운데 하나인 사람.

† 하나님께서...보내 주실 것이다 신 18:15. †† 아론 모세의 형으로, 첫 유대 사람 대제사장. ‡ 우리를 앞에서...모르겠습니다 출 32:1. †† 암 5:25-27. †† 야곱의 하나님...집 직역하면 ‘야곱의 집’이다. ††† 예언자 기원전 740-700경에 활동한 이사야. ††† 사 66:1-2.

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7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8 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 위에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으며 19 말하였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20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당신의 돈이 당신과 함께 망하기를 바라오! 21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당신이 이 일에서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22 그러나 당신의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주께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을 용서하실지도 모를 일이오. 23 내가 보니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며,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소.”

24 시몬이 대답하였다. “두 분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두 분이 말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5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빌립, 에티오피아 사람을 가르치다

26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이 길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광야 길이였다.) 27 빌립은 서둘러 떠나 길을 가다가 어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내시로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모시는 높은 관리였다. 그 사람은 여왕의 돈을 모두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28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이사야 55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29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30 빌립이 그 마차 곁으로 달려가니, 그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는 소리가 들렸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31 그 사람이 말하였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로 올라와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하였다. 32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으며,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어린양이 잠잠하듯이  
입을 열지 않았다.

33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서 그의 생애가 끝이 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할 수 있으랴!” †

34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한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35 빌립은 성경의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

36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37 †38 그리고 그는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 내시 고향을 제거한 남자. 통치자들은 흔히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 이사야 기원전 742-701년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사 53:7-8. ††† 37절 뒤에 만들어진 몇몇 그리스어 사도행전 사본에 다음과 같은 37절이 있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

빌립과 그 내시는 같이 물에 들어갔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39 두 사람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성령이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 가던 길을 갔다. 40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모든 마을에 들러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사울, 예수의 제자가 되다

9 한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2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의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3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4 사울은 땅에 엎어져서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5 사울이 물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하였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6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7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도 그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까지 데리고 갔다. 9 사울은 사울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10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11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거리’ 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4의 집을 찾아가거라. 가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다소 사람을 찾아라. 사울은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12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어 주어 다시 눈이 보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13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4 더구나 그는 지금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당신을 믿는 5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갈 권한을 받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15 주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 6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뽑은 그릇이다. 16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

17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 주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대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이십

도 좋습니다.’ 그 내시가 말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 유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아남. ††† 당신을 믿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말은 예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것을 뜻한다.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sup>18</sup>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sup>19</sup>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 사울, 예수에 관해 증언하기 시작하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sup>20</sup>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sup>21</sup> 사울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해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sup>22</sup>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 사울, 유대 사람에게서 도망치다

<sup>23</sup>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sup>24</sup>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켰다.<sup>25</sup>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성벽에 난 구멍으로 바구니를 달아 내렸다.

### 사울, 예루살렘으로 가다

<sup>26</sup>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사울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sup>27</sup>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말해 주었다.

<sup>28</sup> 그렇게 하여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다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sup>29</sup> 그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sup>30</sup> 믿는 이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다소로 보냈다.

<sup>31</sup>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안정이 되어서 그 기틀을 든든히 세워 갔다.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받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며, 그 수가 늘어 갔다.

### 베드로, 룻다와 옴바에 가다

<sup>32</sup>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믿는 이들을 찾아갔다.<sup>33</sup> 그는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팔 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sup>34</sup>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말하였다. “애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애니아는 곧바로 일어났다.<sup>35</sup> 룻다와 샤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의 일을 보고 주 예수께 돌아와 믿었다.

<sup>36</sup> 옴바에는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살고 있었다. (다비다는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다비다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sup>37</sup>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즈음에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 사람들이 다비다의 주검을 씻어서 이층 방에 눕혀 놓았다.<sup>38</sup> 룻다는 옴바에서 가까웠다. 그래서 옴바에 있

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며 청하였다. “제발 빨리 좀 와 주십시오!”<sup>39</sup> 베드로는 곧 그 두 사람을 따라 옴바로 갔다. 그가 도착하자 제자들은 그를 이층 방으로 데리고 갔다. 모든 흠어미들이 베드로를 에워싸고 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에 만들어 준 겹옷과 속옷들을 보여 주었다.<sup>40</sup>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죽은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하였다. “다비다, 일어나시오!”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sup>41</sup>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는 믿는 이들과 흠어미들을 불러들여,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 주었다.<sup>42</sup> 이 사실이 온 옴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sup>43</sup> 베드로는 옴바에 있는 무두장이 † 시몬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 베드로와 고넬료

**10**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 ††이었다. <sup>2</sup>그와 그의 온 집안이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는 가난한 유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sup>3</sup>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다.

<sup>4</sup> 고넬료는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가 베푼 자선을 알고 계시며,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sup>5</sup>이제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sup>6</sup>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sup>7</sup>고넬료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하인 두 사람과 그의 전속 부관 가운데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렀다. <sup>8</sup>고넬료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모두 이야기한 다음, 그들을 옴바로 보냈다.

<sup>9</sup>이튿날 정오쯤, 그들이 옴바 가까이에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 †로 올라갔다. <sup>10</sup>그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고 싶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갔다. <sup>11</sup>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들려 내려오고 있었다. <sup>12</sup>그 보자기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 있었다. <sup>13</sup>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sup>14</sup>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sup>15</sup>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sup>16</sup>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sup>17</sup>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어리둥절해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바로 그 집 앞에서 있었다. <sup>18</sup>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느냐고 물었다.

<sup>19</sup>베드로가 아직도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sup>20</sup>일어

†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지붕 팔레스틴 지방의 지붕은 평평하다.

나 아래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21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2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고넬료 백인대장 †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분은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며, 모든 유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천사에게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 23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어 목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옴바의 믿는 이들 몇이 함께 갔다. 24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닿았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5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는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26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어서게 하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27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28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사귀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29 그리하여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여쭙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30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사흘 전 †이맘때쯤 저는 집에서 오후 세 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제 앞에 서서 31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자선을 기억하셨다. 32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33 그래서 저는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냈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선생님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34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35 당신을 두려워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6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소식, 곧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37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뒤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걸쳐 일어난 일들도 알고 계십니다. 38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여 주시고, † 그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악마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39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대의 장교. †† 사흘 전 그리스어 사본에는 ‘나흘 전’. 그들은 당일도 하루로 족다. ‡ 요한 세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 성령과 권능을 부여 주시고 곧자 그대로의 뜻은 ‘성령과 권능으로 기를 부여 주시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4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41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정해 놓으신 우리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42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43 모든 예언자들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 고 하였습니다.”

###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

44 베드로가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었다. 45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사람 † 신자들은 이방 사람 ††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46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 베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11 사도들과 유대 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2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 사람 신자들은 베드로를 꾸짖어 3 말하였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4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5 “저는 옴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무아지경 가운데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들려서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졌습니. 6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7 그리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8 저는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9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10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 11 바로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제게 보낸 세 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12 성령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섯 형제도 저와 함께 떠나서, 우리를 부르러 보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 13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14 시몬은 너와 네 온 집안을 구원할 소식을 전해 줄 것이다.’ 15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 내리시던 때와 꼭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16 그때에 주께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

†† 유대 사람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할례 받은’.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처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오순절 때를 말한다(행 2장).

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7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18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기쁜 소식이 안디옥에 전해지다**

19 스데반 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20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안디옥에 오자,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21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22 예루살렘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라고 권하였다. 24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25 그 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스로 갔다. 26 그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그곳 교회의 믿는 이들과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인’ 이라고 불렸다.

27 이 무렵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28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로 기근이 들었다. 29 제자들은 제각기 능력에 따라서 유대에 있는 믿는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30 그들은 이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헤롯 아그립바, 교회를 박해하다**

**12** 이 무렵에 헤롯왕 11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박해의 손길을 뻗었다. 2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3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베드로도 잡아넣었다. 이 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기간에 일어났다. 4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는 네 명씩 짝을 지은 네 무리의 경비병들에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으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5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 감옥을 나간다**

6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끌어내려는 바로 그 전 날 밤의 일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감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였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찢러 깨우며 말하였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8 천사가 말하였다.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천사의 말

† 글라우디오 황제 때...기근이 들었다 글라우디오는 주후 41-54년에 로마를 다스린 황제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서기 46년에 있었던 기근을 말하는 것이다. †† 헤롯왕 헤롯 아그립바 1세이며, 헤롯대왕의 손자.

을 따라 그대로 하였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9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10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니,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둘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져 버렸다.

11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을 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유대 백성이 내게 닥치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모든 일에서 나를 구해 내셨구나.”

12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14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은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서 있다고 알렸다.

15 사람들은 로데에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로데가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자, 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16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7 베드로는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한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꺼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려 주시오.”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18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 때문에 경비병들 사이에 잡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19 헤롯은 부하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불러 심문한 다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의 죽음**

20 헤롯 1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나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어 헤롯을 만나 보게 하였다. 그들은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한 다음,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사는 지방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 공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21 정한 날이 되어 헤롯은 임금이 입는 곤룡포 11를 떨쳐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22 그러자 사람들이 외쳐댔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이다!” 23 곧바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는 벌레들에게 파먹혀 죽고 말았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 갔다.

25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바나바와 사울, 특별한 사명을 받다**

**13** 안디옥교회에는 몇 사람의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11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2 그들

‡ 헤롯 헤롯 아그립바 1세이며, 헤롯대왕의 손자. †† 곤룡포 또는 ‘용포’. 임금이 입던 정복.

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그들을 불렀다.”

<sup>3</sup>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치고 두 사람에게 손을 얹은 다음,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 바나바와 사울, 키프로스에 가다

<sup>4</sup> 두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그곳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sup>4</sup>로 갔다. <sup>5</sup>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의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다. 요한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돕는 일을 하였다.

<sup>6</sup> 그들이 온 섬을 돌다가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마술을 부리는 거짓 예언자를 만났다. 그는 바에수라는 유대 사람이었다. <sup>7</sup>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두는 사람이었다. 총독은 똑똑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였다. <sup>8</sup> 그런데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사울과 바나바를 반대하였다. 엘루마는 바에수라는 이름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이름이다. 그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sup>9</sup>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루마를 노려보고 <sup>10</sup> 말하였다. “너는 악마의 자식이고 모든 정의의 원수이다. 너는 온갖 사기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네가 주의 곧은 길을 굽게 만드는 짓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sup>11</sup>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뒤덮었다. 그는 여기저기를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sup>12</sup> 총독은 그 일을 보고 주를 믿었다. 그는 주에 관한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다

<sup>13</sup>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러나 요한은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sup>14</sup> 일행은 다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닿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sup>15</sup> 율법서와 예언서를 큰 소리로 읽고 난 다음,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두 분 형제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sup>16</sup> 그리하여 바울이 일어나 손을 들어 보이고 <sup>17</sup> 나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sup>17</sup>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을 큰 민족으로 키워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sup>18</sup> 광야에서는 사십 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도 참아 주셨습니다. <sup>19</sup>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일곱 민족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sup>20</sup> 이 모든 일이 약 사백오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sup>21</sup> 그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나민 가문 사람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고, 사울은 사십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sup>22</sup> 그런 뒤에 사울을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두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바라는 일을 할 것이다.’ <sup>23</sup>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주 <sup>24</sup> 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십니다. <sup>24</sup>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 <sup>25</sup> 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sup>25</sup>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sup>26</sup>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sup>27</sup>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sup>28</sup>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구실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를 졸라서 그분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sup>29</sup> 그들은 성경에 예수께 일어나리라고 쓰여 있는 일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sup>30</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으며, <sup>31</sup> 그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분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sup>32</sup>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셨던 약속을, <sup>33</sup> 그 조상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킴으로써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시편 둘째 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sup>34</sup> #

<sup>34</sup>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sup>35</sup> #

<sup>35</sup>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를 썩도록 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sup>36</sup> #

<sup>36</sup>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sup>37</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sup>38</sup>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sup>39</sup>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결코 죄에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sup>40</sup> 예언자들이 한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sup>41</sup>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며 망해 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up>42</sup> §

# 분봉왕 그리스어로는 ‘테트라아르케스’ (‘영토의 1/4 통치자’ 라는 뜻).  
† 손을 얹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타낸다. †† 손을 들어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려는 몸짓.

‡ 구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 요한 세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였다(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 시 2:7. †† 사 55:3. ††† 시 16:10. § 합 1:5.

42 두 사람이 회당을 떠날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일에 관하여 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 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을 굳게 지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권고하였다.

44 다음 안식일에는 도시의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45 유대 사람들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시샘이 북받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46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 #에게 갑니다.

47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다.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려는 것이다.’ †

48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주를 믿었다.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50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네 지방에서 내쫓았다. 51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고 # 이고니온으로 갔다. 52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 가다**

**14**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어쩌나 말씀을 잘 전하였던지 많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믿었다. 2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추겨서 믿는 이들을 미워하게 하였다. 3 그리하여 두 사람은 꽤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주를 위해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므로써, 두 사람이 전하는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4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5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6 두 사람이 그 감새를 알고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가까이로 피하였다. 7 두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바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다**

8 루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9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서, 그에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10 바울이 큰 소리로

† 개종 종교를 딛 것으로 바꿔 믿음.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사 49:6. ††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다 일종의 경고로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겠다는 표시이다.

말하였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11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 #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설교를 맡아 하였기 때문이다. 13 바로 그 성 바깥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꿀을 섞어 만든 목걸이를 성문으로 가져왔다. 제사장과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그것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다.

14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다. 15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그만두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16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7 그러나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 주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18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19 그러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꼬드기어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다음,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 20 그러나 제자들이 달려와 둘러섰을 때에 바울은 깨어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21 두 사람은 더베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22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다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 장로들을 맡겼다.

24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갔다. 25 그리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앗달리아로 내려갔다. 26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은, 믿는 이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을 전하라고 내보냈던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27 두 사람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온 교회의 믿는 이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신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알렸다. 28 두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예루살렘 회의**

**15** 유대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서 이방 사람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리하여 바울과 바

‡ 제우스 그리스의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 ††† 헤르메스 또 다른 그리스의 신. 그리스 사람들은 헤르메스가 다른 신들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신이라고 믿었다.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믿는 이들도 몇 사람 딸려 보내기로 하였다. 이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sup>3</sup> 그들은 교회의 보냄을 받고 † 길을 떠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sup>4</sup>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해 주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sup>5</sup>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sup>6</sup>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다. <sup>7</sup>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sup>8</sup>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sup>9</sup>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sup>10</sup>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 †를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조상들도 질 수 없었던 멍에입니다. <sup>11</sup>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sup>12</sup> 그러자 온 회중이 입을 다물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sup>13</sup>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야고보가 입을 열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sup>14</sup>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한 백성을 뽑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처음에 어떻게 보이셨는지 시몬 †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sup>15</sup>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과 들어맞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up>16</sup>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그 집의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지어 놓겠다.’

<sup>17</sup> 그리하여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른 모든 이방 사람까지도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이 일들을 이루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  
<sup>18</sup> 주께서는 이 일들을 오래 전부터 알게 하셨다.’ †

<sup>19</sup>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up>20</sup>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갖지 말며,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up>21</sup>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도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러한 법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 교회의 보냄을 받고 이 말은 ‘교회에서 그들의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라는 뜻이다. †† 멍에 여기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말함. † 시몬 베드로. †† 암 9:11-12. †† 사 45:21.

##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sup>22</sup>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보냈다. <sup>23</sup> 그리고 그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sup>24</sup>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up>25</sup>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sup>26</sup>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sup>27</sup>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직접 말로도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sup>28</sup>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말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께도 우리에게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sup>29</sup>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멀리하시면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up>30</sup> 그들은 보냄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온 회중을 모아 놓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 <sup>31</sup>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주는 내용에 무척 기뻐하였다. <sup>32</sup>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었다. <sup>33</sup> 두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서 지낸 뒤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sup>34</sup> ††

<sup>35</sup>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한동안 머물렀다. 두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sup>36</sup> 얼마쯤 지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sup>37</sup>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였다. <sup>38</sup>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계속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sup>39</sup> 이 일을 두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툼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sup>40</sup>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빌며 두 사람을 보냈다. <sup>41</sup>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튼튼하게 해 주었다.

##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다

**16**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sup>2</sup>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는 이들이 모두 디모데를 좋게 말하고 있었다. <sup>3</sup>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장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

††† 34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다음과 같은 34절이 있다. “그러나 실라는 그곳에 남기로 하였다.”

었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4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전해 주며, 그것들을 잘 지키라고 일렀다. 5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 갔다.

### 바울,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부르심을 받다

6 바울과 그의 일행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거쳐 갔으나,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7 그들이 무시아의 경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8 그리하여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9 그곳에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났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 루디아의 개종

11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압볼리로 갔다. 12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며칠을 묵었다.

13 우리는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를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 있던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14 그 가운데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으로 값비싼 보라색 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루디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15 루디아와 그 집안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루디아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 여자는 “저를 주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제 집에 와 계십시오.” 하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하였다.

###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다

16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sup>†</sup>이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여 주고 있었다. 17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18 그 여종이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자, 바울은 괴로운 나머지 몸을 돌려 그 귀신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그 귀신이 곧바로 나갔다.

19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에게서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20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치안 판사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써,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21 이들은 우리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법에 어긋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22 많은 사람이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였다. 치안 판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라고 명령하였고, 23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여 옥에 넣고는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을 맨 안쪽에 있는 감방에 넣고, 두 발에 나무 차꼬 <sup>‡</sup>를 채워 놓았다.

25 한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26 그때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어찌나 심한 지진이던지 감옥이 서 있는 터가 다 흔들렸다. 곧 감옥 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벽에 묶어 둔 사슬들이 모두 벽에서 풀려났다. 27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였다. 28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29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 그러고는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1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2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사람 모두에게 주의 말씀 <sup>‡</sup>을 들려주었다. 33 간수는 그날 밤 그 늦은 시각에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고,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34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35 아침이 되자 치안 판사는 “그 사람들을 풀어 주어라.” 라고 말하며 부하들을 보냈다.

36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치안 판사가 선생님들을 풀어 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치안 판사의 말을 전하였다.

37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치안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였습니다. 로마 시민 <sup>‡‡</sup>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풀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38 부하들은 그 말을 치안 판사에게 전하였다. 치안 판사는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39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부탁하였다. 40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로 가다

17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2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그 회당에 나가서, 유대 사람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3 바울은 성경 <sup>‡‡‡</sup>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바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유대 사람 몇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을 따랐다.

<sup>†</sup> 차꼬 기다란 두 개의 토막나무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수의 두 발목을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로 채우게 되어 있는 옛 형구. <sup>‡</sup>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sup>‡‡</sup> 로마 시민 로마법에 의하면 재판을 하기 전에는 로마 시민에게 매질을 할 수 없었다. <sup>‡‡‡</sup> 성경 구약 성경.

<sup>†</sup>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 <sup>‡‡</sup>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sup>‡</sup>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영으로서, 특별한 것을 알게 해주는 신.

5 그러자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장터의 건달 몇 사람과 함께 떼를 지어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6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어다가 시의 관리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자들이 이곳에도 왔습니다. 7 야손이 그런 자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8 군중과 시의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9 그들은 야손과 다른 믿는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 주었다.

### 바울과 실라, 베레아로 가다

10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갔다. 11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12 이리하여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또 신분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13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와서 무리를 부추겨 소동을 일으켰다. 14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5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 바울, 아테네에 가다

16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괴로웠다. 17 그리하여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벌였다. 18 몇몇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무식한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 자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그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의회에 세워 놓고 말하였다.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소? 20 당신은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21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듣거나 이야기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22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심이 깊은 분들입니다. 23 저는 아테네 시내를 두루 거닐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씨가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24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

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25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람이 채워 드려야 할 만큼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26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27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지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 그리고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29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분을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기술과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것일 따름입니다. 30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떠나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심판의 일을 맡으실 분도 뽑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32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렇게 되자 바울은 의회를 떠났다. 34 몇몇 사람이 바울의 편이 되어 믿는 이들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의회 †의 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 바울, 고린도에 가다

18 그 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2 바울은 그곳에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 †가 모든 유대 사람을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즈음에 이탈리아를 떠난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 3 그들도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같이 일하였다. 4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며, 오로지 말씀 ‡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6 유대 사람들이 자기 말에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이에 항의하여 옷의 먼지를 털어 버리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7 바울은 그곳을 떠나 디디우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회당옆에 집이 있었다. 8 회당장 †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9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 아레오바고 의회 아테네의 중요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 이들은 종교 관습을 포함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자주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 글라우디오 황제 기원후 41-54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 ‡ 말씀 뜻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장소인 회당의 책임자.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네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11 그리하여 바울은 일 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 갈리오 앞으로 끌려가다**

12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한 때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13 그들은 “이 자가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일이 어떤 잘못이나 중대한 범죄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여러분의 고발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15 그러나 이 문제는 말과 이름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다툼이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16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

17 그들은 회당장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런데도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았다.

**바울,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18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더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믿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시리아를 향해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 바울은 떠나기에 앞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19 그것은 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일 때문이었다. 20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어 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21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였다. 22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23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24 그는 안디옥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폴로가 에베소와 아가야에 가다**

25 아폴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다. 그는 거침없이 말을 잘 하고, 힘 있게 성경 1을 가르쳤다. 26 그는 주의 ‘도’ 를 배워 알고 있었으며, 타고르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 2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27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에 대해 더 적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28 아폴로가 아가야 3로 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폴로를 반갑게 맞아 달라는 편지를 썼다. 아폴로는 아가야에 도착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9 그가 공중 토론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 있게 증명하여 유대 사람들을 여지없이 논박했기 때문이다.

†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 머리를 깎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머리를 깎음으로써, 하나님께 맺은 특별한 서약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 성경 구약 성경. ††† 요한 세례자 요한. †††† 아가야 그리스도의 남쪽 지방.

**바울, 에베소에 가다**

19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몇몇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 2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그들은 “요한 3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4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나타내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곧 예수이십니다.”

5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렸으며,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 4로 말하고 예언 5을 하였다. 7 모두 합해 열두 사람쯤 되었다.

8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유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이 알아들도록 설명도 하였다. 9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 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10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 6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7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

11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12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으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13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였다. 14 높은 유대 사람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15 어느 날 귀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16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짓눌러 이겨 버렸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망쳐 나왔다. 17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얻게 되었다. 18 그리고 믿게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19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 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 그 책값을 모두 계산해 보니 오만 δρα크마 8 나 되었다. 20 이렇게 주의 말씀 9이 널리 퍼져나가고, 더 큰 힘을 떨쳤다.

††††† 요한 세례자 요한. ††††† 다른 언어로 또는 ‘방언으로’. § 예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 §†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δρα크마 1 δρα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인 은 돈 한 닢이었다. §††††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바울, 여행 계획을 세우다**

21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던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23 그 무렵 주의 ‘도’ 를 둘러싸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 24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 11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 밑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25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들과 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아시피 우리는 이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26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그 명성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아시아와 세계가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8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에베소인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소리쳤다. 29 그래서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30 바울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말하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31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32 그러는 사이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33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 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자, 무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에게 자기들이 모인 까닭을 일러주었다.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유대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하였다. 34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두 시간 동안이나 한 목소리로 “에베소인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35 에베소 시의 서기관이 무리를 조용하게 하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 시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석상 11을 모신 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36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합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37 여러분이 이 사람들 11을 이리로 불러와 왔지만,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38 우리에게는 재판정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를 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걸어서 고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재판정을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하십시오. 39 그밖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합법적인 집회에 나오십시오.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 오늘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폭동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소란을 피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까닭이 전혀 없었습니다.” 41 그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흩어 보냈다.

**바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20 소동이 그치지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2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곳을 거쳐 가면서 여러 말로 그곳의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3 바울은 그곳에서 석달을 지낸 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4 그때에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11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5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렸다. 6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닻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들과 만나 그곳에서 이레를 지냈다.

**바울, 마지막으로 드로아를 방문하다**

7 일요일에 11 우리는 빵을 떼려고 8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모인 사람들에게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8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여러 개 밝혀 놓았었다. 9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잠든 청년이 삼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10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 그 청년을 팔에 안고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 있습니다.” 11 그리고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동이 틀 무렵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을 떠났다. 12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큰 위안을 받았다.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13 우리는 바울보다 앞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해 떠났다.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배에 태울 생각이었다. 바울 자신은 앗소까지 걸어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한 일이었다. 14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15 그리고 이튿날 배를 타고 떠나 기오 가까운 곳에 닿았으며, 그 다음 날에는 사모로 건너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다. 16 이렇게 갈 길을 정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시아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오순절안에 예루살렘에 닿으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 아데미 여신 소아시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리스의 여신. †† 알렉산더 이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바울의 친구인지 적인지도 확실하 할 수 없다. †† 신성한 석상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여 신으로 섬기던 운석을 말하는 것 같다. †† 이 사람들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 ††† 일요일에 글자 그대로의 뜻은 ‘주간의 첫날에’.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주간의 첫 날은 토요일 저녁에 시작된다. 그러나 이 책을 쓴 누가가 여기에서 로마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 모임은 일요일 저녁에 열렸을 것이다. § 빵을 떼려고 이 말은 단순히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주의 만찬’ 예식을 가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초기의 믿는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할 때, 자주 ‘주의 만찬’ 예식을 가졌다.

### 바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다

17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그리로 오라고 불렀다. 18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9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온 것을 잘 아십니다. 나를 해치려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섬겨온 것도 잘 아십니다. 20 또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21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였습니다. 22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23 내가 아는 것은, 어느 성읍에 가든지 투옥과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신다는 것뿐입니다. 24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25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26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거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7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28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의 † 교회를 지키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29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늑대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30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31 그러니 내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피십시오!

32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줄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몫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 줄 수 있습니다. 33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34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내 손으로 일하여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벌어서 썼습니다. 35 나는 여러분도 나처럼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36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37 모든 사람이 울며, 바울의 목을 감싸 안고 입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38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주님의’. †† 자신의 피 또는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말 때문에 더욱 슬퍼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다

21 우리는 그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다음, 배를 타고 고스까지 곧장 항해하였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로도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바다라로 갔다. 2 우리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3 키프로스 섬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지나쳐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4 우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레를 지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5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 밖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하였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6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7 우리는 두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 돌레마이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8 우리는 다음 날 길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우리는 빌립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묵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던 일꾼 사람 †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9 빌립에게는 예언 †을 하는 처녀 딸이 네 명 있었다.

10 우리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11 그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12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 13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14 우리는 그의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15 이렇게 며칠을 지낸 뒤,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6 가이사랴 출신의 제자 몇이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우리를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리로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인데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 바울, 야고보를 찾아가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18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19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20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바울 형제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21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모

‡ 일꾼 사람 사도행전 6장 1-6절을 볼 것. †† 예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

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sup>22</sup>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sup>23</sup>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sup>24</sup>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정결 예식 <sup>†</sup>을 치르고, 그들의 머리를 미는 <sup>‡</sup>비용을 대신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sup>25</sup>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정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히다**

<sup>26</sup> 바울은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리고 나서 정결 기간이 끝날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뜰로 들어갔다.

<sup>27</sup> 이레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 <sup>‡</sup>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붙잡았다. <sup>28</sup>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성전 뜰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sup>29</sup>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성전 뜰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sup>30</sup> 그래서 온 성이 술렁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성전 뜰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바로 성전 문들이 닫혀 버렸다. <sup>31</sup>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 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인대장 <sup>‡</sup>에게 온 예루살렘이 폭동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sup>32</sup> 천인대장은 곧바로 군인들과 백인대장 <sup>‡</sup>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천인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sup>33</sup> 천인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에게 쇠사슬 두 개로 바울을 묶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바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sup>34</sup>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너무 시끄러워서 천인대장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바울을 군부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sup>35</sup> 바울이 총계까지 끌려갔을 때, 모여든 사람들이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은 그를 둘러메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sup>36</sup> 모여든 사람들은 뒤따라 오면서 “그 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쳐댔다.

<sup>37</sup> 군인들이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인대장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sup>38</sup>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오? 나는 당신

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 명의 자객 <sup>‡</sup>을 이끌고 광야로 간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소.”

<sup>39</sup>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온 유대 사람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는 이름난 도시이고, 나는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sup>40</sup> 천인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에 서서 무리에게 손짓을 하였다.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바울은 아람 말 <sup>§</sup>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울, 사람들에게 말하다**

**22**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네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up>2</sup>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아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훨씬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sup>3</sup> “나는 유대 사람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sup>§</sup>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sup>4</sup> 나는 이 ‘도’ 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sup>5</sup>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 <sup>§</sup>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 지도자들이 다마스쿠스에 사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기의 개종에 대해 이야기하다**

<sup>6</sup>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 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며 나를 둘러쌌습니다. <sup>7</sup>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sup>8</sup>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내가 여쭙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sup>9</sup>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알아듣지 <sup>‡</sup> 못하였습니다.

<sup>10</sup> 내가 여쭙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네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sup>11</sup> 나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sup>12</sup>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 <sup>‡</sup>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sup>13</sup>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사울 형제,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sup>14</sup>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sup>‡‡‡</sup> 자객 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 <sup>§</sup> 아람 말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sup>§</sup> 가말리엘 유대교의 한 종파인 바리새파의 매우 유명한 선생(행 5:34). <sup>‡‡‡</sup> 장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 <sup>‡</sup> 알아듣지 또는 ‘듣지’. <sup>‡‡‡</sup> 아나니아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의 아나니아가 나온다. 다른 두 사람의 아나니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5장 1절과 23장 2절을 볼 것.

† 서원 아마도 나실 사람이 되어 주께 자기를 봉헌하기로 한 맹세인 것 같다. ‘나실 사람’을 찾아 볼 것. †† 정결 예식 나실 사람으로서의 맹세를 끝내기 위해서 치르는 여러 가지 특별한 예식.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또는 ‘...을 신성하게 하다’ 라는 말이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특별한 규율을 지키며 살기로 서원한 사람들이다. 민 6:1-21을 보라. ‡ 머리를 미는 맹세한 기간이 끝났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음. ‡†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다. 15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16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십시오.’

17 얼마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18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 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매질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며 그곳에 서서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1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22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이 자를 없애 버려라.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23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으로 흙을 뿌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24 천인대장 † 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리 지르는 까닭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해 심문하라고 하였다. 25 군인들이 그를 심문하려고 목자, 바울은 그곳에서 있던 백인대장 †† 에게 “당신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일이요?” †† 하고 말하였다.

26 백인대장은 그 말을 듣고 천인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27 천인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28 “나는 많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천인대장이 말하였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29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장 뒤로 물러났다. 천인대장 자신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겁을 먹었다.

### 바울, 유대 사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다

30 다음 날 천인대장은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는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바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 바울은 유대 의회 †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2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3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흰색 회를 덧바른 더러운 벽과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요?”

4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한단 말이요?”

5 바울이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 †† 하고 쓰여 있습니다.”

6 바울은 그들이 한 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 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알고는, 의회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의회가 두 패로 갈렸다. 8 (사두개파는 죽은 사람이, 천사로나 영으로나 다시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는 두 가지를 다 믿기 때문이었다.) 9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선생들 가운데 몇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 큰 소리로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면 어찌시렵니까?”

10 다툼이 너무 격해지자 천인대장 ††† 은 바울이 두 무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길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내어 군부대로 데리고 내려가게 하였다.

11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방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12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맹세하였다. 13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사십 명이 넘었다. 14 그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15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의회는 천인대장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니 바울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 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16 그런데 바울의 조카 †††가 이들이 꾸민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바울에게 그 일을 알렸다. 17 바울은 백인대장 † 한 사람을 불러 부탁하였다. “이 젊은이가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니 좀 데려다 주시오.” 18 그래서 백인대장은 그 젊은이를 데리고 천인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19 천인대장은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그 청년이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내일 바울을 의회 †††로 데려다 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을 더 자세히 심문하려는 척할 것입니다. 21 그러나 그들의 말에 넘어가시면

†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로마 시민을... 일리오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을 재판하기 전에는 때릴 수 없게 되어 있다. †††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 네 백성을... 마라 출 22:28. †††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 조카 글자 그대로는 ‘누이의 아들’.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안 됩니다. 사십 명도 넘는 자들이 바울에게 덤벼들어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께서 자기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2 천인대장은 그 말을 듣고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내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바울, 가이사랴로 보내지다**

23 그리고 나서 그는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 그리고 창병 이백 명을 오늘 밤 아홉 시까지 준비시켜라. 24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들도 준비해 주고, 그를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데려다 주어라.” 25 그리고 나서 천인대장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26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존경하옵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27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 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8 저는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한 까닭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대 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29 저는 그가 유대 사람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으며, 사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 저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각하께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는 각하 앞에 가서 그를 고소하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31 병사들은 명령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32 이튿날 기병들만 남고 다른 보병들과 창병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부대로 돌아갔다. 남은 기병들은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로 갔다. 33 기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그에게 넘겼다. 34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말하자, 35 그는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 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는 바울을 왕궁 안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왕궁은 전에 헤롯왕 1이 지은 건물이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다**

24 **24**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아나니아는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법률가도 데리고 왔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2 이들이 모인 자리에 바울이 불러 나오자, 더둘로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는 각하의 슬기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3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각하께 지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4 긴 말로 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제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는 이 사람이 말썽꾼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종파 11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6 또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 하고 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18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헤롯왕 헤롯대왕. 기원전 40년부터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 †† 나사렛 종파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고 믿는 이들의 종파란 뜻으로 쓰였다. ‡ 6-8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다음과 같은 6 절 뒷부분에서 8절 앞부분까지가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7 그러나 사령관 루

다.” 9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울,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

10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11 각하께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겨우 열이틀 전이었습니다. 12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도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회당이나 그들의 도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13 또 그들은 제가 한 일을 들어 각하께 고발하지만, 각하께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14 그러나 제가 이것은 인정합니다. 곧 제가, 그들이 이단 1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15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앞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저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17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민족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18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성전 뜰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결 예식 11을 마치느라 절차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소동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습니. 19 그 자리에는 아시아 11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각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20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 11 앞에 섰을 때에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21 저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친 일밖에 없었습니다.”

22 벨릭스는 예수의 ‘도’ 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천인대장 1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23 그는 백인대장 1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바울,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다**

24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5 그런데 바울이 바른 생활과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은 이만 돌아가시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당신을 다

1 시아가 와서 역지로 그를 빼앗아 갔습니다. 8 그리고 루시아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1 이단 여기서는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종파를 말한다. 11 정결 예식 나실 사람으로서의 맹세를 끝내기 위해서 치르는 여러 가지 특별한 예식. (행 21:24) 111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1111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1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11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sup>26</sup>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그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sup>27</sup> 두 해가 지나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바울, 시저에게 상소하다**

**25**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왔다. 그는 도착한 지 사흘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sup>2</sup>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sup>3</sup> 그리고 자기들의 청을 들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sup>4</sup>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붙잡아 둘 것이며, 자기가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sup>5</sup>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지도자 몇 사람도 나와 함께 갑시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그를 고발하도록 하시오.”

<sup>6</sup>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겨우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sup>7</sup> 바울이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여러 가지 큰 죄목으로 고발하였지만 그 증거를 대지는 못하였다. <sup>8</sup> 바울은 “저는 유대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시저에 대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였다.

<sup>9</sup>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게 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소?”

<sup>10</sup> 바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지금 시저의 법정에서 있으며, 제가 재판을 받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sup>11</sup> 만일 제가 죄를 지었고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했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두고 고발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저는 시저에게 상소 합니다.”

<sup>12</sup> 베스도는 자기를 돕는 자문 위원들과 의논한 다음 “당신이 시저에게 상소하였으니, 시저에게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 아그립바왕과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sup>13</sup>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립바왕 <sup>†</sup>과 버니게 <sup>‡</sup>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sup>14</sup> 그들이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베스도는 다음과 같이 아그립바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벨릭스가 옥에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sup>15</sup>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 <sup>‡</sup>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sup>16</sup> 나는 그들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sup>17</sup>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

† 상소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높은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 †† 아그립바왕 헤롯 아그립바 2세.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며 헤롯대왕의 증손자였다. ‡ 버니게 아그립바의 누이동생으로서,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큰 딸이었다. †† 장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

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sup>18</sup> 그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내가 기대했던 죄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sup>19</sup> 다만 자기네 종교와 예수라는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할 뿐이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up>20</sup> 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sup>21</sup>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시저에게 상소하며, 시저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그대로 갇혀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시저에게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sup>22</sup> 그러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였다.

**바울, 아그립바왕 앞에 서다**

<sup>23</sup> 다음 날 아그립바와 버니게 <sup>‡</sup>는 잔뜩 위엄을 갖추어 차려 입고는,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불러 들어왔다. <sup>24</sup>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립바왕 전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이 사람을 좀 보아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나 이곳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나에게 고발한 사람입니다. <sup>25</sup>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저에게 상소하자, 그를 시저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up>26</sup> 그러나 시저에게 올릴 편지에, 이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써 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립바왕 전하 앞에 데려다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를 조사하면 무언가 편지에 써 보낼 만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up>27</sup> 죄수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사항을 상세히 적어 보내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6**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하였다. “네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좋다.”

그러자 바울은 앞으로 손을 내밀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sup>2</sup> “아그립바왕 전하,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전하 앞에서 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sup>3</sup> 전하께서는 유대 사람의 관습과 그들이 문제 삼는 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up>4</sup> 모든 유대 사람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제가 제 동족 가운데서 지내던 일과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일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sup>5</sup> 그들은 오래 전부터 저를 알아 왔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제가 우리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sup>6</sup>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sup>7</sup> 이 희망은, 우리 이스라엘 열두 가문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로 그 희망입니다. 전하, 제가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희망 때문입니다. <sup>8</sup>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 버니게 아그립바의 누이동생으로서,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큰 딸이었다.

9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맞서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많은 믿는 이들을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였습니다. 11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벌주고 억지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도 화가 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12 이런 일을 하고 다니던 가운데, 한번은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임무를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13 오, 전하, 제가 한낮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또 저와 같이 가던 사람들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14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말<sup>†</sup>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뽕죽한 물이막대기를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 그래서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16 자,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앞으로 네게 보여 줄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17 나는 너를 네 동족과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18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죄를 용서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할 것이다.’

19 아그립바왕<sup>‡</sup> 전하, 저는 그 하늘의 환상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20 저는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회개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21 바로 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제가 성전 뜰에 있을 때에 저를 붙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2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할 것 밖에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전하지 않습니다. 23 그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그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분이 되어, 우리 백성과 다른 나라 백성 모두에게 빛을 선포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24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25 바울이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참말입니다. 26 여기 계신 아그립바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하께서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 아그립바왕 전하, 전하께서는 예언자들이 기록하여 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전하께서 믿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8 그러자 아그립바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너는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29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은 시간에만 긴 시간에만, 저는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일을 빼고는 저와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 그러자 왕이 일어섰고, 총독과 버니게<sup>‡</sup>와,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31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소.” 3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시저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오.”

###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나다

27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율리오는 백인대장<sup>‡</sup>에게 넘겨졌다. 율리오는 황제 부대에 속한 사람이었다. 2 우리는 아드라뎃데노에서 온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아시아<sup>‡</sup> 연안의 여러 항구를 들르기로 되어 있는 배였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3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내렸는데,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 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4 시돈을 떠나 항해할 때, 우리는 마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섬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였다. 5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6 그곳에서 백인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7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니도라는 곳에 닿았다. 그러나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섬의 남쪽 해안을 끼고, 살모네 곶 앞바다를 지나 항해하였다. 8 우리는 크레테 섬의 해안선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이 항구는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9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으므로, 이제는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금식하는 날<sup>‡</sup>조차 벌써 지나가 버린 때였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10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 배와 배에 실은 짐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치거나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11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12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바다로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다. 피닉스는 크레테 섬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모두 바라보는 곳이다.

### 폭풍을 만나다

13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네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에 바싹 붙어서 크레테 섬을 지나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14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북동풍’이라 불리는 강한 바람이 크레테 섬에서 몰아쳐 내렸다. 15 배가 바람에 휘말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람에 배를 맡기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다. 16 이렇게 가우

† 아람 말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아그립바왕 헤롯 아그립바 2세. 헤롯 아그립바 1세이며, 헤롯대왕의 증손자.

‡ 버니게 아그립바의 누이동생으로서,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큰 딸.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아시아 소아시아 서쪽 지방을 말함. †† 금식하는 날 이날은 속죄의 날로, 유대 사람들이 가을에 지키는 거룩한 날이다. 이때는 바다에 폭풍이 심하게 부는 계절이다.



다라는 작은 섬의 해안을 따라 흘러갈 때에, 그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 우리는 배 뒤에 매여 끌려오던 거룻배 1에 간신히 손을 쓸 수가 있었다. 17 그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 다음, 밧줄을 배 밑으로 돌려 선체를 단단히 동여매었다. 그런 다음 배가 시르티스 11의 모래톱에 얽혀 꼼짝 못 하게 될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배가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 18 이튿날 심한 폭풍에 시달리다 못해 그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였다. 19 그리고 셋째 날에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배의 도구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자,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 희망을 잃었다.

21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크레테 섬에서 떠나지 말자고 한 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손해와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이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배만 잃게 될 것입니다. 23 어젯밤 천사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24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시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려 주실 것이다.’ 25 그러니 여러분은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6 그러나 우리 배는 어떤 섬에 걸려 꼼짝 못 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27 열나흘째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해 1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다. 한밤중쯤에 선원들은 우리가 탄 배가 물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8 그들이 물 속으로 추를 내려 보니 스무 길 11이 있었다. 조금 뒤에 그들이 다시 추를 내려 보니 열다섯 길 11이었다. 29 그들은 암초에 걸리거나 얹을까 두려워서 배 뒤쪽의 닻을 네 개 내리고 어서 날이 새기를 빌었다. 30 선원들은 도망치려고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31 바울은 백인대장 11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입니다.” 32 그러자 병사들이 밧줄을 잘라서 거룻배를 멀리 떠가게 하였다.

33 막 날이 새려고 할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째 음식도 못 먹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34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한 올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36 그러자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 37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 있었다. 38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남은 곡식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었다.

**배가 부서지다**

39 날이 밝자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배를 거기에 대기로 하였다. 40 그래서 그들은 닻줄을 끊어 닻이 바다에 가라앉게 하고는, 키를 묶어 놓은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배 앞머리의 돛을 올려 바람을 타

† 거룻배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여기서는 구명용 보트를 말한다. †† 시르티스 리비아 가까이에 있는 얇은 바다. ‡ 아드리아 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와 지중해 중간 부분을 포함한 바다. †† 스무 길 약 37미터. †† 열다섯 길 약 27미터.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고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41 그러나 배가 모래톱에 걸려 꼼짝 못 하게 되어 버렸다. 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세찬 파도에 깨져 버렸다.

42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다. 43 그러나 백인대장 11은 바울을 살릴 생각으로 병사들의 뜻을 꺾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배 밖으로 뛰어 내려 물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44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붙들고 물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무사히 물에 올랐다.

**바울, 몰타 섬에 오르다**

28 우리가 물에 안전하게 오른 다음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비가 내렸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우리를 맞아 주었다. 3 그때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으려 하자,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매달렸다. 4 섬사람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 두지 않는구나!” 라며 서로 말하였다. 5 그러나 바울은 뱀을 털어 불 속에 던져 버렸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6 그들은 바울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였다.

7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우두머리 어른인 보블리오의 땅이 있었다. 그는 매우 친절하여,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손님으로 잘 대접해 주었다. 8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었다. 9 그런 일이 있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10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존경을 표시하였고, 우리 배가 떠날 때에는 우리가 쓸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바울, 로마로 가다**

11 우리는 석 달을 지낸 다음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의 이름은 ‘쌍둥이 신’ 1이었다. 그 배의 뱃머리에는 쌍둥이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12 우리는 수라구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13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 우리는 그 다음 날 보디올에 닿았다. 14 우리는 그곳에서 몇몇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간청으로 이레 동안 함께 지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로마에 가게 되었다. 15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 1과 ‘세 주막 마을’ 11까지 마중을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바울, 로마에서 선교 활동하다**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쌍둥이 신 그리스어로는 ‘쌍둥이 신’이라는 뜻의 ‘디오스구로’. §† 아피온 광장 로마에서 64.5킬로미터 떨어진 광장. §†† 세 주막 마을 그리스어로는 ‘트레스 마을’. 로마에서 45.9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17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18 로마 사람들은 나를 조사하고 나서 놓아 주려 하였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저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 †의 희망 때문입니다.”

21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아무런 편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당신에 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전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22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반대의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23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증언하였으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 가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24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으나, 어떤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25 그들이 서로 뜻이 맞

†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26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27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 버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 줄 터인데!’ ††

2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29 †

30 바울은 자기의 셋방에서 꼬박 두 해를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들였다. 31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 사 6:9-10. † 29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29절이 있다. “바울이 말을 마치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떠나갔다.”

# 로마서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 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오래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sup>1</sup>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아드님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 <sup>2</sup>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4**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때로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 내가 <sup>3</sup>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이방 사람 <sup>4</sup>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6** 여러분 자신도,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드는 사람들입니다.

**7**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sup>8</sup>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감사의 기도

**8**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드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10**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거둔 것과 같은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14** 나는 헬레니즘 문명권에 드는 사람 <sup>1</sup>에게나 그 문명권에 들지 못하는 미개인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기

<sup>1</sup> 성경 구약 성경. <sup>2</sup>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sup>3</sup> 내가 글자 그대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울이 공적 입장에서 쓰느라고 '나' 대신에 '우리' 라고 썼으리라고 생각한다. <sup>4</sup>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sup>5</sup>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른다. <sup>6</sup> 헬레니즘 문명권에 드는 사람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 사람'.

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15**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애타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6** 나는 기쁜 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sup>18</sup> 라고 한 성경 <sup>9</sup> 말씀과 같습니다.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18**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치시려는 것입니다. **19**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만한 것은 너무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sup>10</sup> 같은 하나님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탄한 데로 빠지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2**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어리석습니다. **23** 그래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우상을 택하였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욕정에 빠져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데에 그들을 넘겨 버리셨습니다. **25** 그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버리고, 그것 대신 거짓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에 그들을 넘겨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 관계는 버리고, 다른 여자들과의 부자연스러운 성 관계를 택하였습니다. **27**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 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른 망측한 짓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습니다.

**28**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네의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

<sup>1</sup> 의인은...살 것이다 합 2:4. <sup>2</sup> 성경 구약 성경. <sup>3</sup> 신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는 데에 그들을 넘겨 버리셨습니다. 29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욕심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살기와 다툼과 사기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30 서로를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잘난 체합니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31 그들은 분별력도, 신의도, 따뜻한 마음씨도, 자비도 없습니다. 32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짓을 계속하여 저지를 뿐 아니라,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

2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누구이든지간에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점을 두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든지, 당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4 또는 당신을 회개 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 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십니까? 5 당신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벌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에 그 벌을 받을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8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좇으며 진리를 마다하고 악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내릴 것입니다. 9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이방 사람 10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10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2 율법 11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하다고 판결을 내려 주실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4 이방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율법을 모를 지라도,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됩니다. 15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과 꼭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양심 또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때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때로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16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터인데,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

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유대 사람과 율법

17 그러면,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18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안다고 자신합니다. 19 당신은 자신이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의 빛이며, 20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에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1 그런 당신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22 사람들에게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당신이 간음죄를 짓습니까? 우상을 미워하는 당신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23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당신이 바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4 그것은, “너희 유대 사람들 때문에,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25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25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당신이 받은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어기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26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할례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27 당신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28 겉으로 보기에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29 속마음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참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단순히 율법에 적합한 문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3 그렇다면, 유대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할례에 어떤 이로우미 있습니까? 2에,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름 아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3 어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4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성경 11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옳으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당신이 법정에서 서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12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5 우리가 저지르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논쟁하는 방식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6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 회개 이때까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을 뜻한다. †† 각 사람에게...것입니다 사 62:12; 잠 24:12.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율법 또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 너희...당한다 사 52:5; 겔 36:22. †† 성경 구약성경. ††† 시 51:4.

7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허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욱 드러내서 그분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간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 받아야 하는가?” 8 그렇다면 아예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9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 이나 똑같이 모두 죄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10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11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 모두가 주께 등을 돌리고,  
 다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버렸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일삼는다.” ‡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른다.” ‡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미움의 말로 가득 차 있다.” ‡‡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16 간 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17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 ‡‡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

19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으며, †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21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모두 받아 주셨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습

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확실한 징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6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분명한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 사는 사람을 받아 주시는 바로 그 행위에 있어서 당신께서 공정하시려는 것입니다.

27 그렇다면 자랑할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8 우리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 주심을 얻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9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대 사람 ††를 받아 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방 사람 †도 믿음을 통하여 받아 주실 것입니다. 31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율법을 없애 버립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모범**

4 그렇다면 우리는, 육에 따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행위를 보시고 받아 주셨다면, 그는 한번 자랑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3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4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받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보수로 여겨집니다. 5 그러나 일은 하지 않으나, 악한 사람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십니다. 6 다윗 †††도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7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8 주께서  
 그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8

9 그렇다면 이러한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0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받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입니까, 아니면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까. 11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으로써, 할례라는 표적 19을 받았습니. 그렇다면 그는 믿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하나님을 찾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과 지시를 구한다는 뜻인 경우가 있다. † 시 14:1-3. †† 시 5:9. ††† 시 140:3. †††† 시 10:7. †††† 사 59:7-8. § 시 36:1. §† 아무도...없으며 글자 그대로는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는 ‘예수의 믿음으로’. §†† 유대 사람 글자 그대로는 ‘할례 받은 자들’. §† 이방 사람 글자 그대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 아브라함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람의 조상. §††† 그렇다면...말해야겠습니까 또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육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 아브라함이...주셨다 창 15:6. §§§ 다윗이 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18 시 32:1-2. 19 표적 겹으로 드러난 형적.

으면서도 할례는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아 줄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려는 것입니다.<sup>12</sup>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좇아 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 믿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sup>13</sup>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sup>14</sup>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면, 믿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sup>15</sup>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sup>16</sup> 그러므로 이 약속은 믿음에 그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곧 모세의 율법을 믿고 받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sup>17</sup> 성경 10에도 “나는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sup>18</sup>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sup>18</sup> 아브라함이 자손을 가지게 되리라는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sup>19</sup>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sup>19</sup>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백 살이어서,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sup>20</sup>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sup>21</sup>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sup>22</sup>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sup>23</sup>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sup>24</sup>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을 믿는 우리도 받아 줄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sup>25</sup>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시다.

### 하나님과의 화해

**5**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sup>2</sup>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 성경 구약 성경. †† 민족의 또는 ‘이방 사람’의. † 나...삼았다 창 17:5. †† 네 자손이...많아질 것이다 창 15:5. †† 하나님께서...여기셨습니다 창 15:6.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기뻐합니다.<sup>3</sup> 더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려면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고,<sup>4</sup> 인내는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sup>5</sup>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sup>6</sup>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악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sup>7</sup>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을 사람이 어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sup>8</sup>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sup>9</sup>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sup>10</sup>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sup>11</sup>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 아담과 그리스도

<sup>12</sup>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sup>13</sup>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을 때에는, 죄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지 않습니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아담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sup>15</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쳤습니다.<sup>16</sup>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심판이 뒤따랐지만, 많은 죄에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선물이 뒤따랐습니다.<sup>17</sup>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살아서 다스리겠습니까!

<sup>18</sup> 아담이 한 번 지은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sup>19</sup>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sup>20</sup> 율법이 들어오자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였습니다.<sup>21</sup> 전에는 죄가 죽음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 다스리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 죄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6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은혜를 베푸시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sup>2</sup>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sup>3</sup>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시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sup>4</sup>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sup>5</sup>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sup>6</sup>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의 몸의 세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놓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7</sup> 죽은 사람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sup>8</sup>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시다. <sup>9</sup>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게 그분을 다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sup>10</sup>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sup>11</sup>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들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sup>12</sup>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몸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sup>13</sup>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로 쓰이게 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sup>14</sup> 죄가 더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종들

<sup>15</su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sup>16</sup>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sup>17</sup> 전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훈의 본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 본을 따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up>18</sup> 여러분은 죄에서 풀려나서 의로운 행실의 종이 되었습니다. <sup>19</sup> 나는 사람의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본성으로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성적인 불결함과 불순종의 종으로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sup>20</sup>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sup>21</sup> 그 시절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sup>22</sup>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워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sup>23</sup>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 결혼의 예

7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리는데, 법이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sup>2</sup>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결혼법에서 풀려납니다. <sup>3</sup>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법은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결혼법에서 자유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sup>4</sup>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5</sup> 지난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만을 따라 살 때에는, 죄로 가득 찬 여러 열정이 우리 몸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였습니다. 이 열정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sup>6</sup> 지난날 우리는 법에 얽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놓여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글로 쓰인 율법이 지시하는 옛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 죄와의 싸움

<sup>7</sup>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sup>†</sup> 하는 계명 <sup>‡</sup> 이 없었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sup>8</sup> 그런데 죄는, 이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내 속에 온갖 탐욕을 낳았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sup>9</sup> 전에 나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되살아나고 <sup>10</sup>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져다주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계명이 실제로는 죽음을 가져다주었음을 알았습니다. <sup>11</sup> 죄는 그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를 속였으며, 또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죽였습니다.

<sup>12</sup>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sup>13</sup> 그러면

<sup>†</sup> 탐내지 마라 출 20:17; 신 5:21. <sup>‡</sup> 계명 율법 가운데 주로 십계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선한 것이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것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그 계명을 이용함으로써 완전히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14 우리는 율법이 성령계로부터 나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16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17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18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인간적인 본성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힘은 없습니다. 19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악한 일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20 그러니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21 여기에서 나는 이런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할 때에는, 악도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2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 그러나 내 몸 속에는 또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 이성의 법과 싸웁니다. 내 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 24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을 운명에 놓인 이 몸에서 구해 내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매인 종이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매인 종입니다.

### 성령 안에서의 삶

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 †를 받지 않습니다. 2 그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당신 ‡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사람의 본성 때문에 힘을 잃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결 제물 †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입으신 사람의 몸을 써서 죄를 정죄하고 벌하셨습니다. 4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룹니다.

5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6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가짐은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7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8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정죄 죄가 있다고 판결 받는 것. †† 당신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나'라고 되어있음. ‡ 정결 제물 다른 번역판에서는 '속죄 제물'로 번역함.

9 그러나 하나님의 영 †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 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 빛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3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저지르는 행실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14 하나님의 영 †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 아버지!" 라고 외칩니다. 16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17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누리려면, 그분의 고난 또한 나누어 겪어야 합니다.

### 우리는 미래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18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 주실 영광과 견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9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누가 참 당신의 자녀들인가를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21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죽음과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된 자유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2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처럼, 지금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3 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 첫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4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겠습니까? 25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을성 있게 그것을 기다립니다.

26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음 소리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 주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

†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 아바 '아빠'라는 뜻의 아람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정다운 말.



살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8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만이 1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받아 주시며, 받아 주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1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3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 주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어찌 아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33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고소 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받아 주신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겠습니까? 34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소하시겠습니까? 35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 卍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36 성경 卍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의 위험에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죽임을 당할 양처럼 하찮게 여깁니다.” 卍

37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 천사들이나 다스리는 영들이나, 현재의 어느 것도, 미래의 그 무엇도, 어떤 능력도, 39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 하나님과 유대 민족

9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내 양심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2 곧, 내게는 내 동족 때문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들은 내 형제자매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 동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당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4 내 동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과 성전 예배와 하나님

† 만이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나누어 가지신 분이라는 뜻일 것이다. †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 † 성경 구약성경. † 시 44:22.

의 약속들을 받았습시다. 5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卍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7 그리고 아브라함 卍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에서 난 사람만이 네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卍라고 하셨습니다. 8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연적으로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卍

10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1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卍 하나님께서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바탕을 둔 당신의 계획이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바탕을 둔 것입니다. 13 성경 卍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卍

14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하시다고 하겠습니까?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卍16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구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17 성경이 이 집트 왕 파라오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 주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卍18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에는 자비를 베풀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고집스럽게 만드십니다.

19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트집 잡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습니까?” 20 그러나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니,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흙 항아리가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卍21 옹기장이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한 덩이로는 특별한 일에 쓸 그릇을 만들고, 나머지 한 덩이로는 보통으로 쓸 그릇을 만듭니다.

22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卍 그리스도는...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卍† 아브라함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卍† 이삭의...불릴 것이다 창 21:12. § 이듬해...있을 것이다 창 18:10, 14. § 형이...섬길 것이다 창 25:23. §† 성경 구약성경. §† 내가...미워하였다 말 1:2-3. §† 나는...불쌍히 여기겠다 출 33:19. §† 나는...알리려는 것이다 출 9:16. §† 진흙 항아리가...말할 수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어 판에 나오는 이사야 29장 16절.

할 사람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sup>23</sup>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보여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sup>24</sup>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sup>25</sup> 호세아의 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었던 그 여자를  
‘내 사랑’이라 부르리라.” ††

<sup>26</sup>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  
<sup>27</sup> 이사야도 이스라엘 †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하더라도,  
오직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sup>28</sup> 이는,  
하나님께서 빠르고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sup>29</sup>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손을 조금 남겨 두셨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고모라 ††처럼 되었을 것이다.” †††

<sup>30</sup>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sup>31</sup>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짓는 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sup>32</sup> 어찌하여 얻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여기고 그 법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sup>33</sup>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 §에,  
사람들의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 †를 둔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10**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sup>2</sup>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sup>3</sup>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sup>4</sup>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sup>5</sup>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이들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에 관하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아라.” §† (그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sup>7</sup> “또는 ‘누가 지하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sup>8</sup> 그러면 성경 §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다. 그분의 말씀은 네 입 속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sup>9</sup>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sup>10</sup>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sup>11</sup> 성경은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sup>12</sup> 성경이 ‘누구든지’ 한 것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 사이 아무런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sup>13</sup> 성경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up>14</sup> 그러나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sup>15</sup>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sup>19</sup> 라고 쓰인 것과 같습니다.

<sup>16</sup>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기쁜 소식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sup>2017</sup>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sup>18</sup>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성경 <sup>21</sup>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 <sup>22</sup>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호 2:23. † 호 1:10. †† 이스라엘 유대 나라(민족). †† 사 10:22-23. †††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도 악하여 하나님이 파멸시킨 도시들 (창 19). ††† 사 1:9. § 시온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 § 돌, 바위 이사야서 8장 14-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인 하나님을,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쓰였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태복음 21장 42절과 비교할 것). 우리는 그 돌(그리스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 사 8:14; 28:16.

§‡ 이것들을... 살 것이다 레 18:5. §††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지 말아라 신 30:12-13. §† “또는... 말하지 말아라 신 30:12-13. §‡ 성경 구약성경. §‡†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속에 있다 신 30:14. §‡† 누구든지... 않을 것이다 사 28:16. §§§ 이방 사람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 사람’. 여기에서 ‘그리스 사람’은 모든 이방 사람, 곧 유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sup>18</sup> 주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율 2:32. <sup>19</sup> 기쁜 소식을... 반가운 일인가 사 52:7. <sup>20</sup> 주여!... 믿었습니까 사 53:1. <sup>21</sup> 성경 구약성경. <sup>22</sup> 시 19:4.

19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족이 아닌 자들을 써서 너희가 샘내게 하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을 써서 너희가 화내게 하겠다.” †

20 그리고 이사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 보였다.” ††

21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려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구나!”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11**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2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 엘리야 †에 관한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3 “주님, 사람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 †도 헐어 버렸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칠천 명의 사람을 남겨 두었다. 그들은 나를 섬기며 바알 §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6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7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찾으려 했던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8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셨다.” ††

“그리하여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

9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게 하시고,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이 되고 천벌이 되게 하십시오. 10 그들의 눈을 감기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에 짐을 지워 언제나 짊어지고 다니게 하십시오.” ††

11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디며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헛디딤 때문에 이방 사람 †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새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12 그들의 헛디딤으로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손실로 이방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13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보낸 사도로, 내가 맡은 일을 널리 알리려고 애씁니다. 14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시새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15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실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16 하나님께 드린 밀가루 반죽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남은 밀가루 반죽도 모두 거룩합니다. †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모두 거룩합니다.

17 참울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고서, 그 자리에 돌올리브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참울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8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 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가지인 여러분이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19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참울리브나무에 접붙이려고 저 가지들을 잘라 냈다.” 20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 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붙인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21 하나님께서 참울리브나무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2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따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에게는 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자비로우심 안에 머물 때에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 나갈 것입니다. 23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하여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 여러분은 본성이 야생인 돌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참울리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참울리브나무 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참울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25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깨우쳐 주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

† 신 32:21. †† 사 65:1. † 사 65:2. † 성경 구약성경.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칠 때 쓰기 위해 돌로 쌓아 만든 단. ††† 주님... 찾고 있습니다 왕상 19:10, 14. §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거짓 신의 이름. §† 내가... 사람들이다 왕상 19:18. §†† 사 29:10. §† 신 29:4.

§†† 시 69:22-23.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하나님께 드린... 거룩합니다 민수기 15장 20절을 볼 것.

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만 그렇습니다. <sup>26</sup> 그리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온 <sup>†</sup>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니,  
그가 야곱 <sup>‡</sup>에게서 모든 악을 떨어 버리실 것이다.

<sup>27</sup>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 <sup>‡</sup>

<sup>28</sup>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 때문입니다. <sup>29</sup>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두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백성을 한 번 택하시면 그 결정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sup>30</sup>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sup>31</sup>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보고 그들도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32</sup>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 찬양을!

<sup>33</sup> 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도 크신지요! 그분의 판단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심오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sup>34</sup>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sup>‡</sup>

<sup>35</sup> “누가 주님께 선물을 드렸기에,  
그분에게서 보답으로 받을 선물이 있었습니까?” <sup>‡‡</sup>

<sup>36</sup>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12**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sup>2</sup> 더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sup>3</sup>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각기 다른 믿음의 몫에 따라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sup>4</sup>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꼭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sup>5</sup>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각기 그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sup>6</su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선물이 예언 <sup>‡‡</sup>의 능력이면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십시오. <sup>7</sup> 섬기는 능력이면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능력이면 가르치십시오. <sup>8</sup> 격려하는 능력이면 격려하십시오. 베푸는 능력이면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지도하는 능력이면 부지런히 다스리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능력이면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sup>9</sup>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의 편에 서십시오. <sup>10</sup>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자신보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sup>11</sup>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sup>12</sup>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니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sup>13</sup>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sup>14</sup>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sup>15</sup>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sup>16</sup>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sup>17</sup>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조심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sup>18</sup>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sup>19</sup>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줄 것이다.’” <sup>§20</sup> 오히려 “네 원수가 배고플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원수가 목말라할 때에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쌓는 것 <sup>‡‡</sup>이 된다.” <sup>§‡‡</sup>라고 하였습니다. <sup>21</sup>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십시오.

###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13** 모든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sup>2</sup> 그러므로 권세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 것에 반항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sup>3</sup>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sup>4</sup> 통치자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sup>5</sup> 그러므로 받게 될지도 모를 벌이 무서워서뿐만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sup>6</sup> 또한 양심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을 바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일에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sup>7</sup>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모두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십시오. 조공을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sup>‡‡‡</sup>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sup>§</sup> 주께서 말씀하신다...갚아 줄 것이다 신 32:35. <sup>§†</sup>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쌓는 것 여기에서 의미지는 원수 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sup>§††</sup> 네 원수가...쌓는 것이 된다 잠 25:21-22.

† 성경 구약성경. ‡ 시온 예루살렘. † 야곱 이스라엘 열두 가문의 조상. ‡ 사 59:20-21; 27:9. ‡ 사 40:13. ‡† 욥 41:11.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존중히 여기십시오.

####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율법이다

<sup>8</sup> 어느 누구에게도 진 빛을 갠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빛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sup>9</sup>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이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sup>10</sup>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sup>11</sup>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sup>12</sup> 밤 †이 거의 다 지나고, 낮 †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sup>13</sup>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처신합시다. 진탕 먹고 마시는 연회나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sup>14</sup>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맙시오.

####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14**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그를 비판하지 맙시오. <sup>2</sup>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맙시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sup>4</sup> 당신이 누구에게도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 종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 틀림없이 설 것입니다.

<sup>5</sup>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저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up>6</sup> 어느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up>7</sup>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sup>8</sup>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sup>9</sup>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의 주도 되고 산 사람의 주도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sup>10</sup>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정죄합니까? 어찌하여 여러

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알보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sup>11</sup> 성경 †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살아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

<sup>12</sup>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아라

<sup>13</sup>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 대신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sup>14</sup>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합니다. <sup>15</sup> 당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그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지 맙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sup>16</sup>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sup>17</sup>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른 처신과,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화평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있습니다. <sup>18</sup>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sup>19</sup>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는 일과 서로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입니다. <sup>20</sup> 음식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sup>21</sup> 여러분이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밖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up>22</sup> 이런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로 해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맙시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sup>23</sup> 그러나 의심을 가진 채 먹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15** 믿음이 튼튼한 우리는, 우리 종을 대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sup>2</sup>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하여 그를 기쁘게 해 주고, 그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sup>3</sup>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을 제가 받았습시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sup>4</sup> 옛날에 쓰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음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성경 구약 성경 § 사 45:23. §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글자 그대로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 당신을... 받았 습니다 시 69-9.

† 간음하지...탐내지 마라 출 20:13-15, 17. †† 네 이웃을...사랑하여라 레 19:18. † 밥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의 상징으로 쓰였다. †† 낮 앞으로 다가올 좋은 시대의 상징으로 쓰였다. †† 어떤 사람은...먹습니다 유대의 율법은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유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고 나서도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는 ‘고기를 먹는 사람’.

5 이러한 인내와 격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6 그리하여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8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9 그것은 또한 이방 사람 †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

10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

11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미하여라.” †††

12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 †의 자손이 일어나리니,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분이사라.  
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

13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온갖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에게서 희망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 바울,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14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5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문제들에 관한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16 이방 사람 가운데서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8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해 오신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말과 일을 통해서, 19 그리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 ††에 이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시 18:49. †† 신 32:43. †† 사 117:1. ††† 이새 다윗의 아버지. ††† 사 11:10. ††† 일루리곤 남쪽

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20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이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21 성경 §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

###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

22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 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일을 끝내야 하겠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23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제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던 터여서, 24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려 합니다.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얼마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즐거움을 누린 뒤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5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26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27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저는 그들에게 이 돈을 안전하게 전한 뒤에 스페인으로 가려 하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29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넉넉한 복을 가득 가지고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3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내가 힘쓰는 일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을 그곳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 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2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3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바울의 마지막 부탁

16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매 되는 피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답게, 주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준 큰 후원자입니다.

3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4 그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쁜 아니라 이방 사람 §†의 교회들이 모두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5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으로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서쪽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아드리아 해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 § 성경 구약성경. §† 사 52:15.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도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sup>6</sup>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7</sup>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로,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교사들이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sup>8</sup>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9</sup>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꾼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친구인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10</sup>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불로의 집안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11</sup>나와 같은 유대 사람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스의 집안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12</sup>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입니다. <sup>13</sup>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어 그분은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sup>14</sup>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15</sup>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16</sup>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17</sup>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믿음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sup>18</sup>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

† 선교사들이고 글자 그대로는 ‘사도들이고’.

람들을 속입니다. <sup>19</sup>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sup>20</sup>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의 발아래에서 사탄을 짓눌러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sup>21</sup>나와 같이 일하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22</sup>바울의 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sup>23</sup>나와 온 교회에 자기 집을 내주어 쓰게 하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린도 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24</sup>††

<sup>25</sup>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셨습니다. <sup>26</sup>이제는 그 비밀이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도 믿고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sup>27</sup>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 24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라는 24절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사본에는 20절 끝에 있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부분이 없다. ‡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25-27절이 없거나, 14장 23절이나 15장 33절 뒤에 온다. 또 어떤 사본에는 24절이 27절 뒤에 온다.

# 고린도전서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 당신의 거룩한 †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 바울,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4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나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종류의 말과 모든 지식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6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한 것이 사실임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명되었습니다. 7 이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온갖 선물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8 또한 주께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굳세게 견딜 수 있도록 지켜 주시어,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9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여러분을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사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 고린도교회의 문제

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어떤 편 가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목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11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 집안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폴로 ††의 제자다.” “나는 게바 ††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3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져 여러분에게 한 조각씩 분배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4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를 빼고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5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 (참, 스

† 거룩한 또는 ‘순결하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 아폴로 아폴로에 관한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을 볼 것. ††† 게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 둘 다 바위라는 뜻이다.

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17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세련된 말씀씨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스도께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18 십자가에 관한 소식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 성경 †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 †

20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21 세상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은’ 소식 ††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2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원합니다. 23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이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 ††에게는 어리석은 소리일 뿐입니다. 24 그러나 유대 사람이거나 이방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약함’ 도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26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사람이나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27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 또 무엇이나 된 척하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9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 죄에서 놓여나게 해 주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 성경 구약성경. †† 사 29:14. ††† 소식 또는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악과 죄와 죽음과 거짓 신들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소식.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거룩한 거룩한 사람은 순수하고 하나님께만 속한다.



31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여라.” †

###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2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저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2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분의 죽음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3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서 무척 떨었습니다. 4 나의 가르침과 설교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 준 증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5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지혜

6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도 지혜로운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할 자들인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7 우리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8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9 성경 †에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어떤 귀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 ‡

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11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곧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14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나, 자신은 어떤 사람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16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충고를 할 수 있겠느냐?” †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 사람을 따르는 것이 죄이다

3 형제자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3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시샘과 다툼이 있다니, 여러분을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제자다.” 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라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5 도대체 아폴로 ‡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믿도록 도운 주의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6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그 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8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같은 목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일한 만큼 상을 받을 것입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10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숙련된 건축가처럼 그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각 사람은 조심스럽게 잘 지어야 합니다. 11 누구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와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 사람들은 저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13 그러나 그날 †이 오면, 저마다 집을 지은 솜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불과 함께 올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시험할 것입니다. 14 자기가 지은 집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15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이 타 없어진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타는 집에서 간신히 빠져 나오는 사람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16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8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19 이 세상의 슬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로 잡으신다.” §20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슬기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21 그러니 누구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따른

‡ 아폴로 아폴로에 관한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을 볼 것.

††† 그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날. ††† 거룩하게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 성경 구약 성경. §† 하나님께서는...잡으신다 욥 5:13. §†† 주께서...아신다 시 94:11.

† 누구든지...자랑하여라 렘 9:24. †† 성경 구약성경. ‡ 사 64:4. †† 사 40:13.

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sup>22</sup> 바울도, 아폴로 <sup>†</sup>도, 게바 <sup>‡</sup>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삶과 죽음도, 현재와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sup>23</sup>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사도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sup>2</sup> 무엇을 맡은 관리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sup>3</sup> 여러분이 나를 심판하든, 세상의 법정이나 나를 심판하든, 나는 조금도 상관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sup>4</sup> 나는 양심에 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내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sup>5</sup> 그러니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저마다 적절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sup>6</sup>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아폴로 <sup>‡</sup>와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쓰인 것을 넘지 말아라.” <sup>‡</sup>라는 말의 뜻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편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뽐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sup>7</sup> 누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 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sup>8</sup> 여러분은 벌써 바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부자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쳐 놓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왕이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왕 노릇 좀 해 볼 수 있겠습니까. <sup>9</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도들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형수들처럼 내놓으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뿐 아니라 천사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sup>10</sup>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예를 누리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sup>11</sup>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up>12</sup>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 박해를 참고 견뎌냅니다. <sup>13</sup>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는 땅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sup>14</sup>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타일러 잘못을 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5</sup>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스승은 만 명이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가 되었습니다. <sup>16</sup>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sup>17</sup> 이 일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생활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sup>18</sup>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sup>19</sup>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가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을 잘 하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sup>20</sup> 하나님의 나라는 웅변적인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sup>21</sup>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 문제

**5** 여러분 가운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를 우리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방 사람 <sup>‡</sup>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sup>2</sup>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심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데, 사실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히 여러분 가운데서 쫓겨나야 합니다. <sup>3</sup> 비록 내가 몸으로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자리에 모이십시오. 나도 영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도 여러분과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하실 것입니다. <sup>5</sup> 그때에 여러분은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사탄 <sup>‡‡</sup>에게 내주어, 죄로 가득 찬 그의 본성이 멸망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up>6</sup>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적은 누룩 <sup>‡‡‡</sup>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sup>7</sup> 여러분은 묵은 누룩은 다 던져 버리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 <sup>§</sup>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sup>‡‡‡‡</sup>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임을 당해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입니다. <sup>8</sup>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sup>9</sup> 나는 지난번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sup>10</sup> 그러나 이 세상의 부도덕한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sup>11</sup>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쓰는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나 자매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

† 아폴로 아폴로에 관한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을 볼 것. †† 게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 둘 다 바위라는 뜻이다. ‡ 아폴로 아폴로에 관한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을 볼 것. ‡† 쓰인 것을 넘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성경에 쓰인 말씀의 범위를 넘지 말아라.” 라는 뜻일 수도 있고, “글씨 쓰기를 배우는 사람을 위해 본보기로 써 놓은 글자를 따라 쓸 때에, 본보기 글자 너머로 쓰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사탄 악마를 일컫는 말.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한다. ‡‡‡ 누룩 여기서는 악이나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쓰였다. § 유월절 빵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한다. 바울은 유월절 빵에 누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 유월절 양 유대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잡는 양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제물이었다.

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남을 헐뜯거나, 술에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한 자리에서 먹지도 마십시오.

<sup>12</sup>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sup>13</sup>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도 “너희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라.”<sup>†</sup>고 말합니다.

### 믿는 이들 사이의 문제를 판가름하기

**6**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믿는 형제와 다툼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성도들 앞에 내놓지 않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부패한 판사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한다면,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합니까? <sup>2</sup>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이런 작은 일도 판가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sup>3</sup>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일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않겠습니까? <sup>4</sup> 그러니 여러분 사이에 일상의 일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sup>5</sup>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판가름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sup>6</sup> 그래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소송을 걸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판가름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sup>7</sup> 여러분이 서로를 걸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완전한 실패를 뜻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나 사기를 당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sup>8</sup>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남들에게 억울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sup>9</sup> 여러분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 우상 섬기는 자, 간음<sup>††</sup>하는 자, 남창,<sup>‡</sup> 동성 연애자,<sup>‡‡</sup> 도둑, 탐욕스러운 자, 술주정뱅이, 남을 헐뜯어 말하는 자, 남을 속여 빼앗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sup>11</sup>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sup>‡‡‡</sup>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sup>12</sup> 여러분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라고 나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sup>13</sup> 여러분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배도 음식도 다 없애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부도덕한 성 관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sup>14</sup>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 너희... 쫓아내라 신 22:21, 24.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짓. ‡ 남창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내주어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남자. ‡‡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은 순결하고, 하나님께만 속한다.

<sup>15</sup>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한 부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sup>16</sup> 몸 파는 여자와 성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그 여자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경 #에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sup>‡‡‡</sup>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sup>17</sup> 그러나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람은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sup>18</sup> 그러니 부도덕한 성 관계는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몸에도 죄를 짓습니다. <sup>19</sup> 여러분의 몸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sup>20</sup>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 결혼에 대하여

**7** 이제 여러분이 내게 편지로 물어 온 여러 가지 물음에 답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편지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sup>2</sup> 그러나 부도덕한 성 관계가 너무 많으니,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남편을 두십시오. <sup>3</sup> 그리고 부부 사이의 성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sup>4</sup>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sup>5</sup> 남편이나 아내가 된 사람은 서로에게 자기의 몸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얼마 동안 관계를 가지지 않기로 서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다스릴 힘이 없어 사탄<sup>‡‡‡</sup>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곧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sup>6</sup> 내 말은, 부부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sup>7</sup>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sup>8</sup>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홀어미들에게는, 그들도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sup>9</sup> 그러나 그들이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없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sup>10</sup>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sup>11</sup> 만일 아내가 남편과 헤어진다면, 다시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 전 남편과 화해하고 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sup>12</sup>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만일 그 여자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sup>13</sup> 그리고 믿음을 가진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는 남편과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sup>14</sup>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

‡‡ 성경 구약 성경. ‡‡‡ 두 사람이... 것이다 창 2:24. ‡‡‡ 사탄 악마를 일컫는 말.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한다.

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정할 † 터인데, 이제 그들은 모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sup>15</sup> 그러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 쪽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나 자매가 더는 결혼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sup>16</sup> 아내 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sup>17</sup> 여러분은 다만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곧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sup>18</sup>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할례 받은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up>19</sup>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sup>20</sup> 그러므로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sup>21</sup>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인이 될 기회가 생기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sup>22</sup> 주께서 부르셨을 때 노예였던 사람은, 지금은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은, 지금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sup>23</sup> 주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sup>24</sup>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 결혼하는 문제

<sup>25</sup> 이제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sup>26</sup> 지금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sup>27</sup> 당신이 결혼하여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내에게서 놓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여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내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sup>28</sup>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이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sup>29</sup>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sup>30</sup> 슬픔이나 기쁨이나 재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sup>31</sup> 세상의 물건들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잘 이용하되, 그것들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은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32</sup> 나는 여러분이 걱정거리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과,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에만 마음을 씁니다. <sup>33</sup>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sup>34</sup>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몸과 영이 깨끗하게 되려

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세상일과,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해 주는 데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sup>35</sup>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잘살고, 다른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며 자신을 완전히 주께 헌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36</sup> 만일 어떤 이가 자기가 약혼한 처녀에게 온당치 못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그의 욕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 다스릴 수 없는데다 그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두 사람은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sup>37</sup> 그러나 어떤 이가 결혼하지 않기로 한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꼭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마음으로 자기의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처녀로 두기로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sup>38</sup> 그러므로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sup>39</sup>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이와 결혼해야 합니다. <sup>40</sup>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런 여자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관하여

**8**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에 관하여 쓰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 자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게 할 뿐이고, 실제로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sup>2</sup> 자기가 무엇인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sup>3</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sup>4</sup>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전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up>5</sup> 하늘이나 땅에 이른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사람들이 ‘신’ 이니 ‘주’ 니 하는 것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만), <sup>6</sup>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나왔으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sup>7</sup>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면, 그것이 정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양심 때문에, 그 고기로 인해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sup>8</sup>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sup>9</sup>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자유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sup>10</sup>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상의 전에 앉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거기 앉아 먹는

†† 연약한 양심 자신의 어떤 확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뜻이다.

† 부정할 ‘하나님께 바치기에 부적절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도 용기를 내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sup>11</sup> 그렇게 되면 당신의 지식이 연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를 멸망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sup>12</sup>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연약한 양심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sup>13</sup>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자매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살아 있는 동안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9**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뵈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주 안에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sup>2</sup>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sup>3</sup> 사도로서의 내 권위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sup>4</sup>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sup>5</sup>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바 <sup>†</sup>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up>6</sup>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바나바와 나에게만 없단 말입니까? <sup>7</sup> 누가 자기 돈을 써 가면서 군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기만 하고 포도는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양 떼를 치고 젖은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sup>8</sup> 내가 사람의 일에만 빚대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sup>9</sup>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곡식 떠는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sup>††</sup>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sup>10</sup>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나 곡식을 떠는 사람은, 자기 몫의 곡식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밭도 갈고 곡식 떠는 일도 합니다. <sup>11</sup>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씨를 뿌렸다면,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서 거둔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sup>12</sup>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을 놓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sup>13</sup>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성전에서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sup>14</sup>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먹고 살 것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 하셨습니다.

<sup>15</sup>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근거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sup>16</sup>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만약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sup>17</sup>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이 일을 한다면 저는 보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택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sup>18</sup> 그러니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받는 보상은, 값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따르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up>†</sup> 게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 둘 다 바위라는 뜻이다. <sup>††</sup> 곡식 떠는 일을...안 된다 신 25:4.

<sup>19</sup>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모든 사람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sup>20</sup> 나는 유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sup>21</sup>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합니다.) <sup>22</sup> 나는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그들과 같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sup>23</sup>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나도 기쁜 소식이 주는 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sup>24</sup>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모두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타기 위해 열심히 달리십시오. <sup>25</sup>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sup>26</sup> 그래서 나는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사람처럼 달립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sup>27</sup> 나는 내 몸을 엄하게 다스려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자신은 상을 탈 자격을 잃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주는 경고

**10**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를 따르던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sup>2</sup>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sup>3</sup>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sup>4</sup>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바위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다 같이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sup>5</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sup>6</sup>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한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sup>7</sup>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 <sup>¶</sup>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들썩하게 뒹눴다.” <sup>¶¶</sup>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해서 안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sup>9</sup> 또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sup>¶¶¶</sup>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sup>10</sup>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불평하다가 죽음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sup>11</sup>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본보기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끝을 맞고 있는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sup>12</sup> 그러므로 자기가 든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

<sup>¶</sup> 성경 구약 성경 <sup>¶¶</sup> 백성은...뒹눴다 출 32:6. <sup>¶¶¶</sup>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주’ 라고 되어 있음.

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sup>13</sup>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더불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실 터이니, 여러분은 곳곳하게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sup>14</sup>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피하십시오. <sup>15</sup> 나는 여러분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sup>16</sup>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의 잔<sup>†</sup>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떼어 먹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sup>17</sup> 빵은 한 덩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럿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sup>18</sup>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sup>19</sup>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이나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무엇이나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sup>20</sup> 아닙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제물은 귀신<sup>‡</sup>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어떤 것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sup>21</sup> 여러분은 주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sup>22</sup>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주께서 질투하실 것입니다. <sup>‡</sup> 그런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sup>23</sup> 여러분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up>24</sup> 어느 누구도 제 잇속만 차리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꾀하십시오.

<sup>25</sup>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생각하여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마십시오. <sup>26</sup> “땅은 물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sup>‡</sup>이기 때문입니다.

<sup>27</sup>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가거든, 양심을 생각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은 다 드십시오. <sup>28</sup>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알려 주거든, 그것은 먹지 마십시오. 그것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니,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마십시오. <sup>29</sup>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sup>30</sup>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sup>31</sup> 그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sup>32</sup>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sup>33</sup> 내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나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여, 그들이 구원 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 여자가 머리에 쓰는 너울

<sup>2</sup>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늘 나를 기억해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전통들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sup>3</sup>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sup>4</sup> 남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sup>‡</sup>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면, 그는 자기의 머리, 곧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sup>5</sup> 그러나 여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면,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 곧 자기 남편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를 밀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sup>6</sup>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밀어 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나,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sup>7</sup>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sup>8</sup>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sup>9</sup>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sup>10</sup> 이런 이유에다가 천사들도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sup>‡‡</sup>

<sup>11</sup>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sup>12</sup> 맨 처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sup>13</sup>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sup>14</sup>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sup>15</sup>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덮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16</sup>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 주의 마지막 저녁 식사

<sup>17</sup>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내리려는 지시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계속하여 칭찬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up>18</sup> 첫째, 여러분의 모임에 나침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이 소문의 일부는 사실일 것이라 믿습니다. <sup>19</sup>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무리 지어 나누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sup>20</sup> 여러분은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의 만찬 <sup>‡‡‡</sup>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sup>21</sup>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들은 술

† 축복의 잔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시는 포도주. †† 귀신 또는 '악령'.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주께서 질투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6-17절을 볼 것. ††† 땅은 물론...주의 것 시 24:1; 50:1-2; 89:11.

‡‡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글자 그대로는 '예언할 때에'. †††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제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라 머리를 너울로 가려야 한다는 뜻이다. ††† 주의 만찬 예수께서 당신을 기억하여 먹으라고 명하신 특별한 식사.

에 취합니다. <sup>22</sup>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sup>23</sup>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가르침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 주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sup>24</sup>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하여라.” <sup>25</sup>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그들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맺어 시작되는 새 계약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마셔라.” <sup>26</sup> 그러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두루 알리는 것입니다.

<sup>27</sup> 그러므로 누구든지 적절치 못하게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sup>28</sup> 그러니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본 다음,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sup>29</sup> 주님의 몸이 뜻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sup>30</sup>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병든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sup>31</sup>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sup>32</sup> 우리가 주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sup>33</sup>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한 자리에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sup>34</sup> 정말로 배가 고프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까.

###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12**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선물들에 관하여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에, 이제 내가 그것들을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sup>2</sup>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직 이교도들이었을 때,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휩쓸려 들어서 말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sup>3</sup>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참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sup>4</sup> 그런데 은혜의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sup>5</sup>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sup>6</sup>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sup>7</sup>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8</sup>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sup>9</sup>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sup>10</sup>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sup>11</sup>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한 성령님으로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 그리스도의 몸

<sup>12</sup>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모든 부분들이 한 몸을 이루듯,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up>13</sup>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

다. <sup>14</sup> 사람의 몸은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up>15</sup> 그래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sup>16</sup> 귀가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sup>17</sup> 온몸이 다 눈이라면 몸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몸이 다 귀라면 몸은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sup>18</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기 다른 일을 하도록 우리 몸에 각기 다른 부분을 두셨습니다. <sup>19</sup> 모든 부분이 다 같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sup>20</sup> 그러니 몸에 여러 부분이 있으나 실은 다 한 몸인 것입니다.

<sup>21</sup>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sup>22</sup> 사실은, 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주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sup>23</sup> 우리는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특별히 더 잘 돌보고, 남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은밀한 부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밈니다. <sup>24</sup> 사실 우리 몸에서 얼마든지 드러내 보여도 좋은 부분들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부분들을 결합하시고, 볼품이 덜한 부분에는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sup>25</sup> 그것은, 우리 몸이 서로 나뉘지 않고, 오히려 몸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에게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26</sup>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부분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면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sup>27</sup>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몸의 부분들입니다. <sup>28</sup>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지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sup>29</sup> 모든 사람이 사도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교사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합니까? <sup>30</sup>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언어들을 통역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sup>31</sup> 여러분은 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글자 그대로는 ‘예언하는’. ‡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또는 ‘방언으로’. †† 받았습니 다 글자 그대로는 ‘마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예언자들’. ††††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또는 ‘방언으로’.

† 내가... 받은 것입니다 마 26:26-30; 막 14:22-25; 눅 22:15-20을 보라.

##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13**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인간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다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뜻도 없이 그저 울려 대는  
징이나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sup>2</sup>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다 알고  
온갖 지식을 다 갖추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졌다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sup>3</sup>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한다 ††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sup>4</sup>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sup>5</sup>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sup>6</sup> 사랑은

악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sup>7</sup>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주고  
언제나 믿어 주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끈질기게 견디어 냅니다.

<sup>8</sup>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그치고  
방언 †도 있다가 잠잠해지고  
지식도 있다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sup>9</sup>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고

불완전하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sup>10</sup>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sup>11</sup>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짓들을 버렸습니다.

<sup>12</sup>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희미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듯

나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sup>13</sup>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 신령한 은사로 교회를 도와라

**14**

여러분은 사랑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은사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사를 바라십시오. <sup>2</sup>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sup>3</sup>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권면과 격려와 위안을 줍니다. <sup>4</sup>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도울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 사람은 교회 전체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sup>5</sup>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그 언어를 통역도 하여 교회에 도움을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sup>6</sup>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다른 언어로 †† 말이 나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의 말을 전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sup>7</sup> 피리나 하프처럼 생명 없는 악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악보대로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슨 곡이 연주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sup>8</sup> 또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까? <sup>9</sup>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누가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sup>10</sup> 세상에는 정말로 온갖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sup>11</sup>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의 뜻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인 되고, 그는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sup>12</sup>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를 갈망하고 있으니,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은사들에 뛰어나게 되도록 힘쓰십시오.

<sup>13</sup>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글자 그대로는 '예언하는'. †† 내 몸을 불사르게 한다 하여도 어떤 고대 그리스어 사본에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내준다 하여도'. †† 방언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또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글자 그대로는 '예언하는'. ††† 다른 언어로 또는 '방언으로'. ††††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하십시오. <sup>14</sup> 내가 다른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나 나의 이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sup>15</sup>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도 찬미하고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sup>16</sup>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 기도 끝에 ‘아멘’ †이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sup>17</sup> 여러분은 하나님께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릴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sup>18</sup>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sup>19</sup> 그러나 교회의 모임에서, 나는 다른 언어로 수천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섯 마디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sup>20</sup>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sup>21</sup>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귀에 선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 †의 입을 빌려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sup>22</sup>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sup>23</sup>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로 †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sup>24</sup>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sup>25</sup>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생각들도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여라

<sup>26</sup>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sup>27</sup>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둘 또는 많아야 세 사람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두세 사람도 차례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들의 말을 통역하십시오. <sup>28</sup> 그러나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모임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sup>29</sup>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면밀히 저울질해 보십시오. <sup>30</sup> 그러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있거든, 처음 말하던 사람은 말을 멈추십시오. <sup>31</sup> 여러분 모두가 배우고 격려를 받으

† 아멘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사 28:11-12; 신 28:49. †† 다른 언어로 또는 ‘방언으로’. †††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글자 그대로는 ‘예언자’.

려면, 여러분 모두가 한 번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sup>32</sup>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sup>33</sup>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sup>34</sup>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sup>35</sup> 알고 싶은 것이 있는 여자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 보십시오. 여자가 교회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sup>36</sup>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만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sup>37</sup> 누구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sup>38</sup>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도 하나님에게 인정 받지 못할 것입니다.

<sup>39</sup>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 을 막지 마십시오. <sup>40</sup> 그러나 모든 일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15**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을 받아들였고, 그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sup>2</sup>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 준 말씀을 그대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은 것이 모두 헛일이 되고 맙니다.

<sup>3</sup> 나는 내가 전해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인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sup>4</sup>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쓰인 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sup>5</sup> 그분께서 베드로 †††에게 나타나셨다가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sup>6</sup> 그 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으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sup>7</sup> 그 다음에 따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sup>8</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sup>9</sup>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sup>10</sup>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sup>11</sup>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나이거나 다른 사도들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sup>12</sup>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sup>13</sup> 죽은

†††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 †††† 베드로 글자 그대로는 ‘게바’.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도 없습니다. <sup>14</sup>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sup>15</sup>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도 없었을 터이니 말입니다. <sup>16</sup>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sup>17</sup>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sup>18</sup>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sup>19</sup>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품은 희망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sup>20</sup>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sup>21</sup>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p>22</sup> 아담이 한 짓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sup>23</sup>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sup>24</sup> 그리고 나서 세상의 끝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과 권위와 권세를 멸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sup>25</sup>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sup>26</sup> 죽음은 마지막으로 쳐부수어 복종시켜야 할 원수입니다. <sup>27</sup>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셨다.” <sup>††</sup> 성경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sup>28</sup>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뒤에는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드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sup>29</sup>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결코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sup>30</sup>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삽니까? <sup>31</sup> 나는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거는 자랑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sup>32</sup>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 마십시오.” <sup>‡</sup>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sup>33</sup>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꼬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품성을 망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sup>34</sup>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게 될 것인가?

<sup>35</sup>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sup>36</sup> 여러분은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먼저 죽어야 살아납니다. <sup>37</sup> 그리고 여러분이 땅 속에 심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자라서 가지게 될 모습을 가진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이 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곡식이든, 그것의 씨앗을 심을 따름입니다. <sup>38</sup>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몸을 그 씨앗에게 주시는데, 씨앗마다 주시는 몸이 저마다 다릅니다. <sup>39</sup> 모든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또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sup>40</sup>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몸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의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sup>41</sup>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 하나하나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sup>42</sup>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땅 속에 ‘심긴’ 몸은 썩을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sup>43</sup> 땅 속에 ‘심긴’ 몸은 비천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심긴’ 몸은 약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강한 몸입니다. <sup>44</sup> 땅 속에 ‘심긴’ 것은 자연적인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sup>‡</sup>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sup>45</sup> 성경에는 “첫 사람 아담은 산 피조물이 되었다.” <sup>‡‡</sup>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sup>46</sup> 영적인 것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적인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sup>47</sup> 첫 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sup>48</sup>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첫 사람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과 같습니다. <sup>49</sup> 우리는 흙에서 온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sup>50</sup>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어질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sup>51</sup>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비밀을 잘 들어 두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순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sup>52</sup>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었던 믿는 이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는 우리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sup>53</sup> 이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sup>54</sup> 이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때에, 성경 <sup>‡‡‡</sup>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sup>‡‡‡</sup>

<sup>55</sup> “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sup>§</sup>

<sup>56</sup> 죽음의 독침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율법에서 옵니다. <sup>57</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 하나님께서...다스리셔야 합니다 시 8:6. †† 하나님께서...두셨다 시 8:6. ‡ 내일이면...마십시오 사 22:13; 56:12.

‡‡ 영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 창 2:7. ‡‡‡ 성경 구약성경. ‡‡‡ 사 25:8. § 호 13:14.

58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의 일에 온몸을 다 바치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위한 헌금**

16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돈을 모금하는 일을 두고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명한 대로 따르십시오. 2 여러분은 일요일 †마다 각기 집에서 수입에 따라 얼마의 돈을 따로 떼어 모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간 다음에 새삼스레 돈을 거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내가 가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소개장을 써 주어, 그들이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4 내가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나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계획**

5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먼저 들렀다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6 여러분에게 가서 아마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같이 지낼 것입니다. 어찌면 여러분과 같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7 나는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습니다. 8 오순절 축제까지는 에베소에 있겠습니다. 9 지금 내가 큰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0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1 그러니 아무도 디모데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사히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요일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한 주간의 첫날'.

12 이제 우리의 형제 아폴로 †에 대해 쓰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끝내다**

13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14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15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테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서, 몸 바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6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 주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17 나는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도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없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빈 자리를 채워 주었습니다. 18 그들은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19 아시아 †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0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21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어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

23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

†† 아폴로 아폴로에 관한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을 볼 것.  
 † 아가야 그리스의 남쪽 지방. †† 아시아 현대 터키의 서쪽 지방을 말함.  
 ††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 말로는 '마라나 타'. ††† 24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4절 뒤에 '아멘.' 이 있다.

# 고린도후서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바울,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4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5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흘러 넘쳐 우리의 삶에까지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디어 냅니다. 7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위로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8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힘에 부치는 어려움에 짓눌려서, 살아날 희망마저 없었습니다. 9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그분께에게 두고 있습니다. 11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 바울의 계획이 바뀐

12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처신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더욱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양심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입니다. 13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도 솔직하게 쓰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14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언젠가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

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15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 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6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먼저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17 여러분은 내가 이런 계획을 별 생각 없이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나도 ‘예’와 ‘아니오’를 한 입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18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맹세합니다만, 여러분에게 한 내 말은 결코 ‘예’인 동시에 ‘아니오’가 아닙니다. 19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20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도록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22 우리가 당신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보증입니다.

23 나는 하나님께,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하려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심한 꾸지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4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일일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2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나를 기쁘게 해 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 주겠습니까? 3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갈 때,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 모두도 기뻐하리라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4 나는 몹시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려는 것이었습니다.

##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

5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 아시아 현재 터키의 서쪽 지방.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코 부풀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6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부분의 뜻에 따라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7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가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8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9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10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려 용서한 것입니다. (혹 용서할 일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11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 드로아에서 바울이 겪은 불안

12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13 그러나 여러분의 소식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어야 할 형제 디도가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14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포로로 끼워 주시고, †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 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꼭 같이 풍겨 나옵니다. 16 그러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무서운 냄새이고, 구원 받을 사람에게는 달콤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임무를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17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려 돌아다니는 행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하나님께서 새로 맺으신 계약의 종

3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2 여러분 자신이 우리를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요, 돌 판 †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판에 새긴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계약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에 바탕을 두

† 당신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포로로 끼워 주시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포로들을 이끌고 물려든 구경꾼들 사이로 개선 행진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 돌 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모세에게 주셨던 돌 판을 가리킨다.

고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바탕을 두고 맺어진 것입니다. 문자로 쓰인 것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 새 계약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오다

7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 판에 문자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돌 판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의 심부름꾼인 모세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다면, 8 성령의 심부름꾼에게는 더 큰 영광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9 모세의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10 한때 영광스럽던 것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지금의 이 영광에 견주어 보면 더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1 끝내는 없어지고 말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12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이 있으니 우리는 아주 담대합니다. 13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게 하려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14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굳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 너울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약의 책 †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15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면 그의 너울은 벗겨집니다. 성경이 모세에 관하여 “그는 주 앞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말할 때에는 너울을 벗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7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우리 모두는 얼굴에서 그 너울을 벗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서, 점점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신 주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 질그릇에 담긴 신령한 보화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2 우리는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꾸밈없이 그대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3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너울에 가려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4 이 세상의 통치자 †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꼭 닮은 분이십니다. 5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6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하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

‡ 옛 계약의 책 모세의 율법 책. †† 그는 주 앞으로... 벗었다 출 34:34. ††† 통치자 그리스어로는 ‘신’ 이라는 말이다.

서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깨달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sup>7</sup>우리가 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진흙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up>8</sup>우리는 사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나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sup>9</sup>박해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sup>10</sup>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끊임없이 나누어 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1</sup>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를 위해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2</sup>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 결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sup>13</sup>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 우리의 믿음의 정신 †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sup>14</sup>우리는, 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당신 앞에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up>15</sup>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 믿음으로 사는 것

<sup>16</sup>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고 야위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sup>17</sup>우리는 지금 가벼운 어려움을 잠시 겪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sup>18</sup>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장막, 곧 우리의 몸이 없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집일 것입니다. <sup>2</sup>지금의 이 몸을 입고 사는 우리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sup>3</sup>(우리가 새로운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되면 별거승리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4</sup>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의 몸 위에 하늘의 몸으로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5</sup>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새 생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sup>6</sup>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 몸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 하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up>7</sup>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sup>8</sup>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든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몸의 집을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sup>9</sup>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있는지, 집을 떠나 있는지,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sup>10</sup>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재판 자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선한 일든지 악한 일든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sup>11</sup>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up>12</sup>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를 치켜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우리를 알려,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에는 자랑할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두고 굉장한 일이나 하고 있는 양 자랑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sup>13</sup>혹 우리가 황홀경에 빠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또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sup>14</sup>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죽었다고 믿습니다. <sup>15</sup>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리심을 받은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6</sup>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세상의 잣대로 재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재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sup>17</sup>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옛 질서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sup>18</sup>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sup>19</sup>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sup>20</sup>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sup>21</sup>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당신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6**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sup>2</sup>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네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이 되었을 때에  
너를 도와주었다.” ‡

† 나는...말하였다 시 116:10. †† 믿음의 정신 또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

‡ 사 49:8.

보십시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때이고, 오늘이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sup>3</sup> 우리는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험뜰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4</sup>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온갖 역경과 재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 냈습니다. <sup>5</sup> 또 우리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난 무리 앞에 서기도 하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하였습니다. <sup>6</sup>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님에게서 받은 능력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sup>7</sup>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른 삶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sup>†</sup> 우리 자신을 방어합니다. <sup>8</sup>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칭찬하거나 욕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정직합니다. <sup>9</sup>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로 대접 받고 있습니다만 실은 유명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가까이하고 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sup>10</sup>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많지만 늘 기쁨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sup>11</sup>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sup>12</sup>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sup>13</sup> 나는 여러분을 나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

<sup>14</sup>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을 지을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sup>15</sup>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알 <sup>††</sup>과 화합하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같은 점이 있겠습니까? <sup>16</sup> 하나님의 성전 <sup>‡</sup>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sup>‡‡</sup>  
<sup>17</sup>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빠져 나와  
 그들과 갈라서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가이 맞아 줄 것이다.” <sup>‡‡‡</sup>  
<sup>18</sup>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sup>†</sup> 바른 삶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글자 그대로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sup>††</sup> 벨리알 악마의 이름. <sup>‡</sup>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몸을 말한다. <sup>‡‡</sup> 레 26:11-12. <sup>‡‡‡</sup> 사 52:11.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sup>‡‡‡</sup>

**7**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바울의 기쁨**

<sup>2</sup>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아무도 결길로 빠지게 한 적이 없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sup>3</sup> 나는 여러분을 꾸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과 같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sup>4</sup> 나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sup>5</sup>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와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통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sup>6</sup>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sup>7</sup> 우리는 그가 온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한다는 것과, 나를 끔찍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는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sup>8</sup>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 편지를 쓴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알고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습니니다. <sup>9</sup> 이제 나는 기쁩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슬픔을 겪음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슬퍼하기를 바라셨고, 여러분은 그분의 뜻에 맞게 슬퍼하였으니,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sup>10</sup>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이와 달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sup>11</sup> 여러분이 이번에 겪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인 그 진지함,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열성,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적인 관심, 죄 지은 사람을 벌하려는 그 징계의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sup>12</sup>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 때문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13</sup> 우리는 이 모든 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의 덕택으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sup>14</sup>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 사랑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은 내 사랑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들이 다 진실이었듯이, 여러분을 두고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한 것도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sup>‡‡‡</sup> 삼하 7:14; 7:8.

다. <sup>15</sup> 이제 그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반갑게 맞아 주고 자기에게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sup>16</sup>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온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려 주신 은혜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 합니다. <sup>2</sup> 그들은 많은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sup>3</sup> 나는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바쳤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힘에 넘치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치못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sup>4</sup>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 특권에 자기들도 한 몫 끼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sup>5</sup>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sup>6</sup>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그가 이미 여러분 사이에서 시작한 이 은혜스러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sup>7</sup>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성과 또 우리에게서 배운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sup>8</sup>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들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 준 열성과 견주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sup>9</sup>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부요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sup>10</sup> 나는 여러분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여러분은 누구보다 앞서 돕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여러분이 처음이었습니다. <sup>11</sup> 그러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기꺼이 바치고 싶어하던 그 열성에 걸맞게 이제는 힘닿는 대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sup>12</sup> 여러분이 바치고 싶어 바치는 것이면, 가진 것에 따라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까지 바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sup>13</sup> 내가 지금 여러분을 쪼들리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두가 고르게 나누어 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sup>14</sup>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나중에 그들의 살림이 넉넉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고르게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sup>15</sup>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에게도 넘치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

### 디도와 그의 동료들

<sup>16</sup> 내가 여러분에게 쏟는 것과 같은 열성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up>17</sup> 디도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 달라는 우리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고 싶어합니다. <sup>18</sup> 우리는 디도에게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내려 합니다. 이 형제는 힘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sup>19</sup> 또한 이 형제는, 우리가 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에, 우리와 같이 갈 형제로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 드리고, 형제들을 돕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sup>20</sup> 우리가 그들을 보내는 것은, 이 많은 헌금을 다루면서 아무에게서도 뒷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sup>21</sup>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일하려고 애씁니다.

<sup>22</sup> 우리는 이 두 사람과 함께 형제를 또 한 사람 보냅니다. 우리는, 그가 열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어 더욱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sup>23</sup> 이제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로서 여러분을 위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가 뽑아 보내는 대표들로서, 그리스도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sup>24</sup>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보낸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결코 헛자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다른 믿는 이들을 돕는 일

**9**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관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sup>2</sup>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열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준비를 다 해 놓았다고 자랑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성을 듣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sup>3</sup> 그러나 이제 형제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sup>4</sup>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갔다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믿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sup>5</sup>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이 형제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그들이 가서 여러분이 약속했던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에, 마치못해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드린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sup>6</sup>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sup>7</sup> 사람마다 마음에 바치기로 작정한 대로 바치십시오. 아까워하면서 바치거나 마치못해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sup>8</sup>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복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up>9</sup>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

<sup>10</sup>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씨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씨를 주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푼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sup>11</sup>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어, 여러분이 언제나 마



음껏 베풀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선물을 우리가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sup>12</sup>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봉사가 믿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봉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sup>13</sup>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고, 그 기쁜 소식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돕는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14</sup>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넘치는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sup>15</sup>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바울, 자신의 일을 변호하다

**10** 나 바울은, 부드럽고 너그러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는 약하나,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up>2</sup>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sup>3</sup>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속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sup>4</sup>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의 무기는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로 인간적인 논쟁을 무찌르고, <sup>5</sup>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온갖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sup>6</sup>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sup>7</sup> 여러분은 눈앞의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도 자기 못지않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sup>8</sup>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하여 내가 좀 지나칠 정도로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랑이 좀 지나쳤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up>9</sup>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sup>10</sup>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를 직접 대하면,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sup>11</sup>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보여 주는 행동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sup>12</sup> 우리는 자신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잣대로 하여 스스로를 재고, 자신들을 표준으로 삼아 거기에 스스로를 견주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sup>13</sup>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일도 들어 있습니다. <sup>14</sup>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맨 처음 그 먼 곳까지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들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sup>15</sup> 우리는 주께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sup>16</sup> 그리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도시 너머에 있는 지역에 가서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sup>17</sup> “자랑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sup>18</sup>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 바울과 거짓 사도들

**11**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sup>2</sup>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바쳐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sup>3</sup>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와가 뱀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찌하다 곁길로 빠져서,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거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sup>4</sup>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영과 다른 영이나, 여러분이 믿었던 기쁜 소식과 다른 기쁜 소식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sup>5</sup> 나는 결코 내가 그 ‘위대한 사도들’ 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up>6</sup> 내가 말씀씨에는 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여 주었습니다.

<sup>7</sup>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던 것인데, 그것이 죄였던 말입니까? <sup>8</sup>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곧 여러분을 섬기려고 다른 교회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sup>9</sup> 나는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sup>10</sup> 아가야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가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걸고 이 말을 합니다. <sup>11</sup>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sup>12</sup> 나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구실의 근거를 아예 잘라 없애려는 것입니다. <sup>13</sup>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꾼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한 자들입니다. <sup>14</sup>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 <sup>15</sup>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sup>15</sup>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운 것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입니다.

### 바울이 겪은 어려움들

<sup>16</sup> 거듭 말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 자랑하려는... 하십시오 렘 9:24. †† 빛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 악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속인다.

여기더라도 내가 자랑을 좀 할 터이니,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라며 들어 주십시오. <sup>17</sup> 이러한 자랑은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만, 나도 바보처럼 자랑 한번 해 보려 합니다. <sup>18</sup> 많은 사람이 자기네의 인간적인 업적을 자랑하니 나도 해 보겠습니다. <sup>19</sup> 여러분은 자신들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 잘도 참아 주고 있습니다! <sup>20</sup> 누가 여러분을 중으로 삼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하고, 뺏내고,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 줍니다. <sup>21</sup> 우리는 너무 ‘약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려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는 말입니다.) <sup>22</sup>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sup>23</sup>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미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sup>24</sup> 유대 사람들에게서 서른아홉 대를 맞는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 <sup>25</sup> 몽둥이로 맞은 것이 세 번, 돌로 맞은 것이 한 번, 배를 땀다가 난파를 당한 것이 세 번 있었으며, 밤낮 하루를 꼬박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sup>26</sup>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이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은 믿는 이들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오는 위험도 겪었습니다. <sup>27</sup>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뜯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sup>28</sup> 다른 것들은 제쳐 놓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sup>29</sup>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sup>30</sup>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sup>31</sup> 주 예수의 아버지, 곧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sup>32</sup>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sup>33</sup> 그러나 어떤 이들이 나를 바구니에 넣어 성벽에 뚫린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내가 총독의 손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 바울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축복

**12**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자랑한다고 내게 이로울 것은 없겠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sup>2</sup>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들려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sup>3</sup>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들려 올라갔었습니다. 그가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sup>4</sup> 이 사람은 낙원에 들려 올라가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sup>5</sup>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sup>6</sup> 내가 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특히 하

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그 놀라운 계시 때문에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사탄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를 쳐서 내가 지나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sup>8</sup> 나는 주님께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 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sup>9</sup>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기쁘게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sup>10</sup>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모욕과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정말로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sup>11</sup>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칭찬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위대한 사도들’ 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sup>12</sup>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에, 나는 참고 또 참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sup>13</sup>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sup>14</sup>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모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sup>15</sup> 나는 기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쓰겠고, 나 자신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sup>16</sup>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내가 교활한 사람이어서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sup>17</sup>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sup>18</sup>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 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우리 형제를 딸려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디도와 내가 똑같은 정신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sup>19</sup>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sup>20</sup>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자기 잇속만 채우거나, 남을 헐뜯거나, 수군거리거나, 턱없이 뺏내거나, 소란을 떠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sup>21</sup>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

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쓰라린 슬픔을 겪게 되거나 앓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 마지막 경고와 인사

**13** 이번이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sup>12</sup>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경고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지금,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벌하겠습니다.<sup>3</sup>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강하십니다.<sup>4</sup>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약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sup>5</sup>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시험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낙제한 것입니다.<sup>6</sup>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sup>7</sup>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sup>8</sup>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sup>9</sup>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sup>10</sup>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써서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sup>11</sup>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부탁한 일들을 하십시오. 꼭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이 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sup>12</sup>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sup>13</sup>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14</sup>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 모든 소송 사건은...이루어집니다 신 19:15.

# 갈라디아서

**1**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단체가 나를 사도로 뽑아 주어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뽑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sup>2</sup>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갈라디아 <sup>†</sup>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드립니다.

<sup>3</sup>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up>4</sup>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의 억매임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sup>5</sup>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참된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뿐이다

<sup>6</sup>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sup>††</sup>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기쁜 소식을 따르고 있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sup>7</sup> 사실 다른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sup>8</sup> 우리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의 천사라도 여러분에게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sup>9</sup>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해 받은 것과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sup>10</sup> 내가 지금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 바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sup>11</sup>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sup>12</sup>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어느 누구에게서 받지도 않았으며, 어느 누구에게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을 때에 받았습니다.

<sup>13</sup>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교와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sup>14</sup> 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내 나이 또래의 다른 많은 유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

<sup>†</sup> 갈라디아 아마도 바울이 첫번째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한 지역 일 것이다(행 13-14장). <sup>††</sup>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그리스어 사본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sup>15</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sup>16</sup> 당신의 아들을 내게 보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었습니다. <sup>17</sup>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sup>18</sup> 삼 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는 베드로 <sup>‡</sup>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그와 보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sup>19</sup> 나는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빼고는 다른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sup>20</sup>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쓰고 있는 말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sup>21</sup>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sup>22</sup>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직접 알지 못하였습니다. <sup>23</sup> 그들은 나에게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 버리려고 애쓰던 바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sup>24</sup>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

**2** 그리고 십사 년이 지난 뒤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는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sup>2</sup>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 내가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한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3</sup> 그때 나와 같이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전혀 할례받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sup>4</sup> 이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몰래 들어와 있던 몇몇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살그머니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sup>5</sup>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쁜 소식의 진리를 보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6</sup> 교회의 지도자라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다른 점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 그들이 크게 인정 받는 사람들라는 사실이 내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sup>7</sup>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

<sup>‡</sup>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sup>††</sup> 베드로 글자 그대로는 '게바'. 게바는 그리스어 이름인 베드로에 해당하는 아람어 이름으로, 두 이름 다 '바위'라는 뜻이다.

기신 것처럼, 내게는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up>8</sup> 베드로를 유대 사람을 위한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을 위한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sup>9</sup>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나를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맞아들인다는 뜻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계속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은 유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sup>10</sup> 그러면서 그들은 단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간절히 하고 싶어하던 일이었습니다.

### 바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다

<sup>11</sup>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을 하기에, 내가 그를 마주 보고 나무랐습니다. <sup>12</sup> 베드로는 처음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보낸 유대 사람 몇이 오자, 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방 사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sup>13</sup> 그러자 나머지 다른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 위선자가 되었고, 바나바까지 이들을 따라 위선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sup>14</sup> 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형제여, 당신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대 사람답게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의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단 말입니까? <sup>15</sup> 당신과 나는 이른바 ‘이방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sup>16</sup>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므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므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sup>17</sup> 우리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sup>18</sup> 내 손으로 이미 헐어 버린 율법의 담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오히려 나 자신이 율법의 가르침을 어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일 터입니다. <sup>19</sup> 실제로 율법은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sup>20</sup>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신 분입니다. <sup>21</sup>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하여 온다

**3**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하신 분으로 생생하게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sup>2</sup> 내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sup>3</sup>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와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하다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sup>4</sup>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sup>5</sup>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sup>6</sup>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셨다.” <sup>†</sup>라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sup>7</sup>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sup>8</sup>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sup>‡</sup>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sup>10</sup>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쓰여 있는 것을 꾸준히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sup>‡‡</sup> <sup>11</sup>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sup>‡‡‡</sup>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sup>12</sup>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므로 살 것이다.” <sup>‡‡‡</sup> 라고 하였습니다. <sup>13</sup>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 <sup>‡‡‡‡</sup> 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sup>14</sup>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율법과 약속

<sup>15</sup>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계약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다른 내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up>16</sup>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sup>§</sup>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자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사람을 뜻하고,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sup>17</sup> 내가 말하려는 것은

<sup>††</sup> 아브라함이...주셨다 창 15:6. <sup>‡</sup> 모든...것이다 창 12:3. <sup>‡‡</sup> 누구든지...것이다 신 27:26. <sup>‡‡‡</sup> 하나님께서...믿음으로 살 것이다 합 2:4. <sup>‡‡‡‡</sup> 율법을...것이다 레 18:5. <sup>‡‡‡‡‡</sup> 나무에 달린...받는다 신명기 21장 22-23절은 죄를 지어 사형을 받은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sup>§</sup> 자손 글자 그대로는 ‘씨’.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것입니다.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맺으신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sup>18</sup> 만일 상속 <sup>†</sup>이 율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선물로 가져 주셨습니다.

<sup>19</sup>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sup>††</sup>이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천사들을 거치고 중개자 <sup>‡</sup>를 거쳐 제정하신 것입니다. <sup>20</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중개자 없이 직접 맺으신 것입니다.

### 모세의 율법의 목적

<sup>21</sup>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어긋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sup>22</sup> 그러나 성경 <sup>‡</sup>은 온 세상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sup>‡‡</sup>통하는 것입니다. <sup>23</sup> 이 믿음을 통한 길이 보이기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인 죄수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길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sup>24</sup>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개인 교사 <sup>‡‡‡</sup>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25</sup>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개인 교사의 감독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sup>26</sup>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up>27</sup>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sup>28</sup>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sup>29</sup>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sup>‡‡‡</sup>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따라 상속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4**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sup>2</sup> 그는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후견인 <sup>§</sup>들이나 재산 관리인들 아래 있습니다. <sup>3</sup>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의 종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sup>4</sup> 그러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아래 계셨습니다. <sup>5</sup> 그것은, 아드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상속 근원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나 선물.  
‡‡ 자손 글자 그대로는 '씨'. ‡ 중개자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쌍방 사이에서 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 성경 규약 성경.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 개인 교사 이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6-10세 사이의 어린 주인이 밖에 나가면 따라가서 돌보아 주고, 학교에 갈 때는 책 가방을 들어 주고,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보살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을 맡았던 노예를 가리킨다. ‡‡‡‡‡ 자손 글자 그대로는 '씨'. § 후견인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사람.

<sup>6</sup> 이제 이방인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sup>§</sup>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p>7</sup> 그러니 여러분은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 갈라디아 교우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

<sup>8</sup>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sup>9</sup>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전에 따르던 아무 힘도 없고 보잘 것없는 초보적인 세력들에게 돌아가려 합니까? 다시 그런 것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sup>10</sup>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날이나 달이나 계절이나 해를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sup>11</sup> 여러분을 위해 내가 애써 해 온 일들이 다 헛것이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sup>12</sup>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나처럼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sup>§‡‡</sup>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은 나를 푸대접하지 않았습니다. <sup>13</sup>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맨 처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sup>14</sup> 내 병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조금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 양, 아니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sup>15</sup> 그때 여러분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sup>16</sup>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여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sup>17</sup> 그 사람들 <sup>§‡‡</sup>이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갈라놓아서 여러분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sup>18</sup>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선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에나 마찬가지입니다. <sup>19</sup>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꼭 같아지기까지,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sup>20</sup>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하갈과 사라의 예

<sup>21</sup>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율법이 무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sup>22</sup>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sup>23</sup>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 아바 '아빠' 라는 뜻의 아람 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정다운 말. §‡‡‡ 이방 사람인 여러분이...매이지 마십시오 글자 그대로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 그 사람들 갈라디아 지방의 믿는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짓 선생들 (1:7).

24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 계약을 가리킵니다. 한 계약은 시내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갈입니다. 25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범주에 듭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27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이 낳는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28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29 그러나 그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30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1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인인 여자의 자녀입니다.

###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라

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2 잘 들으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분이 됩니다. 3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모세의 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4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5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우리의 희망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희망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6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에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곧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7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8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쓰인 논쟁들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9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라고 하였습니다. 10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 말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벌을 받을 것입니다.

1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십자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2 할례 문제로 여러분을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할례에서 그치지 말고 아예 자신들을 거세 †까지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사 54:1 ‡ 여종과...될 수 없다 창 21:10 † 적은 누룩이...부풀린다 (그릇된 작은 가르침 같은)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거나, 한 사람이 모임 전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의 격언. ‡ 거세 남자의 성기

13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핑계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서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14 율법 전체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5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서로를 물어뜯고 집어삼키려 들면,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성령과 인간의 본성

16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17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려고 이 둘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18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19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저지르는 짓들은 분명합니다. 성적 부도덕, 더러움, 방탕, 20 우상 숭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성냄, 이기적인 야망, 분열, 분파, 21 시기, 술 취함,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연회,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지금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23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24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이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26 우리는 잘난 체 우쭐거리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 서로를 도와라

6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거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2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3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4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람마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어 써야 합니다.

### 인생은 들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7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기 때 문입니다. 8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9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지치더라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때가

일부를 잘라 버리는 것. 바울은 자기가 거짓 선생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 네 이웃을...사랑하라 레 19:18.

무르익을 때에 거둘 것입니다. <sup>10</sup>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 바울, 편지를 끝맺다

<sup>11</sup>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씁니다. <sup>12</sup>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sup>†</sup>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박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sup>13</sup> 그리고 그들은 할례는 받지만, 실제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두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sup>14</sup>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sup>†</sup>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기쁜 소식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쓰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였다. 6:14에서도.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이 오래 전에 죽었고, <sup>††</sup>나에 대한 세상의 관심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sup>15</sup>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sup>16</sup> 이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sup>17</sup> 이 편지를 끝내면서, 아무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입은 상처 자국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sup>‡</sup>

<sup>18</sup>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sup>††</sup> 죽었고 글자 그대로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sup>‡</sup>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맞은 적이 있었다.



# 에베소서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에베소의 †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sup>2</sup>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적 축복

<sup>3</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sup>4</sup>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sup>5</su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sup>6</sup>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sup>7</sup>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sup>8</sup>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통찰력과 함께 주셨습니다.

<sup>9</sup>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 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sup>10</sup> 그 계획은, 때가 무르익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sup>11</sup>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부터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sup>12</sup>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게 된 사람들입니다. <sup>13</sup>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께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sup>14</sup>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머지 다른 약속도 받게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바울의 기도

<sup>15</sup>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뒤로, <sup>16</sup>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sup>17</sup>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내려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sup>18</sup> 그리하여 여러분이,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sup>19</sup>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sup>20</sup>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는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sup>21</sup>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그 어떤 이름의 세력보다 훨씬 높이 계십니다. <sup>22</sup>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sup>23</sup>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 죽음에서 생명으로

**2** 여러분도 지난날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sup>2</sup> 여러분은 죄에 얽매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정신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sup>3</sup> 한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와 감각의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sup>4</sup>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sup>5</sup> 죄를 지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sup>6</sup>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 위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sup>7</sup>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sup>8</sup>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 에베소의 몇몇 고대 사본에는 '에베소의' 가 빠져 있다.

††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른다.

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sup>9</sup>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한 어떤 일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sup>10</su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sup>11</sup> 그러므로 이방 사람 <sup>†</sup>으로 태어난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고 뽐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몸에도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sup>12</sup> 여러분이 그때에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들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sup>13</sup>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sup>14</sup>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인 우리와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는 그들을 갈라놓는 미움의 담이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주심으로, 그 담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sup>15</sup> 유대 사람의 율법에는 이방 사람을 따돌리는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서서 평화를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sup>16</sup>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미움을 없애 버리시므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sup>17</sup>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에게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sup>18</sup>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둘 다 한 영 <sup>‡</sup>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sup>19</sup>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사람입니다. <sup>20</sup>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잇돌 <sup>‡</sup>입니다. <sup>21</sup> 이 건물은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뚝 섭니다. <sup>22</sup>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사시는 곳이 됩니다.

###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명

**3**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내가 말합니다. <sup>2</sup> 어

<sup>†</sup>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sup>‡</sup> 영 또는 성령. ‘성령’ 을 볼 것. <sup>‡</sup> 모퉁잇돌 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돌.

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러분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줄 압니다. <sup>3</sup>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계획 <sup>‡</sup>을 계시로 내게 보여 주셨다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이미 내가 이 편지의 앞머리에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sup>4</sup> 그 글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은밀한 계획을 꿰뚫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sup>5</sup> 예전 사람들에게는 이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은밀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sup>6</sup> 그 은밀한 계획이란,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도 기쁜 소식을 믿어서, 둘이 같은 한 몸의 부분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sup>7</sup>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크신 능력 덕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종이 되었습니다. <sup>8</sup> 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 곧, 이방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부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sup>9</sup>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감추고 계시던 이 은밀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지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일입니다. <sup>10</sup>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온갖 지혜를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세력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때에 이것을 볼 것입니다. <sup>11</sup>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워 놓으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sup>12</sup>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sup>13</sup>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통을 보고, 여러분이 용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

<sup>14</sup>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sup>15</sup>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sup>16</sup> 아버지께서 넉넉하신 당신의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sup>17</sup>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sup>18</sup>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빕니다. <sup>19</sup>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sup>20</sup>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sup>21</sup>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무궁토록 영광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sup>‡</sup> 은밀한 계획 글자 그대로는 ‘숨겨진 진리’.

### 하나를 이루는 몸

4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사십시오. <sup>2</sup> 언제나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참을성 있게,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sup>3</sup>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 기울이십시오. <sup>4</sup>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 하나의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sup>5</sup>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sup>6</sup>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sup>7</sup>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sup>8</sup>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거느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sup>†</sup>

<sup>9</sup>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sup>10</sup> 내려오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온 우주에 미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sup>11</sup>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sup>12</sup>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3</sup>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sup>14</sup> 그때에는 우리가 더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결치는 대로 흔들리거나,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훈을 전해 줄 때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sup>15</sup>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sup>16</sup>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몸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인대<sup>‡</sup>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기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가 자라고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 여러분이 살아야 할 길

<sup>17</sup>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sup>18</sup> 그들의 단한 마음은 어둠으로 짙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sup>19</sup>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서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sup>20</sup> 그러나 여

† 시 68:18. ‡ 인대 관절을 튼튼하게 하거나 또는 그 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결체 조직 섬유.

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sup>21</sup> 여러분은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배웠습니다. <sup>22</sup> 여러분은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썩고 욕정에 눈이 어두워진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배웠습니다. <sup>23</sup>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sup>24</sup> 새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이 새사람은 하나님처럼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sup>25</sup> 그러니 여러분은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에게 참말을 하십시오. <sup>‡</sup>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sup>26</sup>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화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십시오. <sup>‡</sup> <sup>27</sup> 악마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마십시오. <sup>28</sup> 이제까지 도둑질을 해 온 사람이라도, 더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일하여 떼떽하게 번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sup>29</sup> 더럽거나 남을 해치는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선하고 도움이 되는 말만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sup>30</sup>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증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sup>31</sup> 모든 독설과 걱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은 못된 마음과 함께 버리십시오. <sup>32</sup>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늘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5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sup>2</sup>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sup>3</sup> 여러분은 성적인 부도덕이나 온갖 더러운 짓이나 욕심에 찬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sup>4</sup> 또 추잡하거나 어리석거나 천박한 말도 여러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sup>5</sup>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sup>6</sup> 헛된 말로 이러한 죄들을 변명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sup>7</sup>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sup>8</sup>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sup>9</sup> 빛에서 나오는 열매는 모든 선과, 올바른 삶과, 진리입니다. <sup>10</sup>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지 늘 살펴 가려내십시오. <sup>11</sup>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여 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sup>12</sup>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숨어서 저지르는 짓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짓거리들입니다. <sup>13</sup> 그러나 그것들 위에 빛이 비치면,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들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sup>14</sup>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잠자는 사람아,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 그러나...하십시오 속 8:16. † 화가...푸십시오 시 4:4.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살피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16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니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십시오.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19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바치십시오. 20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 아내와 남편

21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자신들을 복종시키십시오.

22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5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쁜 소식을 통하여 교회를 물로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27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구김살이나 그 밖의 어떤 흠 하나 없이, 거룩하고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이와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9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가꾸고 돌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기르고 돌보십니다. 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31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sup>†</sup>라고 하였습니다. 32 이 말씀의 뜻은 매우 깊고 신비합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3 그러니 여러분도 각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 자녀와 부모

6 자녀 된 사람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2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sup>‡</sup> 이것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3 그 약속은, “그러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sup>‡</sup> 라는 것입니다.

4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자녀의 마음을 자극하여 성내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가르침으로 키우십시오.

### 종과 주인

5 종 된 사람들이여, 이 세상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

† 물로 씻음 유대 여자들이 결혼식에 앞서 치르는 성결 목욕 예식에 비유한 기독교의 세례 의식을 가리킨다. †† 그러므로 사람이...것이다 창 2:24. ‡ 네...공경하여라 출 20:12; 신 5:16. ††† 그러면...것이다 출 20:12; 신 5:16.

듯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6 주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7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8 종이든 자유이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각기 주님에게서 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 주인 된 사람들이여, 종들을 이와 꼭 같이 대하십시오. 그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10 끝으로, 주님의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어지십시오. 11 악마의 속임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 #를 입으십시오. 12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악의 날이 닥칠 때에,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14 굳게 서십시오! 진리의 띠로 허리를 묶고, 의로움의 갑옷으로 가슴을 가리십시오. 15 발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에서 오는 준비된 마음 #를 신으로 신으십시오. 16 그리고 손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17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9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두려운 마음 없이 기쁜 소식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 나는 지금 사슬에 묶여 갇혀 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끝맺는 인사

21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2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24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 갑주 갑옷과 투구. ††† 평화의 기쁜 소식에서 오는 준비된 마음 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준비된 마음’.

# 빌립보서

## 인사

**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일을 맡은 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sup>2</sup>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바울의 기도

<sup>3</sup>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sup>4</sup>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sup>5</sup>여러분은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sup>6</sup>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일을 다 이루어 내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sup>7</sup>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도 여러분은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신 일을 나와 함께 해 온 사람들입니다. <sup>8</sup>내가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sup>9</sup>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더욱 자라서, <sup>10</sup>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흠 없고 순결한 사람들로써 그리스도의 날을 맞게 해 주시고, <sup>11</sup>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바울의 고난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다

<sup>12</sup>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sup>13</sup>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로마 경비대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sup>14</sup>그리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sup>15</sup>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sup>16</sup>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

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sup>17</sup>그러나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더욱 괴롭힐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sup>18</sup>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좋은 동기에서든 나쁜 동기에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진다는 사실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sup>19</sup>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up>20</sup>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언제나 그래 왔듯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sup>21</sup>내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죽는 것도 이익이 될 뿐입니다. <sup>22</sup>그러나 내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sup>23</sup>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up>24</sup>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sup>25</sup>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sup>26</sup>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인한 여러분의 자랑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sup>27</sup>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나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 굳게 서서 기쁜 소식에 선포된 믿음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sup>28</sup>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용기가, 그들은 멸망하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sup>29</sup>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과, 그분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입니다. <sup>30</sup>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내가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내가 지금도 감옥에서 여전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터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싸움도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싸움입니다.

† 한 마음 한 뜻으로 또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보아라

2 그리스도 안에 용기를 복돋우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는 어떤 나눔이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까? 2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같은 일에 마음을 두고, 서로에게 같은 사랑을 베풀고, 한마음으로 뭉치고, 오로지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여 나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해 주십시오.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이 나 허영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4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배워라

5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런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6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꼭 같으시다는 점을 자신을 위해 이용할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신분을 띠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8 그분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곧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시고,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우러르게 하셨습니다.

11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라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 온 것처럼, 이제 여러분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내 앞에서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지금 더욱 그렇게 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13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14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15 썩고 비뚤어진 세상에 살면서도, 흠 없고, 깨끗하고,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부어 드리는 제물 1로 드러진다 하여도, 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18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

19 나는 주 예수의 도움을 받아 디모데를 곧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에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면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20 그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려 합니다. 21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 자기들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22 여러분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일하듯, 나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23 그래서 나는 내 일이 어떻게 풀릴지 알게 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여러분을 곧 찾아가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5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나의 형제요 동료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우이기도 합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우라고 그를 내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그는 여러분을 몹시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 그는 정말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나의 슬픔 하나를 덜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더더욱 서둘러 여러분에게 그를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를 보면 반가울 것이고, 나도 한 가지 슬픔을 덜겠습니다. 29 주 안에서 기쁘게 그를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30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 그는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을 다시 써 보내려 합니다. 이 일이 내게는 조금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2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개와 같습니다. 이방인 여러분도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3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적인 ㅈ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참 할례 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4 하기가 나도 육적인 것을 의지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자랑하려 든다면, 내게는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5 나는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나도 모두 순수한 히브리 사람 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두고 말한다면,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6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리

† 부어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제물 위에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부어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 †† 육적인 글자 그대로는 ‘육체’. 바울은 여기에서 몸의 할례뿐 아니라 육신의 혈통 또는 인간적인 업적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하다. ‡ 참 할례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영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새 계약을 맺으셨다는 뜻이다. †† 히브리 사람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 사람이라는 뜻이다.

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흠 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sup>7</sup>한때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이 모든 것을,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sup>8</sup>그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게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sup>9</sup>이렇게 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당신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sup>10</sup>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어 겪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sup>11</sup>그렇게 하여, 나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 목표를 향해 달려라

<sup>12</sup>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힘써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sup>13</sup>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이 아직 그것을 붙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곧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sup>14</sup>상을 받기 위해 목표를 향해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sup>15</sup>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밝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sup>16</sup>다만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도록 합니다.

<sup>17</sup>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sup>18</sup>전에도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sup>19</sup>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짓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일에만 쏠려 있습니다. <sup>20</sup>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up>21</sup>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바울의 마지막 부탁

**4**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 쓰레기 글자 그대로는 '똥'.

<sup>2</sup>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자매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sup>3</sup>나와 한 멩에를 멘 충실한 나의 협력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자매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나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많은 수고를 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sup>4</sup>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sup>5</sup>여러분의 친절함 마음씨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sup>6</sup>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sup>7</sup>그러면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sup>8</sup>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고귀하고 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sup>9</sup>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은 것, 내게서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sup>10</sup>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보여 주시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염려해 주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sup>11</sup>내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sup>12</sup>나는 어려운 처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sup>13</sup>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sup>14</sup>그러나 내가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니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sup>15</sup>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것을 나눈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sup>16</sup>내가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몇 번 보내 주었습니다. <sup>17</sup>내가 선물을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sup>18</sup>나는 받을 보수를 다 받았습니 다. 아니, 더 받았습니 다.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다주어서 나는 넉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제물입니다. <sup>19</sup>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sup>20</sup>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 마지막 인사

<sup>21</sup>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22</sup>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시저 집안 사람들 †이 문안합니다.

†† 그대 아마 빌립보교회의 지도자인 듯하다.

---

‡ 시저 집안 사람들 시저는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 '시저 집안 사람들'은 '황제의 노예들' 또는 황제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어 황제의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 골로새서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2 골로새에 있는 성도 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 두신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6 여러분에게 전해진 바로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그날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서 기쁜 소식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곳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입니다. 8 그는 또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9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으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기를 빕니다. 10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며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큰 힘을 받아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12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빛의 왕국에서 사는 성도들이 받을 유산을 여러분도 나누어 받게 해 주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1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14 그 아드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15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16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뿐 아니라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 골로새 소아시아의 브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 †† 성도 또는 '거룩한 사람들'. ††† 여러분을 위하여 몇몇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에는 '우리를 위하여'.

모두 그분의 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은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18 그분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19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온전한 본성을 그리스도께 주시고,

20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21 전에 여러분은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심으로써 여러분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흠 없고 나무랄 데 없는 거룩한 백성 #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3 물론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미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 #에게 전해졌으며, 나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 교회를 위한 바울의 활동

24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못다 하신 고난을 내 몸으로 마저 채우고 있습니다. 25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교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26 이 소식은 과거의 모든 세기와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 #들에게 밝히 드러낸 바가 되었습니다. 27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도 그리스도의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비밀이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8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는 온갖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타이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른다. ††† 피조물 인간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 성도 또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린다.

29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힘으로 애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과 라오디게아<sup>†</sup>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에는 숨겨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온갖 부요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4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 내가 몸으로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6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7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든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8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철학이나 헛된 거짓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9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10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권세와 권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맺어짐으로써 완전하게 됩니다.

11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죄에 물든 본성<sup>†</sup>을 벗어 버렸습니다. 그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의 몸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12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옛 사람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셨습니다.

13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죄에 물든 본성을 벗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14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빛 문서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법의 조항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 빛을 다 용서해 주시고, 빛 문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승리의 행진에 끌고 나와 온 세상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 사람이 만든 규칙을 따르지 마라

16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나, 어떤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 †나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18 어떤 사람은 겸손한 체하는 것을 즐기고 천사 승

†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브리기아 지방의 주요 도시로, 골로새 가까이에 있다. †† 본성 또는 '몸' ††† 죄에 물든...때문에 글자 그대로는 '죄에 물든 본성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 초승달 축제 유대 달력으로 매달 첫째 날로, 유대 사람들은 이날을 거룩하게 지켰다.

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본 환상을 자세하게 늘어놓으며,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교만으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19 그리고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는 끈이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관절과 힘줄로 연결되어 영양을 공급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20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21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또 저것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규정들에 복종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22 이 모든 규정들은 쓰다 보면 결국 없어지고 말 것들에 관한 것이며, 인간의 명령이고 가르침일 따름입니다. 23 이 규정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욕망을 억누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

3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2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3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4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곧 성적인 부도덕과 순결하지 못한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모두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6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7 여러분도 전에는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았습니다.

8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 곧 성냄과 분노와 악한 마음과 남을 헐뜯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9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행실과 더불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11 이렇게 새로워진 삶에서는, 그리스도 사람도 유대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 ††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12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 사랑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답게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관대함과 인내를 옷 입듯 입으십시오. 13 서로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15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 †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

††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만 들어 있다. ††† 스구디아인 야만스럽고 미개한 종족으로 알려졌다. ††††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린다. § 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서, 교회 또는 그분의 백성을 뜻한다.

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sup>16</sup>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말씀에서 온 갖 지혜를 배워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sup>17</sup>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새로운 삶

<sup>18</sup>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sup>19</sup>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을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sup>20</sup>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sup>21</sup>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자극하여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의 기가 꺾입니다.

<sup>22</sup>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이여,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땅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주인이 보고 있거나 주인의 눈에 들려고 할 때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sup>23</sup>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십시오. <sup>24</sup>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sup>25</sup>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에게 따라 차별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4** 주인들이여, 여러분의 종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

<sup>2</sup> 늘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힘쓰십시오. <sup>3</sup>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숨겨졌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비밀을 전하는 일로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sup>4</sup>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비밀을 밝히 선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sup>5</sup> 교회 밖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모든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sup>6</sup>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맞춘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식

<sup>7</sup> 두기고가 내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충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sup>8</sup>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9</sup> 그는 오네시모와 함께 갈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 받는 형제이며,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곳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sup>10</sup>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에 관한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반갑게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sup>11</sup>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만이 유대 사람입니다. 이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sup>12</sup>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sup>13</sup>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sup>14</sup>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인 의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15</sup> 라오디게아에 사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눔바와 그 자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sup>16</sup>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뒤에 꼭 라오디게아교회의 성도들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라오디게아교회에 쓴 편지를 받아 읽으십시오. <sup>17</sup> 그리고 아킵보에게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꼭 완수하라.” 고 알려 주십시오.

<sup>18</sup>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1**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 데살로니가 신도들의 삶과 믿음

**2**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수고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내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4**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5**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8** 여러분이 전한 주님의 기쁜 소식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두루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신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입니다.

##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했던 일

**2**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2**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3**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4**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을 말길 만하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

쁘게 해 드리려 애씁니다. **5**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결코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구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6** 우리는 여러분이나 또 다른 누구나 할 것 없이도 무지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7**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하였습니다. **8**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10** 또 우리가 믿는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11**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좇아야 할 길을 따라 살라고 여러분을 권하고 격려하고 타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로 들어 오라고 부르십니다.

**13** 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4**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유대 **11**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믿는 이들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 동족인 유대 사람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15**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16** 곧,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 가고 있습니다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렸습니다.

## 바울,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어하다

**17**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잠깐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만 떠나 있을 뿐 마음으로는 언

† 마치...대하였습니다.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함. †† 유대 예수께서 살고, 가르치고,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유대 사람들의 땅.

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한 나머지, 여러분을 찾아가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sup>18</sup>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나 바울이 몇 번 여러분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sup>19</sup>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스러운 월계관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sup>20</sup>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3** 참다못해 우리는 아테네에 그냥 남아 있기로 하고, <sup>2</sup> 디모데만 여러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 주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sup>3</sup>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sup>4</sup> 사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앞으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sup>5</sup> 그 때문에 나는 참다못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하는 자 <sup>†</sup>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sup>6</sup>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sup>7</sup>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sup>8</sup>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sup>9</sup>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충분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sup>10</sup> 우리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 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sup>11</sup>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up>12</sup>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듯,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sup>13</sup>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해 주시어,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 없고 거룩한 사람들 <sup>††</sup>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

**4**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지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하고 권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사십시오. <sup>2</sup>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내린 지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sup>3</sup>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고, <sup>4</sup> 각기 거룩하고 명예롭게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혹하는 자 여기에서 바울은 사탄이나 악마를 가리키는 듯하다. ††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은 순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다. <sup>45</sup>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뜨거운 욕정에 빠져들지 않고, <sup>6</sup>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형제나 자매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모두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sup>7</sup>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도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sup>8</sup> 그러므로 이런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령을 보내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sup>9</sup>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sup>10</sup> 실제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권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sup>11</sup> 우리가 명한 대로, 여러분은 조용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각기 자기 일에 마음을 쓰며,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sup>12</sup>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 <sup>‡</sup>의 우러름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주님의 다시 오심

<sup>13</sup>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죽는 사람들에 관하여 모른 채로 있거나, 희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sup>14</sup>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죽은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다시 데려오시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sup>15</sup>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을 우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결코 앞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sup>16</sup> 우렁찬 명령과 천사장 <sup>‡‡</sup>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sup>17</sup> 그리고 나서 아직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sup>18</sup> 그러니 이런 말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 주께서 오실 때를 위해 준비하라

**5**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sup>2</sup>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오는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sup>3</sup>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다.” 고 말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야기를 뵈는 여자가 야기를 낳을 때 찾아오는 고통과 같아서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sup>4</sup>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이날이 도둑처럼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sup>5</sup>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sup>6</sup>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sup>7</sup> 잠자는 사람들도 밤에 잠을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sup>8</sup>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믿음과 사랑을 갑옷처럼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

‡ 각기...배우는 것입니다 또는 ‘각기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아내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 믿지 않는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바깥 사람들’. ††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끄는 높은 천사.

처럼 씹시다. <sup>9</sup>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가 내리도록 정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sup>10</sup>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up>11</sup>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십시오.

#### 마지막 훈계와 인사

<sup>12</sup>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sup>13</sup>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극진히 받드십시오.

서로 평화롭게 사십시오. <sup>14</sup>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십시오. <sup>15</sup> 어느 누구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두루 살피십시오.

오. 오히려 언제나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sup>16</sup>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sup>17</sup>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sup>18</sup>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sup>19</sup>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sup>20</sup> 예언자들의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sup>21</sup>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sup>22</sup>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sup>23</sup> 평화의 하나님께서 몸소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정신과 영혼과 몸이 흠 없이 지켜지기를 빕니다. <sup>24</sup>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sup>25</sup>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sup>26</sup>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자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sup>27</sup>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에게 읽어 주십시오. <sup>28</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 데살로니가후서

**1**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sup>2</sup>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sup>3</sup> 우리가 형제자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sup>4</sup> 우리는, 여러분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 견디어 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

<sup>5</sup>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6</sup>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으시고, <sup>7</sup>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sup>8</sup> 그때에 예수께서는는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sup>9</sup>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sup>10</sup>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는 이들 가운데에 들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sup>11</sup>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걸맞은 사람들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에서 우러나온 모든 행위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sup>12</sup>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얻고, 여러분은 그분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2**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일러줄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될 일에 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sup>2</sup>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sup>3</sup> 여러분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sup>4</sup> 그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맞서며, 자기 자신을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sup>5</sup>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들에 관하여 거듭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sup>6</sup> 여러분은, 그의 때가 되어야 그를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sup>7</sup> 그러나 사실 불법의 세력이 이미 세상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밀한 불법의 세력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계속하여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가 마침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sup>8</sup> 그때에는 불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넘어뜨리시고, 다시 오실 때의 그 광채로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sup>9</sup> 이 불법자는 사탄의 일을 하려고 올 것입니다. 그는 온갖 거짓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sup>10</sup> 그리고 온갖 나쁜 속임수를 써서 멸망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 받을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sup>11</sup>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는 그들을 흘리는 강한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sup>12</sup> 그리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정죄 받을 것입니다.

## 여러분은 구원받도록 골라 뽑으신 사람들

<sup>13</sup>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sup>14</sup>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sup>15</sup>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이나 글로 전하여 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sup>16</sup>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sup>17</sup>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택하셨기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여러분을 '처음 열매로 택했다'고 되어 있음.

###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3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처럼, 다른 모든 곳에서도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sup>2</sup>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sup>3</sup>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실 것입니다. <sup>4</sup>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실히 믿습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리라는 것입니다. <sup>5</sup>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일해야 할 의무

<sup>6</sup>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게으르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자매를 멀리하십시오. <sup>7</sup> 우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무책임하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sup>8</sup>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양식을 얻어먹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sup>9</sup>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를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10</sup>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sup>11</sup>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게으르게 살면서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sup>12</sup>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sup>13</sup>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sup>14</sup> 우리가 이 편지에 써 보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sup>15</sup> 그러나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따뜻하게 타이르십시오.

### 끝맺는 말

<sup>16</sup> 평화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모양으로나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sup>17</sup>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이것은 내 모든 편지를 가려내는 표입니다. 이것이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sup>18</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디모데전서

**1** 우리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sup>2</sup>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sup>3</sup>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그대에게 부탁했던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대는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라. <sup>4</sup> 그리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에 정신을 파는 짓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말다툼이나 불려일으키기 때문이다. <sup>5</sup>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려일으키려는 것이다. <sup>6</sup>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다. <sup>7</sup>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율법<sup>†</sup> 선생이 되려고 한다.

<sup>8</sup> 우리는, 율법이 바르게만 사용되면 선한 것임을 알고 있다. <sup>9</sup> 그리고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못한 자와 죄를 짓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 살인자, <sup>10</sup>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와 동성애자, 노예 상인과 거짓 말쟁이와 거짓 증언하는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sup>11</sup> 건전한 가르침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

##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

<sup>12</sup>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그분은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내게 당신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sup>13</sup>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폭력으로 괴롭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sup>14</sup>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내게 넘치게 부여졌다.

<sup>15</sup>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다. 나는 그 죄인들 가운데서 첫째가는 죄인이었다. <sup>16</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악

† 율법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유대 사람의 율법을 말하는 듯하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볼 것.

한 죄인인 나를 본보기로 보여 주시려는 것이다. <sup>17</sup> 이제,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빈다. 아멘.

<sup>18</sup> 내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에 관하여 받은 예언<sup>††</sup>에 따라서 내가 그대에게 명한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고귀한 싸움을 싸워라. <sup>19</sup> 믿음을 굳게 지키고 깨끗한 양심을 지녀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sup>20</sup> 그런 사람들 가운데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규칙들

**2**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재의 기도와 감사를 드릴 것을 권한다. <sup>2</sup> 왕들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고, 사람들에게서 존중을 받으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sup>3</sup>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다. <sup>4</sup>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sup>5</sup>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오직 한 길뿐이니, †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는 길이다. <sup>6</sup>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을 바쳐 그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에 세상에 주신 말씀이다. <sup>7</sup>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와 사도로,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임명을 받았다.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sup>8</sup>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 하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sup>9</sup> 그리고 여자들은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기 바란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며,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꾸미지 말아야 한다. <sup>10</sup> 오히려 착한 행실로 자신을 꾸며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여자에게 어울린다.

<sup>11</sup> 여자는 복종하는 가운데 조용한 태도로 배워야 한다. <sup>12</sup> 나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sup>13</sup>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sup>14</sup> 그리고 속은 것도 아담이 아니었다.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은 여자였다. ††<sup>15</sup>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한 생활을 계속하면, 아이를 낳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 예언 예언자들이 디모데의 삶에 관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해 준 일들을 말한다. † 무너지고 글자 그대로는 '파선을 당하고'. †† 사람이...한 길뿐이니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 그리고 속은 것도...여자였다 창 3:1-13.

**교회의 장로**

3 “누구든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고귀한 임무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이다. 2 감독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존경 받을 만하며, 손님 대접을 잘 하고, 또 남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4 감독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모든 면에서 자녀들이 존경하며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6 감독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악마가 받은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또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덮에 걸려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교회의 집사**

8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9 그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여야 한다. 10 집사가 될 사람은 먼저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집사로서 일하게 하여라. 11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신중하고,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12 집사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13 집사로서 잘 봉사한 사람들은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

**우리 삶의 비밀**

14 내가 그대에게 곧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것은, 15 혹시 내가 늦어지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안이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다. 16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심오한 진리 卍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뵈었다. 그분은 모든 나라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4 훗날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악마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2 악마의 가르침은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을 통하여 온다. 이 거짓말쟁이들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것처럼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다. 3 그들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4 하나

† 여자들 아마도 여자 집사나, 집사의 부인을 말하는 것 같다. †† 심오한 진리 글자 그대로는 ‘신비’. 그리스어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거나 알려 주신 어떤 것을 뜻한다. ‡ 그리스도 ‘하나님’ 이라고 한 그리스어 사본도 있음.

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마다할 것이 없다.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종이 되어라**

6 그대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내 가르침을 깨우쳐 주어라. 그러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그대가 좇아온 건전한 교훈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이다. 7 속된 신화나 늙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들은 물리쳐라.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여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8 몸을 훈련하는 것도 조금은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훈련은 모든 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준다. 9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10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힘써 노력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1 그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하여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오히려 그대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한 삶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어라. 13 내가 갈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 들려주는 일과 간곡히 타이르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14 그대가 받은 영적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예언자들이 그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장로들이 그대에게 손을 얹어 주었을 때에, † 그대가 받은 것이다.

15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여라. 그것들에 그대 자신을 완전히 바쳐라.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여라. 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라.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규칙**

5 나이 많은 남자를 심하게 꾸짖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이 정중히 권하여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대하고, 2 나이든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여라. 젊은 여자는 누이처럼 대하되, 온전히 순결한 마음과 행동으로 대하여라.

3 돌보아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홀어미는 돌보아 주어라. 4 그러나 어떤 홀어미에게 자녀나 손자손녀가 있으면,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네 가족을 돌보고 부모와 조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5 정말로 혼자 남아 돌보아 주는 이가 없는 홀어미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청한다. 6 그러나 향락에 빠져 사는 홀어미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7 그러니 온 교회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아무도 비난 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8 자기 친척, 특히 가까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9 예순 살이 넘지 않았거나 한 남편과만 결혼했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교회의 홀어미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 10 명단에 올릴 홀어미는 착한 행실로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들을 기르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온갖 착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한다.

†† 손을 얹어 주었을 때에 손을 얹어 주는 것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11 그러나 젊은 홀어미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라.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그리스도께 몸 바쳐 살겠다는 서약을 저버리고 다시 결혼하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그렇게 되면 그들이 처음에 한 서약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13 그 밖에도 그들은 게으른 버릇을 익혀서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닌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14 그러므로 나는 젊은 홀어미들은 다시 결혼을 하여,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다스리라고 권한다. 그래야 적들에게 비판할 구실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15 실제로 몇몇 홀어미들은 이미 걸길로 빠져서 사탄을 따라갔다.

16 만일 어떤 믿는 여형제의 집안에 홀어미들이 있다면, 그 여형제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그렇게 하여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돌보아 주는 이 없는 홀어미들을 도울 수 있다.

17 교회를 잘 이끄는 장로들,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들은 갑절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18 성경에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는 말씀과, “일꾼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19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지 않고 장로를 고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마라. 20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라.

21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령한다. 그대는 누구의 편을 드는 일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아주는 일은 결코 하지 마라.

22 그대는 어느 누구에게도 서둘러 손을 얹어 주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끼여들지 말고, 그대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라.

23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대의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도록 하여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난다. 25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명백하게 드러나며, 당장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젠가 드러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한다.

**6** 종의 멍에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깊이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 그리고 믿는 형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은, 주인을 믿음의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섬겨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같은 믿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거짓 가르침과 참된 부자**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순종하라고 권고하여라. 3 이것들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과

† 어떤 믿는...한다 몇몇 옛 그리스어 사본에는 ‘어떤 남자나 여자 신도의 집에 홀어미들이 있다면, 그 남자나 여자가 그 홀어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타작...마라 신 25:4. ‡ 일꾼은...있다 눅 10:7. †† 손을 얹어 주지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한이나 능력을 준다는 표시이다.

일치하고, 경건한 삶의 바탕이 되는 교리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4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논쟁과 말다툼을 병적으로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질투와 다툼과 악의에 가득 찬 말과 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5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다. 그들의 마음은 썩었고, 그들에게서는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수단이다.

6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이득이다. 7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죽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8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9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덮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 10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서 신앙을 버리고 헤매다가 극심한 고통을 많이 겪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11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도망쳐라. 그대는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라. 12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다. 13 이 세상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한다. 14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15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들 가운데 왕이시요, 군주들 가운데 군주이시다. 16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아무도 빈 적이 없는 분이며, 뵈 수도 없는 분이시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빈다. 아멘.

17 지금 이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교만해지지 말라고 명하여라. 그리고 재산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명하여라. 재산은 믿을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즐기게 해 주신다. 18 그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에 부자가 되라고 명하여라. 그리고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라고 일러라. 19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앞날을 위해 보물을 쌓게 될 것이고, 그 보물은 앞으로 그들이 참된 생명을 얻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20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들을 잘 지켜라.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을 물리쳐라. 21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빈다.

¶ 본디오 빌라도 기원후 26-36년 동안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눅 23:1-3).

# 디모데후서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널리 알리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sup>2</sup>이 편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 감사와 격려

<sup>3</sup>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sup>4</sup>우리가 헤어질 때 그대가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에, 나는 그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대를 만나면 내 기쁨이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이다. <sup>5</sup>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믿음이 그대에게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sup>6</sup>그런 까닭에 나는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부채질을 하여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그대를 일깨운다. 그 선물은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그대가 받은 것이다. <sup>7</sup>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줍음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sup>8</sup>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을 위해 일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몸이 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라. <sup>9</sup>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려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이룩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은혜 때문이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sup>10</sup>그런데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셨다. 그렇다! 예수께서는 기쁜 소식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의 길을 보여 주셨다. <sup>11</sup>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sup>12</sup>또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알고, 또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sup>13</sup>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서 들은 건전한 교훈을 삶의 원칙으로 굳게 지켜라. <sup>14</sup>그리고 그대에게 맡겨진 보물 곧 기쁜 소식을 잘 지켜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라.

<sup>15</sup>그대도 알다시피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비롯하여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 <sup>16</sup>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 손을 얹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sup>17</sup>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애써 찾아다닌 끝에 나를 만날 수 있었다. <sup>18</sup>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가 여러 면에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었는지 그대는 잘 알고 있다. 주께서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인

**2** 내 아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sup>2</sup>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나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 그대가 듣고 배운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도 그대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sup>3</sup>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져라. <sup>4</sup>군인으로 부름을 받아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군대 밖의 일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의 목적은 자기를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sup>5</sup>또 운동 선수로서 운동 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 <sup>6</sup>열심히 일한 농부는 마땅히 추수한 곡식에서 자기 몫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한다. <sup>7</sup>그대는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sup>8</sup>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핵심이다. <sup>9</sup>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죄인처럼 이렇게 사슬에 묶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슬에 묶여 있지 않는다. <sup>10</sup>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다. 그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sup>11</sup>다음과 같은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sup>12</sup>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sup>13</sup>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모른다고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 인정받은 일꾼

<sup>14</sup>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어라. 그들이 말다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경고하여라. 말다툼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며, 오직 듣는 이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 <sup>15</sup>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sup>16</sup>속된

허튼소리를 피하여라. 그런 것을 좋아하여 거기에 빠진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17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18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19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튼튼한 기초 †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그 기초에는 “주께서는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는 말씀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20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인다. 21 내가 앞서 말한 악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귀하게 쓰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 될 것이다.

22 그대는 젊은이의 욕정을 피하여라. 순결한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더불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아라. 23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피하여라. 그대도 알다시피 논쟁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24 주님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25 그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가르쳐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지도 모른다. 26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악마의 울가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마에게 붙들려서 악마가 원하는 일을 해 오던 사람들이다.

**마지막 날**

3 그대는 이것을 알아 두어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닥칠 것이다.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남을 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고마워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못하며, 3 사랑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남을 욕하고, 절제를 모르며, 잔인하고, 선한 것을 미워하며, 4 배신하고, 경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5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6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자들은 죄에 짓눌려 있고, 온갖 악한 욕망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자들이다. 7 이 여자들은 늘 듣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 8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진리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썩었으며, 그들의 믿음은 걸치레일 뿐이다. 9 그러나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안네와 암브레가 그랬듯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러두는 말**

10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 나의 목표와 믿음,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 나의 인내를 잘 보아 왔다. 11 또한 내가 받은 박해와 고통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끔찍한 박해를 받고도 다 참아 내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12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당할 것이다. 13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

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하게 될 것이다.

14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 굳게 믿고 있는 가르침들을 계속 하여 지켜라. 그대는 그 가르침들이 진리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에게 가르쳐 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15 그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잘 익혀 왔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다. 16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꾸짖고 허물을 바로잡아 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이다. 17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4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그분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하게 명령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꾸짖고 격려하되, 참을성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르쳐라. 3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참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맞는 선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싶어할 것이다. 그 선생들에게서 그들의 근질거리는 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할 것이다. 4 그들은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다. 5 그러나 그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여라.

6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제물 †로 바쳐질 때가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경주를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8 이제는 의의 월계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날이 오면, 공정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내게 씌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려 온 모든 사람에게도 씌워 주실 것이다.

**개인적인 부탁**

9 그대는 되도록 빨리 내게로 오너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11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12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13 그대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 †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14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다. 주께서 그가 내게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15 그대도 알렉산더를 조심하여라. 그는 우리의 가르침에 몹시 반대하였다.

16 내가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완전하게 선포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 18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의 공격에서 구해 내어 안전하게 당신의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 부어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제물 위에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부어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 †† 양피지 양가죽을 종이처럼 만들어, 그 위에 글씨를 썼다.

† 기초 집의 무게를 받치는 맨 밑바닥. †† 주께서는...아신다 민 16:5.

## 인사

<sup>19</sup>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 집안에 문안해 주어라. <sup>20</sup>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투스에 남겨 두었다. <sup>21</sup> 서둘러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하여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문안한다.

<sup>22</sup> 주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하시기를 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 디도서

1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리를 더 잘 알게 해 주려고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2 이 믿음과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준다.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나는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소식을 알리는 일을 맡았다.

4 나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진실된 내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 디도가 크레테에서 할 일

5 내가 그대를 크레테에 남겨 둔 까닭은, 그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내가 명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뽑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6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거만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좇아서도 안 된다. 8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하고, 조심스러우면서 듄직하고, 올바르고,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9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배운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이다.

10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일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11 그대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여러 집안을 통째로 망쳐놓고 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12 바로 그런 크레테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예언자라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크레테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이고 사악한 짐승이고 게으른 먹보들이다.”

13 이 증언은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건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14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 사람의 꾸며 낸 이야기와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썩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실은 그들이 자신의 정신과 양심이 모두 썩었다. 16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입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 참된 가르침을 따라라

2 그대는 건전한 교리에 맞는 것을 가르쳐라. 2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고 진지하고 신중하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라고 가르쳐라.

3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남을 헐뜯는 사람이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들의 우려를 받는 몸가짐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라. 4 그리하면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여,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5 신중하고 정숙하며, 집안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6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에게도 자제력을 갖추라고 권하여라. 7 그대는 선한 행동으로 모든 일에 있어 모범을 보여라. 가르칠 때에는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어라. 8 그리고 책잡힐 것 없는 건전한 말로 가르쳐라. 그것은, 누구도 우리를 헐뜯어 말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9 중들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라. 그들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10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라. 그것은, 그들 때문에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가르침이 모든 면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11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12 이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세속적인 열정에게는 “아니오.” 라고 말하게 한다. 그리고 자제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 13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 준다.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 내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15 이런 것들이 그대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다. 그대는 큰 권위를 가지고 충고하고 꾸짖어라.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 올바르게 사는 길

3 그대는 교우들을 깨우쳐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

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sup>2</sup> 아무도 헐뜯지 말며, 다투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게 하여라.

<sup>3</sup>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아 잘못된 길로 빠졌었다. 그리고 온갖 욕망과 쾌락의 중으로 매여 살기도 하였다. 우리는 악한 마음과 시기심 속에서 살았다. <sup>4</sup>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sup>5</sup>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sup>6</sup>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 주셨다. <sup>7</sup>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진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sup>8</sup>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대는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가르쳐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온 마음을 쏟게 하여라.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sup>9</sup>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말다툼이나, 족보에 관한 이야기나, 논쟁이나, 율법에 관한 싸움은 피하여라. 이런 것들은 유익이 되지 않

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sup>10</sup>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번 타일러 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까지는 타일러라. 그 뒤로는 아는 체도 하지 마라. <sup>11</sup> 그런 사람은 비뚤어지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것들

<sup>12</sup> 내가 아데미와 두기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대에게 보내는 대로 그대는 서둘러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너라. 나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였다. <sup>13</sup> 법률가 세나와 아폴로가 여행하는 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어라. <sup>14</sup> 우리 교우들도 선한 일에 힘을 써서 남을 위하여 날마다 쓸 것을 마련해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sup>15</sup>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빈다.



# 빌레몬서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우리와 같이 일하는 빌레몬과,<sup>2</sup>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여러분과 우리 자매 압비아와, 우리 전우 아킵보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sup>3</sup>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4 나는 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sup>5</sup> 그대가 주 예수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sup>6</sup> 나는 그대가 믿음에서 우러나 다른 믿는 이들과 활발하게 사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귀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빕니다.<sup>7</sup>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내게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 주었습니다.

##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들여라

8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담하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sup>9</sup> 그러나 나는 그대의 사랑에 힘입어 그대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미 늙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몸인 나 바울이 부탁드립니다.<sup>10</sup>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sup>11</sup>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뿐 아니라 내게도 쓸모 있는 † 사람이 되었습니다.

12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sup>13</sup>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하여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대를 대신하여 내 시중

† 쓸모 있는 여기서 바울은 재치 있는 말놀이를 하고 있다. '오네시모' 라는 이름에는 '쓸모 있는' 또는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도 있다. 또한 그리스어에서 '쓸모 없는'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없는' 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고, 여기서 '쓸모 있는' 이라는 말은 '좋은 그리스도교 신자' 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을 듣게 하고도 싶었습니다.<sup>14</sup> 그러나 나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하는 좋은 일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하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그대에게 돌아가 영원히 그대 곁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sup>16</sup>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으로서나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나, 나보다 그대에게 얼마나 더 귀중한 사람이겠습니까!

17 그대가 나를 같은 일을 하는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반기듯이 그를 반갑게 맞아 주십시오.<sup>18</sup> 그리고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으십시오.<sup>19</sup> "나 바울이 그것을 갚겠다." 라고 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씁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 빛을 진 것이지만,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sup>20</sup>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 도움 卍 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sup>21</sup> 그대가 내 청을 들어 주리라 굳게 믿기에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청하는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22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내가 목을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 인사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sup>24</sup>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마가와 아리스다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卍 도움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 '오네시모'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재치 있는 말놀이를 하고 있다. '오네시모' 에는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이라는 뜻도 있다.

# 히브리서

##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1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님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3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며, 하나님과 꼭 같은 본성을 지니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신 뒤에,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4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물려받으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

6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를 경배하여라.” †††

7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바람 †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

8 그러나 아드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정의의 흠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흠입니다.

9 당신께서는 언제나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쁨을 부여

당신의 동료들 위로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

10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맨 처음에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11 땅과 하늘은 사라지겠으나

당신께서는 영원히 계시실 것입니다.

† 시 2:7. †† 삼후 7:14. † 맏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첫째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뜻한다. †† 하나님의... 경배하여라 이 대목은 70인역 성경, 그리스어 구약성경, 사해 문서 가운데 히브리어 사본 신 32장 43절에 나온다. †† 바람 이 말은 ‘영’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 시 104:4. ††† 시 45:6-7.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지고 말 것입니다.

12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겉옷처럼 두르르 말아 버리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시며

당신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

13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

14 모든 천사는 구원을 상속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 아닙니까?

## 우리의 구원은 율법보다 위대하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2 천사들을 시켜 전하신 말씀도 그렇게 큰 구속하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만일 우리가 것처럼 값진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맨 먼저 알려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4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당신의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므로써, 그들의 확증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과 같이 되셨다

5 지금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6 어떤 사람이 성경 §††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사람이 무엇이기며

당신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7 당신께서는

그들을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그들에게 씌워 주셨고

8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

이렇게 ‘모든 것’ 을 그들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께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으나, 지금은 영광과 영예의 왕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직접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 시 102:25-27. §† 시 110:1. §†† 성경 구약성경. §† 시 8:4-6.

10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아들딸들이 당신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그분을 완전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12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렵니다.” †

13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렵니다.” ††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

14 이 자녀들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들과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악마를 쳐서 이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15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중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16 분명히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의 자손들입니다. 17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당신의 형제자매인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벗겨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8 그분은 몸소 유혹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3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사도이며 대제사장 †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2 예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3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4 모든 집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성실하였으며,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는 데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7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때에

나에게 반역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었다.

9 그곳에서 너희의 조상들은

† 시 22:22. †† 사 8:17. † 사 8:18. † 아브라함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사장.

사십 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떠보려 하였다.

10 그 때문에 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져 언제나 딴 길로만 가고 내 길은 알지도 못한다.’

11 나는 화가 나서 맹세까지 하며 선포하였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지 못할 것이다.’ ††

12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13 날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아직은 ‘오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디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4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성경 §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했던 그 사람들처럼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

16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반역을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17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죄를 짓고, 그 몸이 죽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 모두에게 화를 내신 것 아닙니까? 18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2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이제 그것을 믿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와

쉬는 얻지 못하리라.’ ††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뒤로 쉬셨습니다. 4 성경 § 어디에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 그러나 위에서 말한 다른 구절에서는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6 전에 자기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들어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7 그래

†† 시 95:7-11. ††† 오늘 이 말은 앞의 7절에서 따온 말이다. 그런 일들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 성경 구약성경. §† 시 95:7-8. §†† 시 95:11. §† 성경 구약성경. §†† 그리고...쉬셨다 창 2:2.



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에 들어갈 또 다른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성경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무디고 고집스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

8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다른 안식의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9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곱째 날의 안식 ††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로 남아 있습니다. 10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아무도 옛날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우며, 정신과 영혼을 갈라내고, 뼈마디와 뺨골을 갈라내기 까지 꿰뚫고 들어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자세히 살핍니다. 13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그분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살아온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신다**

14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15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16 이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5 모든 유대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힙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돕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물과 죄를 위한 희생 제물 ††을 바쳐야 합니다. 2 그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결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4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론 †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

6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 †††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

† 시 95:7-8. †† 일곱째 날의 안식 글자 그대로는 ‘안식일의 안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시작하신 안식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 †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 †††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 유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 아론 모세의 형으로서, 첫 유대 사람 대제사장. †††† 시 2:7. †††††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이며 왕(창 14:17-24). § 시 110:4.

7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8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고통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9 그분은 그렇게 하여 완전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11 멜기세덱을 두고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달는 일에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12 여러분은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13 젓을 먹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모릅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실천으로 자신들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가릴 수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배우는 일은 그만둡시다. 그리고 보다 더 어른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더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여러분은 세례에 관한 교훈과 손을 얹는 것 §††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보다 수준 높은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4 한번 진리를 배워서 하늘이 주는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5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고,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6 이제 와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7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8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하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저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과 더불어 오는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0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을 도와 왔고 지금도 도우면서, 그분을 위해 보여 준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11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것과 같은 열성을 끝까지 보여서 여러분의 희망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12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인내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기 바랍니다.

1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14 이렇게

§†† 그분께 순종하는...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손을 얹는 것 대체로 기도와 함께 손을 얹는 이 행위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을 내려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네게 복을 내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sup>†15</sup>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sup>16</sup>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걸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확증하는 뜻에서 한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만듭니다.<sup>17</sup>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sup>18</sup>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거나 맹세를 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피할 곳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sup>19</sup>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은 닳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며 하늘 장막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줍니다.<sup>20</sup>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sup>‡</sup>의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 제사장 멜기세덱

**7**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sup>2</sup>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풀어 보면, 먼저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sup>3</sup>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에 관해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sup>4</sup>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도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sup>5</sup> 율법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소득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동족에게서 십분의 일을 걷는다는 것입니다.<sup>6</sup>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가문<sup>‡</sup>의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sup>7</sup> 복은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 주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sup>8</sup> 제사장들도 십분의 일을 받고 멜기세덱<sup>‡</sup>도 십분의 일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멜기세덱은 살아 계심이 입증된 분입니다.<sup>9</sup> 그렇다면 동족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10</sup>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sup>11</sup>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가문의 혈통을 이은 제사장 제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와야 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론<sup>‡</sup>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sup>12</sup> 제사장 제도가 바뀌면 율법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sup>13</sup>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레위 가문이 아

닌 다른 가문에 속하는 분이며, 그 가문 사람으로서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sup>14</sup> 우리 주님께서 유대 가문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문과 관련지어서는 제사장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한 바가 없습니다.

### 예수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sup>15</sup>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sup>16</sup>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가문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율법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힘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sup>17</sup> 그래서 그분을 두고서 “너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야.”<sup>‡</sup>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sup>18</sup> 전에 있던 율법의 규정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 버리셨습니다.<sup>19</sup>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sup>20</sup>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sup>21</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맹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주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으니

그 마음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sup>‡</sup>

<sup>22</sup> 이 맹세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나은 계약<sup>§</sup>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sup>23</sup> 또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sup>24</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sup>25</sup> 그러므로 그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살아 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드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up>26</sup> 예수께서는 거룩하고,<sup>‡</sup> 흠이 없고, 순결하며, 죄인들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꼭 맞는 대제사장입니다.<sup>27</sup>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그런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sup>§</sup>을 바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그것을 단 한 번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sup>28</sup>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율법이 생긴 뒤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아드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8** 우리 말의 요점은,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sup>‡</sup>을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오른편<sup>‡</sup>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sup>2</sup>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인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 보고 계십니다.

‡‡ 너는...제사장이야 시 110:4. ‡‡‡ 시 110:4. § 계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계약 또는 언약을 맺으신다. 유대 사람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바로 계약이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과 더 나은 계약을 맺으셨다. §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는 제물을 말한다. 유대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여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사장. §‡‡ 오른편 영예와 권위의 자리.

† 나는...주겠다 창 22:17. ††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이며 왕(창 14:17-24). ††† 레위 가문 유대 민족의 열두 가문들 가운데 한 가문. ††††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이며 왕(창 14:17-24). ††††† 아론 모세의 형으로, 첫 유대 사람 대제사장.

3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4 만일 그분이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에는 이미 예물을 드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은 땅 위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든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하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보여 준 그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16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말하시려는 일은 그들이 하던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받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새 계약 17도 옛 계약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새 계약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7 그 첫번째 계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계약이 생길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8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 집안과  
유대 집안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9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10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 †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 생각 안에 심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들은

다시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

13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새 계약’ 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첫번째 계약 †을 낳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 옛 계약 아래에서의 예배

9 첫번째 계약에도 예배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땅에서의 예배 장소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2 그것은 거룩한 장막 †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의 첫번째 방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빵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3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 †라고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4 그 안에는 향을 태우는 † 금으로 된 제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계약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만사를 담은 금 향아리와, 싹이 돋아난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법조문인 십계명을 새긴 두 돌 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5 이 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룹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로 ‘자비의 자리’ †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6 장막 안의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장막의 첫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맡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7 그리고 대제사장 † 한 사람만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 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8 성령께서는 따로 떨어진 이 두 방을 써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첫번째 장막이 아직도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 이것은 모두 이 시대를 위한 하나의 보기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희생 제물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0 그것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 곧 사람들의 속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깥 몸에만 관한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시어, 당신의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따르게 하셨습니다.

## 새 계약 아래에서의 예배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옛날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던 그런 장막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12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13 옛날의 제사장들은 의식상으로 부정을 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재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14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씻어 주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양심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들을 씻어 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 †의 능력을 힘입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15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새 계약 †을 중재하는 분

†† 거룩한 장막 또는 ‘성막’. § 지성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만나시던 곳. §† 향을 태우는 특별한 나무의 어린잎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바쳤다. §†† 자비의 자리 십계명이 들어 있는 ‘계약의 궤’ 뒷부분에 있는 자리.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이곳에 짐승의 피를 갖다 놓았다. §†† 대제사장 유대 사람들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영원한 영 아마도 성령을 말하는 듯하다. §† 새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더 나은 계약. ‘계약’을 찾아볼 것.

† 너는 모든...하여라 출 25:40. †† 새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보다 나은 계약’ 을 가리킨다. † 이스라엘 먼저 ‘이스라엘’ 은 야곱의 후손들을 말한다 (‘찾아보기’ 에서 ‘이스라엘’ 을 볼 것).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모두를 뜻하기도 한다. †† 이스라엘 집안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듯하다. †† 렘 31:31-34. ††† 첫번째 계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유대 백성과 맺으신 계약.

이십니다. 그분은 첫번째 계약 † 아래에서 지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그 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6 유언의 경우에는, 먼저 그것을 남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유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18 그런 까닭으로, 첫번째 계약도 피 흘림이 있기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19 모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을 붉은 양털과 히속 풀 †에 묻혀 율법 책과 모든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20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약의 피입니다.” ‡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 †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22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을 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죄를 없이한다

23 그러므로 하늘의 것들을 본떠 만든 모형들 †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실체들은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24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 곧 참된 장막을 본떠 만든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25 또한 대제사장 ††들은 자신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거듭거듭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26 만일 그렇게 거듭 바쳐야 한다면, 세상이 창조된 뒤로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 버리려고 시대의 끝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27 사람은 한 번 죽게 마련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8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두 번째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10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해마다 계속하여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2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해 줄 수 있었다면, 제물을 해마다 바치는 일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죄 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3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은 해마다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4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첫번째 계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 ‘계약’을 찾아볼 것. †† 히속 풀 또는 ‘우솔초’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피나 물을 뿌릴 때 쓰는 잔가지와 이파리가 많이 붉은 식물. † 이것은...피입니다 출 24:8. †† 장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던 거룩한 천막. †† 하늘의 것들을 본떠 만든 모형들 장막과 제사 의식을 위해 쓰이던 여러 가지 기구를 가리킨다. ††† 대제사장 유대 사람들의 가장 높은 제사장.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6 당신은 번제물도 정결제물 ††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7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두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

8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정결제물을 원하시지도, 즐거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것들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계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번째 것을 없이하셨습니다. 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그렇게 하셨으나, 그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유효합니다.

11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서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죄를 없이할 수 없습니다.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 †에 앉으셨습니다.’ 13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권세 아래에 두게 될 §††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4 그분께서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당신의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15 성령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 “나 주가 말한다. 그날 뒤로 내가 내 백성과 맺을 계약 ††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 줄 것이다.” §†

17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들의 죄와 법에 어긋나는 행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

18 이러한 죄들을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결제물 다른 번역판에서는 ‘속죄제물’ 로 번역함. § 시 40:6-8. §† 당신께서는...않으십니다 시 40:6. §†† 내가...왔습니다 시 40:7. §† 오른편 영예와 권위의 자리. §†† 권세 아래에 두게 될 글자 그대로는 ‘발등상으로 만들’ §†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새롭고 보다 나은 계약. ‘찾아보기’ 를 참고할 것. §† 렘 31:33. §†† 렘 31:34.

###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신 있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1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22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23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십시오.

### 서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라

24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씁시다. 25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자주 모입니다. 더구나 그날 †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26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제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7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끔찍한 일뿐입니다. 28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사정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29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까? 30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 †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 죄인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 여러분이 가진 용기와 기쁨을 잃지 말아라

32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견디어 낸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33 여러분은 때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34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고 더 오래 가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5 그러니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따를 것입니다.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37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능장을 부리지 않으실 것이다.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 그날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듯하다. †† 원수... 갚아 주겠다 신 32:35. ‡ 주께서... 것이다 시 135:14.

나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

39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 믿음

**11**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며,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2 옛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3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4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으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8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장차 그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9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가서 약속받은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그네처럼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10 아브라함은 튼튼한 기초 위에 놓인 도시 †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고, 그의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2 그리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나왔습니다.

13 이 모든 사람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에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는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4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

† 오시기로... 않을 것이다 구약성경 그리스어판 70인 역에서 따온 것이다. 랍 2:3-4. ††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들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sup>15</sup> 만일 그들이 떠나 온 나라를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리로 돌아갈 길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sup>16</sup>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sup>17</sup>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를 바쳤습니다. <sup>18</sup>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이 바로 그 아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sup>19</sup>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이삭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sup>20</sup>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sup>21</sup>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으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sup>22</sup> 요셉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말하고,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sup>23</sup>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가 여느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sup>24</sup>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sup>25</sup> 그는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sup>26</sup>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지게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상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up>27</sup> 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왕의 노여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 냈습니다. <sup>28</sup>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아들을 죽이는 자 <sup>29</sup> 가 이스라엘 백성의 만아들은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sup>29</sup>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건너려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sup>30</sup>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나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sup>31</sup> 믿음으로 몸 파는 여자인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sup>32</sup>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게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관하여 일일이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sup>33</sup>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sup>34</sup> 그들은 성난 불길을 꺾

고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함 가운데서 강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sup>35</sup>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놓아 주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sup>36</sup> 어떤 사람들은 놀림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sup>37</sup> 그들은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여 몸이 돌로 갈라지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박해 <sup>38</sup> 를 받고 학대를 당하면서, 양 가족과 염소 가족을 걸치고 떠돌았습니다. <sup>38</sup>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을 헤매기도 하고 동굴과 땅굴 속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sup>39</sup> 이 모든 사람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sup>40</sup>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하고 함께라면 믿음의 목표에 이르러 완전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12** 이렇게 우리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쉽게 우리를 얻어매는 죄를 떨쳐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를 끈기 있게 달립니다. <sup>2</sup> 우리의 두 눈을 예수께로부터 떼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요 완성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sup>3</sup> 에 앉으셨습니다. <sup>3</sup> 죄인들에게서 그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참아 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쳐 버리거나 용기를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sup>4</sup> 여러분은 죄와 맞서 애써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었습니다. <sup>5</sup>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고 하신 <sup>6</sup>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잊은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꾸짖으신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sup>6</sup> 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두 꾸짖으신다.” <sup>7</sup>

<sup>7</sup> 그러니 어려움을 훈련이라 생각하고 참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에게 훈련받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sup>8</sup> 모든 자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

† 이삭을...태어날 것이다 창 21:12. †† 만아들을 죽이는 자 죽음의 천사.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각 집안의 만아들을 죽이게 하셨다(출 12:29-32).

‡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 †† 오른편 영예와 권위의 자리. †† 잠 3:11-12.



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9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훈련하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을 두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복종하며 진실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0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당신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잠깐 동안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처럼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11 어떤 훈련이든 받을 때에는 기쁘기보다는 괴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나중에 바른 삶에서 오는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살아라**

12 그러므로 여러분의 축 늘어진 팔을 들어 올리고, 힘 빠진 무릎을 꿇고 세우십시오. 13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러면 절뚝거리던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될 것입니다.

14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뵈 수 없습니다. 15 조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쓴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6 여러분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거나, 예서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는 한 끼니를 위해 만아들의 상속권을 팔아넘겼습니다. 17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서는 나중에 이 복을 받고 싶어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빌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18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어둠과 암흑에 뒤덮이고, 폭풍이 휘몰아치며, 19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리는 산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20 “짐승이라 할지라도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는 “나는 겁이 나서 떨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

22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 산 ‡입니다.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에는 수천 수만에 이르는 천사들의 즐거운 모임이 있고, 23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만아들 ¶들의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24 그리고 중재자로서 새 계약 ††을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신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아벨 §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였지만, 그분의 피는 죄의 용서를 호소합니다.

25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경고한 사람을 거역한 죄로 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께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26 그때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땀땀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27 이 ‘한 번 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립니다. 29 우리의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13**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2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3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학대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4 모두들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음 §하는 자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5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

7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또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9 온갖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음식에 관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칙은 그것을 지킨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10 우리에게는 한 제물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우리가 가진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11 유대교의 율법 아래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고기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살라 버립니다. 12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 그러니 우리도 진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도록 합시다. 14 이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5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쉬지 말고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6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17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보살펴 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할 사람

† 짐승이라도...것이다” 출 19:12-13. †† 나는...떨린다 신 9:19. ‡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겪은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다(출 19장). †† 시온 산 예루살렘이 서 있는 여러 산들 가운데 하나. 시온 산은 때로 예루살렘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영적인 도시를 말한다. †††† 만아들 유대 가정에서 만아들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한 축복을 받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만아들과 같다. †††† 새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더 나은 계약. ‘찾아보기’

에서 ‘계약’ 을 볼 것. § 아벨 아담과 이브의 아들.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 나는...것이다 학 2:6.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을 말한다. §‡ 신 31:6. §†† 시 118:6. §‡ 제물 글자 그대로는 ‘제단’. 여기서 제물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가리킨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 진군대가 머물러 있는 곳.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천막을 치고 머무르던 곳을 말한다.

들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sup>18</sup>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명예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sup>19</sup>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곧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up>20</sup>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양들의 위

대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sup>22</sup> 형제자매 여러분, 이 편지가 비록 짧은 글이기는 하나, 내가 쓴 권고의 말만은 부디 받아들여 주십시오. <sup>23</sup>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곧 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 함께 가겠습니다.

<sup>24</sup>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25</sup>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

† 영원한 계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더 나은 계약.

# 야고보서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가 온 세상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에게 문안드립니다.

## 믿음과 지혜

<sup>2</sup>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sup>3</sup>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시련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에게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sup>4</sup>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참아 내십시오.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sup>5</sup>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sup>6</sup>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sup>7</sup>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sup>8</sup>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어서 모든 일에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 참된 부자

<sup>9</sup>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예롭게 하여 주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sup>10</sup> 부자인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여 주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부자는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11</sup> 해가 뜨거운 열을 내뿜으며 떠올라 식물을 시들게 하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도 일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스러져 가고 맙니다.

##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sup>12</sup>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시련에서 오는 시련을 이겨 내면 영원한 삶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sup>13</sup>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sup>14</sup>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각기 자기의 악한 욕심에 끌려 덮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sup>15</sup>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sup>16</sup>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sup>17</sup>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하늘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뜨고 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 이스라엘 열두 가문 야고보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치 원수에게 쫓겨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러므로 언제나 한결같이시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sup>18</sup>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라

<sup>19</sup>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와 화내기는 더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up>20</sup>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sup>21</sup>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도덕적 더러움과 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sup>22</sup>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sup>23</sup>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sup>24</sup>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을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잊어버립니다. <sup>25</sup>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고, 그 법이 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명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코 들은 것을 잊어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

<sup>26</sup> 자신이 매우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sup>27</sup>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결하고 흠 없는 신앙이라고 인정하시는 신앙은, 어려움을 당한 고아들과 홀어미들을 돌보아 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2**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sup>2</sup>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온다고 합시다. <sup>3</sup> 그때에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 밑의 마룻바닥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sup>4</sup> 여러분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sup>5</sup>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의 부자

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라를 물려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sup>6</sup>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낮추어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착취하는 자들은 바로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재판소로 끌고 가는 것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sup>7</sup>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sup>8</sup>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 으뜸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sup>†</sup>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sup>9</sup> 그러나 여러분이 차별을 두어 사람들을 대접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은 여러분을 법을 어긴 죄인으로 판결할 것입니다.<sup>10</sup>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그 가운데 단 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sup>11</sup> “간음 †하지 마라.” †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은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sup>12</sup>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sup>13</sup>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실 자비가 당신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이겨낼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

<sup>14</sup>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sup>15</sup>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험벗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합시다.<sup>16</sup> 여러분이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잡수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sup>17</sup> 마찬가지로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sup>18</sup>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천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sup>19</sup>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들도 그것을 믿고 무서워 떨니다!

<sup>20</sup>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증거를 원하십니까?<sup>21</sup>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sup>22</sup>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과 그의 행동이 함께 작용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가 한 일로 완전해졌습니다.<sup>23</sup>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 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sup>24</sup>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sup>25</sup>또 라합 †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도 자기가 한 일 덕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나

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다른 길로 달아나게 도와주었습니다.

<sup>26</sup>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을 조심하여라**

**3** 형제자매 여러분,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을 가르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sup>2</sup>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sup>3</sup> 우리가 말을 부리려 할 때에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게 해야 말의 온몸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sup>4</sup> 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합니다. 그렇게 하여 키를 잡은 사람이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sup>5</sup>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산불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sup>6</sup>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온몸을 악으로 물들여서, 삶 전체를 파멸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에 타 버리고 맙니다.

<sup>7</sup>사람은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전부 길들여 왔고 지금도 길들이고 있습니다.<sup>8</sup>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건잡을 수 없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sup>9</sup>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sup>10</sup> 같은 입에서 칭찬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sup>11</sup>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잔물도 나올 수 있습니까?<sup>12</sup>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잔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

<sup>13</sup>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선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여 자신이 행하는 선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sup>14</sup>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거나 진실을 감추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sup>15</sup> 그런 ‘지혜’ 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악마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sup>16</sup>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서는, 무질서와 온갖 나쁜 일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sup>17</sup>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조금도 없습니다.<sup>18</sup>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뿌린 평화의 씨에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는 정의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 레 19:18. ††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 간음하지 마라 출 20:14; 신 5:18을 볼 것. †† 살인하지 마라 출 20:13; 신 5:17을 볼 것. †† 우리 조상...않았습

니까 창 15:6. ††† 창 15:6. ††† 하나님의 벗 대하 20:7; 사 41:8. § 라 합 수 2:1-21을 볼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라

4 여러분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2 여러분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탐내는 것을 가질 수 없으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또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을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구합니다. 4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여! †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5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께서는 강하게 질투하신다.” ‡는 성경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불타는 질투심보다 더 큼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

7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8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9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소리쳐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10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11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를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은 곧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12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라

13 “오늘이나 내일쯤 어느 도시로 가겠다. 거기서 한 일 년 장사를 해서 큰돈을 벌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14 여러분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생겨났다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15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살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16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5 부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칠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우십시오. 2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웃은 종이 먹었습니다. 3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녹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탐욕이 불처럼 여러분의 몸을 태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4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5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둔 살찐 짐승들처럼 되었습니다. †6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반항하지도 않는 죄 없는 사람들을 징죄하고 죽였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7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귀한 곡식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그가 가을비와 봄비를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8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9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문 앞에서 계십니다.

10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 냈습니다. 11 우리는 고통을 이겨 낸 사람들을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들었고, 또 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

말을 조심하라

12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냥 “아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

13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십시오. 14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 †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5 믿고 드리는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고침을

† 하나님...사람들이여 글자 그대로는 ‘간음한 자들이여!’ †† 하나님...질투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 하신다.” † † † 잠 3:34.

†† 여러분은...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여러분은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 여러분은...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율기를 읽을 것. ††† 장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교회를 이끌 책임을 진 사람. ‘감독’이나 ‘목자’ 라고도 불렀다(행 20:17; 엡 4:11; 딤후전 3:1-6; 딤후전 1:7, 9). †††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름을 약으로 썼다.

받도록 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sup>17</sup> 엘리야 †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삼 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sup>18</sup>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 죄인을 구하는 일

<sup>19</sup>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sup>20</sup> 그때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곧 누구든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

†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

# 베드로전서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 살아 있는 희망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4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없고, 낡아 없어질 수도 없는 유산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십시오. 7 이러한 시련이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불에 단련되었으나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을 것입니다. 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분을 뵈 수 없으면서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 이 구원은 예언자들이 좀 더 알아보려고 애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11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예언자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 뒤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들에게 일러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시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12 그들은 진리를 찾는 그 일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그들이 한 일은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 하게 하신

†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해 들은 이 일들은 천사들조차 몹시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13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에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14 여러분이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악한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15 이제는 여러분을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는 모든 일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16 성경 11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

17 여러분은 각 사람의 행동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오. 18 여러분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풀려난 것은, 금이나 은처럼 사라져 버릴 것으로 값을 치르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19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20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야 그분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2 이제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은 썩어 없어지고 말썬, 곧 세상의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4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들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 살아 있는 돌과 거룩한 민족

2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남을 헐뜯는 온갖 말을 버리십시오. 2 갓난아기처럼 순수하

† 성경 구약성경. † 내가...거룩하여라 레 11:45; 19:2; 20:7. † 사 40:6-8.



고, 신령한 젖을 애타게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3</sup>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맛보았습니다. †

<sup>4</sup>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께 나와 <sup>5</sup> 살아 있는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sup>6</sup> 성경 <sup>†</sup>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돌 하나를 시온 <sup>‡</sup>에 둔다.

내가 고른 귀한 모퉁이돌 <sup>‡</sup>이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sup>‡</sup>

<sup>7</sup> 이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sup>‡‡</sup>

라고 말한 돌입니다. <sup>8</sup> 그리고

“사람들이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돌이며,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 <sup>‡‡</sup>

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sup>9</sup>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왕의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백성 <sup>§</sup>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sup>10</sup>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sup>‡</sup>

### 하나님을 위한 삶

<sup>11</sup>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 <sup>§§</sup>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본능과 싸우고 있는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sup>12</sup> 여러분은 지금 이방 사람 <sup>§‡</sup>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여라

<sup>13</sup>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나 <sup>14</sup> 총독들을 존경하십시오. 총독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

† 여러분은...맛보았습니다 시 34:8. †† 성경 구약성경. ‡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도시. ‡‡ 모퉁이돌 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돌. ‡‡ 사 28:16. ‡‡‡ 시 118:22. ‡‡‡ 사 8:14. §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린다. §‡ 여러분이...받았습니다 다 호 2:23을 보라. §‡‡ 거류민 임시로 (외국에) 머물러 사는 사람. §‡‡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입니다. <sup>15</sup>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sup>16</sup>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핑계로 함부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sup>17</sup> 모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높이 받으십시오.

###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범

<sup>18</sup> 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인정이 많은 주인뿐만 아니라 마음씨 고약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sup>19</sup>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참아 내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sup>20</sup> 나쁜 짓을 하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도 당하는 고통을 참아 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sup>21</sup>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22</sup> “그분은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선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sup>‡‡‡</sup>

<sup>23</sup>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고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sup>24</sup>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sup>§‡</sup> 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은 상처로 여러분이 마음을 얻었습니다. <sup>25</sup> 여러분이 전에는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 아내와 남편

**3** 아내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말 한 마디 하지 않아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sup>2</sup>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sup>3</sup>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걸치장을 하지 마십시오. <sup>4</sup> 썩지 않는 장식 곧 겸손하고 평화로운 성품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sup>5</sup>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지난날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sup>6</sup> 사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입니다.

<sup>7</sup> 남편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살면서 아내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을 존중히 대접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 사 53:9. §‡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글자 그대로의 뜻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 웁은 일을 위해 겪는 고난

<sup>8</sup>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동정하고,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sup>9</sup>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sup>10</sup>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고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조심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sup>11</sup>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좇아야 한다.

<sup>12</sup>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sup>†</sup>

<sup>13</sup>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 하겠습니까? <sup>14</sup> 혹 웁은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sup>††</sup>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sup>‡</sup> <sup>15</sup>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sup>16</sup>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는 선한 행실을 헐뜯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sup>17</sup> 만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sup>18</sup>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sup>19</sup> 또한 성령으로,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sup>20</sup> 그 영들은 오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뿐이었습니다. <sup>21</sup>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sup>22</sup>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sup>‡‡</sup>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 새로운 삶

**4**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십시오. 몸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sup>2</sup>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삶을 인간적인 악한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sup>3</sup> 여러분은 지난날에 믿지 않는 사

<sup>†</sup> 시 34:12-16. <sup>††</sup>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또는 ‘그들이 위협하는 것.’  
<sup>‡</sup> 그들이 두려워하는...마십시오 사 8:12. <sup>‡‡</sup> 오른편 영예와 권위의 자리.

람들이 즐기는 일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곧 방탕과 욕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술잔치와 역겨운 우상숭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sup>4</sup>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방탕한 생활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sup>5</sup>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자기들이 한 짓을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sup>6</sup>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몸으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sup>7</sup>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sup>8</sup> 무엇보다도 먼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sup>9</sup>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sup>10</sup>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기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종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sup>11</sup>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통

<sup>12</sup>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불길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sup>13</sup>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도 기뻐서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sup>14</sup>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받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sup>15</sup> 여러분 가운데서 살인자나 도둑이나 범죄자나 혹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어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sup>16</sup>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sup>17</sup> 심판이 시작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sup>18</sup>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겠습니까?”<sup>‡‡</sup>

<sup>19</sup>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양떼

**5** 나는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나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sup>2</sup>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sup>‡‡‡</sup>를 돌보는 목자가 되십시오. 그 일을 마치 못해 역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sup>‡‡</sup> 의로운...어떻겠습니까 잠 11:31(그리스어 성경). <sup>‡‡‡</sup>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돌봄을 받아야 할 양떼와 같다.

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sup>3</sup>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서서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지 말고, 양 떼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sup>4</sup> 그러면 으뜸가는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sup>5</sup> 이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

<sup>6</sup>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sup>7</sup>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니,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sup>8</sup> 자신을 잘 다스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up>9</sup>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잠 3:34.

<sup>10</sup>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만 고통을 당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몸소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강하고 확고하고 꾸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sup>11</sup>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 끝맺는 인사

<sup>12</sup> 나는, 내가 성실한 형제로 여기고 있는 실라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었고, 특히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에 쓰인 모든 내용이 정말로 여러분을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

<sup>13</sup>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 ††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14</sup>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 바빌론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의 말일 가능성이 크다.

# 베드로후서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sup>2</sup>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다

<sup>3</sup>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당신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p>4</sup>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크고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선물들에 힘입어 사람을 멸망시키는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sup>5</sup> 여러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던 복을 받았으니, 믿음에 선함을 더하고, 선함에 지식을 더하고, <sup>6</sup> 지식에 자기 절제를 더하고, 자기 절제에 참을성을 더하고, 참을성에 경건을 더하고, <sup>7</sup> 경건에 믿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더하고, 믿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더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sup>8</sup>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더욱 자라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sup>9</sup>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눈이 근시인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sup>10</sup>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sup>11</sup>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큰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것입니다.

<sup>12</sup> 여러분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지금 간직하고 있는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잊지 않게 늘 일깨워 주겠습니다. <sup>13</sup>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새롭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up>14</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밝히 알려 주신 대로, 내가 이 몸을 벗어 버려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sup>15</sup>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sup>16</sup>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 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sup>17</sup>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그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sup>18</sup>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 위에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

<sup>19</sup>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동이 뜨고 섯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sup>20</sup>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 <sup>에</sup> 있는 어떤 예언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up>21</sup> 예언이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 거짓 선생들

**2**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 <sup>가</sup>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몰래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까지 부인하여,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앞당길 것입니다. <sup>2</sup>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부끄러운 생활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sup>3</sup>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꾸며 낸 이야기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속여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헛된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파멸은 잠들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up>4</sup>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서,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들은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sup>5</sup> 또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때에 살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던 노아와 그의 가족 일곱 사람은 살려 주셨습니다. <sup>6</sup>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성읍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앞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sup>7</sup> 그러나 무법자들의 방탕한 행동에 크게 시달림을 받던 의인 롯은 구해 내셨습니다. <sup>8</sup> 의인 롯의 영혼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동에 괴

† 우리 주...때문입니다 요 21:18-19을 볼 것.

†† 마 17:1-9을 볼 것. ‡ 성경 구약성경. ††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

로워하였습니다. 9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시련에서 건져 내시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둘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심판 날에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10 특히 죄에 물든 본성의 더러운 정욕을 좇는 사람들과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뻔뻔하고 교만하여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들 11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11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12 이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살다가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어 욕합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짐승들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13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인 자들로,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잔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신들의 방탕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14 그들의 눈은 음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무리입니다! 15 그들은 곧은 길을 버리고 브울의 아들 발람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악한 일을 하고 받은 삿을 사랑한 자입니다. 16 발람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나귀에게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말 못 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로 이 예언자의 미친 짓을 막은 것입니다.

17 거짓 선생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깊은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8 그들은 터무니없이 큰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제 막 빠져 나오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육체의 음탕한 욕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19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은 자기들도 썩은 습관에 매여 있는 종들입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무엇이든 그를 정복한 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20 그러므로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세상의 부패에서 빠져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부패에 말려들어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처음보다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21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배워 알고도 자기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아예 몰랐던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22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 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 † “돼지는 씻어 놓아도 다시 흙탕에 뒹군다.”

###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3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일깨우려고 합니다. 2 그렇게 하여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과, 우리 주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 영광스러운 천사들 글자 그대로는 ‘영광스러운 이들’. †† 개는... 먹는다 잠 26:11.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3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리라는 것입니다. 4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로도,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 전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6 또한 이 물에 잠겨 그 옛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7 그러나 같은 말씀에 의하여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로 망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8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9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11은 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12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13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 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12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에 타 녹아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열로 녹아 버릴 것입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14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15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로 쓴 것과 같습니다. 16 바울은 그가 쓰는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에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비뚤어지게 해석하듯이 그 편지의 뜻도 비뚤어지게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휩쓸려 여러분 자신의 안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8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 가십시오. 지금과 또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주님께는... 같습니다 잠 90:4. ††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또는 ‘천체들’. ††† 불에... 것입니다. 초기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있고, 한 사본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

# 요한1서

##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시다

1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 †에 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여 주셔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을 널리 알리려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우리와 사귄 †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귄입니다. 4 우리는 우리의 † 기쁨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7 하나님께서 빛 속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줍니다.

8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9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2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 생명을 주시는 말씀 글자 그대로의 뜻은 '생명의 말씀' 또는 '생명이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였다. †† 처음 이 말은 세상이 시작된 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예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킬 수도 있다. ‡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 사귄 서로 가까이 지내며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사랑, 기쁨, 믿음,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도 나눈다. †† 우리의 다른 그리스어 번역에는 '여러분의'라고 되어 있다.

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압니다. 4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5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

7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8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써 보냅니다. 이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누구든지 빛 †† 속에 산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10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사람 속에는 §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11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2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13 세상의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세상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 악한 자 ††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14 세상의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된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까닭은,

†††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 빛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 주려고 쓰인 말로서, '선' 또는 '진리'를 뜻한다. § 그 사람 속에는 또는 '그것 속에는', 곧 '빛 속에는'. §† 그 악한 자 또는 '사탄' '악마'.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악한 자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sup>15</sup>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sup>16</sup>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sup>†</sup>을 채워 줄 것들을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sup>17</sup> 이 세상은 곧 사라집니다. 세상이 낳은 욕망도 세상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 그리스도의 적을 따르지 마라

<sup>18</sup>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벌써 많은 그리스도의 적이 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sup>19</sup> 그리스도의 적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속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up>20</sup>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쁨 부으심<sup>‡</sup>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sup>21</sup>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진리에서는 결코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up>22</sup>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이요, 아버지도 아들도 부인하는 자입니다. <sup>23</sup> 누구든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모시는 사람입니다.

<sup>24</sup>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운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배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살 것입니다. <sup>25</sup>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곧 영원한 삶입니다.

<sup>26</sup> 내가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sup>27</sup>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니, 여러분에게는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sup>28</sup>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sup>29</sup>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3**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up>2</sup>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3</sup>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러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지킵니다.

<sup>4</sup>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반항합니다. 죄는 곧 법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sup>5</sup>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죄가 없습니다. <sup>6</sup>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sup>7</sup>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sup>8</sup>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신 까닭은 악마의 일을 쳐부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9</sup>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아무도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sup>‡</sup>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sup>10</sup>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악마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 서로 사랑하라

<sup>11</sup>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 온 계명입니다. <sup>12</sup>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한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sup>13</sup>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sup>14</sup>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sup>15</sup>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sup>†</sup>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그 누구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up>16</sup>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sup>17</sup> 살림살이가 넉넉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어렵게 사는 형제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sup>18</sup> 나의 사랑하는 자

† 이기적인 욕망 또는 '육체의 욕망'. ‡ 기쁨 부으심 구약 시대에 기쁨을 부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세웠다. 여기에서 이 말은 성령을 뜻할 수도 있고, 24절에서처럼 교훈이나 진리를 뜻할 수도 있다.

‡ 하나님의 본성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씨'. † 형제를...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죽이는 자라는 뜻(마 5:21-26).

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sup>19</sup>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마음에 찔림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sup>21</sup>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찔림 받을 일이 없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sup>22</sup>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sup>23</sup>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up>24</sup>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4**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믿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sup>2</sup>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라고 고백하는 예언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sup>3</sup> 그러나 예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적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세상에 오리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sup>4</sup>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 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에 와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sup>5</sup> 그들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sup>6</sup>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가졌는지 거짓의 영을 가졌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sup>7</sup>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sup>8</sup>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sup>9</sup>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sup>10</sup> 이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sup>11</sup>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sup>12</sup>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up>13</sup>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sup>14</sup>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sup>15</sup>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사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삽니다. <sup>16</sup>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사십니다. <sup>17</sup>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는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sup>18</sup>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sup>19</sup>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sup>20</sup>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으로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sup>21</sup>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입니다.

###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다

**5**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아버지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sup>2</sup>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up>3</sup>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닙니다. <sup>4</sup>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sup>5</sup>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sup>6</sup> 물과 피로 <sup>†</sup>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sup>7</sup>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가 셋 있습니다. <sup>8</sup> 곧 성령과, 그분이 받으신 세례의 물과,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피입니다. 이 셋의 증언이 한가지로 똑같습니다. <sup>9</sup> 우리는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해 주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sup>10</sup>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증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sup>†</sup> 물과 피로 물은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뜻하고, 피는 예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을 뜻한다.

† 사람 글자 그대로는 ‘영’.



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해 주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1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청한 것은 이미 모두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6 어떤 형제가 죄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의 지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

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17 의롭지 못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가 다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18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그 사람을 지켜 주시니,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19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온 세상은 악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 나의 어린 자녀들이여, 거짓 신들을 멀리하십시오.

---

† 하나님의 아들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그분'.

# 요한2서

**1** 장로 †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인 ††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 때문입니다.

**3**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4**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를 좇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5**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것은 내가 새로이 써 보내는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계명입니다. **6**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장로 여기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킬 수 있다. '장로' 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가리키나,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지도자를 뜻할 수도 있다(딤후 1:5). †† 부인 단 순히 여자를 뜻할 수도 있지만, 이 편지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인이 교회를 뜻한다면, '그의 자녀들' 은 교우들을 뜻하게 된다. † 진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또는 '기쁜 소식'.

**7**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속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8**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여, 우리가 † 얻으려고 애써 온 것을 잃지 않고, 받아야 할 상을 다 받도록 하십시오.

**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고 앞질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10**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교훈과 다른 것을 전하거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마십시오. **11** 그런 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2**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 우리가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그대가'.

# 요한3서

**1** 장로 †인 나는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sup>2</sup>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sup>3</sup> 교우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대가 언제나 진리의 길을 좇아 왔듯이, 지금도 진리에 충실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sup>4</sup> 내 자녀들이 진리를 좇아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sup>5</sup>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돕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대가 모르는 형제들 까지도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sup>6</sup> 그대의 도움을 받은 형제들이 이곳의 교우들 앞에서 그대가 베푼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sup>7</sup>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려고 나선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sup>8</sup>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 장로 여기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킬 수 있다. '장로'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가리키나,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지도자를 뜻할 수도 있다(딤후 1:5). †† 진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또는 '기쁜 소식'.

<sup>9</sup> 나는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한 나머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sup>10</sup> 그래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낱알이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못된 생각을 품고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합니다.

<sup>11</sup>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뵈지 못한 사람입니다.

<sup>12</sup>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 자체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up>13</sup> 그대에게 써 보내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종지와 먹을 써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sup>14</sup> 머지않아 그대와 만나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sup>15</sup>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곳에 있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 유다서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가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2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 하나님께서 그릇된 일 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다

3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부탁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맡기신 믿음<sup>†</sup>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4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성경에 기록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놀아나도 좋다는 허락쯤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끊어 버린 자들입니다.

5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주<sup>††</sup>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6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권세의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이 사는 곳을 떠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둘레에 있던 다른 도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앞서 말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성적 죄에 빠지고 비정상적인 육체의 욕망을 좇았습니다. ‡ 그 도시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몽상에 빠져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헐뜯어 말합니다. 9 그러나 천사장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엘은 모세의 주검을 누가 가질 것인지 놓고 악마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차마 모욕적인 말로 악마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가엘은 다만 “주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10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헐뜯어 말합니다. 더러 그들이 아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11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갔으며, 돈을 벌기 위해 발람이 갔던 그릇된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라<sup>‡‡</sup>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고라처럼 망했습니다.

12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염치없이 먹어 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기만 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뜯구름입니다. 또 추수 때가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해서 뿌리째 뽑히고 마는, 그래서 두 번 죽는 나무입니다. 13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짓을 거침없이 뽐내며 올리는 사나운 파도요, 정처 없이 하늘을 떠도는 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짙은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 아담의 일곱 번째 자손인 에녹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15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다.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모진 말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다.”

16 이들은 불평꾼들이요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좇습니다. 그리고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 조심할 것, 해야 할 것

17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앞서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18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불경건한 욕정을 따라 살 것이다.” 19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갈라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욕정을 따라 살 뿐,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터전 위에 자신들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21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22 의심을 품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23 어떤 사람들은 불<sup>‡‡‡</sup>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sup>‡‡‡</sup> 두려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 하나님을 찬양하라

24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들로 당신의 영광 앞에 기쁨에 넘쳐 나서게 하실 수 있는 분, 25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

† 믿음 ‘기쁜 소식’ 과 같은 뜻의 말. †† 주 가장 오래 되고 제일 잘 보존 된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는 ‘예수’ 라고 되어있다. 이것이 원래의 기록이라면 6절의 ‘주’ 도 ‘예수’ 라고 읽어야 한다. ‡ 비정상적인 육체의 욕망을 좇았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다른 육체를 좇았습니다.’

‡‡ 고라 민 16장. ‡‡ 불 ‘최후 심판의 불’ 을 뜻할 수도 있고, 믿는 이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나 고난의 불을 뜻할 수도 있다. ‡‡‡ 죄에 물들지 않도록 글자 그대로는 ‘죄로 더럽혀진 그들의 옷까지 미워하며.’

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 요한계시록

## 요한, 이 책에 대하여 말하다

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것으로, 예수로 하여금 머지않아 일어나야 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 요한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2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진리입니다. 3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거기에 적힌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 요한, 예수의 말씀을 여러 교회에 써 보내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과, 5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분이며,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6 그분께서는 우리를 한 왕국으로 이루시고, 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sup>†</sup>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니  
그분을 찌른<sup>‡</sup>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큰 소리로 통곡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sup>‡</sup>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분, 곧 전능하신 분입니다.

9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고난과 왕국과 인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밧모 섬<sup>‡</sup>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1 그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책으로 써서, 그것을 일곱

† 계시 감추어졌던 진리를 드러내어 알리는 것. ††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 지금의 터키. ‡ 제사장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 †† 찌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다(요 19:34). ††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 따라서 처음과 끝을 뜻한다. †† 밧모 섬 에게 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에 가까워 있다.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어라.”

12 나는 누가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금으로 된 등잔대 일곱 개가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sup>‡‡</sup>가 그 등잔대들 사이에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15 그분의 발은 깨끗이 정련된 훌륭한 놋쇠 같고, 그분의 목소리는 폭포 소리 같았습니다. 16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개의 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칼이 뿜어 나왔는데, 그 칼의 양쪽에 날카로운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마치 한낮의 해처럼 아주 밝게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자,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당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18 나는 ‘살아 있는 이’이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나는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sup>§</sup>의 열쇠를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나중에 있을 일을 글로 써라. 20 내가 본 내 오른손 안의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2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2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3 네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는 것과, 결코 그 일에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4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으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너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네가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있던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sup>§</sup>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주겠다.”

‡‡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말이다. §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 §† 니콜라당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부도덕한 성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따르던 무리.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8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9 나는 네가 겪은 어려움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이 너를 헐뜯어 말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너는 내가 겪게 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고, 너희는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sup>†</sup>을 너에게 주겠다.  
 11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12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13 ‘날카로운 양날이 달린 칼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sup>††</sup>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 또 나의 충실한 증인<sup>†††</sup> 안디바가 너의 도시,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14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두어 가지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sup>‡</sup>에게, 이스라엘<sup>‡‡</sup> 사람들을 꺾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라고 가르친 자이다. 15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에도 니골라당<sup>‡‡‡</sup>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곧 네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다.  
 17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사를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흰 돌도 주겠다. 이 돌에는,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쓰여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18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19 ‘그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 발이 빛나는 놋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네가 처음 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20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으니, 네가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는<sup>‡‡‡</sup>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내 종들을 결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한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음행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다. 22 나는 그 여자를 고난의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도, 그것에

† 면류관 글자 그대로는 ‘화관’. 화관은 나뭇잎이나 가지를 둥글게 엮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 주는 관으로, 승리와 상의 상징이다. ††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하였다. †‡ 충실한 증인 위대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사람. †† 발락 모압의 왕. 발람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다. †‡† 이스라엘 유대 나라 또는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 †‡‡† 니골라당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부도덕한 성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따르던 무리. †‡‡†† 예언자로 자처하는 이세벨은 거짓 예언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

서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겠다. 23 나는 또 그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두아디라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너희들, 곧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은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겠다.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26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질그릇 부수듯이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28 그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꼭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다. 나는 그에게 셋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데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3 “사데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너는 죽어 있다. 2 깨어나라! 네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받고 들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러나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시간에 네게 올지 모를 것이다.  
 4 그러나 사데에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5 이기는 사람은 이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6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시고 진실되시며,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분께서 여시는 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께서 닫으시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 §8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나는 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 나는, 네가 힘을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9 들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무리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은 거짓말쟁이이다. 그들은 참 유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 10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켜 왔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시련이 닥쳐 올 때에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11 내가 곧 가겠다. 네가 가진 것을 꼭 붙들어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게 하여라. 12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것이다.

§ 이 두 절은 시 2:8-9과 거의 같다. §† 그분께서 여시는 것은... 열 수 없다 사 22:22을 볼 것.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쓰겠다. 그 도시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나의 새 이름도 쓰겠다. 13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충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멘 ††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15 나는 네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거나 뜨거우면 좋겠다. 16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므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내려 한다. 17 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너 자신이 비참하고 가없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내가 네게 충고한다. 너는 내게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이 금은 불로 달구어 더러운 것을 모두 태워 버린 순금이다. 그리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네 벌거숭이 모습을 가리고, 연고를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하여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훈련시킨다. 그러니 네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힘써 노력하여라. 20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 나는 이겼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권리를 주겠다. 22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요한, 하늘나라를 보다

4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목소리, 곧 나팔 소리처럼 들리던 그 목소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 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겠다.” 2 나는 곧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3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보좌 둘레로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4 보좌 둘레에는 스물네 개의 보좌가 또 있었습니다. 그 스물네 개의 보좌에는 스물네 명의 장로 †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5 보좌에서는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햇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십니다. 6 보좌 앞에는 또한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한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생물은 황소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보였습니다. 8 이 네 생물은 각기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

는데, 심지어 날개 아래에까지 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9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10 스물네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 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11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 나는 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인 두루마리 †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을 찍어 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2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만한 이가 누구냐?” 3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 나는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5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가문에서 나온 사자, 곧 다윗의 위대한 후손 †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습니다.”

6 그때에 나는 보좌 앞 한가운데에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양은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뿔과 눈은 온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들입니다. 7 그 어린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를 받았습니다. 8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들은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기 하프를 가졌고, 향이 가득 들어 있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10 당신께서

그들을 한 왕국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11 나는 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12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만드신 영적인 도시. †† 아멘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쓰였다. ‘아멘’을 찾아 볼 것. † 스물네 명의 장로 24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12가문과 12사도를 합한 숫자라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장로들은 하늘의 의회를 구성하고, 하늘에서의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들인 것 같다.

†† 두루마리 글을 쓰기 위해 길게 말아 놓은 종이나 가죽. ††† 다윗의 위대한 후손 글자 그대로는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두루마리 글을 쓰기 위해 길게 말아 놓은 종이나 가죽.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3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14 네 생물이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6 나는 어린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첫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싸움에서 이겼고, 다시 승리를 거두려고 말을 달려 나갔습니다.

3 어린양께서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불빛과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큰 칼도 받았습니다.

5 어린양께서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 검은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때에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7 어린양께서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 내가 보니, 내 앞에 창백한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 이었고, 그 뒤에는 저승‡이 바짝 따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저승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세상의 사분의 일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죽일 권세를 받았습니다.

9 어린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10 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당신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11 그때에 그들은 각기 흰 겹옷을 한 벌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는 검은 염소 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변하고, 보름달이 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13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갈라져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두르르 말려 버렸습니다. 제 자리에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하루 품삯 글자 그대로는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볼 것. ††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사람이 죽은 뒤 가는 세상. ‡ 제단 하나님께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곳.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악과 죄와 죽음과 거짓 신들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소식. †††† 두루마리 글을 쓰기 위해 길게 말아 놓은 종이나 가죽.

15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들과, 노예와 자유인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동굴 속과 산의 바위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16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양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를 숨겨 다오! 17 그분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7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2 그때에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마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아라.” 4 그러고 나서 나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5 유다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르우벤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갓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6 아셀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납달리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므낫세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7 시므온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레위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잇사갈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8 스블론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요셉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베냐민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이렇게 이스라엘 ††의 모든 가문 가운데서 십사만 사천 명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큰 무리

9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내 앞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부족과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흰 겹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의 것입니다!”

11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빙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12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을 영원무궁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3 그때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14 나는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터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이스라엘 유대 나라 또는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

그 장로가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겂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 희게 하였습니다. 15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6 그들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그들 위에 따갑게 내려쬐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열도 그들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17 보좌 가까이 한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봉인**

8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그때 하늘은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을 모시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  
니다.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바칠 향을 많이 받았습  
니다. 그것들은 보좌 앞에 있는 황금 제단 위에 바칠 것이었습니다.  
4 향을 태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  
으로 올라갔습니다. 5 그 다음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  
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 위로 내리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  
소리가 나고 우르르하는 소리가 들리며 번갯불이 번쩍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다**

6 그러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채비를 하였  
습니다.

7 첫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서 땅 위  
로 쏟아졌습니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로 변하  
였습니다. 9 바다에 사는 생명체 삼분의 일이 죽고, 바다에 있던 배  
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습니다.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햇불같이 활활 타면서 하  
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별은 강의 삼분의 일과 샘들을 덮었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 †입니다. 물의 삼분의 일이 쓰게 변했고, 이  
쓰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  
졌습니다. 그러자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빛을 잃었습니다.

13 내가 보니,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외치  
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앙이 미치리라! 재앙이 미치리라! 아직  
도 세 천사가 불게 될 나팔 소리가 남았으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리라.”

9 다섯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  
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 ‡  
어귀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구덩이 어귀를 열자, 마  
치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듯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해와 하  
늘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3 그러자 연기 속에서 메뚜  
기 †들이 나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의 전갈 ‡  
이 가진 것과 같은 힘을 받았습니다. 4 메뚜기들은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  
다. 그것들은 이미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5 그것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전  
같이 사람을 쓸 때에 느끼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6 그 다섯 달 동안  
에 사람들은 죽을 방도를 찾겠으나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  
고 싶어하겠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7 메뚜기들은 전쟁에 나가는 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처럼 생긴 것을 쓰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습니다. 9 그것들의 가슴막이는 쇠로 만  
든 가슴막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갯짓하는 소리는 수많은 말  
과 전차가 전쟁터로 달려 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10 그것들은 전  
갈 †처럼 꼬리에 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꼬리에 사람들을 다  
섯 달 동안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11 메뚜기들에게는 왕  
이 있었습니다.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 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였  
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 §이었습니다.

12 첫째 재앙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올 재앙 두 가지가 남  
았습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황금 제단  
‡의 네 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 목소리가 나  
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  
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주어라.” 15 그들은 이해의 이 달, 이 날,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  
의 삼분의 일을 죽이라고 풀려났습니다. 16 내가 들으니, 네 천사가  
거느린 기마병의 수가 이억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17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말들과 그 말들을 탄 기사들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기사들은 불빛처럼 붉은색과 검푸른 색과 유황  
처럼 노란색의 가슴막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  
자의 머리를 닮았고,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  
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18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이 땅에 있는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였습니다.  
19 말의 힘은 입에도 있었고 꼬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20 이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들과, 금이

† 겂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 †† 썩 아주 쓴 풀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쓰라린 슬픔을 나타낸다.

‡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 메뚜기 많은 메뚜기들이 날아와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운 때가 더러 있었다(출 10장). †† 전갈 강한 독을 쓰는 곤충. ††† 전갈 강한 독을 쓰는 곤충. ††† 아바돈 구약성경에서 아바돈은 죽음 또는 파괴를 뜻할 가진 이름. (욥 26:6; 시 88:1). §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의 이름. §† 제단 하나님께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곳.

나 은이나 놋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견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sup>21</sup> 그들은 또한 살인과 악한 마술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와 도둑질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10** 그때에 나는 또 다른 권능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다리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sup>2</sup> 그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열린 채로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sup>3</sup> 그가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자 일곱 천동의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sup>4</sup> 일곱 천동이 말할 때에, 내가 받아 적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일곱 천동이 말하는 것을 비밀로 하여 두어라. 그것들을 적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sup>5</sup> 그러고 나서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sup>6</sup> 천사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더는 늦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sup>7</sup>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sup>8</sup>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열린 채 들려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sup>9</sup>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그것이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그러나 네 뱃속을 쓰리게 할 것이다.” <sup>10</sup>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니 뱃속이 쓰렸습니다. <sup>11</sup> 그때에 내가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관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두 증인

**11** 나는 측량자로 쓸 수 있는 지팡이를 받았습니 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sup>2</sup> 그러나 성전의 바깥뜰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 뜰은 이방 사람 <sup>†</sup>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sup>3</sup>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한을 주리니, 그들이 상복 <sup>‡</sup>을 입고 천이 백육십 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sup>4</sup> 이 두 증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이자, 두 개의 등잔대입니다. <sup>5</sup>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적을 삼켜 버립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sup>6</sup>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을 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sup>†</sup>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sup>‡</sup> 상복 동물의 털로 만든 거친 옷으로, 더러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입었다.

<sup>7</sup>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치고 나면, ‘바닥 없는 구덩이’ <sup>‡</sup>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짐승은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sup>8</sup> 그들의 주검은 그 큰 도성의 거리에 나뒹굴 것입니다. 이 도성은 상징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이 도성은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sup>9</sup> 사흘 반 동안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주검을 구경할 것이며, 그 주검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sup>10</sup>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주검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sup>11</sup>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고, 그들을 본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sup>12</sup> 그때에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sup>13</sup>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칠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싸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sup>14</sup> 둘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앙이 곧 닥쳐옵니다. <sup>15</sup>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이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이다.”

<sup>16</sup>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가 옆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sup>17</sup> 장로들이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큰 능력을 펼치시어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sup>18</sup> 못 민족이 분노하였으나,

이제는 당신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과

당신을 높이 받드는 크고 작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sup>19</sup> 그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sup>‡</sup>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의 궤 <sup>‡‡</sup>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sup>‡</sup>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sup>‡‡</sup>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여기서는 요한이, 유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보고 있다. <sup>‡‡‡</sup> 계약의 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글이 담긴 궤.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졌었다.

## 여자와 큰 뱀

**12** 그때에 크고 놀라운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두 개 달린 왕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sup>2</sup> 여자는 아기를 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자 아파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sup>3</sup> 그러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그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sup>4</sup> 용은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삼분의 일을 쓸어서 땅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대로 삼켜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sup>5</sup>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최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여자의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sup>6</sup>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보살펴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sup>7</sup>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 <sup>1</sup>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을 무찌르기 위해 싸웠고, 용과 용의 천사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sup>8</sup> 그러나 용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용과 용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더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sup>9</sup>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 용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sup>10</sup>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는 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시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세상에 떨치실 것이다.  
<sup>11</sup>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 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sup>12</sup> 그러므로  
너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미칠 것이다.  
악마가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악마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잔뜩 나 있다.”

<sup>13</sup>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는,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sup>14</sup>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 그리하여 여자는 광야에 자기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뱀을 피해 삼 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sup>15</sup> 그러자 뱀은 입으로부터 강물

처럼 많은 물을 그 여자 쪽으로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sup>16</sup>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으로 토해 낸 물을 삼켰습니다. <sup>17</sup> 용은 여자에게 몹시 화가 나서, 여자의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싸우려 나갔습니다.

<sup>18</sup> 용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 두 짐승

**13** 나는 어떤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열 개의 뿔과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sup>2</sup>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닮았으나,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이 자기가 가진 능력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sup>3</sup>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다 나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감탄을 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sup>4</sup> 사람들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도 섬기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 힘을 가졌는가? 누가 그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sup>5</sup> 그 짐승은 뱀내는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흔두 달 동안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sup>6</sup>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과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sup>7</sup>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sup>8</sup>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짐승을 섬길 것입니다.

<sup>9</sup>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sup>10</sup>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sup>11</sup> 그때에 나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졌으나, 말은 용처럼 하였습니다. <sup>12</sup>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나음을 받은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sup>13</sup> 그리고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환히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sup>14</sup> 그 짐승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짐승은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첫째 짐승의 상을 만듦을 하였습니다. <sup>15</sup>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상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sup>16</sup> 둘째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되는 천사.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하여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사 고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 이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8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 의 숫자입니다. 그 사람의 수는 육백육십육입니다.

###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

**14** 그때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시온 산 1에서 있었습니다. 그 리고 십사만 사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양과 함께 서 있었는 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어린양의 아버지의 이 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물이 힘차게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동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기를 연주 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3 그 사람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으로부터 구출된 십사만 사천 명 의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4 이들은 여자들과 어울려 부도덕한 성 관계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이 정절 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 갑니다. 이들은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하여 추수의 첫 열매 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 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 세 천사

6 또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 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창조 하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8 또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위대 한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모든 민족을 유혹하여, 그들 로 하여금 자기의 부도덕한 정욕으로 빛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 도 성이다!”

9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두 천사를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 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짐승의 상을 섬기고 이마나 손에 짐 승의 표시를 받았으면, 10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 실 것이다. 그것은 물을 섞어 묽게 하지 않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강한 포도주이다.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 과 어린양 앞에서 이글거리는 유황불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11 그 들을 괴롭히는 유황불의 연기가 영원무궁하도록 피어오를 것이다. 짐승과 그 짐승의 상을 섬기거나,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 은, 밤이나 낮이나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하 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13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써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한 일의 기록이 그들 의 뒤를 따를 것이니, 그들은 힘든 일로부터 쉬게 될 것이다.”

† 시온 산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 께 사는 영적인 도시를 뜻한다.

### 땅을 추수하다

14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구름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 관을 쓰고, 손에는 날이 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15 그리고 또 다 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 께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낫을 들어 거두어들이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두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16 그러자 구 름 위에 앉은 그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어들였 습니다.

17 또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도 날 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는 날이 선 낫을 가진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날이 선 당신의 낫을 들어서 땅의 포도나무 덩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19 천사는 땅 위로 자기의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 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것은 큰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20 그것은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 들이 포도를 거기에 넣고 밟았습니다. 그러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 레에 닿을 정도의 홍수를 이루어 삼백 킬로미터 가량이나 퍼져 나 갔습니다.

### 마지막 고난들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

**15**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입니 다.

2 그리고 나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 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상과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 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참되고 바르십니다.

4 오 주님,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 누구이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신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서, 당신께 경배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 의 장막이 열렸습니다. 6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가지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7 그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 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금 대접을 주었습니다. 그 금 대접에 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8 성전 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가지 재난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 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릇

16 그때에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일곱 천사에게, “가서 일곱 대접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 부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2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을 섬기던 자들 모두에게 끔찍하고 괴로운 중기가 생겼습니다.

3 둘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4 셋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강과 샘에 쏟아 부었습니다. 강과 샘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5 그때에 나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6 그들이

당신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7 또 나는 제단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판결은 참되고 올바르십니다.”

8 넷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해에 쏟아 부었습니다. 해는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9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바싹 타 들어갔고, 이러한 재난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10 다섯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왕국이 어둠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워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11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고통과 중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짓을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2 여섯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13 그때에 나는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을 보았습니다. 그 영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 1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4 그들은 기적 11을 행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올 때,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왕들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15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벌거벗고 다니다가 부끄러운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16 그때에 세 악령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았습니다.

17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들어 있는 것을 공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다!” 18 그러자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19 그 큰 도성이 세 조각이 났습니다. 못 민족의 도시들

† 거짓 예언자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사람. †† 기적 여기서는 악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기적을 말한다.

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도성 바빌론을 벌하실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당신의 무서운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을 바빌론에 내리셨습니다. 20 모든 섬이 달아나고, 산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사람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박 하나의 무게가 일 달란트 11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재앙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 짐승을 타고 앉은 여자

17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강 가까이에 앉은 유명한 창녀 11가 받을 벌을 네게 보여 주겠다. 2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주는 간음의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했다.”

3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덮여 있었고,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이 잔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여자가 저지른 간음죄의 더러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 여자의 이마에는 숨겨진 뜻을 가진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바빌론,

이 땅의 창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

6 내가 보니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의 피로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7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와,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숨겨진 뜻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8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살아 있지 않다. 그것이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 11에서 올라오겠지만,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천지창조 때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인 적이 없는 땅 위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면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살아 있었고 지금은 살아 있지 않으나,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9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언덕이며 또한 일곱 왕이기도 하다. 10 그 가운데 다섯 왕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한 왕은 지금 다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오더라도 잠깐 동안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11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데, 그것은 일곱 가운데 하나이며,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12 내가 본 열 개의 뿔은 열 명의 왕이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 노릇 할 권한을 받을 것이다. 13 이 열 명의 왕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힘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다. 14 그들은 어린양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분은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15 그때에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창녀 11가 앉아 있는 강들을 보았다. 그 강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 달란트 구약 시대에는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4킬로그램이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약 20킬로그램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다. † 창녀 몸 파는 여자. ††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 창녀 몸 파는 여자.

다. <sup>16</sup> 네가 본 짐승과 열 뿔은 창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가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의 몸을 먹고, 그 여자를 불로 태울 것이다. <sup>17</sup>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 뿔의 마음에 어떤 계획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계획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기로 뜻을 모을 것이다. <sup>18</sup>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가리킨다.”

### 바빌론이 무너지다

**18**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sup>2</sup> 천사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위대한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 되고  
모든 악한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모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sup>3</sup> 이는,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부도덕한 정욕으로 빚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들은  
그 여자와 더불어 음탕하게 놀아나고,  
세상의 장사꾼들은  
그 여자의 지나친 사치 바람에  
부자가 되었다.”

<sup>4</sup>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당할 재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sup>5</sup> 그 여자의 죄가 쌓여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저지른 범죄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sup>6</sup> 그 여자가 준 만큼  
그 여자에게 돌려주고,  
그 여자가 한 짓을 두 배로 갚아 주어라.  
그 여자가 부어 준 독주의 잔을  
두 배로 독하게 하여 되돌려 주어라.

<sup>7</sup>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였으니,  
그 여자에게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다.  
나는 홀어미가 아니다.  
나는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sup>8</sup>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  
그 여자는 불타 없어질 것이다.

<sup>9</sup> 그 여자와 더불어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고 사치를 같이 누리던 세상의 왕들은, 그 여자가 타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눈물

을 흘리며 그 여자의 멸망을 슬퍼할 것이다. <sup>10</sup>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에 잔뜩 겁을 먹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화로구나! 오 위대한 도성이여, 화로구나!  
위대한 힘의 도성, 오 바빌론아,  
한순간에 심판이 너를 찾아왔구나!’

<sup>11</sup> 세상의 장사꾼들은, 더는 자기들의 물건을 사는 이가 없어서, 그 여자를 위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sup>12</sup> 그들이 팔던 물건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모시와 자주색 천과 비단과 주홍색 천과, 온갖 향내 나는 목재와 상아로 만든 갖가지 물건과, 값비싼 목재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이다. <sup>13</sup> 그들은 계피와 향신료와 향과 연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 곧 사람까지 팔았다.

<sup>14</sup> 그들은 말할 것이다.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사라졌다.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네게서 없어졌으니  
아무도 다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sup>15</sup> 이런 물건을 그 여자에게 팔아서 치부하였던 장사꾼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에 잔뜩 겁을 먹고 멀리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sup>16</sup> 이렇게 외칠 것이다.

‘화로구나! 오 위대한 도성이여, 화로구나!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값진 보석과 진주로 번쩍이던 도성아!  
<sup>17</sup>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구나!’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sup>18</sup> 그 여자가 타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일찍이 이 위대한 도성과 같은 도시가 있었던가?’ <sup>19</sup>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화로구나! 오 위대한 도성이여, 화로구나!  
바다에 배가 있는 사람은 모두  
그 도성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도성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sup>20</sup> 오 하늘이여, 이 도성을 두고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기뻐하라!  
그 도성이 그대들에게 한 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심판하셨다.”’

<sup>21</sup> 그때에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바위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바위의 크기는 큰 맷돌만 하였습니다. 천사는 바위를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도  
이렇게 사납게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그 자취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sup>22</sup> 하프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가락이  
다시는 네 안에서 들려오지 않을 것이요,  
어떤 종류의 기술자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sup>23</sup> 등잔불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새어나오지 않을 것이요,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사꾼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쳤고  
너는 네 마술로 모든 민족을 속였기 때문이다.  
24 그리고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네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19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우렁차게 외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오

영광과 권능은 그분의 것이다.

2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바르기 때문이다.

음행으로 세상을 썩게 만든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당신의 종들의 피 값을

그 여자에게 물리셨다.”

3 그들이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4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 그때에 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6 그때에 나는, 큰 무리가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시네.

7 어린양의 결혼식 때가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는 준비를 갖추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8 신부는 밝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네.”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합니다.)

9 그때에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렇게 써라.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10 이 말을 듣고 나는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너나 네 형제자매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신 성령님을 힘입어 예언하기 때문이다.”

†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 라는 뜻.

### 흰 말을 탄 기사

11 그때에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는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고 참된 분’ 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의 몸에는, 그분 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3 그분은 피로 적신 옷을 입고 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입니다. 14 하늘의 군대가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긴 포도를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들의 왕, 모든 군주들의 군주’ 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7 그때에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저녁 잔치에 오너라. 18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기사들의 살과, 모든 사람의 살 곧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19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흰 말을 탄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짐승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전에 이 기적들을 보여 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속였던 자입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 못에 내던져졌습니다. 21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가 부르도록 뜯어 먹었습니다.

### 천 년

20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바닥 없는 구덩이 †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2 천사는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서 천 년 동안 사슬로 묶어 두었습니다. 3 천사는 용을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고는, 그 위에 있는 구덩이 문을 닫고 도장을 찍어 봉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천 년이 다 지날 때까지 용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합니다.

4 나는 여러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의 상을 섬기지 않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 (다른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다 지나기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 둘째 죽음은 이들에게 힘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 그분은...다스리실 것입니다 시 2:9. ‡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린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을 무찌르다**

7천 년이 지나면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8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숙이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을 터인데, 모인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9 사탄의 군대는 땅을 가로질러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진터 1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의 돌레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10 그들을 속인 악마는 유향이 타는 불 못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 11가 던져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다**

11 그때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이 하나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한 일이 그 책들에 적혀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죽음과 저승 14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한 일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나서 죽음과 저승은 불 못에 내던져졌습니다. 불 못은 둘째 죽음입니다. 15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불 못에 내던져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21 그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지나가 버렸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2 나는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 1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맞으려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차려 입고 있었습니다. 3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더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세상과 그 안에 있던 이러한 악들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참되고 믿을 수 있으니 받아 적어라.”

6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2이며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에서 나는 물을 거저 주어 마시게 하겠다. 7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치 못한 자들과 혐오

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가지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향이 타오르는 불 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채워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양의 아내인 신부를 네게 보여 주겠다.” 10 그는 성령의 힘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 찬란한 빛은 마치 희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맑기는 수정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열두 개의 문이 있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열두 가문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들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은 열두 개의 주춧돌 3 위 에 세워져 있었고, 그 주춧돌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측량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16 도성은 정사각형처럼 짜여 있어서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도성을 재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 4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니, 그 두께 5가 사람의 치수로 백사십사 규빗 6이었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치수로 재고 있었습니다. 18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수정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 7들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였습니다. 20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황보석, 여덟째는 녹주석이었습니다.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열두 개의 문은 곧 열두 개의 진주였습니다. 도성의 큰 길은 수정처럼 맑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환하게 밝혀 주고, 어린양이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못 민족이 그 빛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자기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문을 닫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민족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27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속이는 사람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올라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수정처럼 맑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나와, 2 도성의 큰길 한가운대를 흘러 내렸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3 그곳에 더 이상 저주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

† 진터 군대가 머물러 있는 곳. ††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 ‡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 †††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도시. †††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 주춧돌 건물을 세울 때 맨 아래에 넣는 돌. †††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183미터. 따라서 12,000스타디온은 약 2,200킬로미터. § 두께 또는 '높이'. §† 규빗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따라서 144규빗은 약 65미터. §†† 주춧돌 건물을 세울 때 맨 아래에 넣는 돌.

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sup>5</sup>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sup>6</sup>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들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 <sup>7</sup>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sup>8</sup> 나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듣고 본 다음, 내게 이것들을 보여 준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sup>9</sup>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너나 네 형제자매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쓰여 있는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sup>10</sup> 그러고 나서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들을 봉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sup>11</sup>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내버려 두고, 부정한 자는 부정한 채로 내버려 두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옳은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하여 거룩한 채로 있게 하여라.

<sup>12</sup>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겠다. <sup>13</sup>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sup>14</sup>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고 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들의 걸옷을 빼는 <sup>††</sup> 사람들은 복이 있다. <sup>15</sup> 악한 사람들, <sup>‡</sup> 마술쟁이들,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아 행하는 자는 모두 도성 바깥에 남게 될 것이다.

<sup>16</sup>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 곧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sup>17</sup> 성령과 신부가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두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십시오.

<sup>18</sup> 나는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쓰여 있는 재앙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sup>19</sup>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있는 말들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쓰여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 사람의 몫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sup>20</sup>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sup>21</sup>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

†† 자기들의 걸옷을 빼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을 뜻한다. † 악한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개들’. †† 21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 이 덧붙여 있다.